

## 目次

책머리에

### 1장 걸모습이 다르고 알맹이는 더 다른 미국

병 깨지 마세요!

법대로 살 수 있죠?

배고픈 사람에게 예절을 가르친다?

법대로 사는 사람 데려와 봐라!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

내과 의사 에릭의 초인종

Robin의 오줌과 삼각관계

누가 하느님을 남성이라 했던가?

사계절을 하루에 달리는 자동차

벌금의 무서운 힘

알미운 여경관

아무리 해봤자...

웬걸! 위법하는 양심?

취하려 마신다? vs 마시려 취한다!

릴렉스와 주정 사이

프로는 스스로 관리한다

누구와도 Sex할 수 있어, 얼마든지...

초록색 햇님

Yes냐 No냐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

못된 이유

번덕도 내 맘인걸!

Love is fantasy, Loving is work.

내 아파트가 네 아파트?

워싱턴의 사교계

저널리스트 아니면 예술가?

Bullet 대신 Ballot !

占. 占. 占.

연적이 딸이라니  
튜울립을 좋아하는 점성술가  
나는 무슨 별자리?  
환상이 깨어지면 슬픔이 기다릴까?  
응급실의 이방인 자연치료술사  
My mother!

과거에 얼마이면 왼발이 무겁고  
흑인이 恨의 문화라니 웬 말?  
왜 우리 노래는 슬프지?

혼자였어도 행복했어요!

잘못하면 총 맞을 일

손에 쥐어야 든든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北女와 南男의 부부싸움

꼭 집어서 구체적으로!  
바늘끝으로 파서 핀셋으로 뽑아내야  
지우개가 사람을 지운다?  
주판알 튀기는 유권자  
일보다 사랑이 중요해요!?

情이란 무엇인가

마음대로 돌아 다닐 자유  
병들고 어승령거리기  
헌법에 써 있어요!  
칼라로 사고하세요!

바위읽기  
화장한 여인숙 주인  
준비됐어요?  
바위읽기, 마음으로 하는 체스게임  
오후의 해프닝, 시도해!  
결과만 좋으면 대순가?  
바위타기 중독자  
너를 믿지 않았으면

미국의 Lawyer

공포의 여교수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개인차이

Manhattan의 등잔불 밑은 어둡다.

멋이 맛에서 나왔다는데...

맨해튼의 준조세

마약도 기호품

그렇게 용감해도...

## 제2장 여행과 여행사이

Hitchhiker와 위기일발

## 제3장 한발 떨어져서 보면 '우리' 가 보여요

성수대교를 공격한 테러리스트

X세대가 채워야 할 x

정체불명이라고 X?

9살 꼬마의 사생활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1주일간

전쟁의 악몽 때문에?

잘못된 표현, Visit Korea year

압구정동은 캘빈클라인의 이터너티?

여자가 대우받는 나라는 틀림없이 선진국!

대화 없는 건물들

들어 갈 때 밀고 나올 때 당긴다.

TV 뉴스

광고, 드라마 그리고 쇼 프로

고민되어도 즐거워!

부부사이는 누구도 몰라

남편은 의치증 환자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면?

부부사이는 누구도 모른다!

죄없는 사람에 보이지 않는 형벌

담배꽁초와 순경

나쁜 버릇 고쳐야지!

함흥차사가 준 교훈

## 제4장 가자, Law School로!

국제변호사가 꿈이라는데...	285
유학을 부추킨 공포의 '도로점용료 조정건'	287
우리 나라 법률시장의 과제, 개방과 전문화	293

먼저,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	299
유학지망생의 마음과 사정담당자의 마음	

유학지망생의 마음가짐	302
사정담당자의 마음	304

두려움 없는 도전으로	308
-------------	-----

글을 마치며	310
--------	-----

## 책머리에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던 1992년, 국비 유학의 기회를 얻어 미국사회를 엿볼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가졌다. 콜롬비아 로스쿨(Columbia law school)에서의 학업과 뉴욕 시에서의 근무 기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색다른 경험이었다. 우리 나라에 돌아 와 그곳에서의 경험담과 느낀 바를 주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더니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졌으면 하는 권유와 채찍이 있었다. 주위의 부추김과 나의 무모함으로 펜을 들게 되었고 그것이 조그만 분량이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막연히 상상했던 미국과 현지에서 피부로 느끼는 미국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알맹이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알던 미국은 가짜였다. 물질적인 면에서 앞선 미국의 모습보다는 정신적인 면에서 선진화된 미국 사회의 내면 즉, 법과 제도의 조화로움과 시민의 정직성, 책임의식, 여유로운 마음에서 넘치는 그들의 경쾌함과 행복감이 부러웠다. 그리고 이점은 '세계화' Globalization 시대에 사는 우리가 꼭 배워서 터득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깊이 들었다.

한 사회를 횡·단면으로 조망하는 데 있어 사람, 제도, 환경의 세 시각이 필요하다. 이 지면은 주로 미국인의 의식과 사고에 중점을 둔 단면적 고찰이다. 물론 미국 사회의 장점과 우리의 단점이 비교 부각되어 얼핏보면 "미국은 선생, 우리는 학생"이라는 관점에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신의 단점을 직시하고 다른 민족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모자란 점을 채울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지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는 넉넉한 여유를 자랑으로 이어 내려온 민족이 아니던가. 우리가 모자란 점을 채우면 "한국은 선생, 미국은 학생" 이 된다.

지금 우리 모두 각자는 막 이륙하는 비행기의 조정사인 셈이다. 이륙이 순조롭고 신난다고 해서 안전벨트를 풀 수 없다. 일정 고도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조심스레 운전해 전념하고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제도와 법과 시민의식이 조화를 이루도록 모두가 노력하면 이 땅에 사는 행복감이 그득한 밝은 미래가 눈 앞에 성큼 다가오리라 확신한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 아버님과 나를 새롭게 해 준 그녀에게 가슴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채찍을 가한 재정경제원의 구본진 서기관, 정규상 사무관, 공보처 장관 비서실장 송수근 등 삼우회 회원들과 도두형 변호사, 독자들의 반응을 수집해 준 박용신 사무관께 감사한다.

1995년 7월

김무상

# 제1장

## 겉모습이 다르고 알맹이는 더 다른 미국

## 병 깨지 마세요

미국인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프라이비트 존 Private Zone 이라는 개념이 있다.

미국 생활 초기에 나는 맨해튼에서 제법 번잡한 백화점이나 전철을 걸을 때 다른 사람과 살짝 부딪히거나 옷 깃을 스쳐도 별 생각 없이 가던 길을 계속 가곤 했다. 비좁고 붐비는 곳에서 사람끼리 가볍게 접촉하는 것은 불가피한 양해 사항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번잡한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미국인들은 서로 부딪히는 법이 거의 없음을 감지한 것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였다. 어쩌다 살짝 옷깃을 스치기만 해도 "I am sorry!" 또는 "Excuse me!" 라는 반응이 즉각 나온다. 이런 반응은 단지 예절이 바르다라고 해석되는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들에게는 Private Zone - 자신의 사적인 영역 - 이라는 관념이 있다.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일정 공간은 자신의 사적인 고유한 것으로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은 때와 장소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지만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언제나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 타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이 공간에 들어오는 것은 적대적인 행동 내지 침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상대방의 공간을 침입하게 되면 적대적 이움을 해명하려는 의도로 "I am sorry!" 또는 "Excuse me!" 라는 반응이 반사적으로 나온다.

맨해튼에는 Bottle People로 불리는 족속들이 있다. 뉴욕에 도착한 후 이곳 사람들은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다. 애비뉴 avenue라 불리는 남북으로 뻗은 길은 250m이고, 스트리트 street라 불리는 동서로 뻗은 길은 80m 거리로 열 블록 내지 스무 블록은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다닌다.

걸으니 상쾌하고 걷다 보면 사방에 구경거리다. 거리의 사람들, 상점과 진열된 상품들, 건물들... 혼자 걸어도 이런 다양한 것들과 보이지 않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시간가는 줄 모른다. 한 달이 지난 후론 나도 가까운 약속 장소는 삼 사십 분의 여유를 두고 일찍 출발하여 도보하는 여유를 즐기기 시작했다.

9월의 이른 저녁 무렵, 나는 약속 장소를 향해 집을 나섰다. 고층 건물 사이로 땅거미가 스며들고 네온사인의 불빛이 하나 둘 켜지면서 퇴근 시간의 인파가 거리를 메우기 시작하며 이 거대한 도시는 밤의 황제로 변신하는 거친 숨결을 꿈틀거리고 있었다. 아, 이곳이 그 뉴욕 뉴욕이구나. 감상에 젖어 길을 걷던 내가 무슨 일을 만났구나 하고 멈춘 곳은 횡단 보도에서였다.

누군가가 허리를 굽혀 떨어진 마분지 봉투 속에 있는 무엇을 살펴보면서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벅 타이는 매지 않았지만 양복과 와이셔츠 차림의 말쑥한 백인이었다. 나는 가벼운 접촉이 만든 눈 앞의 결과에 당황했고, 횡단 보도 상에서 경황이 없는 터라 "I am sorry!" 란 말과 미안하다는 표정을 남기고 횡단 보도를 빠져 나와 약속 장소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주 살짝 스쳤는데 봉투를 놓쳤으니 번잡한 거리에서 딱 잡지 않고 길을 가는 그의 잘못이 나보다 크다고 생각했기에 거리낌이 없었다.

몇 미터 걸었을까 뒤에서 "Hey, Man!" 나를 부르는 소리가 났다. 그의 억양으로 보아 순수 미국 사람이 아닌 남미 계통인 것 같아 보였다. 그는 "파티 모임에 가려고 술 두 병을 사 가지고 가던 중이었는데 깨졌다." 며 물에 젖은 듯한 봉투를 슬쩍 열어 보이고는 두 팔은 벌려 난감하다는 표정이다. 두 병이 150불이니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50불을 주면서 "아주 미안하다. 이 정도 현금밖에 없어 더 도와 줄 수 없다."고 사정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다.

그 일이 있던 후 두 달이 지났을까 일본인 친구와 길을 걷고 있었다. 이 친구가 갑자기 저 발치에서 마분지

봉투를 들고 오는 두 흑인을 발견하고 "Bottle people! Bottle people!" 외치며 길을 건너 피하자며 내 손을 끌고 황급히 길을 건넜다. 나는 영문을 몰라 도대체 무슨 일이며 Bottle People이 누구냐고 물었다.

특히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 등 주로 동양인 중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길을 건너 이곳에 익숙지 못한 몸짓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가 된다. 그들은 마분지 봉투에 물병을 넣고 다니면서 지나는 행인과 살짝 스치거나 미리 알고 피해 가는 사람도 쫓아 가서 부딪히고는 깨진 술병을 변상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아까 같이 2인조의 경우는 돈이 없다고 사정하면 으스스한 골목까지 유인한다고 하니 아예 길을 건너 피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왜 하필 동양인들이 그들의 주 표적이 되는가. 동양인들은 단체주의의 문화와 전통으로 Private Zone 개념이 없어 공공장소에서 타인과 부딪히는 것에 예민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 중의 하나라고 것에 이 일본인 친구와 생각을 같이 했다.

아무튼 이러한 물리적 개념의 Private Zone이 정신적 Private Zone 개념으로까지 연장되어 일상 생활과 사회 문화 전반에 반영되어 있음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개인주의와 이에 바탕을 둔 미국적 자본주의, 사회 체제의 의미, 그들의 정서, 책임 의식, 프로 정신 등 미국의 문화와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가 진전되기 시작했다.

## 법대로 살 수 있죠?

배고픈 사람에게 예절을 가르친다?

동양 문화권에 속하는 우리 사회는 인간을 바라보는 눈이 서양 문화권과 다르다. 특히 우리는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다루어야 바람직한지에 대해 유교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인간은 동물 같은 욕망이 있지만 이것을 억누르고 다스릴 수 있다. 이것이 동물과 다른 점이다. 본능과 욕구를 얼마나 잘 억누르느냐를 기준으로 군자로서 효자로서 또는 열녀로서의 품격이 저울질된다. 그래서 극기가 으뜸 되는 덕목이다.” 우리 나라 고전을 통하여 배우는 조상의 마음가짐이다.

한 마디로 우리 마음 중에 동물적인 욕망은 악한 것이고 사람이 사람다운려면 이 악성을 제거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닦고 수양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욕망을 잘 다스려 파도타기와 같은 생활의 즐거움으로 승화시킨다기보다는 무조건 억누르고 보자는 생각이 짙다. 인간의 악성을 자연현상으로 인정하고 인간 속성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보다 뿌리째 제거하려 한다.

이것이 아직도 우리의 생각 중에 알게 모르게 작용하여 서구의 물질문화와 갈등을 겪고 있다. ‘資(물질)’가 ‘本’인 자본주의에 살면서 물질을 추구하는 욕망을 억눌러야 하는 딜레마이다. 그래서인지 욕구를 ‘억누르는 마음가짐’이 자본주의를 ‘소화’하는 바람직한 마음가짐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듯하다.

미국의 제도나 법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인간성과의 조화이다. 인간성을 ‘있는 그대로(如來)’ 인정하고 각 개인의 인간성이 전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와 법률이 꾸며져 있다. 각 개성은 그 자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배어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technology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선함과 악함을 있는 그대로 자연현상의 일부로 이해하고 양면의 조화를 이루려 노력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인간의 악성을 한탄하고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 위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사회 체제 system를 정교화시키려 노력한다. 인간의 본성 내지 본능을 제거하거나 가공하려고 하기보다 그것 자체의 자연스러움과 역동성을 이해하고 ‘자연’과 자연의 일부인 ‘인간집단 사회’가 조화되어 평온함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system 전체에서 작은 기계 부속품처럼 다뤄지는 각 개인의 인간성 상실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현대 사회가 거대 자본주의화 - 대량생산 대량소비화 - 됨에 따라 개인 혼자서는 그 무엇도 창조할 수 없고 조직 systema만이 창조와 생산의 근원이 되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그래서 인간이 조직의 작은 기계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체념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인간의 인격과 노동력이 부당하게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완적 처방이 갖춰져 있다. 즉 개인의 Privacy를 철저히 보장한다. 동시에 누구나 공익과 관련되는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뚫고 들어가는 정교한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이밖에 빈익빈, 부익부, 개인의 자유마저도 정부가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는 피동성, 도피적인 정치적 사회적 무관심, 거대 집단의 횡포, 상업적 매스미디어의 마취적 기능 등등... 난제들이 쌓여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발전된 모습이 부럽다. 아무튼 인간성을 살아 있는 역동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생활하다 돌아와 보니 상대적으로 우리 나라 사회의 부자연스런 면이 많이 느껴진다.

미국에 있을 당시 나는 공무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 문제를 예로 들어 보겠다.

공무원 보수가 적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적정 수준으로 쉽게 갈 수 없는가. 물론 각 나라마다 이유는 다르지만 공무원 보수가 민간 기업보다는 적은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부패의 제도화라는 악성 고리를 단절할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격차가 심하다. 상식이하다. "배고픈 자에게 예절을 가르칠 수 없다." 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국민 상식이다. 배고픈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예절은 인간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무리 없이 물 흐르듯 굴러가려면 인간의 자연 속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고 제도라는 인간의 법칙을 자연의 법칙에 일치시키려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구석구석에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반타성 반체념으로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감지하더라도 당장 고쳐져야 한다는 열정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푸념 내지 체념으로 허공에서 떠돌다 증발하고 만다. 어린이의 눈에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어른들 세계에서 통하지 않으니 어른이 참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집에서 배우고 책에 써 있는데 어른들은 반대로 하니까 정말 혼란스럽다. 또 다른 기준을 배워야 한다.

미국이 왜 선진국이나 한 마디로 제도라는 '인간이 만드는 법칙'이 이를 운용하고 지키는 '인간의 자연 속성'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꼬이 일 없고 속이 멍들 일 없다. 몸에 잘 맞는 편안한 옷을 입은 격이다. 법과 제도가 상식과 일치되어 있고 상식은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법대로 사는 사람 데려와 보래!

뉴욕시의 건축관련법은 무척이나 복잡하다. 건설 연대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고 상세한 규제가 열거되어 있어 일반인으로서의 따라 가기가 힘들다. 우리의 건축법규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하고 자세한 법규에 사회적인 비판의 소리는 거의 없다.

법규의 취지에 관련된 요구 서류가 중복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민원의 소지가 없는 것도 그 이유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법의 규정이 너무나 상식과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어 굳이 법규의 내용을 확인하고 완전히 이해할 필요 없이 자신의 상식을 따르면 별 위반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 집을 짓는데 이렇게 하면 이웃이나 길가는 행인에게 피해가 갈 듯하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면서 추진했다고 치자. 나중에 보니 법에 위반된 결과가 되었다. 어찌나. 사정없다. 한마디로 완전히 부순다. 이미 얼마를 투자했건, 누구의 집이었건 봐 주는 일이 없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말짱 도루묵이다. 따라서 이런 모험을 감행할 어리석은 시민은 별로 없다. 법의 규정이 소위 재량 내지 공백규정이라도 그 빈 곳은 상식으로 자연스럽게 메꿔진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법규정이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법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지키는 것조차 엄두가

안 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교통관련법규이다. 너무나 상식과 현실이 맞질 않아 법을 지키는 시민이나 법을 집행하는 경관이나 모두 이중 기준을 써야 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통단속한다 하면 이 기간 동안 시민은 더욱 조심한다. 따라서 평상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한다면 위반 건수는 평상시보다 적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언제나 발표 건수는 평시보다 많다. 이것은 평시에는 현실적인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단속기간에는 엄격한 비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이중성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단속기간중 위반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저 단속 강도의 지표 내지 당국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는 지표로만 해석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그 이중성에 대하여는 놀라와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일이다. 아마도 이것은 하나의 일례이지만 주위 구성구석이 이러한 이중구조로 뒤덮여 있고, 우리의 사고도 이중성으로 가득 차 있음을 직시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법규정이 상식과 일치하지 않아 비현실적이다 보니 재량권이란 사정을 봐 주느냐 마느냐 하는 집행자의 권세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재량권을 당연히 자신의 고유한 권력으로 인식하는 집행자가 실제 의외로 많다는 사실은 사회적 경종을 요한다. 이러한 문제는 교통 관련법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인 조항을 담은 여러 규제 행정분야 전반에 만연되어 있어서 준법정신을 퇴색시키고 불신과 부패를 조장시키는 제 1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싶다.

"법을 지키면 바보가 되고 사회의 낙오자가 된다. 성공한 자 중에 법대로 사는 사람 있으면 데려와 보라." 요즘 시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목소리이다. '준법이 자신에게 이익은커녕 불이익과 불명예를 가져온다. 들키지 않은 위법이 생활의 지혜다.' 라는 얘기다. 걱정이 되는 지경이다.

따라서 '상식과 인간의 본성에 입각한 법규와 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하루빨리 '법을 상식에 일치시키는 작업'을 국정의 제 1과제로 삼는 것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도 이중성에 젖어 있는 듯 싶다. 한마디로 매 생각마다 이중 기준을 쓰고 있고 '진짜 이유'보다 '그럴듯한 이유' 내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말하고 있다. 완전 거짓말도 아니고 선의의 거짓말 white lie도 아닌, 남을 속이는 거짓인데 선의인지 악의인지 불분명한 회색지대의 거짓말 gray lie이 너무나 많아 '정직성이 무너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될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것이 타성에 젖어 스스로 모르고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의 전반적인 계층에 만연되어 있으면서도 사회적 경종을 울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

미국이란 사회에서 '남성의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를 느꼈다.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경험담을 소개할까 한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다. 뉴욕은 우리와 같이 사계절이 있으나 봄과 가을이 아주 짧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온 듯하다가 어느 날부터 뜨거운 여름이 계속된다. 추운 겨울이 지나 3월말쯤부터는 쌀쌀했다 포근했다 날씨가 오락가락 한다. 며칠간 포근하다고 겨울옷을 장 속 깊은 곳에 집어 놓으면 오산이다. 갑자기 다음날 기온이 뚝 떨어지면 비록 영상 10도 썩의 기온이라도 허드슨강의 찬바람으로 겨울처럼 춥게 느껴져 두꺼운 코트를 입어야 저녁 때 떨지 않는다.

그래서 길거리에 봄차림의 가벼운 옷을 입은 사람 중에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은 사람이 종종 눈에 띈다. 기온의 변화에 예민한 사람들이다. 가끔 화창한 봄별에 밉크 코트를 걸친 여성도 지나간다. 나는 예전에 가벼운 옷차림의 군중 속에 밉크코트를 입고 지나가는 여인의 사진을 보고 새로운 유행인가 생각한 적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생활해 보니 그녀는 개성을 담은 멋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온 변화에 예민하기 때문임을 알았다.

우중충한 겨울이 지나 햇볕이 나는 날이 점점 많아지지만 우리의 봄날과 같은 포근하고 화창한 날은 손뼉을 정도다. 휴일과 겹치는 이런 날 창 밖을 내다보면 저쪽 아래 아파트 옥상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쌍쌍의 남녀가 보이고 멀리 센트럴 파크의 초록색 잔디가 소풍 나온 사람들의 옷 색깔로 울긋불긋 보인다.

거리에는 산보를 하며 포근한 날씨를 즐기는 사랑하는 남녀가 걸어가고 길가에 내놓은 식탁에서 다정히 얘기를 나누며 점심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 내과의사 Erick의 초인종

화창한 봄날 도서관 앞 잔디에서 풀 내음을 맡으며 시간을 보내다 오는 길이었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잘 생기고 체격이 근사한 남자와 마주쳤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녁 인사를 한다. 나도 인사로 응답했는데 말을 건네는 것이 매우 사교적이다. 나보다 두 층 위인 24층에 사는 에릭 Erick 이라며 마침 이번 토요일에 몇 사람을 초대할 예정인데 의향이 있으면 환영한다는 것이다. 자신은 내과의사라며 부르클린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일한다고 한다. 알았다고 대답하고는 그 일을 잊고 토요일 오후에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다.

8시 가량 되었을까.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었더니 그 의사와 세련된 한 흑인이 문밖에 서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같이 가자." 며 손을 내민다. 그 성의가 고맙게 여겨져 잠시 뒤에 가겠다고 대답하고 대충 청소를 마치고 옷을 갈아 입었다.

그곳에 들어서니 미국인뿐만 아니라 영국 이태리 프랑스 홍콩 브라질 등 다양한 민족이 열 다섯 명 가량 좁은

공간에 모여 있었다. 그날은 Erick의 생일이다. 그는 아파트에 사는 세 명의 의사 중 한 명이라 급할 때 사람들을 도와줘서인지 아파트 내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고 그중 친한 사람을 초대한 것이다. 그래서 서로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었고 나만이 초면이어서 인사를 나누고 이름을 기억하느라 혼이 났다.

이곳은 파티문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티라 해서 모두 거창한 것이 아니다. 모여 얘기를 나눈다는데 관심이 있다. 각자 음식 하나씩 준비해 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식사를 한 후 모여 차 한잔만 대접받는 파티도 있다. 학생들 사이에선 주문한 피자과 맥주 몇 병을 준비한 파티가 일반적이다.

파티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도 자신의 사적인 경험과 취향을 거리낌없이 말하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다. 처음 만난 사람과 공통된 대화 토픽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선 간단하다. 자기 자신이 보고 느낀 사소한 것들이 대화 토픽이다.

우리 문화가 뻔 나오려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내가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것이 여간 쑥스러운 게 아니다. 특히 자기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것으로 비춰져 눈살을 찌푸리거나 앓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심해 진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곳 생활에 적응하면서 깨쳤다. 그래서 파티는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을 듣고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졌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정서를 보다 많이 이해하면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모두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실감했다.

그 모임 이후로 아파트 내의 여러 사람을 알게 되었고 생활 정보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Erick은 34살의 쿠바인으로 의사답지 않게 부지런히 몸을 가꾸어 잘 발달된 근육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내 처녀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하다. 그리고 파란 눈을 가진 예쁜장한 얼굴에 키가 큰 미국인 빌리 Billy와 같이 산다. Billy는 보험회사의 외판사원으로 매우 친절하고 그 요리 솜씨가 대단하다. 두 사람 모두 미남에다 Erick은 의사로서 이웃을 잘 돌보고 Billy는 친절하여 한 아파트 내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에게 열쇠를 맡겨 배달되는 생수를 대신 받도록 부탁하거나 두 사람이 휴일을 이용해 멀리 다녀 올 때는 로빈 Robin을 맡길 정도로 친하게 되었다.

Robin은 이들이 애지중지하는 미국산 애완용 강아지로 이웃의 동의를 얻어 이들의 식구가 되었다. 바쁘지 않을 때 내가 맡아 음식 주기, 밤에 바람쐐기를 두 번 해준 뒤로는 나를 보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눈치를 살살 보는 게 동물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영악하다.

어느 화요일 밤 11시쯤 에릭이 찾아와 지금 파티를 마치고 춤추러 가는 길인데 합류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한다. 이들과 TV를 같이 보거나 카드 게임을 즐기는 것은 보통 휴일 저녁이었고 평일날 이렇게 갑자기 찾아 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항상 공부가 모자라 짙짙 매고 있는 터라 싫게 마음이 동하지 않았으나 "내일 국경일이니 오늘 놀아도 괜찮지 않느냐" 며 막무가내로 조른다. 그 일행들과 어울려 디스코텍에서 새벽까지 춤추다 돌아왔다. 맥주 두 병에 두어 시간 몸을 흔들고 들어오니 충분히 기분 전환이 된 것 같았다.

#### Robin의 오줌과 삼각관계

한달 여 지났을까. 아파트내 이웃의 다른 파티에서 해프닝이 있었다. 식사가 시작되기 직전 빌리가 집에 잠깐 다녀오겠다며 나갔는데 이십 분이 지나도 소식이 없다.

Erick이 집에 전화를 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염려가 되어 그들과 친한 헬렌 Hellen과 함께 뒤따라 나섰다. 비상 계단으로 몇 층을 올라 그 집에 당도해 문을 열어 보니 기막힌 장면이 눈에 들어 왔다. 소파와 마루 바닥 할 것 없이 온 집안에 개오줌이 널려 있는 것이다.

마루 저쪽 귀퉁이에서는 빌리가 개를 안은 채 "What the hell is happening to you?"(도대체 네가 왜 이러니?) 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흐느끼고 있었다. Erick은 Billy에 다가가 얘기를 주고받고는 나와 Hellen에게 자리를 비켜 달라고 한다.

나는 황당한 마음에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녀는 별일 아니니 나보고 먼저 내려가 식사를 하라고 했다.

그런 해프닝이 있는 후 며칠 뒤 Helen과 마주쳐 그날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물어 보았다. 그녀의 얘기에 나는 또 한번 어안이 병병해 졌다. 그녀 왈 그들은 gay(동성연애자)라는 것이다. 너는 여태 그걸 몰랐냐며 저번에 우리가 놀러 간 디스코텍도 gay bar 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그때 그곳에는 여성이 몇 안 되었고 무대에서 춤추는 사람은 대부분 남자였다는 것이 떠올랐다. 그때는 늦은 밤이어서 그러려니 하고 예사롭게 넘겼었다. 아무튼 이 말에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석 달여 동안 그것도 모르고 같이 어울린 것이 무섭게 여겨진 것이다.

Hellen이 들려준 그 날의 해프닝은 이러하다. Erick은 보기와 다르게 아주 여성적이고 질투가 많아 빌리가 다른 여성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그날은 싸움이 날 정도다. 반면 Billy는 여성처럼 예쁘장하지만 남성답게 매사에 적극적이고 마음 씀씀이가 관대하다.

이때 안 일이지만 빌리가 반나절 시간을 내어 나에게 몇 가지 요리를 가르쳐 준 것이 고마와 조그만 담배 파이프를 선물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한동안 냉전이 있었다 한다. 그런데 이 사이에 Robin이 끼어들면서 믿어지지 않는 삼각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날 모임에 Billy는 Robin을 데려 가자고 했고 Erick은 그냥 집에 두고 가자고 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Billy가 양보해 Erick의 뜻대로 Robin을 집에 두고 둘이서 파티에 참석했다. 마음 한구석이 찝찝한 Billy가 식사 직전 Robin을 보러 잠깐 집에 들러 보니 이 영악한 Robin은 온 방에 오줌을 싸며 시위를 하고 마루에 누워 울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강아지는 아무리 봐도 동물인지 사람인지 동물의 차원을 벗어난 듯 싶다.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 뒤 혼자 시간을 가지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동성연애자를 친구로 두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내 졸업 파티를 열어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누가 하느님을 남성이라 했던가?

한 달쯤 지났을까. 뜨거운 여름날 변호사 시험 준비로 헉헉대고 있는데 Erick과 Billy가 찾아왔다. 동성연애자임을 내가 알고 나서 자기들을 꺼려하지는 않을까 조심스런 말소리로 몇 가지 질문을 얻으러 왔다고 한다. 하기가 그들이 나를 속이려 한 적은 없었다. 내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고 나의 자연스런 반응에 그들도 나를 편하게 대했던 것이다.

Billy는 몇 주 뒤에 워싱턴에서 예정된 세계동성연애자 모임행사를 준비하는 요원으로 선출되었는데 동성연애에 관한 법적 이슈에 관해 몇 가지 알고 싶다는 것이다. 이번 모임은 그 규모가 최대이며 전세계에서 동성연애자들이 모여 세미나를 열고 국회에 법률개정을 건의하는 등 열흘 가량의 행사가 짜여 있다고 한다.

이들이 동성연애자임을 알고 나서 미국에서 동성연애자를 어떻게 취급하는가 궁금해 관련 미헌법을 찾아 관심 있게 봐 둔 터라 이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답해 줄 수 있었다.

그들의 주요 관심은 동성연애자에 대한 차별대우의 시정, 특히 직장에서의 차별대우를 시정하고 국가가 남성들간 또는 여성들간의 결혼을 인정해 줌으로써 이성간에 결혼하면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등이다.

"미국의 헌법상 규정된 사생활의 자유 *freedom to privacy*는 문란한 성생활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연방대법원 판례는 동성연애를 문란한 성생활로 보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이 판례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동성연애자의 요구가 실현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가 나의 대답이었다.

법적인 얘기로 시간을 보내다 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역사적 종교적 시각에서 이들의 얘기를 듣게 되었다.

역사상의 유명한 인물들을 고대에서부터 예로 들며 이들 모두 동성연애자였다고 하는데 그 인물들의 위대한 명성과 숫자가 워낙 많아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진지한 태도는 믿기로 했지만 확인할 길이 없어 여기에 그 이름을 읊길 수는 없다.

나아가 예수도 동성연애자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하느님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우리가 남성으로 믿는 것은 하느님을 인격화함으로써 신의 지위를 강등시킨 것이다. 신에 대한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 크게 다를 바 없다면 우리가 남성의 신을 사랑하는 것은 동성연애가 아니고 무엇이냐." 라고 열변을 토한다.

요약하면 동성연애는 인간이 생겨 날 때부터 있어 왔고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 왔으며 단지 역사책에 기술되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 사회가 남성우위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동성간에 사랑을 느끼는 것은 변태적 인간의 행태가 아니고 순수한 인간 본성의 발현이라는 것이다. 건강부회로 들리는 점이 많지만 일리 있는 말도 있었다.

우리가 역사상의 교훈으로 항상 배우면서도 늘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 현재의 악이 미래에 수없이 편견으로 판명 났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편견에 산다는 것이다.

'지구가 편편하다.'는 것을 불변의 진리로 알았었고, 비행기로 하늘을 날아도 아무런 일이 없음을 알기 전까지는 '하늘을 나는 것은 하느님의 성스러운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기에 인간은 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었다. '사람이 시속 50km이상을 질주하면 타 죽는다.'는 믿음도 빠른 자동차가 등장함에 따라 편견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최근 20세기에 깨친 것으로 수많은 세월을 수많은 편견을 안고 인간은 살아 왔다. 과거에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믿음이 편견으로 판명될 것이다. 바로 편견의 깨침이 인간의 진화 과정이 아닐지. 아무튼 남자를 사랑하는 남자 Erick과 Billy의 소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확신은 순수한 인간적인 확신이었다.

## 사계절을 하루에 달리는 자동차

우리가 일상사에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가장 많이 보는 건 자동차이다. 어딜 가도 사람은 없어도 자동차는 보인다. 깊은 산골의 기준이 포장도 안 되어 있으면서 자동차가 보이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점점 자동차가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차라 하면 미국을 꼽는다. 광활한 땅을 마차로 달리다가 철길을 깔고 나서 기차로 달렸다. 그리고 이제는 거미줄 같은 도로를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 여기서 자동차가 없으면 감옥에 갇힌 거나 다름없다. 아무데도 갈 수 없다. 시골은 물론 대도시가 아닌 소도시에 사는 사람도 생필품을 사러 슈퍼마켓에 길게는 한시간 남짓 운전해 가는 것이 일상사이다. 이런 미국에서 자동차의 의미를 새롭게 갖게 되었다.

미국에 우리의 옛 TV프로 '만인에게 물읍시다' 와 비슷한 'Family Feud' 라는 TV프로가 있다. 가족 또는 직장인 그룹이 나와서 각종 설문 조사의 결과를 예측해서 경쟁적으로 맞추는 게임 프로이다. 이 프로를 통해서 우리 문화와 다른 미국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 내가 즐겨 본 프로이다.

어느 날 이 프로에서 "직장 남성이 모였을 때 얘기 화제로 하는 것은?" 이라는 설문 조사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장면이 있었다. 그 결과가 흥미로웠다. 첫 번째는 누구나 짐작하듯이 "여자" 였다.

우리 나라 프로 '만인에게 물읍시다'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있었음을 기억하는데 그 때 우리 나라 남성의 첫 번째 화젯거리도 "여자" 였다.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여자는 남자의 영원한 수수께끼 인가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치, 세 번째가 직장 등등 여섯 번째가 자동차였던 우리 나라의 조사 결과가 기억난다.

그러나 미국 남성의 두 번째 화젯거리는 우리와 달랐다. 두 번째는 자동차였다. 우리 남성에게 두 번째인 정치는 여섯 번째였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 남성의 정치적 무관심과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내 생활에 먼저 피부에 닿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 자동차이니까 말이다. 이곳 도시의 길거리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한 눈에 같은 종류의 차가 들어오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많은 차종이 있었던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다양한 차종에 대한 지식이 없어 미국인과의 대화에서 어물쩡한 경험이 있어 그 뒤로 관심을 두었지만 모델과 이름을 하루아침에 억지로 외우기란 불가능한 것이었다. 미국 문화의 다양성을 느끼는 첫 번째 장면이 길거리를 달리는 무수한 차종이 아닌가 싶다.

미국의 일대를 자동차로 여행하면서 감탄한 것 중의 다른 하나는 자동차의 견고함이다. 자동차가 왜 견고할 수밖에 없는가 먼 길을 운전하면서 알게 되었다. 미국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다. 땅덩이가 워낙 크니까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기후를 가진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극히 제한적이다.

미국의 일대를 구경하면서 우리 나라의 기후는 사람 살기에 무척 좋은 곳이거나 새삼 깨닫게 되었다. 사계절이 있어서 일년의 리듬감을 느껴서 좋다. 여름은 사막과 같이 뜨겁지 않으면서 겨울은 알래스카와 같이 혹독하지 않아서 더욱 좋다.

반면 미국의 대다수 지역의 기후는 우리보다 거칠게 여겨진다. 자동차로 먼길을 운전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기후와 만난다. 아침에 출발하면서 히터를 켜고 점심때면 에어컨을 켜야 한다. 뜨거운 햇볕에 사막을 달리면서 차안의 열기를 견딜 수 없음이다.

도중에 갑자기 강한 비바람을 만나면 앞창의 윈드실드를 가동시키고 히터와 에어컨을 번갈아 돌려야 한다. 심심함을 달래려 라디오는 계속 켜져 있다. 밤이라면 전조등을 켜고 달린다. 하루에 많게는 14시간 달리면 이렇게 차의 모든 기능을 전부 가동시키며 달려야 할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 나라 고속도로를 달릴 때와 또 다른 점은 낮에는 두세 시간마다 멈춰 앞창을 부지런히 닦아야 하는 점이다. 날파리나 곤충들이 창에 부딪히거나 날짐승의 똥이 창에 튀겨 앞창이 엉망이 되고 운전이 지장을 줄 정도로 시야를 가린다. 그래서 주유소에 들르면 주유와 함께 앞창을 열심히 닦고 그리고 또 닦아야 할 정도다.

밤운전에는 조심할 사항이 있다. 깊은 산골을 지날 때 앞을 유심히 살피며 운전해야 한다. 새까만 밤에 갑자기 '프라이드' 만한 산노루나 '코란도' 짝차보다 큰 버팔로가 눈 바로 앞에서 길을 건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조언에 의하면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을 만나면 그냥 부딪혀 치고 지나야 한다고 한다. 브레이크를 밟고 피하려다 새까만 밤에 바로 눈앞에서도 보이지 않은 절벽으로 미끄러져 뒤통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나도 여행 중 이런 위기를 몇 번 넘겼는데 아찔한 순간들이었다.

이렇게 차를 혹사해야 할 기후 조건에다 큰 짐승과 부딪혔을 때 무사하려면 차가 얼마나 견고해야 하나 짐작이 간다. 게다가 미국 도로에서의 상황이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아무리 산골이라 해도 삼십 분 정도를 헤매면 부근의 인가를 찾아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고속도로 인근에서 우리와 같이 인가를 쉽게 발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해가 지면 고속도로에서 삼십 분에 차 한대 지나갈 판이다. 밤에는 손을 흔들어도 여간해서 서질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차가 고장나 사막 한가운데나 깊은 산중에서 멈췄다고 상상해 보시라. 해가 진 밤이라면 꼼짝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장거리 여행자는 비상호출용 무전기를 휴대하는 경우가 많다.

아하 이곳에선 자동차가 '단순한 필수품'이 아니라 '생활을 담보하는 생존필수품'이구나. 이런 환경에서 자동차가 팔리려면 얼마나 견고하고 고장 없이 만들어야 할까. 우리같이 좋은 환경에서 쓸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기본 조건이 다른 것이다.

미국의 한적한 도로에서 갑자기 차가 서면 불편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우리의 환경기준으로 만든다면 미국 시장에서 경쟁이 될 리 없다. 그들의 환경 조건에서 소비자가 믿을 만해야 팔릴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TV에 우리 나라 자동차 광고가 제법 나온다. 코리아 하면 '현대(Hyundai)'를 연상하는 미국인이 많은데 그것은 현대 자동차의 TV광고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TV에는 각종 자동차 광고가 꽤 시간을 잡고 있는데 가끔 우리 나라의 자동차 광고를 보면 가슴이 뿌듯하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격이 저렴함을 강조해서 소비자에 어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한국 자동차라 하면 '성능보다 싼 자동차' 라는 인식으로 미국인에게 박혀져 있다. 맨해튼에서는 주로 흑인이나 남미 계통의 인종들이 이용하며 부수적인 차로 사용되고 있는 듯하다.

다시 말하면 집에 가장이 이용하는 자동차가 이미 있고 주부나 아이들에게 한대가 더 필요할 경우 고려 대상이 되는 경제적인 자동차 카테고리에 한국 자동차가 들어가 있는 듯하다.

아직은 우리의 자동차 기술이 선진국과 어깨를 겨룰 만한 수준이 아니지만 국내에서부터 고장이 안 나는 차를 팔고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 그때가 세계 시장에서 값싼 차라는 이미지를 벗고 발돋움할 수 있는 날이 아닐까 희망을 가져 본다.

차를 삼사 년 굴리면 낡았으니 새차를 구입할까 생각하는 우리 나라 소비자심리는 새 것을 유달리 선호하는 취향뿐만 아니라 낡은 고장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 할아버지가 몰던 차를 손자가 몰면서 뿌듯해 할 정도의 철저한 장인정신을 우리 자동차에 싣고 세계시장에서 질주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 벌금의 무서운 힘

알미운 여경관

맨해튼 길거리에는 cab이라 불리는 택시만 다닐 뿐 자가용은 가끔 가다 눈에 뜨일 뿐이다. 여기서는 자가용을 가지면 주차하는 것이 문제다. 길가에 동전 넣는 기계가 있는 유료 주차 구역이 있지만 항상 꽉 차 있기 때문에 거의 이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자동차를 타고 시내를 다니면 시간당 10불 내지 15불을 내고 시설 주차장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데 이 돈은 여기 감각으로 작은 돈이 아니다. 식료품과 일상 용품의 가격과 비교하면 무척 큰 돈으로 여겨진다. 사 먹는 것은 서울보다 비싸 보이지만 해먹는 것은 서울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미국의 다른 곳은 물론 뉴욕에서도 10불은 작은 돈이 아니다.

자가용을 가지면 낮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어딘가에 주차시켜 놓아야 하는 데 자기 아파트 부근의 무료 주차 지역 또는 부근의 garage로 불리는 시설 주차장을 한달 단위의 주차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한다.

이곳의 주차 지역의 표지는 매우 복잡하여 같은 장소라도 요일별 시간대별 주차 허용 여부가 다르므로 잘 살펴 무료 주차장소로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평일에는 금지 휴일에는 허용, 출퇴근 시간 금지 기타 시간 허용, 짐을 부리는 트럭은 가능, 자가용 차량은 불가능 등 차량 소통의 방해를 최소화하면서 주민의 상행위를 위한 표지의 정교함에 놀랄 뿐이다.

아무튼 주차 표지에 익숙해지는데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그때까지는 서너 번의 딱지를 떼이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다. 또한 집 근처의 무료 주차 지역에 주차하면 하루 걸러 오전 8시에서 11시까지 거리 청소차가 지역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 주어야 한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이 번잡한 차 옮기기 작업을 할 수가 없어 한달 300불 내지 400불을 지불하는 garage를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주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보기 힘들고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 시외 나들이를 가는 자동차를 볼 수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자가용은 출퇴근용이 아니고 여가선용시에 이용하는 것이다.

나도 이런 자동차 이용 습관을 익히기까지 시행착오의 비용을 들여야 했다.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뉴욕 시에 근무할 때 차를 얻게 되었다. 처음에 내 마음대로 차를 끌고 다니다가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고서야 이들의 생활 습관대로 평일에는 시설 주차장에 주차하고 휴일 교외 나들이 갈 때만 이용하게 되었다.

차가 생기자 신이 나서 전철이나 버스는 뒷전으로 하고 차 타고 시내를 누비고 다녔다. 그러나 주차하려고 길가의 무료 또는 유료 주차 지역을 찾으려 길게는 삼십 분을 헤매야 한다. 무료 주차 지역은 빈 공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유료 주차 지역에 빈 공간을 찾아 겨우 주차시킨다. 30분 또는 1시간이 최대 시간이어서 그 시간을 넘으면 미터기에 동전을 다시 투입하러 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각을 정확히 기억한다.

그러나 아무리 신경을 써도 그 시간 안에 볼 일을 다 본다는 보장이 없다. 거의 그 시간에 끝날 걸로 예상하고 막상 차에 돌아와 보면 주차 시간 초과로 인한 주차 위반 딱지가 어김없이 차창에 꽂혀 있다. 시계를 보면 2분 지각이다.

이런 일이 여덟 번 있었는데 지각을 무사히 지나간 적은 한번도 없었다. 마치 어디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지켜 보고 있는 듯이 일본이라도 지나면 여지없이 딱지다. 주차 위반만 단속하는 경관이 있는데 이들은 주차 단속용으로 만든 아주 작은 일인승 소형차로 아주 비좁은 공간을 자유로이 다니면서 딱지 때기에 너무나 부지런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도 남은 미터기 앞에 서서 볼펜을 들고 주차 시간이 다할 때를 기다려 차량번호를 적을 태세인 여경관과 마주쳤는데 전혀 사정을 봐 주지 않는다. 너무하지 않느냐. 그녀 왈 "This is my job." (이게 내가 하는 일인걸)이다.

어느 날 비가 억수로 와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주차 표지를 읽기가 어렵고 이런 와중에 십분 정도 잠깐 주차하고 전화 한 통 걸고 와도 설마 별일 있겠거니 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빨싸. 돌아와 보니 차가 없었다. 거센 비바람에 내가 주차 장소를 착각했거나 아무리 주위를 봐도 온데 간데 없다. 사라진 것이다. 그 때 저쪽에서 아파트 문지기로 보이는 자가 다가와 하는 말. 저기 있던 차가 방금 전에 견인되었다고.

공중전화로 다시 돌아와 견인 안내 번호로 어디로 견인되어 가는 지 문의하고는 cab을 잡아타고 그곳으로 달려갔다. 택시 운전사 말이 비가 많이 오는 날 아무데나 주차하면 영락없이 견인이라한다. 주차 위반 벌금이 뉴욕시의 짝잘한 수입원이기에 이런 날 수입을 올리려 총출동한단다.

130불의 견인료를 내고 거대한 피견인차량 주차 장소에서 내 차를 겨우 찾아 돌아오는 나는 초죽음에 비에 흠뻑 젖은 몰골이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차는 한달 320불 짜리 집 앞 주차장에 놔두고 앞으로는 다시 전철을 이용하기로.

이것은 여기서 자기 차를 처음 가졌을 때 겪는 일반적 순서고 공통적 경험이란 것을 다른 사람의 경험담으로 알게 되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아무리 해 봤자...

여기서 몇 가지 배울 점이 있다. 벌금의 위력과 수요 위주로 움직이지 않는 시행정이 그것이다. 내가 겪었던 이 벌금은 나의 차이용 습관을 두 달 안에 완전히 고쳐 놓았다.

그리고 시행정의 방향이다. 우리 나라의 교통 행정은 수요에 공급을 맞추는 행정이다. 차가 늘어나 교통 체증이 심하다고 시민들이 아우성이다. '평균 시속이 30-40 km 가 안된다. 도로가 도로냐 주차장이지.' 신문 방송 매스컴이 대난리다. 그리고 교통 대란이란 단어가 만들어 졌다. 장관 국회의원 나리들도 차로 이동할 때면 짜증이 난다.

정부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여러 의견과 정책이 나온다. 돈 안 드는 정책이면 더욱 좋다. 시민이 반대한다. 시내 주차장이 모자란데 주차 단속만 하면 대수냐. 언론이 거든다. 행정편의 위주의 발상이다. 정부 내에서도 이론이 많다. 이 정책은 교통부가 이 정책은 건설부가 이 정책은 경찰이 반대하니 묘책이 없다. 그렇다고 가만있자니 무책임한 정부로 몰린다. 이 와중에서도 자동차 회사는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며 차 팔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는 원래 가마 문화의 전통으로 도로 문화는 서구에서 수입된 것이다. 우리보다 도로 문화가 앞선 선진국은 우리와 같은 시행착오를 이미 겪었다. 교통 체증이 생겨 평균 주행속도가 50km 로 떨어지면서 주행 포기 속도인 15km로 향하면 여론이 비등한다.

정부는 돈을 들여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을 늘리는 등 또는 시차제, 도심 통행료 징수 등 해볼 만한 정책을 다 해서 다시 주행속도를 높여 여론을 잠재운다. 그러나 교통체증이라는 불편이 없어지고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고 차를 사서 끌고 다니는 사람이 늘어나 다시 평균 주행속도를 떨어뜨린다.

교통체증은 개개인의 이동비용의 증가이다. 체증 해소가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시킨 것이다. 수요를 따라가는 교통정책은 효과는 그때뿐이고 악순환만 가속시킬 따름이다라는 것이 선진국이 겪고 배운 교훈이다. 그리고는 수요위주가 아닌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즉 주행속도가 떨어져 시민이 아우성 쳐도 가만히 있다. 주행속도가 계속 떨어지면 주행을 포기하는 시민이 늘어난다. 공공수단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주행속도의 하락이 멈춘다. 일정한 주행속도가 가격기구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다.

정부가 하는 일은 공공수단의 서비스를 높이는 일이다. 내가 뉴욕에서 겪은 바와 같이 엄격한 단속과 벌금에 드는 비용, 주차하는 데 드는 비용, 교통체증으로 인한 짜증 등을 개개인이 계산하고 그 결과 '출퇴근은 공공수단이용' 이라는 선택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도 선진국의 교훈을 거울삼아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무조건 정부에 대고 이것을 해결하라고 아우성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웬걸 ! 위법하는 양심?

맨해튼에서의 운전은 그 어려움이 서울 시내 운전엔 비할 바가 아니다. 차도 보행자도 거칠기 한량없다. 차는 난폭운전에 지그재그 운전이 예사여서 용감히 차 머리를 돌리지 않으면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지 못한다.

여기서는 따로 좌회전 신호가 없고 직진 신호시에 좌측 선에 서 있다가 직진해 오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을 한다. 또한 직진 신호에 우회전을 해야 하는 데 이때는 우측의 보행자 신호와 겹치기 때문에 보행자 사이를 뚫고 지나가야 한다. 서울에서의 난폭운전이 여기서는 양반운전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사람도 난폭보행을 일삼는데 빨간 신호등에도 기회가 닿으면 건너기 일쑤다. 그러나 차량과 보행자의 이러한 난폭성과 교통위반이 거의 단속되지 않는 것은 엄격한 주차위반단속과 대비를 이룬다. 왜 단속 안하는지 이유는 모르겠다. 이래서 이곳에 왔을 때 아무리 맨해튼은 미국이 아니라지만 이들의 공공정신이 바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했다.

그런데 이런 무질서 속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는 두 가지를 발견했다. 그 하나는 소화전 옆에 주차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 길가에는 이삼십 미터 간격으로 소화전이 많이 있는데 그 소화전 근처 반경 3m이내에 주차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주차이다.

그러나 어떤 행사 때는 불법주차한 차가 사방에 깔리는데도 유독 소화전 근처에는 어떤 차도 불법주차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의 난폭성을 미루어 보건대 너무나 이상스럽게 여겨진다. 자기가 불법 주차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명백히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다. 위반을 하더라도 지키는 선이 있다는 것인데 아무튼 놀랍다.

두 번째는 앰블런스에 대한 양보로서 이곳 사람들의 행태로 도저히 있음직한 일이 아닌데 그들이 철저히 지키는 것이 신기하게 여겨질 정도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아직 이들의 난폭성에 익숙하지 못해 항상 추월 당하거나 옆으로 밀고 들어오는 차에 겁먹고 양보 아닌 양보를 거듭하는 것이 신경질이 나서 나도 난폭해 져야지 하고 난폭성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앰블런스 사이렌이 들렸다.

내가 가는 앞길에 방금 몇 대가 나를 추월해 가고 나를 추월한 자기들끼리도 이리저리 지그재그 곡예운전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주위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나를 에워쌌던 모든 차량이 모두 길옆으로 바짝 붙여 정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차량이 짝 찻던 5차선 길 중 가운데 길이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이 훤히 열리는 것이 아닌가. 언제 그런 난폭 운전 경쟁이 있었느냐는 듯이 모든 차가 길옆에 가능한 한 바짝 붙어 서서 가운데 차선에 길을 만든 것이다. 그 동작이 하도 기민하여 나는 놀라움으로 멍청하였는데 나 혼자 큰길을 그대로 가고 있음을 발견했다.

정신을 차려 길 옆으로 정지하려는 순간 이미 앰블런스는 지나갔고 상황이 끝나 아까와 같은 난폭 운전 경쟁이 시작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기민한 동작이 나오질 않았으나 그들은 거의 반사적이었다. 이런 반사적인 기민성과 일사불란함은 순수한 자율성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번잡한 길도 모두가 합심해서 한 쪽으로 붙으면 차 하나 지나갈 길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 취하려 마신다? vs 마시려 취한다!

릴렉스와 주정 사이

우리 나라는 술문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도 술문화에 살면서 군인문화와 뒤섞어 무식하게 술을 마시며 대학시절을 보냈다. 술 마시는 방식도 무식했고 더욱 무식한 것은 술 잘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술을 마셨다는 것이다.

술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도 그리고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술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판에서 가장 많이 마시고 술 취해 앓을 못 가리는 친구를 돌보는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대뇌는 잠잘 때도 활동하며 오직 술 취했을 때만 잠시 쉰다는 의학적 상식에 과학적 근거를 두고 술을 통해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사회적 명분으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마냥 마셔 댔다. 사회에 발을 딛고 나서는 체력이 달려 학창시절만큼은 안 되지만 사회 생활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자위하면서 마셨고, 달리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도를 찾지 못해 계속 마셨다.

미국 생활에서 가장 좋았던 것 중의 하나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되고 많이 마실 수도 없으며 많이 마실 필요도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돌이켜보니 나는 술문화에 산 것이 아니라 술주정문화에 살았다.

술좌석에서 가슴에 있는 말을 내뱉으면서 슬픔과 분노를 술잔과 노래로 날려보냈다. 술좌석의 대화는 가슴에 있는 말들이니 깊은 대화로 취급되고, 취중에 선을 넘어도 양해가 되는 것을 기회로 흐트러진 모습으로 사람간의 벽을 허물어 친근감을 만든다. 이유가 어떻든 이 모든 것이 술기운을 빌어 행해지는 것이니 술문화라기보다 술주정문화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미국 생활을 통해 보니 미국인들의 술소비량도 만만치 않다. 물과 포도주와 맥주는 식사할 때 선택하는 음료수의 한 묶음이다. 특히 저녁 식사 때는 보통 포도주 한잔 또는 맥주 한 병이 따라 다닌다.

그러나 여흥으로 술을 마실 때는 맥주 세 병 이상을 마시는 사람은 드물다. 취하기 전에 멈춘다. 취한 기분을 불쾌하게 여기는 듯하다. 하고 싶은 말을 평소에 하고 지내니 구태여 술기운을 빌어 가슴속의 하고 싶은 말을 꺼낼 필요가 없다. 약간의 취기로도 흥을 돋구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처럼 위스키나 브랜디 같은 독주를 병으로 주문해 물처럼 마시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독주를 잘 마시면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가 의심받는다.

한마디로 술의 용도가 우리와 다르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마시는 것이 아니라 릴렉스 relax하기 위해서 마신다. 그래서 약간의 취기를 느끼면 그걸로 충분하다. 스트레스 해소는 자연을 찾거나 각종 취미생활을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 나라는 어떤가. 자세가 흐트러져도 오히려 큰소리 친다. '술을 왜 마시나. 취하려고 마시는 거지!'

그러나 이곳 사회에서는 자세 흐트러지기를 다반사로 하는 사람은 '큰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예상치 않은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 조심할 일이다.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되는 사람이 부부싸움을 했다. 부인의 비명 소리에 놀란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부인은 화가 나 경찰에게 남편이 자기를 때렸다고 했고 탁자에는 조니워커 한 병이 삼분의 일쯤 비워져 있었다. 경찰서로 끌려가 심문을 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웃이 증언하기를 저 사람은 알콜중독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 이웃은 이 사교적인 한국인의 초대로 두세 번 놀러 가 식사대접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혼자서 조니워커를 삼분의 일씩 거뜬히 비우는 이 한국인을 알콜중독자로 의심하는 눈으로 보아 왔던 것이다.

화가 풀린 부인이 선처를 부탁해도 경찰은 이 이웃의 증언으로 남편을 알콜중독자로 취급했다. 그래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했고 그 일로 6개월을 경찰서와 병원을 넘나들며 고생을 했다.

웃어넘길 수 없는 실화이다. 이 한국인은 우리 기준에 의하면 주량이 조금 센 정상인이고 여기 기준에 의하면 알콜중독자였던 것이다.

#### 프로는 스스로 관리한다

뉴욕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관리에 열심이다.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자기 일을 관리하려면 먼저 자기 스스로의 관리를 잘 해야 한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에서이다.

자기관리는 건강관리와 시간관리이다. 프로의 세계에서는 자기 체력과 자기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승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유능한 프로는 건강한 체력에 건강한 미소와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킨다.

교통이 막혔다 또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라는 핑계는 없다. 천재지변이 아닌 한 예측할 수 있는 일이고 예측을 못했다면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지 미국인들이 정하는 약속시간을 보면 우리와 다르다. 몇시 몇분으로 정하는데 그 분은 십분대 이 십분대 삼십분대 사십분대 등 다양하다. 우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간대 약속과 몇시반 정도가 선호되는 것과 대조된다.

뉴욕에서 알게 된 친구들은 이십대 후반에서 오십대 초반의 나이인데 나이에 관계없이 자신의 체력관리에 열심이다. 하루에 한두 시간을 헬스크럽이나 수영장에서 보내는 사람이 많아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

직장 내에 다양한 운동기구를 갖춘 운동실이 있어 점심시간 중 또는 출퇴근 직전 직후에 운동을 한다. 또한 아파트의 옥상층에 수영장과 운동기구를 갖춘 체육관이 있는 아파트가 많아 퇴근 후 바로 운동을 하고 한 시간쯤 휴식한 후 저녁 식사를 한다.

여기 사람들은 저녁을 7시에서 10시 사이에 하는데 규칙적인 시간대의 식사 습관을 고집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점심시간도 우리와 같이 12시에서 1시 사이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12시에서 3시 사이 아무때나 편한 시간에 나가 한시간 내지 한시간 반 안에 돌아오면 된다. 일을 위해 자유를 주는 것이다.

실제로 여기에 적응해 보니 일의 능률면에서는 물론이고 친구와의 점심 약속을 맞추기가 수월해 좋고 교통체증이 덜해 좋고 식당의 혼잡함을 피할 수 있어 좋고 등등 무척 합리적인 관행이라 여겨졌다. 시간대의 다양화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방면에서의 다양화'는 현대사회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자 필연이라 여겨졌다.

아무튼 처음에 이곳에 도착해서 한동안 한국 사람과 어울려 늦게 까지 술 마시곤 했지만 나도 체력관리를 위해 아파트 내의 gym을 다니기 시작한 후부터는 그것으로 충분히 기분전환이 되고 술을 마셔도 맥주 한두 잔으로 족히 긴장을 풀 수 있었다.

그리고는 '내가 여태 체력을 깎으면서 폭음을 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노동력을 재창조하기는커녕 스트레스를 해소한답시고 몸을 축내면서 노동력을 파괴시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환경도 문제이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문제이다. 그래서 만들어 진 것이 술주정문화이다. 술이 생활의 일부가 되고 생활의 양념이 되는 것이 '술문화'이고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어느 정도 술주정할 정도의 과음이 정상이라고 양해되는 문화가 '술주정문화'이다.

우리도 해가 다르게 풍토가 바뀌어 술 잘 마시는 것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니고 술을 강권하지도 않으니 '술주정문화'에서 '술문화'로 옮겨가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리라.

## 누구와도 Sex할 수 있어, 얼마든지...

뉴욕 시청에서 근무하면서 그곳 미국인들과 가깝게 어울리는 기회가 많아졌다. 역시 남자들끼리의 모임에는 여자 얘기가 최고의 단골 메뉴인 것은 통과 서, 고와 금을 통해 변하지 않는 것 중의 하나일 것이다.

영화배우 이야기, 전철역에서 눈이 마주친 매력적인 아가씨, 직장 동료인 여성 이야기, 화제가 무궁무진하다. 각자가 보고 느낀 바를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나에게겐 생소한 것이라 거부감도 없지 않았으나 그들의 말과 표정에서 탐욕스러움을 느낀다기보다 점차 자연스러움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문화와의 차이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쁜 것은 생각지 말고 행하지도 말 것이며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은 이성을 발휘하여 동물적인 본능을 억제하는 것이다. 고로 자신을 이기는 극기로서 고매한 인품을 유지하고 인격을 도야하는 것이 올바르게 참된 삶이다. 유교의 공자님 말씀을 책상 앞에다 붙이고 공부했던 어린시절을 기억한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동은 물론 그런 상상조차 남들에게 들킬까 염려되고 그런 생각이 일지 않도록 다른 곳에 열중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곳 New York은 어떠한가. 낯뜨거운 자기 상상을 사람들 앞에서 마음대로 표현하고 있질 않나. 친구 누구의 Wife가 마음에 든다는 등 어떻게 하고 싶다는 등. 물론 친한 친구들이 모인 술이 얼큰한 좌석이라지만 그래도 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우리와의 중요한 차이점을 알게 되었다.

한마디로 상상은 자유다. 인간으로서 누구나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이 성적이든 동물적이든, 자신의 Fantasy로서 만족하든 표현하든, 자기 자신의 내부에 머무르는 한 자유다. 어느 누구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혐오를 산 친구를 잃게 되는 일은 있어도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은 아니다. 자신의 상상을 '표현'한다고 해서 위험 인물로 취급받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Fantasy를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그 환상의 실행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여러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으로 용인된 방법이 없을 때에는 자신의 Fantasy, 그 자체로 머물러야 한다.

살다 보면 별의별 환상과 욕망을 갖게 된다. 아무개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할 수 있고, 아무개가 너무 예뻐서 범하고 싶은 충동이 일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들에 대하여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충족 방법이 없다. 따라서 자신의 내부의 상상으로 그치고, 그것의 실행은 철저히 자제해야 한다.

만일 실수든 고의든 이 선을 넘어섰다면 끝장이다. 욕망의 상상과 그 상상의 실행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선이 있어 그 선의 길목에는 법이라는 시퍼런 칼날을 든 수문장이 그 선을 넘은 자를 가차없이 처벌한다. 사정도 없고 어느 누구의 동정도 받질 못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그 선을 넘기 전에는 누구도 말리는 사람이 없다.

우리의 경우는 돌아 올 수 없는 선을 넘기 전에 여러 장애물이 있어 그렇게까지 정신을 차리지 않아도 될 지

모른다. 가족들이 말리고 친구들이 말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생각을 고쳐먹을 기회가 온다. 법이라는 금지된 벽에 도달하기 전에 사회적 체면, 가족, 친구들의 개입 등 여러 장애물을 통과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곳 미국에서는 그런 장애물이 없이 깨끗하다. 생각 없이 가다 선을 넘을 수 있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자신에게 책임질 행동만을 선택해야 한다.

#### 초록색 햇님

놀라운 것 중의 하나가 Fantasy와 그것을 실행하는 현실 사이의 엄격한 선을 미국 어린이는 철저히 교육받고 체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루는 친구 부부의 초대로 집에 놀러 가게 되었다. 두 부부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느라 분주해서 응접실에서 놀고 있는 4살 된 여자 아이와 5살 된 남자 아이와 잠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두 꼬마는 뉴욕을 배경으로 한 폭력물을 보느라 TV앞에서 눈을 떼질 않았다. 폭력적이고 외설스러운 장면때문에 채널을 바꾸려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이런 프로를 자주 보면 나쁜 사람이 돼." 라고 하니 큰 아이가 "That's just fantasy!"(저건 상상일 뿐예요.) 이를 받아 작은 아이가 "We are not supposed to do those things! Right?"(우리는 저런 짓 해선 안 돼요! 그렇지?) 그리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나를 응시한다. 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뛰어 가 채널을 바꾸는 것이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말에 어안이 병병하니 반응이 없을 수밖에. 이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환상과 현실의 냉엄한 구분을 교육받고 분명히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놀라움으로 잠시 멍청했다.

작은 꼬마는 TV에 관심이 없는 듯 다시 손에 들고 있던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린다. 자기 집과 정원 그리고 창문에 엄마 아빠 얼굴을 그렸다. 현관문보다 더 큰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웃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다. 창문 크기 보다 엄마 아빠 얼굴의 미소가 중요하다. 그런데 지붕 위에 떠 있는 햇님이 초록 색깔에 머리를 풀고 있다. 나는 다가가 "햇님이 왜 초록 색깔이니? 빨간 색이나 노랑 색이야." 라고 다정히 가르쳐 주었다.

잠시 후 식사 준비가 거의 다 되었다는 것을 알리려 엄마가 응접실에 들렀다. 엄마를 보자 여자 꼬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에게로 뛰어가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내밀며 말한다. "엄마. 저 아저씨는 내 햇님을 싫어해." 하며 속상하다는 듯 자기가 그린 초록색 햇님을 초롱초롱 들여다본다. 엄마는 알았다며 뽀뽀하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나는 속으로 꼬마와 친하려 말을 걸었다가 괜히 손해 봤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넘겼다.

그 뒤 우연히 유치원을 들릴 기회가 있었다. 때 마침 열명 남짓의 남녀 꼬마 아이들이 잔디 밭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두 아이는 마주 누워 얼굴을 뚫어져라 보고 있고 어떤 아이는 이쪽 저쪽을 뛰어다니고 어떤 아이는 열심히 그리고 나는 다가가 그들이 무엇을 그리나 살펴보았다.

아니 그런데 이 꼬마의 햇님도 초록색이 아닌가. 미국 유치원에서는 해가 초록이라고 가르치나. 다른 꼬마의 그림을 살펴보았다. 그 꼬마의 햇님은 하늘색에 갈색 테를 두르고 있다. 또 다른 꼬마는 해가 없다. 어디 갔나 물으니 산 뒤에 숨었다고. 햇님의 모습과 색깔이 모두 달랐다.

내가 어릴 때 그런 노랑과 빨강을 섞은 색깔에 그 주위에 빛나는 빗살 모양의 선이 있는 햇님은 하나도 없다. 나는 해가 그렇게 생겼으니 그렇게 그렸었고 그렇게 그려야 잘 그렸다고 칭찬 받았으니 그렇게 그렸다.

그러나 그 색깔과 그 모습으로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햇님을 그릴 수 없었다. 해를 초록색으로 그렸다면 다른 꼬마로부터 "선생님! 제는 햇님을 초록색으로 그렸대요. 얼라리 풀라리!" 놀림감이 되었을 것임이 틀림없다.

집에까지 그 햇님을 들고 가면 어머니는 "해는 빨강 색이야!" 하면서 '애가 흑시 색맹이 아닌가?' 하는 걱정의

눈을 보이실 것이다. 그리고 유치원 선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가도 생각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한번 빨간 색의 햇님이 아닌 하늘색의 햇님을 들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나를 다른 유치원으로 옮겼을 것이다.

그렇지. 내가 자랄 때나 지금도 우리는 확실적인 교육만을 하고 있구나. 그 나이 꼬마에게 중요한 것은 햇님의 진짜 색깔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자기에겐 어떤 색깔의 햇님으로 보이는가이다. 자신의 상상과 감성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햇님의 모습을 그리고 싶다.

그렇다고 햇님을 초록색으로 그린 꼬마가 “햇님이 무슨 색깔인가?” 라는 사지 선다형 자연 과목 시험 문제에 초록색으로 답할 리 없다. 그림 그릴 때는 자기 상상으로 원하는 햇님과 만날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다.

미술 시간은 감성을 키우고 상상력으로 확산적 사고를 펼치는 시간이다. 자연 시간은 사실을 배우고 이성적인 논리로 수렴적 사고를 배우는 시간이다. 나는 미술 시간에 자연 시간에 배운 사실을 그대로 옮김으로써 감성을 키우고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 볼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 된다.

이미 나는 어릴 때 상상의 자유와 즐거움을 박탈당했고 상상과 현실의 공존을 생활의 즐거움으로 조화롭게 소화하는 방법을 터득할 기회조차 봉쇄 당했다. 햇님을 초록색으로 그리면 벌을 받는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에게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태어날 수 없다.

창의는 기존의 것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르는 사지 선다형이 아니다. 지금 없었던 것을 새로이 생각해 내는 확산적 사고요, 감성과 상상의 나래를 펴고 산과 들과 바다로 우주로 끝없이 나르는 작업이다. 천편일률적이고 주물로 찍어 낸 듯한 교육에서 새로움을 만드는 인재가 자랄 수 없다. 권위와 현재 상태에 타성적으로 체념하는 만년 여당 성격형 인간과 권위와 현실을 무조건 거부하는 만년 야당 성격형 인간의 두 유형만이 자랄 뿐이다.

그러니 이해가 간다. 자기가 그린 초록색 햇님을 보고 ‘틀렸다’고 말하는 나를 보고 자기 햇님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꼬마야말로 TV에서 방영되는 폭력물을 보고 ‘나는 폭력이 싫어’ 라고 상상의 영역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폭력물의 방영에 대하여 대립되는 두 가지의 이론적 논쟁이 있어 왔다. 하나는 Freud학파의 주장이다. 인간은 성과 폭력 등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본능(생의 본능, 사의 본능)이 무의식에 억눌려 있다. 그런 욕망이 실제로 행동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폭력물을 통한 대리 만족이다. 따라서 폭력물의 방영에 관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학이론가의 주장이다. 폭력물에 자주 노출됨으로써 그러한 행동이 학습되고, 결국 모방 범 죄를 교육시키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폭력물의 방영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논쟁이 상업주의와 어디에서 타협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폭력물의 난무를 막을 수 없는 현실점에서 분명한 것은 환상과 현실의 냉엄한 차이점을 어릴 때부터 교육해서 냉엄한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려는 부모의 경각심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

미국에 도착해 얼마 안 있어 생긴 일이다. 유학생으로서 미국에 도착하면 일반적으로 처음에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자기가 몇 년간 머물 집을 구하는 일, 근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일, 전화를 개통하는 일, 학교에 들러 도움을 받아 필요한 정보를 얻고 필요한 행동을 취하는 일 등등...

이 가운데 반복적으로 겪는 경험이 있다.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이 물을 때 이에 대답하는 일이다. '이것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내뱉는 Yes냐, No냐의 반응이 재빨리 튀어 나왔다고 생각되지만 그들의 눈에는 반응이 느린 것으로 여겨짐을 나중에야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느리게 대답하는 사람의 정직성을 의심하는데 나의 정직성이 의심받는다는 걸 알고서야 내가 그들에게는 반응이 느린 것으로 비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왜 그럴까.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과 비슷한 속도의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것은 단지 언어의 장벽이라기보다 문화적 장벽이라 여겨진다.

우리 문화는 유교의 전통이 배어 있고 단체주의의 영향으로 체면과 수치가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을 부인할 수 없다.

직장에서의 예를 들어 보자. 직장의 상사가 점심 식사를 같이하자고 제안한다. "점심 식사로 중국 음식 또는 한식 아니면 분식 중 자네는 무얼 먹고 싶냐?" 라고 묻는다. 나는 망설인다. 분식을 먹고 싶은데 상사는 한식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때 내 의사대로 분식을 먹고 싶다고 말하기 전에 할 일이 있다. 다른 동료는 무엇을 먹고 싶다고 할 것인가 예측하고 상사의 기분을 다시 점검하면서 주위를 살펴야 한다. 소수 의견 집단 또는 외톨이 의견으로 남아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신의 대답이 주위의 다른 사람과 같을지 다를지 열심히 추리한다.

쉽게 판단이 안 서면 끝을 흐리면서 애매 모호하게 대답해서 의견을 바꿀 여지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 말하자면 반응 전에 주위 상황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돌리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독심술 프로그램'이 반자동으로 돌아가고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 X세대의 젊은 사원은 상사나 동료 선배와 뼈격거리거나 이기적이라는 평을 받기도 한다. 아무튼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영점 몇 초가 내 반응을 느리게 만든 것이다.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다" 고 말하기 전에 주위 사정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사적인 의견을 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위 사정을 보아 자신의 의견을 양보하거나 수정하면 그 뿐이다. 이러한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소위 사회생활 내지 조직 사회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잘 돌리면 상관이나 동료, 부하의 비위를 잘 맞추고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사람으로 칭찬 받고, 반대로 솔직히 당당히 말하면 협동심이 부족한 이기적인 인간으로 매도되는 풍토에 적응한 탓이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솔직한 정직성이 알게 모르게

없이 졌다.

자기의 의견을 뚜렷이 밝히는 것은 미덕으로 받아들여지고 장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정직의 출발이며 생각과 마음이 꼬이지 않고 맑음을 유지케 하는 버팀목이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함으로써 행복감과 최선을 다하는 추진력이 샘솟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다양한 의견이 표현되고 교감하는 가운데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미 머릿속에서 상사나 주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타협의견'을 말해야 하는 풍토에서는 창의적인 사고가 마음껏 자랄 수 없다. 자기의 '솔직한 의견'을 말하고 상대의 솔직한 의견을 경청하는 상호 교감에서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느낄 수 있다.

물론 침략의 위협으로 항상 전쟁에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난세에는 모든 개인의 의견과 개성이 존중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적군의 진지를 공격하는 데 누가 선봉에 서야 하는 지 투표로 겨룰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한사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에게 편리함을 안겨 줄 수 있는 과학의 경쟁시대이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상상할 수 없는 도약을 가져온다.

단지 자신의 의견만을 앞세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개성, 전체의 조화를 무시하는 개성은 오래 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그런 의견은 사실 앓을 뿐더러 강매는 통하지 않으며 속아 사는 사람도 없으니까 말이다.

#### 못된 이유

문화적 장벽을 반영하는 또 다른 비슷한 일례가 있다.

미국에 도착해 얼마 동안 나는 무의식 중에 '예'나 '아니오' 라는 대답 뒤에 이유를 붙였다. 자신의 생각을 부연 설명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맞춘다는 의도다. 그냥 '예'나 '아니오'로 대답하면 딱 잘라서 말하는 것 같고 어쩐지 어색하다. 이유를 말하면 친밀감이 생기고 친해질 것 같다는 한국적 정서에서이다.

그러나 나는 상황이 애매 모호할 때 도망갈 수 있는 핑계의 방편으로 또는 자기가 밝힌 Yes나 No의 의미를 적당히 희석시켜 나중에 대답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너무나 교묘한 것이 무의식 수준에서도 반사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인과 상대할 때 종종 발생하는 미스 커뮤니케이션(잘못된 의사전달)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깨닫고 충격적으로 받아 들여 졌다.

보다 구체적으로 왜 miscommunication이 생기는지 보자. 미국인과 대화할 때 Yes라고 하고 그 뒤에 because를 달고 이유를 말하곤 했다. 굳이 because를 달지 않더라도 부연적인 이유가 뒤따른다. 내 사고의 흐름을 그대로 영어로 옮기는 것이다. 그러나 종종 상대방 미국인은 because 이하의 이유를 다 듣고 중국에 가서는 Yes를 No로 또는 No를 Yes로 이해하거나 혼동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because 이하 부분이 길면 길수록 그럴 가능성이 커진다.

왜 그럴까. because 이하의 문장이 앞 부분의 Yes나 No와 반대되는 방향의 취지가 담겨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문화는 단체주의의 영향으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말하면 주위의 미움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앞부분 Yes나 No의 자기 주장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로 because 이하를 단다.

따라서 그 내용이 앞의 주장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것이 문화적으로 배어 있어 그 모순성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반면 그러한 문화적 필요성이 없는 미국인들에게는 앞부분의

Yes와 뒷부분의 No가 모순되어 어느 부분이 진짜 의도인지 혼동에 빠진다.

미국인이 잘못 이해하거나 혼동하는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시라. 바탕에 이런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영문으로 번역한 우리 나라 논문을 찬찬히 살펴보시라. 비록 because를 달지 않았지만 한 문장을 쓰고 그 밑에 이유를 부연 설명한다는 것이 앞의 내용과 반대 방향의 문장이 되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외국인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과 그 이유가 엉뚱하게도 이런 문화적 차이에서 연원하는 것임을 알면 여러분도 내심 놀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런 문화적 장벽을 이해하고는 미국인과의 대화 방식을 바꾸었다. 이유를 달지 않고 Yes나 No로 끝내고 굳이 이유를 달 때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앞부분과 일치되는 부연적 이유를 달도록 유의했다. 그래야 miscommunication이나 우유부단함 내지 부정직함으로 보임을 피하는 길임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번덕도 내 맘인걸!

또 다른 당혹스런 경험에서 우리와 다른 미국인의 사고의 흐름을 엿보게 되었다.

법대 다닐 때 일이다. 어느 봄날 과친구가 일주일 뒤에 있을 체육대회에서 각자가 어느 종목에 참여할 것인가 조사하고 다녔다. 축구, 배구, 농구, 야구 등등 다양한 종목에서 원하는 종목을 고르라는 것이다. 미국 학생은 바로 대답이 나온다.

내 차례가 왔을 때 망설여졌다. '나는 축구를 좋아하지만 축구는 인원이 맞아야 하고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정말 재미없는 게임이다. 그러니 여건이 맞지 않으면 다른 종목에 참여하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축구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충분한가 물었으나 현재로선 모른다가 대답이었다. 그래서 "나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여러 명이 하는 협동경기이기 때문이다." 라는 내 생각을 말하면서 나중에 성원이 안되면 바꾸겠다는 의향을 말했다.

반면 다른 학생들은 질문도 없고 나중에 바꾸겠다는 토를 달지 않고 바로 원하는 종목을 말하는 것이 나에게 의아하게 여겨졌다.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결심을 하는 것은 그들답지 않은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그 학생은 다시 학생들을 돌면서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대충 각 종목당 참여 인원이 조사되어 부족 인원이 참여하는 종목과 과다 인원이 참여하는 종목의 윤곽이 잡힌 터였다. 내가 참여 의사를 밝힌 축구에는 7명 밖에 안됨을 알고 그 종목을 선택했음을 후회하면서 바꿀 방도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너 이대로 배구를 하겠니?" 라는 조사 책임자의 질문에 "I changed my mind. I will take a soccer game." (나 마음을 바꾸었어. 난 축구를 할거야.) 라고 하지 않는가. 이유가 필요 없었다. 그저 내 마음이 바뀌었다가 전부다.

아하 그는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최종결정한 것이 아니었고 조사자도 최종결심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질문도 없었고 토를 달지 않았구나. 먼저 묻고 대답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쌓이면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전진하는 방향이다. 결심을 하고 새로운 정보가 쌓였을 때 이유를 대고 어렵게 고치는 반대 방향의 생각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I changed my mind." 아주 편리한 말이다. 이때부터 나는 이유나 핑계를 어렵사리 생각할 필요 없이 이 말을 애용하게 되었는데 우리 문화에서 무책임한 번덕꾸러기로 비취질 이 말을 미국인들은 사적인 대답에서 거침없이 쓰고 있었다.

이럴테면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어떤 물건을 하나 샀다 치자. 우리는 산 물건에 조그만 흠이 있어 이것을 바꾸려면 '이런 저런 이유' 또는 '그럴듯한 이유나 사정' 또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말하여 판 사람을 설득시켜야 하고 때론 얼굴을 붉히고 언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 소비자의 천국답게 물건에 흠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사용 후 교환은 물론 돈으로 환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다른 말이 필요 없다. I changed my mind! 한 마디로 족하다. 자기 정직성을 해치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구절이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와 다른 미국 문화를 겪으면서 바람직한 우리의 시민상에 대하여 나 스스로에 말했다.

"우리는 자신의 주장을 솔직하고 떳떳하게 밝히는 '나침반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 주위의 체면이나 허례허식에 매이지 않고 자기 중심에 놓여 있는 나침반을 보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럴듯하나 진실성이 없는 의견에 쉽게 설복되지 않는 지혜로운 시민으로서 튼튼하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가꿔야 한다.

동시에 남들이 자기로부터 무엇을 요구하는지,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지구촌 전체를 커버하는 레이더를 부지런히 돌리는 '레이더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 체면과 허례허식을 위하여 레이더를 돌릴 여유가 없다.

넓은 세상을 향한 레이더를 예민케 하여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고 다양성을 포용해야 한다. 창의성을 부단히 길러 가는 여유롭고 관대한 시민은 '안으로는 나침반, 밖으로는 레이더'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 Love is fantasy, Loving is work.

미국인들의 연애관 내지 여성관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 그 실체를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르긴 다르다. 오랜 결혼생활에 불구하고 신혼과 같은 푸릇푸릇한 정다움을 유지하는 부부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 뒤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잡고 있을까 몹시 궁금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몇 가지 상상치 못한 것이 있어 소개할까 한다.

그들은 흔히 "Love is fantasy. Loving is work."(사랑은 환상. 사랑함은 일.) 라는 말을 즐겨 한다. 이 말은 연애와 다르게 결혼은 생활이기 때문에 꿈과 같이 항상 달콤한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니 마치 일을 하는 것과 같이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표현이다.

"부부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위험하다. 마치 지붕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 너무 가까우면 무너지듯이." "부부사이에는 팽팽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마치 그것은 고무줄과 같은 것이어서 끊어 질듯 말듯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이혼에 대비해야 한다. 내일 저 사람과 헤어지더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각오해야 한다. 그래야 나태하지 않아 이혼이 생기지 않고 생기더라도 새로운 출발을 하기 쉽다." "이혼을 두려워하면 이혼 당한다." 등등은 선뜻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 대목들인데 아직까지도 완전히 이해는 안되지만 그 발상의 반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결혼 선서에서 평생을 믿고 의지하기로 하면서도 이러한 발상이 있는 것은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부단히 자신의 매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진작 옆에 누운 배우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다.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배우자를 어떻게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겠는가.

아무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부부 여러 쌍을 접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진실로 서로 사랑함을 의심할 수 없었고 갖 결혼한 부부처럼 하나같이 푸릇푸릇한 다정함이 부러움을 살 만했다. 어떤 경우는 그들 부부들에게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믿고 살 수 있나. 그렇게 긴장해서 어떻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가???" 라며 장시간 토론을 벌인 적도 있었다.

그들의 대답은 간단했다. "신뢰라는 것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루고 조심하는 게 아닌가.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것에 직시해서 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이다. 우리가 신이 아니므로 깨지지 않는 신뢰를 만들려 하는 것은 환상일 뿐이고 부단히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긴장하고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겸허한 인간적인 자세이다.

신뢰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부부간에는 아주 깨어지기 쉬운 것으로 아주 어려운 것이다. 상대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깨질 수 있는 것이 부부간의 신뢰이다. 그리고 아무런 흥분된 행복감 없이 수수깡처럼 한방을 쓰는 roommate 관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경이 되면 여지없이 헤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걱정만 긴장이 우리의 신선함을 유지한다." 인간의 불완전한 점을 직시한 기막히게 역설적인 비방이다.

아무리 오래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했다라도 그것이 상대방과의 인간관계를 소유했다 - 즉 우리식대로라면 정이 들었다 - 라고 생각지 않는 것이 미국인들의 사고 방식이다. 그래서 현재와 앞으로의 행복을 위해서 똑같은 긴장과 노력으로 상대방의 요구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가슴으로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었다. 이럴 때면 미국인들은 피부 색깔뿐만 아니라 그 알맹이도 우리와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스치곤 한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두 부부의 굳게 잡은 두 손과 시종 옆에 먼 행복한 미소를 잊을 수가 없다. Respect without fear (두려움 없는 존경)이란 말과 함께.

## 내 아파트가 네 아파트?

New York시는 Manhattan(맨해튼), Brooklyn(부르클린), Queens(퀸즈), Bronx(브롱스), Staten Island(스테튼 아이랜드) 등 5개 Borough(구)로 나누어진다. 그중 Manhattan은 약 800만 주민이 사는 사면이 물로 싸여진 반도 모양의 직사각형 섬이다.

1620년대 인디언으로부터 24달러 어치의 보석을 주고 산 것이 미국 번영의 상징이요 미국인의 자부심이 되었다. 바둑판 모양의 도시 전체가 뻥뻥한 건물 숲이다. 스카й 라인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것이 물결치는 파도를 연상케 한다. 다양한 양식의 조각과 다양한 연령의 건물이 고풍스런 과거와 현대의 최첨단을 하나로 만들었다.

과거와 미래의 조화가 한눈에 들어오는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거리와 건물마다 새겨 있는 무수한 삶의 이야기는 자본주의의 현대사 그 자체이다. 그래서 미국인의 자존심을 떠나서 우리 인류의 자랑거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삼 사십 층 이상의 현대식 고층건물이 사무실 건물인지 아파트 건물인지 한 눈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다. 한 동네에 사무실 건물과 아파트 건물이 나란히 있고 한 건물에 사무실과 아파트가 같이 들어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직장과 주거가 한 곳에 공존하는 직주(職住)개념이 도시계획에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자기 방에서 커튼을 제치면 바로 맨해튼의 아름다운 야경이 쏟아져 들어 온다. 자기집 소파에 앉아 세계 최고급의 야경에 신나는 것이 여기에 사는 가장 큰 즐거움 중의 하나이다. 맨해튼의 야경에 빠져서 여기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된다.

대체로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세계대전 이전에 축조된 건물을 pre-war building이라 하는 데 이 건물의 외부는 조각 장식과 돌로 모양을 내고 십 층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내부의 높은 천장은 기름 값이 쌀 때의 좋은 시절을 연상케 하고 엘리베이터는 없는 것이 보통이지만 있다면 조그만 엘리베이터 옆에 자바라를 열고 닫는 아저씨가 앉아 있기 마련이다.

반면에 지어진지 십여 년이 안 된 건물들은 언뜻 보면 호텔과 비슷하다. 삼사십 층 고층건물의 입구를 들어서면 대리석 바닥에 고급스런 안락의자가 비치된 아늑한 분위기의 로비가 나타난다. 호텔의 프론트 데스크와 같은 곳에서는 아파트의 경비와 배달된 소포의 보관 등 입주자의 편의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시어지(consierge) 한 명이 분주히 움직인다.

방문객들이 방문할 입주자와 호수와 이름을 말하면 인터폰을 통하여 입주자의 확인을 받은 후 방명록에 이름과 시간을 적게 하고 통과 허락을 준다. 입주자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예방책이라 하지만 방문객에게 너무하지 않나 싶은 데 입주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여간 마음이 놓이는 것이 아니다.

보통 엘리베이터의 비밀 카메라를 통한 내부 화면이 콘시어지 책상 밑에 은밀히 놓여 있어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서비스하면서도 계속 화면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데 비밀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얼굴을 붉히는 연

인들도 있다.

엘리베이터 옆쪽에는 우편함이 들어찬 방이 있는데 조그만 우편함이 그 빌딩에 있는 가구 수만큼 조밀하고 짜임새 있게 늘어서 있으며 각 함은 어김없이 잠겨져 있어 우체부와 본인만이 열쇠로 열 수 있다. 어떤 함에는 조그만 쪽지가 붙어 있어 자세히 보면 배달된 소포가 있으니 이 쪽지를 콘시어지에 제출하고 찾아가라는 우체부 아저씨의 메시지이다.

이 한사람의 콘시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단하여 그 무엇이든 궁금한 것을 물으면 즉각 대답이 나온다. 낮에는 가족들이 직장에 나가 비어 있으므로 우리 같으면 주부가 집을 지키며 해야 할 일을 이 한 명의 콘시어지에 의지하고 있는 셈이다. 건물 입주자의 이름을 거의 기억하여 이름을 부르며 저녁 인사를 하고 당신 소포가 도착했다 어떤 방문객이 쪽지를 남겼다는 등 개인 비서 기능을 다하고 있다.

몇 번 찾아온 방문객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여 이름을 부르고 인사를 해 방문객들을 즐겁게 한다. 우리 나라 같으면 서너 사람이 할 일 같은 데 잘 훈련된 한 명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Professional 이구나 라는 탄성이 절로 난다.

그 숲속에 매료되어 이 콘시어지에게 몇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 보았다. 자신도 생각해 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종이에 숫자를 놓고 셈을 하게 되었는데 재미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입주자 수를 어렵 계산하는데 한집에 두 가구 또는 세 가구가 사는 집이 십 내지 삼십 퍼센트가 되는 데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아 이곳에도 한 지붕 세 가족이 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대부분의 집이 방 하나 또는 두개로 여섯 평 내지 열 다섯 평인데 어찌 그것이 가능한가 의아했다. 말인즉슨 한 지붕 세 가족이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는 A씨, 목요일에서 금요일에는 B씨,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C씨가 산다는 것이다. 또는 9시에서 6시까지 낮시간에는 밤근무를 하는 갑돌이가, 6시에서 9시까지 밤시간에는 낮근무를 하는 을순이가 사는 것이다.

이들은 보통 배우자와 아이를 가진 사람들로서 가족들은 교외에 자리잡은 보다 널찍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가장은 일하는 날 여기서 근무를 하고 휴일에는 교외의 본가(?)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가택 근무를 하는 것이다. 즉 지가가 비싼 도심의 아파트를 '空間分割'이 아닌 '時間分割'로 두 세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니 나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어찌서 이런 일이 생기나 생각해 보았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미래에도 일어남직한 일이기 때문이다.

첫째 이곳의 지가는 엄청나서 소수의 부자를 제외하고는 한가족 세 식구가 살 수 있는 크기의 아파트를 소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유가 된다 해도 편의(convenience)를 고려해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부동산 회사에 의해 건설된 조그만 평수의 아파트가 수요자에게 임대형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Apartment라 말하고 개인에 의해 소유가 가능한 아파트는 Condo라 불린다.

둘째로 밤에 일하는 직업이 많다는 것이다. 시차가 다른 여러 나라를 상대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24시간 여는 레스토랑도 많다. 이렇게 밤일을 하는 사람은 낮에만 주거 환경이 필요한 뿐이다.

셋째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일주일에 며칠만 사무실에 나가거나 자기의 완성 작품만 제출하면 되는 사람에게는 사무실 주변에 하루 이틀 머물 공간만 필요한 것이다. 그들은 누구의 감독이 필요하지 않은 철저한 프로이므로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과제를 해결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곳은 철저한 프로의 세계이다. 자기 실력만큼 취급받고 자만하면 떨어지는 냉혹한 정글의 법칙이 적용된다. 일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실력이 우선이고 그 외는 개인 사정이다. 이런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 이곳 **Manhattan**에서 3년 이상을 버티면 세계 어디에 알몸으로 던져져도 살아 남는다고들 얘기한다.

철저한 계산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빠 움직이는 곳이다. 아차 실수에 거지가 되기도 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유명세를 불러오기도 한다. 보튼 하나 잘못 누르면 추락한다. "여기에 잘 적응된 사람은 더 많은 보이지 않는 보튼을 잘 누르는 것이다." 신용사회가 이미 성숙되어 전화와 크레딧 카드 넘버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빗대어 말한 것이다. 어쨌든 아파트에 시분할 사용 개념이 도입되는 **Professional** 사회가 우리에게도 다가오기를 고대한다.

## 워싱턴의 사고계

저널리스트 아니면 예술가?

워싱턴에 사는 변호사로서 법무부 차관보를 지낸 Columbia 법대 동창 한 분이 초대를 해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시내에 있는 그분 집으로 향하고 있다. 때가 눈이 수북한 겨울이라 언덕길을 버겁게 올라간 바퀴 자국이 여기저기 눈 속에 널려져 있다.

꽃과 나무로 뺨뺨한 숲은 온통 새하얀 솜 덩어리에 눌러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지만 즐거운 표정이다. 하얀 언덕길을 운전하는 F씨는 장애물 경주라도 하듯이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이미 지나간 바퀴 자국을 쫓아 핸들 위로 얼굴을 조아리고 조심스레 운전하고 있다.

회색 수염을 기른 50대 중반에게는 그렇게 exciting해 보이지는 않지만 오르락내리락 꾸불꾸불한 이 언덕길을 원망해 본 적은 없는 듯하다. "이제 다 왔다!" 시중 남편의 장애물 운전을 시선으로 응원하며 지켜보다 마침내 입을 연 부인은 짙은 갈색 머리 파란 눈에 남미 분위기의 여인이다. 손자 손녀를 가슴에 안을 것이 연상이 안되는 싱그러움과 경쾌한 몸짓으로 현관의 자물쇠를 여는 민첩함이 몸이 무거운 남편과 호흡을 맞추고 있었다.

50대 부부가 사는 이 집은 '언덕 위의 하얀 집.' 하얀집 지붕이 새하얀 얼음 모자를 쓰고 있다. 하얀 정원에 솜 침대 모양의 수영장이 크지도 작지도 않다. 아래층은 아담한 거실과 응접실 그리고 조그만 부엌, 위층에는 자신들의 침실과 손님을 위한 조그만 침실 그리고 욕실이 아담하다.

세심한 조명 배치로 아늑함과 넉넉함이 조화되어 추운 바깥의 정원이 낭만적인 겨울의 정감으로 다가온다. 침침한 땅거미가 하얀 세상을 덮으며 확 트인 거실창으로 스며드는 지금은 늦겨울 7시를 조금 넘은 시각이다.

F씨는 일주일 동안 둘러볼 박물관과 공원, 의사당, 법원 등등과 초대될 파티의 시간 스케줄을 일러준다. 자신들이 참석할 파티에 호스트의 허락을 얻어 나를 데려 가겠다는 것이다. 워싱턴이 초행인 나에게 두 부부가 귀땀해 주는 말들을 두 귀를 쫑긋 하며 들었다.

워싱턴에는 대체로 네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산다. Politician(정치가), Lawyer(법률가), Journalist(저널리스트), Artist(예술가)가 그 것이다.

이들이 짝을 맺고 가정을 이루니 부부의 직업도 이 네 가지 직업의 조합으로 구성되고 소위 말하는 워싱턴의 상류 계층으로서 이 곳의 여론을 형성하는 opinion leader group이다.

나를 초대한 남편은 공법과 사법을 두루 취급하는 중간 크기 law firm의 파트너이고 부인은 세법과 특허 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law firm의 파트너이다. 법률가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룬 경우로 이곳에서는 보통 있을 수 있는 경우이다.

드디어 그 날이 와서 준비를 갖추고 오늘의 호스트인 IBRD 부회장 집으로 향했다. 집에 당도하여 F씨의 소개로 집주인과 인사를 나눈 후 이미 와서 기다리는 한 쌍의 부부와 어울렸다. 이미 8시가 넘었는데 도착하지 않은 손님들이 많다.

호스트인 H씨는 음료수, 술과 요리 안주를 나르며 식당과 응접실을 분주히 오간다. 타이가 없는 간편한 복장에 유쾌한 발걸음이다. 잘 차려 입은 부인은 가끔 얼굴을 내밀어 소홀함이 없는지 유심히 살피곤 식당으로 사라

졌다.

초대 부부들이 쌍쌍이 모여들어 썰렁했던 거실이 온기와 말소리로 훈훈해 지기 시작한다. 10시 남짓한 무렵 모두 모였다. 유일하게 황색피부인 나를 의식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가벼운 담소를 나누며 편안히 분위기에 빠질 수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세 쌍의 부부가 모여 어제 있었던 인질극 사건과 경찰의 대응 자세를 화제로 삼아 점차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 다른 이들은 개인적인 신변잡기로부터 요즘 신문 기사 거리가 되는 국내 정치나 국제적인 사건들에 대해 가벼운 얘기를 나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서로가 초면이고 초대된 주인만이 서로를 아는 사이였지만 이내 친구가 되어 얘기 꽃을 피우는 것이 어색함이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 Bullet 대신 Ballot!

허기 찬 배를 열심히 안주로 채우고 있는데 요리가 준비되었으니 식당으로 옮기라는 주인의 부드럽고 힘찬 목소리가 들렸다. '이미 늦은 시간이니 식사는 없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끝나는 파티 일거야. 7쌍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무리일 테고' 라는 나의 생각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식당에 들어서니 겨우 7쌍이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에 의자가 비좁게 붙여져 있었다. 주인 부부는 이미 들어서 연구를 하였는지 종이 쪽지에 초대된 사람들의 좌석을 지정해 놓고 한사람씩 자리를 지정해 주었다.

부부 관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직업과 성향을 고려한 듯했고 식탁에 앉기 전에 별로 대화를 나누지 못한 사람들을 가깝게 배치하는 것이 손님들을 서브하면서 유심히 관찰했음이 틀림없다.

준비된 큰 식탁에 놓여진 빵과 샐러드, 구운 고기를 각자 접시에 담은 후 자리로 돌아와 식사가 시작되었다. 음식 솜씨에 대한 의례적인 칭찬이 오갔고 옆사람끼리 담소가 이어졌다.

잠시 후 식탁에 오른 몇 가지 화제가 전체의 관심을 끌면서 각자의 의견을 말하는 계기가 되어 전체 대화로 이어졌다. 그 화제는 누구나 한마디씩 하는 날씨로부터 정치 이야기, 전문적인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초대된 16명 손님의 직업이 건축가, 법률가, 은행가, 기자, 기고가, 대학교수, 조경가, 앵커우먼, 문학평론가, 작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흥미진진한 대화마당이 되었다.

어떤 주제가 떠오르면 그 주제에 가장 전문가인 사람이 먼저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비판, 질문이 뒤따르는 것이 특히 인상 깊다. 호스트인 H씨나 부인은 떠오른 화제에 대하여 가장 전문가인 사람에게 먼저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주인으로서의 사회를 보고 있었다.

남자에 대해서는 주로 H씨가, 여성에 대하여는 그 부인이 교대로 토론을 이끌었다. 이들 부부가 자신들이 초대된 사람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니 이런 역할을 훌륭하게 잘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에게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주어져 방청객을 면할 수 있었다. 얼마 전부터 눈이 많이 쌓여 시민들의 불편이 대단했다. 눈이 오면 제설제를 뿌려야 하는데도 항상 대응이 늦은 시정에 대한 불만이 튀어 나왔다. 그 이유는 이러했다.

폭설이 올 가능성이 90%라는 기상예보를 듣고도 눈이 쌓이는 곳에 자를 들고 서 있다가 규정치의 적설량이 되면 그때서야 제설제를 뿌리기 시작했다. 그 때는 이미 늦어 눈이 쌓이는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고 뿌린 제설

제는 있으나 마나였다.

그 일의 담당자는 만일 눈이 오지 않거나 덜 왔을 때 닥칠 예산 낭비라는 질책이 두려워 쌓이는 눈을 자로 재며 초조하게 규정치 적설을 기다린 것이다. 얼마나 답답했으랴. 이 문제를 해결한 묘안이 없는가 얘기가 오가다가 너희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라고 H씨가 물었다.

미국 국내 사정에 관한 것이 주화제가 되니 침묵할 수 밖에 없는 나의 처지를 배려하여 기회를 준 듯하다. 눈이 화제가 되었을 때 나는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떠올리고 있었다. 90년 초인가 91년 초인가 서울을 기습한 폭설이 거리는 물론 도로 전체를 뒤덮었다. 그 아름다운 설경에 누구나 감탄했지만 서울시의 교통이 엉망이 되어 가히 지각 대란이 터졌다.

메스컴은 격분하여 정부를 호되게 비난하고 나섰고 그날의 사태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서울 시장이 국무총리에 불러 와 호되게 꾸중 당하고 관계자의 문책 인사로까지 번졌다. 그 당시의 속사정도 지금과 똑 같았다. 시 담당자는 새벽부터 나와 자를 들고 규정치의 눈이 쌓일 때까지 기다렸고 눈은 한꺼번에 너무나 많이 왔던 것이다.

마침 질문을 받고 우리 나라도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가 있는 데 갑자기 한꺼번에 몰아치면 이와 똑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우리도 해결책을 무척 고민한 적이 있는 데 뾰족한 수가 없더라. 하느님하고 미리 통화할 수도 없는 일이고 기후가 변할 때면 하느님 사무실은 늘 통화 중이더라고. 자중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반면 간간이 열면 토론 장면도 있었으나 감정으로 뜨거워지지는 않았다. 화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처음에 문제의 본질을 간략히 언급하니 엉뚱한 곳으로 이슈가 번지는 일이 없었다. 가히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토론이 어떤 것인지 미국의 거대한 힘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만장일치는 가장 바람직하나 불가능하다. 다수가 구성된 한 집단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방법을 고안했다. 소수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다. 즉 'Bullet 대신 Ballot' (총알 대신 투표)으로란 구호가 그것이다.

의견이 다른 소수를 총알로 무찌르는 대신 투표를 통하여 다수결을 집단의 대표 의사로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소수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고 마는가.

아니다. 바로 토론이란 과정을 거치면서 소수의 의견과 다수의 의견은 마음의 결혼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야 여러 사람의 인격의 힘이 한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고 휴머니즘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다수결'과 '토론'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민주주의의 이상은 이러한 토론이 얼마나 현명하게 이루어져 어떻게 '마음의 결혼(marriage of mind)'을 이루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한나라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알려면 그 나라 국민의 토론의 장을 살펴보면 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토론의 깊이가 진전되는가.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개선하는가. 제자리를 맴돌면서 감정을 소진하고 일방적인 독백만 오가는가. 이슈가 압축되고 공감대를 형성할 부분이 여물어 가는가. 등등으로 바로 마음의 결혼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면 된다.

그러나 이것의 전제가 되는 것은 구성원들이 기본적인 가치를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 가이다. 중요한 가치는 토론과 타협을 통해 마음의 결혼이 가능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본적 가치는 타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아무튼 도중에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인 힐러리 여사에 대한 개인 감정을 토로하며 열을 올리는 행정법 여교수의 지나침을 빼고는 아주 인상깊고 유익한 대화의 만남이었다. 작별인사를 나누고 돌아오는 차안에서 F씨는 입을 연다. "오늘 어땠느냐? 금요일, 토요일과 일요일 일주일에 두서너 번 이런 파티에 초대받고 초대하는 것이 워싱턴 생활이다. 오늘의 경험으로 내일 파티는 더욱 재미있을 것이다."

눈 쌓인 언덕 위의 하얀 집으로 향하는 지금은 자정이 훨씬 지난 1시 20분이다. 이렇게 워싱턴에서의 체재는 저녁 때면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졌다.

연적이 딸이라니

일요일 오전에 전화 벨이 울렸다. 미국인들은 특별한 용무가 아니면 공휴일 오전에 전화 걸거나 받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늦잠 자는 사생활을 침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웬 일일까. 호기심에 전화를 받았는데 여자였다.

겨울답지 않게 화창한 일요일 무슨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면 점심을 사 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이번 주는 우중충한 흐린 날씨에 눈발이 날리다 쌀쌀한 바람이 몰아치던 날의 연속이었다. 오랜만에 찾아 든 창가 햇살의 은근한 유혹과 여자의 점심 약속 제안이 예기치 않은 유혹으로 합쳐서 OK가 절로 났다. 약속 장소인 타이(Tai)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녀는 염색한 은발의 50대 미여성이다. 93년 10월 당시 뉴욕 시장인 딕킨스 Dinkins가 선거전 막바지 즈음 여러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을 때 그녀를 통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얻었고 일이 끝나던 날 관련자들을 위한 파티에서 그녀와 얘기를 나눈 것이 3개월 전이었다.

스스로 마흔 살이라며 익살맞은 거짓말로 자신의 젊은 외모를 자랑했었다. 그 뒤에 느닷없이 그녀 집 파티에 나를 초대해서 자신의 폭넓은 사교를 자랑했었다.

그녀는 맨해튼에서 십 년 이상을 살아서 폭넓게 아는 친구가 많아 예술인에서부터 정치가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고 잦은 세계 여행으로 폭넓은 식견을 갖추고 있었다. 우리 나라에도 친구가 있어 몇 번 놀러 가본 적이 있다며 한국 남자가 매력적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세련된 매너와 말솜씨가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세 번 이혼한 그녀의 인생 역정을 짐작케 한다. 그녀는 증권 회사에 다니는 26살 된 딸과 단둘이 살고 있다. 빠지지 않는 너털한 살림살이는 넓은 발로 세계 각국에 알고 있는 친구들을 연결해 도움을 주면서 받는 적지 않은 커미션 수입 덕분이다.

한마디로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노익장으로 젊은 마음을 유지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여성이었다. 그래서 그녀가 쓴 “젊음을 유지하는 법” 이란 책이 적지 않게 팔리는 모양이다.

동생 같은 그녀의 딸이 끝내 침묵했다면 마흔 살이라는 그 말을 그대로 믿을 뻔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게 “너는 갈색 머리칼인데 너의 언니는 어째서 은백색 머리칼이냐?” 라는 바보 같은 질문을 한 것을 후회했다. 그 집을 나서는 내 뒷머리가 화끈거릴 정도로 그녀가 당황해 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처음 대하는 타이 음식의 메뉴를 편 채 어물쩍하는 나에게 몇 가지 음식을 추천해 준다. 날씨 화제로 시작해 새로 시장이 된 Giuliani에 대한 얘기로 시간을 보내다 문득 내게 질문을 한다.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드는데 알고 보니 자기 딸이 마음에 두고 있는 남자라는 것이다. “어찌하오리까.”이다.

무슨 영화 ‘졸업’에 나오는 삼각 관계인가. 산전 수전 다 겪은 그녀가 못 푸는 문제를 내가 어찌 풀담. 동양식 이라고 무슨 명약이 있다. 아무튼 사랑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다.

“그 남자와 이에 대해 얘기를 나눠 보았느냐. 질질 끌지 않고 단순 명료하게 끝내는 것이 너희 미국식 아니냐. 딸과는 말해 보았느냐?” 내가 물었다.

“그녀는 이미 눈치를 채고 한 집에서 나와 말 안하고 지낸지 오래 되었다. 우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취향이 비슷해서 같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이번만이 아니다. 어떤 때는 내 딸인 것이 알미워 죽겠다. 이번에는 아주 괴롭다.” 그녀의 대답이었다.

엄마로서 딸에 대한 사랑과 한 여자로서의 질투가 정면으로 만났다. 나로서는 할 말이 없고 마음이 착잡하여 담배 사러 자리를 실례 했다.

돌아와 앉으니 다시 말을 이어 간다. “하도 답답해 평소에 잘 아는 astrologer(별점을 보는 점성술가)를 찾았는데 그 사람 말이 ‘앞으로 남자를 만날 운이 많지 않다.’ 고 하니 마음에 드는 이 남자를 포기할 수도 없고... 내가 이런 말을 너에게 왜 하는 지 모르겠다.” 그리고는 마음을 가다듬어 화제를 바꾸려 했다.

잠깐, 점성술가를 찾았다고? 아하! 이 곳 사람들도 갑갑하면 점쟁이를 찾는구나. ‘당신의 행운을 미리 알려면 이리로 전화하세요. 당신의 별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라는 TV 광고를 본 적이 있다. 책방에서 ‘별점을 보는 법’이란 책을 본 적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그 사람의 띠를 상징하는 12간지의 동물 모양으로 그 날의 운세를 풀어놓은 일간지의 한 면을 열심히 읽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그 사람의 별자리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그 달의 운세를 풀어놓은 잡지의 한 면을 열심히 읽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장면에 대한 호기심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터라 이내 침을 꿀꺽 삼키며 이 부분을 물어 보았다. 나머지 시간을 점쟁이와 medium(영적인 능력으로 靈과 대화를 하는 靈媒者)에 관한 화제로 보냈다. 이래서 나는 미국인의 생활에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占의 세계’를 엿보는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 튤립을 좋아하는 점성술가

그녀가 알려 준 대로 튤립 꽃송이 다발을 손에 든 채 한적한 길가의 집 주소를 살피고 있었다. 어제 내린 눈을 녹이는 따사한 햇볕이 허드슨강의 신선한 바람을 달래며 거리의 신선함을 어루만지고 있다.

그녀는 자기가 알고 지내는 점성술가에게 전화를 걸어 ‘급행 손님’을 부탁하면서 2주 뒤인 오늘 약속을 주선했다. 이 사람은 특별하여 저명인사들이 즐겨 찾는데 이 사람 자체가 저명인사라서 이름 대면 알 만한 사람들과도 각별한 사이라고 한다.

이 점성술가는 사회학 박사를 가진 독일인으로 이십 년 전에 미국에 귀화하여 점성술을 연구한 이래 명성을 얻어 아예 이 길로 들어섰으며 점성가로서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조연가로서 여러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돕는 것이 그 명성을 더하고 있다고 한다. 두 석 달 전에 예약해야 만날 수 있는 사람을 2주일만에 만날 수 있도록 예약했으니 그 사람이 좋아하는 튤립 꽃송이와 대화를 녹음할 두 시간 분의 오디오 테이프를 잊지 말고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마침내 적어 준 주소를 찾아 한 건물 앞에 섰다. 오래 되었으나 깨끗한 10층 짜리 아담한 프리워(pre-war)빌딩이다. 자바라형 문이 달린 구식 엘리베이터를 내려 문을 노크했다. ‘고장난 초인종’ 이라 적힌 종이 조각이 누렇게 바랜 것이 이 집 주인은 초인종 소리를 싫어해 고장난 채로 방치된지 오래된 모양이다.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가 잠시 들리더니 문을 활짝 열며 들어 오라 손짓한다. 갈색 금발에 가는 금테 안경을 낀

두 눈이 화사한 미소를 띠며 흐릿한 목소리로 "How are you, Mr. Kim?" 인사를 건네는 그는 뜻밖에도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백인 여자였다.

오기 전에 들었던 말로 나는 막연히 이 사람은 남자이겠거나 상상했었다. 손에 든 꽃을 건네주자 놀란 눈으로 어떻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 튤립인 줄 알았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꽃송이를 찬찬히 살피며 그 아름다움에 잠시 도취된 듯 나를 자리에 안내하는 것도 있고 바로 주방으로 향해 꽃병을 찾는다.

집안의 구석을 조심스레 살피는 나를 보고 황급히 뛰어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소파에 앉을 것을 권했다. 얼굴의 신선한 젊음과 다르게 육중한 체구로 뒤통거리며 뛰어 오는 모습에 웃음이 나올 뻔했다.

"오늘도 남편에게 튤립을 사 달라고 부탁했지만 조금 전 '아직도 튤립이 꽃집에 도착하지 않았다.' 는 연락을 받고 상심하던 차에 네가 이 꽃을 가져왔다." 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녀는 소녀와 같았다.

그녀의 남편은 록무직 평론가이다. 흑인이며 아직 무명인 이 두 번째 남편을 아주 자랑스러워했다. 이 붉은 튤립은 그 색깔이 깊고 은은한 것이 네덜란드 산인데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해하며 조심스레 손질한 한 송이 한 송이를 화병에 꽂는다.

그러는 동안 나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침실 두개와 화장실과 부엌을 갖춘 아담한 집이다. 이 거실은 몇 점의 그림과 간단한 장식장 그리고 소파가 있는 것 외는 간결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다. 벽에 걸린 풍경화와 추상화는 그녀가 손수 그린 그림이다. 한 쪽 탁자에 놓인 사진의 미소 띤 남자는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도의 성인이자 자기 스승이란다.

화병을 제자리에 놓고 돌아보며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그녀는 점쟁이라기보다 예술가였다. 화병 옆에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향의 옅은 연기와 어우러진 튤립을 신비의 눈으로 바라보며 도취된 그녀는 내가 도착한 지 삼십 분도 넘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 모습이 붉은 튤립 색깔만큼이나 순수하다.

내 마음에 조급함이 조금도 일지 않음이 신기하다. 방안에 은은히 흐르는 향내가 우리 나라에서 즐겨 찾던 절간의 향내여서 더욱 낯설음이 없다.

컵에 따른 주스를 들고 내 곁에 앉아 "I am Daniel." 이라며 악수를 청한다. 옆 탁자에서 담배 두 갑과 커다란 재떨이를 꺼내며 양해를 구하고 불을 붙였다. 탁자 위에는 너댓 장 분량의 파일 두 권이 놓여 있다. 그 중 하나를 나에게 건네주며 "내 설명을 들으며 보라." 고 한다.

준비해 온 녹음 테이프를 녹음기에 꼽고 스위치를 눌러 녹음이 되는가를 테스트한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는지 마지막으로 탁자 위의 조그만 자명종 시계의 현재 시각을 확인한 후 녹음보튼을 누른다. 그로부터 부지런히 녹음테이프를 갈아 끼웠고 그 분량이 4시간이 되도록 시간가는 줄 몰랐다.

그녀의 영어는 부드럽고 빠르지 않았고 호기심으로 정신을 집중해서인지 한마디 한마디 정확히 따라갈 수 있었다. 그녀와 함께 했던 줄담배 연기 속의 5시간 남짓의 시간은 내가 지냈던 동양 역학의 심오함에 대한 자부심을 깨기에 충분했다. 그녀에게서 들은 별점에 관한 기억은 이런 것이다.

나는 무슨 별자리?

사주 역학은 '年, 月, 日, 時' 라는 네 개의 기둥으로 인간의 운명을 풀어 나가는데 비해 점성은 '年, 月, 日, 時, 分' 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점친다. 운명 변수에 '分'이 추가된다는 점이 다르다.

별점의 출발점은 지구 주위의 별이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쳐 인간의 길흉과 생로병사를 좌우한다는 기본 가정이다. 그래서 태어날 때의 별 위치가 개인의 평생 운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고 해마다 변하는 별의 위치와 그

영향의 강약, 별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 날 그 달 그 해의 운세가 결정된다.

이러한 별의 영향을 평면적으로 고찰하는 접근 방법과 실제 별들의 궤도를 감안해 입체적으로 고찰하는 접근 방법이 있으며 별의 배치를 보고 전생을 해석한다.

나는 별의 배치가 그려진 성좌지도(Horoscope)를 보면서 그녀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Horoscope는 커다란 원에 원점을 중심으로 파이 모양의 12개방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반원의 좌측에서 1번방을 시작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2번방, 3번방 등등. 이렇게 해서 상반원의 좌측에서 12번방이 끝난다. 각방은 나름대로의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1번방은 'Identity, Image, Self-esteem'(자기주체, 이미지, 자존심), 2번방은 'Earnings, Credit'(소득, 신용), 3번방은 'Communications, Siblings, Local trip'(의사소통, 자매, 국내여행), 4번방은 'Father, Home, Psychic sensitivity'(아버지, 가정, 심령성), 5번방은 'Romance, Children, Arts, Leisure'(사랑, 자녀, 예술, 여가), 6번방은 'Work, Health, Pets'(직장, 건강, 애완동물), 7번방은 'Marriage, Contracts, Litigation'(결혼, 계약, 소송), 8번방은 'Sex, Death, Taxes, Legacies'(성, 죽음, 유산), 9번방은 'Foreign Travel, Religion, Law'(해외여행, 종교, 법), 10번방은 'Mother, Career, Social Status'(어머니, 직업, 사회적 지위), 11번방은 'Friends, Goals, Advisors'(친구, 목표, 조언가), 12번방은 'Karma, Limitation, Hospitals, Jails'(업보, 병원, 감옥)을 의미한다.

'해와 달'은 행성은 아니지만 이를 포함하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등 10개의 별이 자신의 생년월일시분에 따라 각기 다른 각도로 12개의 방에 흩어져 위치한다. 별의 배치에 따라 자신의 대표적인 별자리가 결정된다.

마치 동양에서 12간지로 12개의 띠가 대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12개의 별자리 중 자기를 대표하는 하나의 별자리가 있다. Aquarius(물병자리), Sagittarius(궁수자리), Capricorn(염소자리), Scorpio(전갈자리), Libra(저울자리), Leo(사자자리), Virgo(처녀자리), Taurus(황소자리), Aries(양자리), Cancer(게자리), Gemini(쌍둥이자리), Pisces(물고기자리) 등이다.

각각의 별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 Mars(수성)은 폭력, 갈등, 분노, 섹스를 상징하는 액션의 별이다. Venus(금성)은 사랑, 예술, 쾌락을 상징한다. Jupiter(목성)은 법, 종교, 해외여행과 희망, 신념, 팽창, 교육을 상징한다. Mercury(수성)은 의사소통, 생각을 Neptune(해왕성)은 자기회의를 Uranus(천왕성)는 뜻밖의 기회, 재난, 이별, 충동적 행동 등을 상징한다.

그밖에 Pluto(명왕성)는 감성의 변화를 의미하고 Saturn(토성)은 죽음과 절망, 지연, 그리고 새로운 건설 등을 의미한다. Moon(달)은 아내, 감정, 여자를 Sun(해)은 자신과 남편을 의미한다.

이 각각의 별이 가지는 특성들은 동양철학의 오행에 나오는 '火, 金, 水, 土, 木' 이 가지는 특성과 거의 흡사하다. 예를 들어 '木星'은 오행의 '木'이 가지는 특성과 거의 흡사하다. 동서양의 고찰이 이렇게 같은 것은 참으로 신기하다. 단지 오행의 다섯 변수 외에 다섯 개 변수가 더 추가된 것이 다를 뿐이다. 별점의 객관성은 놀랍다.

나는 한 때 역학에 심취해 본적이 있는데 그 오묘함과 심오함에 올라가지 못할 나무라 여겨 포기했다. 역학의 역(易)자는 그 훈이 '바뀔 역'으로 '만물은 수시로 바뀌고 따라서 운명에 대한 해석까지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해석하는 이에 따라 정반대 방향의 해석이 가능하고 어느 해석이 정답인지 판정할 객관적 잣대가 없다는 것은 과장해서 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격이다. 그래서 역학을 풀기보다 옹한 무당말이 낮고 옹한 무당말보다 UFO를 믿는 게 낫다고까지 생각한 적이 있다.

이에 비해 점성은 수학적인 기본 공식이 있고 그 공식을 별의 위치에 적용하는 것이라 숫자가 중심이 된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하는 해석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점볼 때 결론만 듣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점성을 모르는 사람도 Horoscope를 눈으로 보면서 점성가의 설명을 듣고 그 해석에 공감할 수가 있어 객관적이라 여겼다.

음양 오행에서도 숫자가 나오지만 점성은 보다 자세하고 엄격한 숫자로 별의 각도를 계산하는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음력이 아니라 양력을 사용하는 점이 다르다.

그런데 그녀와 있으면서 하나 놀란 일이 생긴다. 우리 나라 사주를 볼 때 양력을 음력으로 환산하기 전에 '時'를 우리 나라 한반도 위도에 맞게 조정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당해 년도에 서머타임을 적용했는지 살펴야 한다.

과거에 불규칙적으로 서머타임제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머타임제를 그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실시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해가 더러 있다. 사주책에 의하면 총무처가 보관하는 정부 문서를 뒤져도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해 여름 홀수시에 태어난 사람은 시각 조정을 정확히 할 수 없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알고 있는 터라 이 점을 내 생년월일시를 조정하는데 고려했나 물었다.

그녀는 나의 horoscope를 어제 컴퓨터로 뽑았다며 2주전에 가르쳐 준 생년월일시가 정확하다면 그 점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다. 양력이나 음력 생년월일시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탄생 시점에 나의 머리 위에 있던 별의 지도가 즉석에서 인쇄되어 나오고 몇 년 몇 개월 뒤 계속 이동하는 별자리의 지도를 자유롭게 뽑아 볼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는 것이다.

여기는 占보는 것도 완전 컴퓨터화 되어 있구나. 그래도 안심하지 않는 나의 표정을 보고 책장에서 커다란 사전을 꺼냈다. 그 사전에는 우리 역학책에서 알 수 없다고 한 년도에 서머타임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히 나와 있었다.

"이 사전은 영국 천문대 GMT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다. 내가 세계 도처의 사람이 들고 오는 생년월일시분을 영국 GMT시간으로 조정하는데 여태 한 번의 실수도 없었다. 설사 생년월일시가 틀렸더라도 너의 목소리와 얼굴형을 보고 나의 실수를 금방 알아 차렸을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한다. 차마 창피해서 "우리 나라에 그에 관한 어떤 기록도 없어 궁금했다." 라는 말을 목안으로 삼켜야 했다.

별자리를 해석하면서 혼자서 독백한 시간이 다섯 시간 가량 흘렀다. 별 질문 없이 혼자서 독백하는 것이 특이했다. 그 명증률은 둘째 치고라도 그 상세함이 나의 흥미를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지금 시점에 가장 기억나는 부분이 하나 있다. 그녀는 나에게 물었다. "당신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horoscope에 의하면 책 쓰는 것이 소득의 일부분을 차지한다. 혹시 글을 쓰고 있는가?"

무슨 똥판지같은 얘기인가. 작가의 꿈을 쫓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글재주에 관한 한 국민학교 때 '꿈'이라는 시로 선생님께 딱 한번 칭찬 받은 기억으로 위안 받고 사는 나인데. 대학 이후론 편지 한 통 제대로 써 본 적이 없고 글적거린 것이라곤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꾸미는 일밖에 없는 나에게는 '아니올시다' 라고 생각했다.

허기야 내 운명을 점치러 온 것이 아니라 호기심이 발동한 것이니 엉뚱한 점괘로 실망할 필요도 없지 하면서 흘러 보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 여자에 관한 얘기를 쓰고 있다. 책이 팔려서 소득의 일부분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환상이 깨어지면 슬픔이 기다릴까?

손님이 올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았다길래 그녀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져 보았다. 점성술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나고

그녀가 점성술에 빠지게 된 것은 점성술이 가지는 객관성 때문이다. 그날 그날의 기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숫자에 기초한 순수과학이기 때문에 끝났고, 운명에 순응하는 법을 배워 자기성찰과 성장을 꾀할 수 있어 점성술에 탐닉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제는 점성술과 점성의 해석에 기초한 조언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고 한다.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가?” 나는 다시 물었다. 그녀는 답하기를,

“이십여 년 전 사랑하는 첫번째 남편과 독일에서 미국 유학을 위해 이 곳에 왔다. 나는 사회학을 공부하고 남편은 법학을 공부했다. 나의 아버지와 남편의 아버지는 독일에서 판사를 역임하면서 알게 된 동료로서 나와 남편이 부부로서의 인연을 맺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에서의 편안한 유학 생활 중 지금 25살 된 장남과 23살 된 차녀가 태어났고 이들을 키우면서 이국 땅에서의 외로움을 잊고 행복한 가정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과 헤어졌고 나는 실의에 빠져 3년간을 내 자신은 물론 2살 된 차녀와 4살 된 장남을 돌보지 못한 채 삶의 의욕을 되찾으려 안간힘을 썼다.

마침내 두 자식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러 나섰고 이곳 저곳 아는 친구에게 직장 알선을 부탁했다. 유학생 부부로서의 생활과 달리 막상 이국 땅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하니 모든 게 여의치 않았다.

그러던 중 ‘너의 점성술은 우리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지 않니. 공부를 더해서 여러 사람들을 상대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야!’ 지나쳐 버리는 말로 들었던 친구의 목소리가 문득 머리를 스쳤다. 평상시 호기심에 읽던 점성술책을 선반에서 꺼내 들었다. 그리고 나의 별자리를 찬찬히 해독했다. 그리고 소스라쳤다.

남편과의 뜻밖의 이별, 점성술가로서의 소득, 이국 땅에서의 정착, 흑인 예술가와의 만남 가능성 등 내게 벼락같이 떨어진 지난 5년 간이 이미 그 안에 있질 않은가.

첫번째 남편과 이별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지난 과거지만 점성술가로서 생계를 꾸리며 이국 땅인 미국에서 정착할 것이라는 미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더군다나 흑인 예술가와의 만남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여 그를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백인인 자기가 흑인을 남편으로 삼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입에 풀칠하기 위하여 손님을 상대로 별점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나의 천직으로 굳어지면서 오늘 너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록뮤직 음악 평론가인 흑인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여유롭고 행복한 미소에 ‘어떻게 첫번째 남편과 헤어졌는가?’ 물을 수 없었다. 그 대신 “당신도 모르게 별점을 믿고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닌가?” 물었다.

“아니다. 뒤늦게 하늘의 섭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늘의 섭리에 따라 너의 모든 운명이 이미 정해진 것은 결코 아니다. 모든 것은 열려 있으며 선택은 너의 것이지 하늘의 것이 아니다. 단지 자연의 섭리를 받아 들이면 현명한 선택에 도움으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이 세상은 ‘학교’와 같은 것이다. 인간의 영혼은 육체를 바꾸어 계속 환생한다. 매번의 생에서 새로운 경험과 지혜를 배우며 정신적 성장과 영적 진화를 겪는다. 네가 태어 날 때 하늘의 별자리 배치도인 Horoscope는 하늘과 맺은 일종의 계약이다. 그 안에는 일생을 겪으며 만날 사람과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선택은 언제나 너의 것이다. 그 전의 생보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자신의 현명한 선택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 생은 ‘하느님의 실습장’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배우고 깨칠 수 있는 ‘인간의 학교’인 것이다.

예를 들어 Saturn(토성)은 죽음과 파괴의 별이요 Karma(업보)와 좌절의 별이다. 이 별은 환상을 깨어 책임과 정직을 강요하는 인간에 역경을 주는 별이다. 그러나 우주는 조화로워서 이 별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만을 주는 것이 아니다. 비록 우호적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과 극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우리가 존경하는 영국의 Churchill 경의 별자리는 점성 용어로 그랜드 크로스(Grand cross)와 티스퀘어(T-square)로 이루어져 있다. 인생이 역경으로 점철되어 있다. 인생에 어려움을 던져 주는 Saturn(토성), Uranus(천왕성), Neptune(해왕성) 등이 십자를 이루어 역경과 어려움으로 인생이 엮여 있다.

실제로 유년 시절 말더듬이와 박약아로 취급당하면서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과 인내로 겨우 말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역경을 만나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쓰러지면 일어나서 더욱 더 강한 인간으로 성장하여 영국을 구한 위대한 생애를 마쳤다.

유럽인 모두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처칠 경의 별자리와 비슷한 별자리를 가진 거지가 많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역경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은 경우이다.

처칠 경에게나 거지에게나 선택은 언제나 그들에게 있었다. 역경을 위대함으로 승화시키는 사람과 역경에 굴복하여 남에게 구걸하는 사람이 된 것은 신의 선택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선택이다. 우리는 이 생의 학교에서 배우고 그리고 다음 생에서 배워서 성장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얘기로 넘어간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은 점성으로 생계를 꾸려 가던 3년째 되던 해이다. 흑인을 만난다는 불안감이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던 중 우연히 꽃가게에서 흑인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이 따뜻하고 선량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마음 속에 헤어진 남편의 그림자가 남아 있어 그 뒤 몇 번의 눈맞춤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의 소식을 들었다.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전화 목소리에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리고 조용히 나는 운명을 받아 들었다. 환상이 깨어지면 슬픔이 기다리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항복하니 평안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다. 전 남편과 헤어진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내가 진작 현실을 받아 들였다면 전 남편과 헤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두번째 남편도 없었을 것이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싸우다 결국 원하지 않는 선택으로 흘렀다.

흑인을 두번째 남편으로 맞을 운명의 조그만 가능성이 나의 선택으로 현실이 된 셈이다. 반면에 나의 시어머니의 Horoscope에는 두번 결혼할 운명이 선명하다. 그러나 그녀는 한 남자를 선택하여 50여 년을 해로하고 있다.

나는 지금의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그 때의 시행착오로부터 배운 것이다. 큰 아들과 연하의 남편은 친구 이상으로 두터운 우정과 사랑을 나눈다.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다. 나는 역경에 처해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배움을 토대로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쁨으로 일한다.

그리고 항상 강조한다. Horoscope는 신의 명령도 아니고 예정서도 아니다. 단지 자신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 참고할 지침일 따름이라고"

#### 응급실의 이방인 자연치료술사

그때 다른 방에서 금속성 소음이 났다. 그녀는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쪽으로 향해 빠른 걸음을 걸었다. 시장하지 않느냐며 요기할 것을 갖다 줄까 하는 대화가 멀리서 들렸다.

그녀는 자리에 돌아와 "큰아들이 방광암에 걸려 고생하다 거의 완쾌되어 최근에 직장으로 복귀했는데 해안 경비대에서 일한다. 지금 저 소리는 오늘 밤근무를 위해 충기를 분해 청소하는 소리이다." 내 마음을 편히 해주려는 배려가 어색함이 없다.

그리고는 아들의 병환에 대해 화제를 옮겼다. "내 아들이 암에 걸려 이년간을 고생했다. 입원 치료에 별다른 성과가 없던 중 우연히 'Reiki Master'의 도움으로 병세의 악화를 잡을 수 있었다." "Reiki Master(자연치료술사)가 무엇인가?" 생소한 단어에 호기심이 갔다.

"두 손을 환부에 대고 치료술사의 육체를 통해 우주의 무한한 기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아들을 치료한 치료술사는 입원한 병원 응급실에서 시술하는 스페인 태생의 여인인데 신기하게도 그녀의 손길이 몇 번 닿은 후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호기심 어린 내 눈을 보고 그녀를 만나려면 목요일 저녁에 Universalist 교회로 찾아가면 된다고 미리 알려 준다.

그녀와 같은 치료술사들이 매주 그 성당에 모여 사람들에게 무료 시술을 베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다음주 일요일 점성술 세미나가 있으니 그 곳에 오면 호기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거라며 다음 손님을 맞을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와 작별 인사를 하고 건물을 나섰다.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 5층 위로 고개가 몇 번 돌려지더니 아직도 마음 속에 남은 인상이 잔잔한 흥분들로 일어났다.

시간을 내어 점성술 세미나를 찾아보았다. 그곳에서 육중한 몸집에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는 다니엘을 금방 발견할 수 있었다. 세미나가 끝나 삼삼오오 짝을 지어 잡담을 나누고 있는 중이다. 나를 본 다니엘은 반갑게 인사하고 자기 곁에 있는 여자를 캐서린 Kathleen이라고 소개했다. 일전에 말했던 자기 아들의 암치료를 도운 자연치료술사이다.

그녀는 40대 후반으로 작은 키에 다니엘 못지 않은 육중한 몸집이었다. 내가 초능력자로 상상한 모습과는 천양지차였다. 자연치료술은 보통 사람이면 누구든 몇 개월의 훈련을 받아 자격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초능력에 의한 시술이 아님을 알았다.

단지 자신의 몸을 매개로 우주의 힘을 전달해서 환자의 자생 능력을 돕는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하루에 네 시간을 응급실에서 시술을 하는데 많게는 30명의 환자를 돌본다는 것이다.

내심 믿어지지가 않았다. 우리 나라라면 주간지에 초능력을 발휘하는 치료술사로 실리고 세인의 관심을 끌면서 '미신 내지 사기'로 매도될 만한 것이 어엿하게 자격증을 갖추고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돌본다고 하니 말이

다.

그 방식이 실제로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증명되면 미신이나 초과학이나를 따지지 않고 응용하는 미국인의 철저한 실용적 사고에 놀라움이 앞섰다.

세미나가 생각보다 일찍 끝나 많은 사람이 이미 자리를 뜬지라 나도 돌아서려는데 캐서린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 “매주 일요일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프레드릭 Fredrick이라는 목사가 놀라운 초능력으로 저 세상 영혼과 대화를 나누는데 같이 가보지 않겠는가.”

아하 그 목사가 영화에서 보고 말로 듣던 Medium(영매자)로구나.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의 두번째 신비의 탐구가 이어졌다.

#### My mother!

사찰을 즐겨 찾는 내가 국민학교 시절 교회에서 부른 찬송가를 떠올리며 Kathleen 옆에 앉은 것은 일요일 오후 2시경이다. 조금 전에 가르쳐 준대로 종이 쪽지에 어머니 이름과 어머니께 질문할 내용을 한 문장 적어서 바구니에 조심스레 집어넣었다.

조금 전 교회 앞에서 캐서린은 나에게 일전의 자기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께 “자기가 최근에 사귀는 남자가 신랑감으로 괜찮은가?” 라는 질문을 했다. 목사의 입을 통해 어머니가 말하기를 “제발 이젠 그리스인은 그만!” 이라고 하더라. 자신의 전 남편은 그리스인으로 하도 말썽을 부려 이혼을 했고 우여곡절 어렵게 새로운 남자를 사귀게 되었는데 그도 우연히 그리스인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쪽지에 적은 이름에는 자신의 전 남편이 그리스인이었다는 어떤 단서도 없고 그 목사를 개인적으로 알지도 모를 뿐더러 당시 애인이 그리스인이라는 것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다. 그녀는 목사의 말에 너무 놀라 그 남자와 결별하고 그 뒤부터 일요일 교회에 나와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가 들은 다른 사람 얘기도 해 주었다.

신랑감을 애절하게 찾는 노처녀가 매주 교회에 나와 돌아가신 아버지와 대화를 했다. “내 짝은 어디에?” 라는 반복되는 질문에 아버지는 “너 가까이에서 찾으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몇 달간을 눈에 불을 켜고 찾다가 몸이 달은 그녀는 마침내 아버지께 그 이름을 물어 보기로 결심했다. 그 목사를 통해 아버지가 말하기를 “Robert near you!”(너 가까이 있는 로버트야.)

Robert가 성인 Fredrick목사는 자기 성을 말하는 영문을 몰라 멈칫하다가 그녀에게 무슨 질문을 했는지 물었다. 그녀는 창피한 나머지 망설이다 사실대로 나의 배필이 누군지 물었다고 했다. 그 때 저 뒤쪽에서 슬그머니 일어나는 청년이 “내 이름이 Robert이다.” 라고 더듬거려 말했다.

자기 배필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이야. 이래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로 들어섰지만 지금 좌중의 분위기는 엄숙하다.

찬송가를 부르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침내 영혼과의 대화 시간이 왔다.

목사는 두꺼운 천으로 눈을 가린 채 바구니에서 쪽지 하나를 집어든다. 그리고 사람 이름을 말했다. 좌중에서 “나의 할아버지이다.” 라는 대답이 나오고 목사는 그쪽을 향하여 짤막한 말을 한다. 그 사람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할아버지의 답변이다. 알아들었다는 대답을 듣고 목사는 다시 바구니에서 쪽지를 꺼내 들었다. 목사가 하는 말은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 맥락은 알 수가 없었다. 질문을 적은 사람만이 그 대답을 이해하는 듯했다.

간혹 긴 답변이 이어져 질문한 사람이 자신의 조상을 찾아 혈연 족보를 만들려고 도서관을 뒤지는 사람임을

집착케 했다. 나는 내 차례를 놓치지 않으려 정신을 집중하느라 머리가 멍하기 시작했다. 그 때 목사의 소리가 들려 왔다.

“동양인 여자처럼 보이는데 그 성이 Kim이고..” 라고 머뭇거리더니 어머니 이름을 어설피게 발음했다. 나도 모르게 “My mother!” 라는 우렁찬 목소리가 나왔다. 나를 향해서 고개를 돌린 목사는 “이 번 봄에 조심해야 한다.” 라고 말한다.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의 질문은 “아버님의 병이 완쾌되었느냐?” 였다.

나의 아버님은 몇 해전 갑작스런 중풍으로 고생을 겪다가 불굴의 의지로 거의 정상으로 회복하고 계셨다. 그러나 기온이 풀리는 봄은 노인들이 항상 조심해야 할 계절인지라 멀리 떨어져서 어른의 건강을 염려하고 있던 터였다.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어디엔가 어머니 영혼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같아 허공에서 눈이 떠나지 않았다.

교회를 나서는 사람들의 표정이 무척 밝아 보인다. 덩덤한 표정을 짓는 나를 보고 Kathleen은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나는 우물안 개구리. 세상은 넓고 신기한 일도 참 많다 占 占 占...

## 과거에 얽매이면 왼발이 무겁고 미래에 얽매이면 오른발이 무겁다

흑인이恨의 문화라니 웬 말?

미국거리를 걸으면 길가에 흐르는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몸과 다리를 가볍게 흔들거리며 걷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나는 그저 "이들은 캐주얼한 문화 속에서 캐주얼하게 사는구나."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흘렸다.

그러나 어느날 그들과 어울려 길가로 흘러 나오는 음악에 장단을 맞춰 흔들거리며 걷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다. 시간이 지나 그들 정서에 젖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경쾌해진 것이다. 결코 경박한 가벼움은 아니었다. 진솔함이 가지는 경쾌함과 적당함이 가지는 뿌듯함의 조화라 할까.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느낌이었다.

왜 그럴까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상 미래가 놓여 있다. 이러한 생각은 지금의 자신으로 하여금 과거에 얽매이고 미래에 집착하게 한다. 미국인의 사고는 보다 실용적이다. 현재에서 뒤를 쳐다본 것이 과거이고 현재에서 앞을 바라보는 것이 미래이다. 지금 현재가 미래와 과거보다 중요하다.

그래서인지 마음이 가볍다. 어릴 때 미래에 매이지 않고 나이 들어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삶.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에 충실하고 만족해 하는 행복. 그러나 찰나적 쾌락추구로 흐르지 않는 적당함. 한번쯤 새겨 볼만하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하여 하고 싶은 것을 타성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어린이, 이를 뒷받침하려고 노심초사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어렵사리 번 돈을 경쟁적으로 쓰면서 교육열에 불타는 부모, 이 뜨거운 교육열을 무작정 식히지도 부추기지도 못해서 고민하는 정부. 이러한 사회 현상이 없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중요하다. 유년기 교육에 투자한 시간과 돈이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러나 '최고'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미래에 과도하게 투자하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현명치 못한 낭비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너무 미래에 집착해서 오른발을 무겁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는恨의 문화에서 살면서 너무나 과거에 얽매어 왼발을 무겁게 하고 있다. 나는 미국의 흑인 문화를 우리와 비슷한 한의 문화라고 생각했었다.

"아프리카에서 끌려와 백인들에 의해 동물 이하의 취급을 받고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사회 밑바닥을 면치 못하는 등. 그들이 백인으로부터 당한 것을 생각하면 가슴속에 깊은 한이 맺혔을 게고 그래서 흑인 음악과 예술에 깔린 한의 정서에 우리도 쉽게 공감하여 끌리는 것이 아닐까."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 나오는 음악해설가의 코멘트이다.

그러나 흑인 친구들과의 접촉과 경험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 어디에서도 우리와 같은 한의 정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놀란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여러 도시나 조그만 마을에서 흑인의 역사나 문화에 관한 박물관이나 도서관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흑인들이 신대륙에 끌려와서 짐승 이하의 취급을 당하면서 겪은 눈물겨운 고통과 백인

들의 야만성과 탐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혹자들은 그런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정서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식으로 해석하고 우리와 같은 한의 정서가 흑인들의 깊은 곳에 있으리라 단정할 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추리이다. 그런 정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과거의 피맺힌 한을 가슴깊이 담고 있지는 않다. 적어도 전체적 삶의 중심에 슬픔이 깔려 있거나 한의 정서에 파묻혀 있지는 않다. 정작 그들 자신의 뼈아픈 역사적 악몽을 떠올릴 때 백인에 대한 증오와 적대감이 배어 나올지언정 감상적이거나 체념적인 패배의식은 엿볼 수 없었다.

지구상에 우리와 같이 독특한 한의 정서를 품고 있는 민족은 별로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것을 독특한 문화적 역사적 유산으로 여기고 가슴으로 어루만지는 민족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식민지 경험과 전쟁, 가난에 시달린 고통이 가져다 준 아픈 기억에 불과할 뿐 우리의 민족성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생각이 깊이 들었다.

대륙을 넘보는 고구려의 기상과 기개가 한의 정서에서 태어날 수 있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일제 식민 사관이 조작한 허상의 뒷에 걸려 있다는 것이 더 큰 비극이다. 하루빨리 한의 문화의 핵이 되고 있는 슬픔은 깨끗이 씻어 버려야 한다. '슬픔'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신명보다 '기쁨'과 '행복감'에서 우리나라는 경쾌함 속에 진정 강한 생명이 있다. 가장 어려울 때 앞날의 빛을 찾아 내는 힘은 경쾌함이다.

기성세대는 알게 모르게 자식들에게 자신들이 겪은 어려움보다 그 뒤의 슬픔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문해야 할 때다. 요즘 세계화 열기 속에서 외국 문화를 배우되 우리 문화 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각성이 일고 있지만 이것은 너무 막연하다. 과거의 유산이라도 현재와 미래에 도움이 안 되면 주저 없이 버리는 마음가짐을 다져야 한다.

혹자들은 우리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웬만한 나라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위치로 전진하고 있으니, 그리고 젊은이들의 경쾌한 정서가 물결치고 있으니 그런 슬픈 정서는 자연히 사라지지 않겠는가 라고 여유로울 지 모른다. 너무 무심한 생각이다.

#### 왜 우리 노래는 슬프지?

지금 우리 전체 국민 각자가 마음속으로 아끼는 가요곡들을 조사해서 통계를 낸다면 그 90% 이상이 애상적인 곡이 아닐까 싶다. 아직은 애상이 대다수 국민 정서의 심층을 차지한다고 여겨진다. 한가지 재미있는 것은 우리 기준에서는 그래도 경쾌하다는 곡이 외국인의 귀에는 슬픈 정서가 담겨 있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에서도 요즘 우리 교포가 운영하는 노래방이 성행하고 있는 데 맨해튼에도 열개 남짓의 노래방이 있어 미국 친구들의 호기심이 나를 그쪽으로 안내하게끔 한 적이 종종 있었다.

New York 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 중에 가수 지망생이 있었다. 그는 영국 태생으로 청운의 뜻을 품고 큰 물에서 놀아 보자는 심산으로 이 곳 New York으로 건너와 조그만 레스토랑에서 노래를 부른다.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안되니 Video Editor(비디오 편집가)의 직업도 가지고 있다.

NBC, ABC 등 유명 방송국이 제작한 한시간 짜리 프로그램을 맡아 편집하는 걸로 봐서 솜씨가 꽤 괜찮은 모양이다. 돈이 모이면 종적을 감췄다가 한 달쯤 뒤에 나타나는데 어디 있었나 물어 보면 친구집을 돌며 연주 연습과 녹음 취입을 하면서 놀았다고 한다.

요즘 말로 언제 뜰지 기약 없고 때로는 집세를 걱정하지만 항상 즐겁고 경쾌한 것이 내일을 심각하게 걱정하는 표정을 35살의 얼굴에서 본 적이 없다. 코리아에 관심이 없다가 내가 코리언이라 하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

다. 자기 전공이 노래이다 보니 우리 나라 노래를 듣고 싶어해서 노래방을 한번 같이 가본 뒤로는 다른 친구와 노래방에 가는 길에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합류하지 않겠느냐고 하곤 했다.

그들은 직업이 음악을 다루는 가수이자 연주가라 노래방에 가면 우리 노래를 한번 듣고도 흥얼거리는데 “보다 행복한 노래를 선택하라.” 고 주문한다. 내 댄에는 고른다고 골랐는데 썩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닌 눈치다. 결국 우리 나라 노래는 종치고 경쾌한 영어 노래로 옮겨가 흥을 돋구다 노래방을 나서기 일쑤였다.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과도 노래방에 갈 기회를 자주 가지곤 했는데 내가 민간 외교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진 탓이다. 우리 나라에 대하여는 올림픽 때 TV를 봐서 겨우 이는 작자들에게 우리 노래를 처음 접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니까.

뉴욕에 사는 이들은 다른 나라 문화를 감상하고 즐기려 할 뿐 배타적인 시각이 크지 않다. 이곳은 세계 각국의 문화와 풍습과 예술이 한데 모인 거대한 전시장이다. 그러니 생소한 것에 접하고 즐기는 것이 이곳 생활의 가장 큰 낙이요 바로 여기 사는 이유이다. 세계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는 셈이다. 여러 나라의 음악에 접해 본 그들 귀에 대체로 우리 가요가 애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다를 바 없었다.

우리 나라 곡조는 가사에 상관없이 경쾌한 가운데 어쩐지 슬프고 영어 노래는 슬픈 가운데 어쩐지 행복하다는 뜻이다. 물론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다. 외국 가락을 흉내낸 신세대 노래는 그렇지 않았다.

어쨌든 아직도 우리 정서에는 체념적이고 슬프고 감상적인 정서가 많이 자리잡고 있으나 그것을 과소 평가하고 있는 게 확실하다. 물론 우리의 관점에서 서구적인 경쾌한 정서가 점차 X세대의 문화로 지칭되면서 더해지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히 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패배적이고 슬픈 기억은 가슴에서 말끔히 털어 내야 한다. 필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에서 얻은 교훈이지 마음을 무겁게 하는 슬픔이 아니다.

대륙을 넘보았던 고구려의 기상과 기개가 없으면 우리보다 큰 나라를 상대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한의 정서에서 대륙을 넘볼 수 있었던 고구려의 기상과 기개가 어찌 기운차게 자랄 수 있으랴. 저 넓은 미래를 향해 뛰어 들 수 있는 기개와 기상이 어찌 여기에서 나올 수 있으랴. 경쾌함이 기상과 용기를 낳는다. 과거에 집착해서 왼발을 무겁게 해서 안된다.

과거에 집착하면 왼발이 무겁듯이 미래에 집착해서 오른발을 무겁게 해서도 안된다. 최고 학벌, 최고의 직장, 최고의 신랑, 최고의 가구... 이렇게 ‘최고’의 미래에 집착한 조급한 마음은 결코 최고를 낳을 수 없다.

진짜 최고는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최선을 다할 때 충실함이 주는 행복감과 여유로움에서 절로 찾아오는 것이다.

과거와 미래의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의 발을 가볍게 하면 경쾌한 미래가 소리없이 우리 곁에 다가오리라.

## 혼자였어도 행복했어요

뉴욕에서 변호사 자격시험 Bar Exam을 보게 되면 그곳의 친족상속법, 그 중에서도 이혼관련법을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하는 데 이 분야의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혼관련법은 우리와 다르다.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가는 성급히 판단할 수 없다. 다만 그 차이점으로 기반이 되는 사고가 우리와 다름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경우는 "결혼이라는 부부관계의 지속, 유지가 자녀나 가정을 위해 절대적으로 유익하다. 그러니 대승적 견지에서 자녀와 가정과 집안의 명예를 위해 두 사람의 희생과 노력과 인내가 수반되어야 함은 불가피하다." 라는 생각이 결혼 생활 전반에 바탕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예사로운 인연이 아니다 라는 불교의 12연기설이나 하느님의 인도라는 기독교 사상도 근거에 깔려 있다.

반면에 미국인은 "결혼이라는 부부관계의 지속, 유지가 자녀나 가정을 위해 유익하다. 그러나 각자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니 각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결혼생활의 조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충분하다. 희생과 인내는 행복과 배치된다. 불행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식보다 불화가 없는 외톨이 부나 모 밑에서 자라는 자식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다.(Interests of Child)" 라는 사고가 바탕이 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 대안이 소용없을 때 마지막 대안으로 이혼을 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희생과 인내로 기다린다고 행복이 더해질 수 없다. 혼자 있어도 행복했으며 둘이 합침으로써 더 행복해 지길 원했기 때문이다.

이혼 사유를 판단할 때에도, 우리의 경우는 일방의 과실 내지 잘못이 있는가의 여부가 관심이 되는 반면 그들은 앞으로의 결혼생활의 조화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의 생각이 과거지향적이라면 그들의 생각은 미래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자신에게 무책임한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휴머니티를 누르기보다 상대방과의 현실적인 타협을 통해 자신의 인간성humanism, 아이덴티티 identity를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교에서 만나 5년 간의 연애를 하고 결혼한 부부가 있었다. 남편은 공인회계사로서 넉넉한 수입에 무척이나 아내를 사랑하여 주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고 아내는 직업 여성의 길 대신 가사를 돌보고 건강한 3살된 아들을 키우는 주부로 바쁘게 생활했다. 그 부부애가 대단하여 완벽한 결혼생활의 행복을 누리던 중 아들이 예상치 않은 병에 걸렸다.

두 부부가 온 정성으로 치료에 매달리면서 따뜻하고 평안했던 가정이 노심초사와 긴장으로 얼룩져 1년을 보내지만 안타깝게 아들을 잃고 만다. 두 부부는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의지했고 아들 치료를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더욱 더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진다.

그러나 아들을 잃은 후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제안했다.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1년간의 냉각기를 위한 별

거에 동의했다. 1년이 지난 후 두 부부는 더 이상 결혼생활의 유지가 두 사람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데 동감하고 헤어진다.

나로서는 의아하다. 아들을 잃어서 서로가 정신적 충격이 크겠지만 그렇다고 옛날의 행복했던 시절을 되찾기 위한 더 많은 노력 없이 그렇게 허무하게 헤어질 수 있겠는가. 잃은 아들은 아들이고 부부는 부부로서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지 왜 헤어지려 하는가. 인내를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노력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이리했다. 아들의 치료를 위한 고전 분투와 아들의 상실이라는 충격적 경험이 두 사람을 변하게 했다. 외부 충격에 의하여 사람이 변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변하지 않았다고 믿는 것은 그렇게 믿고 싶은 심정일 뿐 현실 부정이다.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변하는 지는 개개인의 문제이다. 변한 두 사람이 good chemistry(좋은 궁합)인가의 여부는 두 사람의 고유한 주관적인 판단 영역에 속한다.

아들이 병든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사람이 변한 것도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것 모두 그들에게 닥친 '자연현상'일 뿐 어느 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없다. 즉 사람에게 일어난 인간현상은 결국 자연 현상이라는 것이 그들 사고의 핵심이다.

이렇게 변한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것이 서로가 기대하는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느껴지면 헤어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과거의 좋은 기억 내지 정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과거의 좋은 관계가 현재의 관계를 소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원하는 바를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성취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판단 기준일 뿐이다.

자신의 결정에 역지로 이유를 붙이지도 않는다. 상대방도 이유를 요구하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을 해석하여 붙일 이유를 찾는 것이 항상 가능하다고 믿지 않으므로 이유 같지 않은 이유는 필요 없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면 그것을 존중한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이유를 달고 그것으로 상대를 설득시키려는 도식은 인간의 내면을 완벽하게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곤한 발상일지 모른다. 자연현상을 머리로는 전부 이해할 수 없듯이 인간현상에는 머리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가슴'으로 받아 들일 수 있음이 자연의 일부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 잘못하면 총맞을 일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일로 또는 이는 친구의 소개로 교제의 범위를 넓히게 되었는데 거기서는 이는 사람을 소개하고 소개받는다는 것이 우리 문화에서 처럼 무거운 일이 아니다.

소개란 한 장소에서 이름을 말하고 서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소개받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나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 즉 내가 소개할 사람은 이러이러한 학력과 배경에 그 성격이 어떻고 사회적 평판이 이러하고 등등의 말이 없다. 그냥 자기가 이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전하는 것이 고작이다. 물론 친하면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물어 볼 수 있지만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가 아니면 이런 일은 없다.

우리 나라 같으면 소개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소개할 사람에 대한 자신의 평가로부터 주위에서 들은 것까지 없어서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소개받는 사람도 그것을 기대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주로 좋은 점만을 잘 얘기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아마 도중에서 소개하는 사람이 두 사람의 인연을 맺어 주는 계기가 되므로 잘 되라는 소망내지 책임감도 작용하는 것일 게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특별한 책임의식이나 생색을 낸다는 마음이 없다. 소개자는 그냥 계기를 만들어 줄 뿐이다. 소개받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것이니 내가 가타부타할 개재가 없다는 개인주의적 사고이다. 그 이상은 남의 인생을 간섭하는 비신사적인 행동이며 적대적인 태도로 비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문화는 중간에 다른 사람의 소개 없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피부 색깔과 언어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런 접촉마저 꺼리고 세계에서 가장 배타적인 민족의 하나라는 평판을 듣는다.

언어 장벽도 장애물이지만 문화적 차이 때문이다. 단체주의의 영향으로 단체에 자기 자신을 매몰시키는 것을 편하게 느낀다. 혼자서 무엇을 하는 것이 불안하다. 혼자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어릴 때부터 이런 습성이 배어 있지 않다.

그래서인지 단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것을 개인주의라 생각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생각하지 않는다. 남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이기주의와 분간하지 못한다.

미국같은 철저한 개인주의적 풍토의 나라에서는 권리나 허락없이 함부로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이기적 행동은 적대적인 행동으로 간주되고 잘못하면 총 맞을 일이다.

## 손에 쥐어야 든든해요?

우리와 미국인은 기본가치체제에서의 우선순위가 다르다.

농경문화의 전통을 가진 민족에게는 땅의 소유가 소원이요 꿈이다. 우리는 뿌리깊은 농업사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조상과 부모가 물려 준 땅, 그리고 앞으로 자식에게 물려 줄 땅을 가지고 있으면 땅땅거릴 수 있고 그래서 마음이 든든하다.

반면 미국인에게에는 편의성이 가장 중요하고 소유는 그 다음 문제이다. 우리와는 다른 상식이다. 미국의 중산층은 큰 목돈으로 집을 사는 법이 없다. 소수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은행 용자로 집을 장만하고 이삼십 년에 걸쳐 이를 갚아 나간다.

차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리스(lease)를 받아 장만한다. 즉 차종에 따라 작게는 100불, 많게는 500불의 downpayment(처음에 내는 계약금)를 내고 매달 몇 십불 내지 몇 백불을 지불하여 1년 내지 5년간 불입하는 방법으로 차를 산다. 그 조건이 다양하며 어떤 차를 살 것인가 결정할 때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 이를 신중하게 고려한다.

우리의 할부 구입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불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채 돈을 더 주고 새로운 차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인들은 돈을 지불하여 소유권보다 편리함을 사려한다. 그래서 자기 집이 없으면서도 자기 차를 목돈으로 사는 우리 나라 샐러리맨을 의아하게 생각한다.

당신은 왜 차를 샀는가? 택시 잡으려 기다리다 화가 나서... 출퇴근용이라면 차를 사서 다니는 불편함이 전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불편함보다 나은 바 없다. 차값, 보험료, 기름값, 기타 등등 생각하면 더욱 더 그렇다. 그래서 미국인은 자기 상식으로 고개를 가우뚱한다. 편리함보다 소유욕에 집착하는 자본주의에 뒤떨어진 생각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관계도 소유하려 한다. 이것을 情이라는 미덕으로 여긴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면서 이것을 자식에 대한 지극한 정성이요, 희생이요 의무라고 여긴다.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돌보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혼자서 당당하게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려는 기개와 자립심이 없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부자지간의 정, 모녀지간의 정, 내리사랑이라 한다. 부모와 자식간에 흐르는 따뜻한 정. 이는 우리의 자랑이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을까. 부모는 자식과의 관계를 소유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식을 통해 충족할 수 있다.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를 소유함으로써 부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안주할 수 있다. 서로를 소유하여 의지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매꾼다.

부모 자식간뿐만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 등 계기가 되면 서로의 인간관계를 소유하려 든다. 그래서 어떤 끈으로든 관계가 되면 중요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남이라고 철저히 배척한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네 편 내편을 가르고 이유 없는 불신과 의미 없는 싸움으로 번진다.

인간관계는 소유할 수 있는 '물체'가 아닌 그저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훈훈한 情'이라는 미덕의 이면에는 인간관계마저 소유하려는 끈적끈적한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하지 않을까. 개인주의의 문화 풍토에서는 인간관계를 소유할 수도 없고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소유하려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기주의로 빠져들기 쉽다.

자본주의에서 살아 남으려면 우선 자기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인주의적인 개인이 현명한 개인

이다. 자기 자신을 위하러면 남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자기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계산해야 한다. 공정한 룰을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됨을 아는 사람이 개인주의적인 개인이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남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자기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계산하지 못하는 편협한 이기주의와는 천양지차로 다르다. 또한 현대가 자본주의에 기초하는 한 개인주의는 미덕이요 선으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 자기 자신을 위하고 사랑하는 것이 첫째요, 같은 정도로 남을 존중하고 착취하지 않으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둘째이다.

자신의 행복이 넘쳐서 자연스럽게 남에게 전달되어야 분위기가 산다. 자신의 행복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협당할 때, 다른 사람이 위협에 빠졌을 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분연히 일어나 행동에 옮기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정의요, 자연스런 애국심이다.

## 로마에 가면 로마법 만들

과연 이 거인의 나라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드넓은 국토와 풍부한 자원에 좋은 기후 조건, 정말 신의 축복을 받은 나라일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누리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비행기가 뉴욕의 케네디 공항에 가까워졌다는 스튜어디스의 기내 방송이 있기 전까지 내내 나의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이다. 가슴에 이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꼬리를 물고 잔잔히 가슴을 채우더니, 잠 못 이루는 밤 머리맡의 또렷함처럼 하나가 되어 다가왔다. 그리고 줄곧 마음 한구석에서 나를 위안하는 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이 곳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제도 또한 내가 아는 상식과 다르니 갖태어난 아기처럼 다시 배워야 했다. 조그만 일도 물어서 배워야 하니 나는 여기서는 미국 중학생 수준보다 못한 것이 아닌가 스스로 되물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였다.

6개월 정도가 지나서야 이 나라의 제도에 접하는 것이 그리 큰 불편함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지만 미국인과 함께 어울려도 편안하게 느껴질 만큼 그들의 문화나 정서에 빠져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시간이 필요한 학습과 적응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는 격언처럼 모든 것을 그 나라에 따르라." 는 선배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그들의 행동을 흉내내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쳤다. 스트레스가 엄청났지만 이것이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아닌가 자위하면서 노력했다.

시간이 지나고 차츰 현지 적응에 속도가 붙어갈 무렵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는 격언에 대한 미국식 해석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미국인들은 '모든 것을 그 나라의 방식에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면 다른 것은 몰라도 로마의 법만은 따르고 지켜야 한다.' 는 의미로 해석했다.

미국에 왔으니 모든 것을 미국식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미국에서일지라도 한국 음식이 좋으면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옷이 좋으면 한국 옷을 입고 우리 문화 풍습대로 행동하고 살면 그만이다.

단 미국의 법만은 지키고 따라야 한다. 그들의 법은 그들의 상식이고, 사회를 지탱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네들의 게임 규칙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닌 한, 그리고 미국인의 눈에 자기들에게 해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설득이 함께 하는 한, 우리의 취향과 문화를 떳떳하게 누려도 상관없었다.

경직되고 권위적인 규범과 획일적인 행동 양식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살다 온 나에게 그것은 거대한 문화적 충격이었다. 그 후 나는 만나는 친구 중에 우리 문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이에게는 대화 중 관련 토픽이 나오면 빠짐없이 '우리 나라는 이러한 풍습이 있다.'고 말해 주곤 했다. 한 걸음 나아가 한국식대로 행동하면서 "This is a Korean way.(이건 한국식이야.)"라고 농하고 웃으면 나의 만족스러움이 그들에게 전달된다.

자기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것은 없다. 그 자연스러움이 상대를 편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때부터 무조건 미국식을 배워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나 스스로를 조금씩 표현할 용기가 나기 시작했다.

TV 좌담회에 참석한 모 인사가 세계화를 논하면서 "우리도 미국식으로 아침 식사를 개선하고 그들의 편리한 문화를 배워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세계화가 곧 서구화는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들

의 취향을 그대로 배우자는 것은 노예적 발상이다.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도 취향이 다른 데 다른 기후와 풍토에서 다른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미국인의 취향이 우리와 같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 될 수는 없다. 그들의 문화는 그들의 취향이 반영된 것이다.

햄버거보다 된장을 좋아하는 한국인을 애국자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듯이 햄버거를 즐기는 것이 합리적인 미국식 문화를 배운 사람이라고 우쭐댈 필요도 없다. 그저 편견과 아집 없는 합리적인 머리에 자기 입맛을 갖추는 것이 세계화와 호흡하는 한국인이다.

## 北女와 南男의 부부싸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분단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특히 우리와 남다른 관계를 맺어 온 미국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느끼고 있나. 나로서는 여간 큰 흥밋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남의 일로서 나라밖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세상사의 일부에 불과할 뿐 깊이 생각할 주제가 아니다. 그저 신문에 나는 기사 거리나 TV 화면에 잠깐 비치는 그림이 우리에게 대해 느낄 수 있는 것의 전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나보다는 어떻게 느끼나 살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지구상에 몇 안되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 두 종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는 듯하다. 그러나 어느 쪽이 사회주의국이고 어느 쪽이 자기의 우방인 자유민주주의국인지, 어느 쪽이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인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다만 뉴욕 상점에서 접하는 고객이 대부분 남한 South Korean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더 잘 사나 보다 하는 정도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TV나 신문을 볼 때 남한에 관한 기사인가 북한에 관한 기사인가 유심히 구분을 두고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획일적이고 독재적인 인상이 남한의 인상과 합쳐져 Korean하면 남북한이 합쳐진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이미지가 세계인이 가지는 일반적인 이미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즉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것이다.

두 나라의 체제가 완전히 다른 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두 이미지가 합쳐질 수 있나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사실상 그들 눈에는 두 이미지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TV 화면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어서 대부분의 이미지가 TV 화면을 통해 형성된 듯한데 남한 관련 그림이나 북한 관련 그림이나 공히 그들의 눈에는 획일적인 사회로 비친다는 것이다.

광화문 거리에서 물밀듯이 지나가는 차는 몇 가지 안되는 차종이고 - 미국인들은 차에 대해 관심이 커서 일상사의 대화 중 빠지지 않는 애것거리인데 거리에서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한눈에 같은 차종이 들어오는 법은 거의 없다. - 시민들의 걸음걸이가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이나 뭔가에 쫓기는 듯 여유롭지 못하고 경직되어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한복을 한번쯤 본 미국인들은 우리의 여유로움에 감탄을 한다. 저렇게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저런 여유로운 선이 나오는가. 우리 한복의 선. 우리 조상이 가꾼 그 굵은 선은 여유와 낭만이 넘쳐흐르는 선이다. 어느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하는 선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저들의 눈에 자기들을 뒤쫓아오고 무언가 쫓기는 국민으로 비춰지고 있다.

가끔 보는 국회의사당 건물은 건축가들 사이에 입에 오르내리곤 하는데 한마디로 "심미성을 추구해서 기능성을 희생한 것도 아니고, 기능성을 위해서 심미성을 희생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역사성을 추구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추할 뿐이다." 라고까지 혹평을 하는 이가 있어 내 얼굴이 붉어질 정도이다. 이런 그림은 외국인의 느낌을 고려해서 우리의 상징으로 내세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국인이 통일에 대하여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일이다. 국제 정치 무대에서의 미국은 강대국으로서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여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제국주의 나라로 비춰진다. 국제정치는 오로지 힘의 논리라는 냉엄한 현실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 들일가에 대하여는 미국인들 사이에도 논란이 많다.

평범한 미국 시민들은 국제 무대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나라 일에 끼여들고 간섭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는 무척 비판적이다. 남의 일에 끼어 들기 싫어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반영된 탓도 있지만 그 돈을 국내적으로 써야 한다는 실용적인 생각에서이다.

아무튼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그들이 우리의 통일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와는 별개로 두나라가 하나로 되는 통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강압적으로 분단된 상황을 겪어 보지 못한 미국인이 우리의 마음을 어찌 알라마는 그들도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50개의 독립된 주가 통합되는 과정을 봤았기 때문에 통일 문제를 접근할 때 그들의 역사적 경험이 알게 모르게 작용한다. 따라서 EU의 통합과정을 *civil law*를 중심으로 한 다수 국가의 통일 과정으로 이해하고, 미국이 *common law*를 중심으로 다수의 주가 하나로 통일되는 과정과 비교 분석하는 사고는 흥미롭다.

이러한 미국인의 눈에는 우리의 통일 문제가 여러모로 이상스럽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다. 수 천년을 함께 살았던 한 민족이 강대국에 의해 강제 분할되었다가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강대국의 간섭이 사라졌는데도 두 나라가 해결을 못하니 안타깝게 보여지나 보다. 그들이 우리의 문제에 신경을 쓰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역력한데 남북한 두 나라에 맡겨 놓으면 서로 싸우니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들이 끼여든다는 생각이다.

워싱턴의 사교 모임에 참석하면 으레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가 화제로 떠오르곤 했다. 그럴 때면 나는 이들에게 우리 민족의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애쓰면서 남북한의 통일 논리와 나의 생각을 열심히 설명하곤 했다.

나의 설명에 뒤따르는 많은 질문이 있기 마련인데 그들을 명쾌하게 이해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나의 영어가 뒷받침이 안되는 이유도 있었지만 나의 설명이 이들에게는 상식에 기초한 명쾌한 논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논리보다는 감정이 앞서 있다는 반응이다. 남북한이 얻고 잃은 것을 계산하고 타협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남한의 통일 방안이나 북한의 통일 방안이나 공히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통일방안 뒤에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는 지 모르지만 이성적인 논리보다 감정이 앞서 비상식적인 방안이 된 것이다.' 라고 결론 내는 이도 있었다.

"너희 두 나라의 긴장은 마음을 맞추지 못하는 두 부부의 감정 싸움이다. 두 부부가 화해하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 제 3자의 눈에는 당연한 것이지만 두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어떤 독일 변호사 말이 생각난다.

南의 男子와 北의 女子의 화합. 과거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는 일이다. 마음을 비우고 만나는 일이다. 정치인도 기업인도 자신들이 추구하는 '명분'과 '이익'을 생각하기 이전에 만남 그 자체를 즐겁게 생각하고 만남과 만남이 쌓이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 꼭 집어서 구체적으로!

바늘끝으로 파서 핀셋으로 뽑아내야

좀 더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More specifically!**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많이 접하게 된 말이다. 미국인들이 많이 사용한다기보다 나에게 특히 자주 던져진 요구이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취향이나 감정의 전달보다 정보 전달 성격의 대화에서 특히 던져진 요구이다.

제일 처음 이러한 요구에 접하는 경우는 미국 유학 준비를 위해 응시 원서를 받았을 때이다. 원서 작성을 위해 채워야 할 많은 칸은 우리 사회에서는 접해 보지 못한 상세함으로 짜여져 있다.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상세한데 이 중에서 한가지쯤 적당하게 채워도 대세에 큰 지장이 있겠는가. 더군다나 이 항목에 내가 막히는 것은 나만의 문제는 아닐 거야. 우리 나라 사람이면 쉽게 채울 수 없는 항목이니 할 수 있지.' 하고 넘겼다.

그래서 대학 때 참여한 특별활동이 무엇인지 묻는 난에 법경제학회 라는 거짓말을 쓰고 나아가 구체적으로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묻는 난에는 그럴듯하게 말을 꾸며 매꾸었다. 말하자면 미국식 질문에 한국식으로 답하면서 넘어 간 것이다. 거짓을 쓰면서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지만 분명한 사실이 아니니 엄연한 거짓말이었다.

아마 우리 사회에서 양해될 적당한 말이고 우리 사회의 회색 지대에 속하는 거짓말이리라. 거짓과 참 사이에는 선명한 선이 있는 법인데 나는 그 중간에 위치하는 거짓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 회색 지대의 거짓에 알게 모르게 적응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은 미국 생활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 중의 하나이다.

이렇듯 자기 의사를 상세히 답변 할 것을 요구하는 장면에서 나는 얼버무리거나 분명한 사실이 아닌 말로 답변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미국에 도착한 후 법대에서 내가 택할 과목을 정하기 위해 지도 교수를 찾았다. 지도 교수의 서명이 있어야 그 과목 선택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 시스템에 접해 본 적이 없는 외국 학생들에 대한 배려의 일환이다.

교수와 마주 앉았을 때 질문이 연속되었다. 이 과목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그 쪽 분야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가 나의 대답이었다. 연이어 질문이 계속된다. 같은 취지의 질문이 연속되어 피고인 심문을 받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 교수의 말과 행동은 친절하고 따뜻하여 나를 도와주려는 것임이 틀림없었다. '그만 질문하고 서명이 나 해 주었으면 그 과목을 몰라서 배우려 선택하는 나에게 무리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군.'하면서 진땀을 뺐다.

지금 생각하니 그 당시 교수의 질문에 대한 정답은 "나는 이러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이 과목의 이런 점을 배우겠다." 이다. 나의 부족한 점과 필요한 점,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채워야 할지 분명했어야 했다.

한 학기가 지나고 학기말 고사를 치른 후 학점이 통보되었다. 가슴 죽이고 기다리던 계약법 시험 결과에 신경이 날카로웠다. 4학점이라는 높은 비중 때문뿐만 아니라 가장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입한 과목이기 때문이다. 매 수업 전날 악몽을 꿀 정도로 시달려야 했던 계약법 강의가 이제야 끝났구나 하던 안도감. 시험 종료 종소리와 함께 찾아 왔던 이 안도감이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초조감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결과는 P(pass)였다. 평점은 VG(very good), G(good), P(pass), F(fail)로 등급화되어 있으니 나는 과락을 겨우 면한 퍽걸이를 한 셈이다. 강의실에서 학생 각자가 쓴 답안지를 나누어 준다는 공고를 보고 지정 강의실을 찾았다. 학생들이 자기 채점 답안지를 열심히 보고 있었다. 내 답안지를 받아 펴 보았다. 깨알같은 글씨가 내 답안지의 여백에 가득했다. 점수가 시원치 않은 이유를 대신하는 듯했다.

나는 시험 문제지를 받았을 때 마침 예상 문제가 나와 행운을 잡은 것에 기뻐하며 머리에 정리해 주었던 것을 그대로 옮기기에 비뻤었다. case문제 둘과 약술형 문제 셋 중에 약술형 문제는 완벽히 외어 둔 것이라 문제없고 case 문제 둘을 적당히 쓰면 G 내지 잘하면 VG 학점을 받을 수 있으리라 내심 기대했었다.

채점 답안지를 받아 보고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 모범 답안이라 생각했던 약술형 답안 여백에도 교수의 코멘트가 깨알 글씨로 뒤덮어 있었다. 아무튼 교수를 직접 만나서 물어 보기로 했다. 교수의 깨알 글씨의 글체와 축약형 문장이 외국인인 나에게서는 암호로 보였다. 그래서 이 암호 해독을 할 겸 교수 면담을 약속했다.

일주일 뒤 교수실 문을 당당하게 들어 선 나는 30분간의 면담 끝에 초죽음이 되어 교수실 문을 나왔다. 그 여 교수는 강의실에서와 같이 모질게 나를 대했는데 답안에서 언급한 자신의 코멘트를 하나 하나 친절히 설명해 주는 것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소름이 끼쳤다.

나의 머릿속의 사고 과정을 손바닥 보듯이 간과하면서 코멘트를 적은 것이다. 설명 뒤에는 잇단 질문이 던져졌다. 내 답변 뒤에는 어김없이 More specifically!(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하라) 라는 교수의 말이 연이었다. 나의 지식의 부족함보다 분명치 못한 추상적 사고방식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학교가 자랑하는 소크라테스식 교육법이 강의실 밖인 교수실에서도 연장되어 발가벗긴 기분으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마치 3시간 같은 30분 속에서 한 학기의 강의 분보다 더 많은 배움이 이루어 졌다. 그 시간 배운 것은 두고 두고 미국 생활의 거름이 되었는데 요점은 이러하다.

상세히 많이 썼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많은 정보 중에 꼭 필요한 정보만 추려서 던져진 질문에 답해야 한다. 정보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 질문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것이고 아무리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 질문에 직접 관련되면 바늘 끝으로 파서 핀셋으로 뽑아 내야 한다. 물론 여기서 전제는 원하는 질문이 선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문화는 여기에 비교하면 두리 등실한 질문이 선호되고 이에 더 두리 등실한 답변이 양해된다. 상세함이 양적인 크기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터득하기란 상세함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마 이 부분은 그 사회의 전문화 정도와 가장 잘 비례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상세함과 구체성이 전문화를 낳고 전문화되니 더욱 구체적이고 선명한 그림이 요구되고 이런 식으로 진전된다. 마치 어린이가 어른에게 질문할 때 간략하게 그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는 선명한 그림의 간결한 답변이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

어린이 질문에 "너는 왜 이리 꼬치꼬치 캐묻고 까다롭니?" 라고 답하는 어른이 있다면 앞으로는 More specifically!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어린이가 원하는 간단한 답을 꼭 집어 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미국인과의 접촉에서 많이 겪게 되었다. 재미있는 것은 정직하지 않으면 구체적이질 못하다는 것이다. 자신의 머릿속에서는 선명한 그림처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결코 전달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상식을 거쳐 가슴으로 다가갈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확실히 알지 못하면 꼭 집어서 말할 수 없고, 완전히 소화한 것이 아니면 장황한 문장으로 펼쳐지지만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직성과 부드러움'이 구체성을 낳고 상대방에게 화살처럼 전달되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정보를 전하는 의사소통에서나 감정을 전하는 의사소통에서나 다른 점이 없다. 그러나 꼬여진 감정이나 멍든 가슴에서는 구체적 간결성이 나올 수 없다.

학교를 졸업하고 시청에 취직하기 위해 제출할 이력서를 만들 때 우리 나라에서 law school 입학 원서 쓰던 그때 일을 다시 떠올렸다. 미국 사회의 기준으로는 거짓말로 간주되어 정직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거짓말을 무지에서 나오는 용기로 별탈 없이 넘겼구나 생각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력서는 우리와 많이 다르다. 그 다른 점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이력서를 보면 그 사람의 사생활을 빼 놓고는 그 사람에 대하여 모든 것을 그림 보듯이 알 수 있게 작성된 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분량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나라에서 통용되는 이력서를 영문으로 번역하면 그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무슨 전문지식과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이 그들 눈에는 어렵풋한 스케치 정도로 비추어 지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그림에 익숙해 있지 않고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문화이다. 이 부분은 미국 사회가 일 중심의 전문가 사회이고 우리는 사람 중심의 사회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에 속한다.

지우개가 사람을 지운다?

그들은 조직 전체의 일을 칸과 칸으로 나눈 후 그 칸을 채울 지식과 기술, 경험을 가진 사람을 채워 넣는다. 그 공란이 요구하는 전문지식, 기술, 경험이 중요하지 연령이나 출신, 학벌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는 것이 '일 중심의 문화'이다.

그래서 불경기가 되어 조직의 감량이 있으면 일감을 줄이게 되고, 이것은 조직표에서 칸을 지우는 작업으로 이어져 그 칸을 채우고 있는 사람은 조직에서 사라져 실직자가 된다.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조직 전체로 보면 경기의 변동에 맞추어 가격기구에 즉각적으로 적응하는 셈이다.

우리의 경우는 '사람 중심의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이 있다. 불경기로 인하여 조직이 감량되어 부서가 없어져도 사람은 살아 남는다. 일거리가 없어져도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부서 사람이 하던 일거리를 끌어 준다. 조직에 대한 성과보다 그 사람이 조직에 몸담은 세월을 무시하지 않고 인신상정으로 같이 지낸다.

변화에 대한 적응이 '일 중심의 문화'인 미국에서는 '조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조직의 목표가 수정되고 전면 개편이 일어나고 연이어 인원의 증감량이 뒤따른다. 반대로 '사람 중심의 문화'인 우리는 변화에 대한 적응이 조직원이 하는 일 내용의 변화로 수용되고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조직의 기존 목표가 수정되고 새로운 개념의 조직으로 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와 관련해 일 중심 문화에서 인상 깊었던 미국의 엽관제도(Spoils system)가 생각난다. 'Spoils'란 전리품이란 뜻으로 선거전에서 승리한 정치인은 그 관직을 전리품처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뉴욕 시장이 흑인 출신의 던킨스 Dinkins에서 검사 출신의 줄리아니 Giuliani로 바뀌었다. 그는 시예산을 줄여 사회복지에 쓰겠다고 공약하며 뉴욕 시장에 당선되었다. 말이 쉽지 그렇게 많은 시예산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우리 나라 정치인처럼 空約에 불과하겠지.

그가 시장에 취임함과 동시에 전임 시장이 임명한 고위 시청 공무원, 그리고 그 고위 공무원이 직접 임명 또는

간접 추천한 하위 공무원들은 전임 시장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그 빈자리는 선거전의 승리에 따른 전리품으로 줄리아니가 임명할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다.

그런데 시예산을 줄이기 위한 감량이 간단했다. 부시장직 5자리 중에 두 자리를 임명하지 않고 공식으로 비워둔다. 그러니 그에 딸린 하부 조직이 사라진 셈이 된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니 감량에 따를 거대한 반발이 원초적으로 생겨나질 않는다. 이미 선거전에서 흡수된 셈이다.

아하 이렇게 사람이 확실히 바뀌면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계기는 확실히 마련될 수 있구나. 이것은 Spoils system(엽관제도)의 장점으로 비춰진다. 반면 사람들의 불평도 적지 않다. "시장이 바뀌면 그 아래 사람이 바뀌고 이런 파장이 장사하는 사람에게도 미쳐 삼분의 일 정도의 상권이 재편된다. 이게 과연 좋은 제도인가?"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그는 흑인인 Giuliani 시정부의 흑인 배려 분위기에 힘입어 상권에 진입한 흑인 비즈니스 맨이다.

또한 시장이 바뀌고 안정적으로 일이 돌아가는데 2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래서 "시장 취임 후 세팅하는데 2년, 그리고 1년 가량 일하고 그 다음 2년은 재선을 위한 선거전으로 보내면서 재임 기간 5년을 채우니 실제로 1년 일하는 셈이다." 라고 냉소하는 사람도 있다. 아무튼 일 중심 문화에서의 엽관주의는 독특하게 여겨졌다.

주판알 튀기는 유권자

"More specifically!" 란 주제에 어울리는 단면은 선거전에서도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정치인들은 어떤 공약을 할까. 우리처럼 교통 문제, 주택문제, 물 문제, 사회복지 문제 모두를 해결하겠다는 정치인의 公約이 당선 뒤의 포스터와 함께 휴지통에 버려지는 허무한 空約일까. 문제 해결에 필요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닌데도 "모두를 해결하겠다."는 거짓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표를 던질까.

Giuliani은 시예산을 줄여 사회복지 예산으로 쓰겠다고 공약했다. 줄이는 시예산의 항목에 경찰관의 감원이 포함된다. 경찰관 한 명을 고용하면 교육비, 장비비, 연금 등 복지 혜택, 봉급 등을 포함해 1년에 약 12만 불이 추가된다. 따라서 경찰관 100명이 추가 고용되면 1200만 불 가량이 소요되며 범죄율 몇 퍼센트(기억이 희미해 인용할 수 없다)가 줄어든다. 반대로 100명이 감원되면 1200만 불 가량의 예산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돌려 쓸 수 있고 범죄율이 몇 퍼센트 올라간다.

경찰 서비스는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 예산의 혜택은 가난한 사람들에 게만 돌아간다. Giuliani은 Dinkins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분석했다. 인종, 성별, 직업, 소득, 연령 별로 분석해 보니 가난한 사람의 표를 건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경찰력의 감소로 범죄에 노출된 가능성이 높아질 것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 공약을 반대한다. 찬성하는 집단이 나선다. 무슨 소리냐. 범죄는 가난에서 나오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범죄가 예방될 것이 아니냐는 논리를 내세운다. 공약으로 손해 보는 사람과 이익 보는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모두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병병하고 두리둥실한 공약을 서슴지 않는 정치인은 철면피 거짓말쟁이로 몰릴 게 분명하다. 그래서 그는 마약, 범죄, 환경오염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 대신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복지 수준을 얼마의 돈으로 얼마만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두리둥실한 그래서 대충 넘어가서 나중에 空約이 될 公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는 무엇을 어떤 돈으로 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펼친다. 그 사업 계획서를 통해 손해볼 사람과 이익 볼 사람이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어지지만 진실하고 정직하다.

우리처럼 모든 유권자를 아군으로 취급하는 척하다가 당선 후 실행 불가능하다며 뒤로 빼면서 적군으로 취급하는 것보다 백 배 낫다. 모두를 몇 년 안에 잘 살게 해주겠다는 감언이설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떳떳하고 정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Giuliani은 이 공약으로 시장에 당선되었으니 자신의 선거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많다는 그의 계산이 맞은 셈이다.

사실 선거전의 양상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하나의 일례로서 단순화시켜 왜곡된 면이 없지 않으나 유권자나 후보자 모두가 구체적인 사고 방식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병병한 말이나 두리 등실한 공약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일보다 사랑이 중요해요?

미국이 '일 중심의 문화'이고 우리가 '사람 중심의 문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일 중심의 문화'가 '사람 중심의 문화' 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조직의 생산성은 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따뜻한 배려에도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감량의 일례에서 보면 조직의 순발력으로 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그 조직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보다 긴 시각에서 보면 그 실직자들이 부정적인 경제, 사회적 환경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회 전체로 해악이 될 수도 있다.

실직자들이 물건을 사 줄 수 없으니 경제 순환에 제동이 걸리고 실직 당한 사람과 살아 남은 사람간의 경쟁심과 적대감은 인간사회의 조화를 깨는 치명적인 불협화음으로 전체 악단을 망칠 수 있다. 어쩌면 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라는 질문으로 귀결될 지 모른다. 어쩌면 사랑이냐 일이나의 질문으로 귀결될 지 모른다.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이 갈파한 바와 같이 "사랑은 인간으로부터의 소외감을 채워 주는 것이고 일은 자연으로부터의 소외감을 채워 주는 것." 이라면 나는 '사람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에 한 표를 던지고 싶다. 수많은 자연 중에 사람이 가장 가까운 자연이니까.

사람 중심의 문화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의사 전달 즉 - More specifically(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말하는 관습이 생겨나기는 일 중심의 문화에서보다 쉽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일 중심의 문화의 장점인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체득하고 생활화해서 전문화사회의 지름길로, 또한 정직성을 분명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적당주의, 대충주의의 본질은 거짓말이다. 회색 지대의 거짓말, 진짜 이유가 아닌 그럴듯한 이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는 정직성의 힘으로 추방해야 할 해악 중의 해악이다.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당당하게 말하는 정직성이야말로 지금 가장 시급한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 情이란 무엇인가

미국인들 중 한국인과 친분을 맺어 본 사람이면 '한국인은 따뜻하다. 부모 자식간 형제간 유대 관계가 아주 돈독하다.' 등 칭찬을 늘어놓는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질문한다.

그것들의 공통적인 핵심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情의 개념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정이라는 개념이 없고 그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여러 실례를 들어가며 우리의 독특한 정서를 설명해야 한다.

우리는 정이라는 한 단어로 이것이 의미하는 여러 정서를 떠올릴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한국인과의 사이에 겪었던 여러 상황이 정이라는 하나의 정서로 묶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거꾸로 내 자신이 정이라는 이 거대한 정서를 해부하고 분석하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되었다.

대체로 그들이 우리의 정에 대해 갖는 인상은 좋다. 개인주의적 문화에 젖어 다른 사람에 의한 깊은 배려가 생소한 이들로서는 매우 따뜻하게 여겨지는 문화적 정서이다. 그러나 정의 문화가 갖는 다른 면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매우 당황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자기들이 겪은 당황스런 경험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때 그것이 같은 '정의 문화'의 다른 이면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별개의 선상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나 자신도 정을 분석적으로 해부하지 못하다가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정의 문화로 여겨지는 우리 정서의 부분 조각 조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론 우리의 정에 대하여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구분하여 설명해야 이들의 이해를 돕는 길이라는 요령을 터득하게 되었다.

우리의 정의 문화가 갖는 따뜻한 면은 언제나 이들을 감동시키고 한국을 한번 방문했던 미국인이나 미국 교포 2세가 한국을 동경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이점은 쉽게 이해가 간다. 개인주의가 문화의 바탕이 된 이들의 사회적 정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훈훈함'과 '따뜻함'이 있으니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면 이들이 당황해 하는 정의 문화의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가. 요약하면 지나치게 남의 영역에 대한 침입 내지 간섭, 그리고 '내 기준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니 너도 당연히 이를 따라야 한다.' 는 아집 등이다.

미국 문화와 우리 문화에서 인간관계와 관련된 부분을 관통하는 기본차이점을 필자 나름대로 한 단어로 집약한다면 'Sympathy(동정)'와 'Empathy(감정이입)'이다. 우리의 정의 문화에서 인간관계의 바탕을 흐르는 큰 물줄기는 '동정심'인 반면 미국 사회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감정이입'이 그 바탕이 된다고 보여진다.

동정심이나 감정이입이나 공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도움을 주는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첫째로 동정심은 열정적이며 상대방과의 친소 정도에 비례하여 뜨거운 관심으로 나타난다. 감정이입은 이에 비해 덜 열정적이며 상대방과의 친소 정도에 크게 비례하지 않는다. 또한 물리적 거리와도 관련된다. 동정심은 상대방과 물리적으로 멀어지면 쉽게 사라지는 반면 감정이입은 상대방과의 물리적 거리와 별로 상관없다.

둘째로 '동정심'이 상대를 도와주는 행동으로 발현되려면 상대를 도와주는 자신에 대한 이유 내지 명분이 필요하다. '나는 good citizen(모범적 시민)이다.' 또는 '나는 good friend(좋은 친구)이다.' 등등. 반면 '감정이입'에서 상대를 도와주는 행동으로 발현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 없다. 단지 '내가 원해서' 로 충분하고 원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발현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동정심이 발현되면 상대방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와 어떻게 도와줄지 그 방법의 선택에 자신의 판단이 우선이다. 반면 '감정이입'이 발현되면 상대방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와 어떻게 도와줄지 그 방법의 선택은 전적으로 상대방의 판단에 따른다. 상대가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닌 한 상대의 **privacy**를 존중하고 나의 판단으로 상대의 판단을 갈음하지 않는다.

이런 차이점으로 미국인의 눈에 한국인의 따뜻한 호의가 지나치게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으로 종종 비춰지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된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지나친 열정으로 강요하고 같은 열정으로 보답하길 기대한다." 는 느낌을 은근히 불평하기도 한다.

반면 나의 눈에 그들의 관심은 미온적이며 어느 순간 차가운 얼음장처럼 느껴져 섬뜩할 때가 있다. 아주 가까운 친구라고 여겨졌던 미국인이 어느날 갑자기 처음 만난 사람처럼 느껴져 절벽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 같은 허망함에 눈앞이 캄캄했던 때를 적지 않게 경험했다.

자신 외에 남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자기 희생이 증발해 버리는 개인주의 문화 풍토에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인간애야말로 인간다운 훈훈한 사회를 밝혀주는 등불이다.

정의 문화가 가지는 인간애의 따뜻함은 우리의 자랑으로 깊이 간직하고 지켜야 할 부분인 반면 획일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판단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아집은 버려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러면 '열린' 개인주의의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 마음대로 돌아다닐 자유

병들고 어슬렁거리기

우리 나라의 자연은 친근감이 있다. 부모 형제와 같은 친근감. 그리 크지 않은 아기자기한 언덕과 산. 산 같은 언덕, 언덕 같은 산. 뛰어 들어 손을 씻고 발을 담고 싶은 시내. 우리를 압도하리만큼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나무들이 모여 있는 수풀, 저녁 놀과 밥하는 굴뚝의 연기를 내는 초가와 함께 한 폭의 그림에 담을 수 있는 들. 아기자기 울퉁불퉁한 자연경관이다. 우리를 압도하고 그래서 경외감을 느끼기보다 친근한 자연이다.

나는 40여 일간의 시간을 내어 미국을 자동차 여행으로 돌아보았다. 이 나라는 크기도 크다. 지구상의 기후를 거의 다 갖고 있으니 건조기후의 사막으로부터 냉한 기후의 빙산까지 그 지형과 자연경관이 각양각색이다. 우리가 상상의 나라를 펴고 날아 갈 때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다.

그에 비해 우리와 같이 단일한 기후 조건에서 단일한 피부 색깔로 단일한 언어를 쓰고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단일민족의 생각은 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하기에는 너무나 획일적이다.

반면 다양한 기후와 자연에서 다양한 피부 색깔로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사는 방법마저 다르니 이 나라는 획일적일 생각이 존재할 수 없다. 다만 인간과 자연의 속성을 근간으로 한 상식이라는 공통어가 이 나라를 하나로 존재할 수 있게 할 뿐이다.

내가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그들 눈에는 크게 달라 보이지도 않은 모양이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다양성 속에서 살아가서 인지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보다는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 듯하다. 이런 다양성에 익숙하지 못한 나로서는 한꺼번에 소화하기가 벅찬 게 사실이다.

여행 중 중소도시나 시골 선술집에서 20대의 젊은 남자, 여자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이 생긴다. 직업도 다양한데 이곳 문화적 분위기는 저녁 시간 선술집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나 잡담을 나누는 것이 개인주의에서 오는 고독감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띠고 통성명을 하면서 자연스런 대화가 시작된다. 그리 큰 경계심을 느끼지도 않아 아주 편하고 자연스럽다. 자기 의사와 감정을 자유스럽게 표현하니 더 이상 같이 대화를 원하지 않으면 상대가 자리를 옮기거나 내가 자리를 옮기면 된다. 보통 글라스는 없고 병째로 마시니 병을 들고 다른 곳에 어슬렁거리거나 앉으면 그만이다. 그래서 병째로 마시는 것이 더 이상 편리할 수가 없다.

큰 도시의 레스토랑이나 포말한 식당을 제외한 가벼운 선술집에서는 요구하지 않으면 특별히 글라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가 영 어색했으나 병을 들고 이리 저리 어슬렁거리면서 여러 사람들과 눈을 맞추면서 말문을 여는 것이 재미있는 의사소통법이다.

이곳에서 파티라 하면 의자나 상이 없는 홀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피자나 맥주병을 들고 이리 저리 돌아다니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파티에 참석하면 처음에는 우리의 방식과 판이해 구석에서 누군가 말을 붙여 오길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인지 기본 체력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 보통 다섯 여섯 시간을 서서 계속 떠드는 데 지치는 기색이 없다.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기 전까지는 파티가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여겨져 동양에서 온 유학생들은 한 두 시간만에 사라지기 일수고 그나마도 자기 나라 사람을 찾아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려 하지 않는 것이 비사교적이고 폐쇄적으로 비춰진다.

이런 분위기의 선술집에서 미국 젊은이와 만나 얘기를 나눠 보고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 "나는 돈을 벌면 적당한 중고차를 사서 우리 나라를 돈이 떨어 질 때까지 돌아보고 싶다." 라고 말하는 젊은이가 의외로 많았다. 그 말은 직장을 몇 달간 쉬거나 그만 두고 여행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여행하면 대학 시절에 방학 기간에나 엄두를 낼 일이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부지런하면 우리 나라의 웬만한 구석구석은 돌아 볼 수 있다. 직장을 가지면 장기간의 여행은 엄두도 못 낼 일이다. 기껏해야 몇 박 며칠을 위락 시설에서 보낼 뿐이다.

그러나 이들은 여행을 가기 위한 여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일정액이 모이면 여행을 떠나 넓은 대륙의 자연과 여러 다른 주의 문화와 역사를 감상하겠다는 것이다. 내가 보기엔 너무나 여유로워서 사치스럽게도 보이지만 부러웠다.

#### 헌법에 써 있어요

미국에서의 여행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미국의 헌법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 라는 문구가 없어 의아하게 생각되었었다. 우리 헌법 조문에는 없는 '여행의 자유 (freedom to travel)' 라는 말은 있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문구는 왜 없을까 무척 궁금했었다.

미헌법에서 여행의 자유라는 조항은 요술 방망이와 같은 것이어서 州間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을 제한하는 어느 주법도 이 조항에 걸면 여지없이 위헌의 판결을 받게 된다. 50개나 되는 방대한 주가 각기 자신의 주이익을 위해 무역 장벽을 쌓는 것을 못하도록 바로 이 조항이 방과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하나의 국가로 존재하게 하는 헌법 조항인 셈이다.

미국이란 나라가 생겨 날 때 하나의 나라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태어난 것이 아니다. 여러 개의 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이슬이슬한 통합 과정을 거쳤고 그 통합에 기여한 문화적 조류와 역사상의 무수한 인재들의 지혜를 살펴보면 어떻게 동시대에 수백 명의 인재가 한꺼번에 배출될 수 있었나 하늘의 도움이 없으면 그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생각이 들 정도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지혜와 양식이 훌륭해서 그 방대한 땅을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데 모아졌다는 점이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제자 백가가 속출했으나 그 지혜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아마도 하늘의 축복을 충분히 받은 것 같다.

아무튼 미국에서의 여행의 자유는 그들로 하여금 자연의 광활함과 그에 대한 '경외감', 광대한 지역에 흠뻑 사는 사람들이 가진 문화의 '다양성' 등을 섭취하고 체득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 칼라로 사고하세요

다양성에 익숙해지면 세상을 바라 보는 우리의 사고가 변한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접했을 때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일지 않고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그래서 그것과 거리를 두기 보다 매력적인 그것에 접근해서 알고 싶어하게 된다.

이것이 첫째이다. 다음으로 확일적인 잣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흑백론적인 사고가 무너지고 선과 악 -옳고 그르다- 라는 잣대보다 호와 오 -좋다 싫다- 라는 자신의 잣대로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호와 오의 상대적인 영역에 속하는 많은 부분을 선과 악의 절대적인 판단 영역에 놓고 사고하는 자신이 확일

적이고 편협한 인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로 생각되던 것이 '좋다 싫다'의 문제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신의 개성에 눈뜨는 출발점이다.

미국에 간지 얼마 안 돼서 미국인이 우리에게 대하여 물었을 때 대답하기가 망설여지는 질문이 있었다. 나의 대답이 저들을 실망시키지나 않을까. 우리의 후진성을 비웃지나 않을까. 그러나 뜻밖이다. 나의 대답에 그들은 우리가 옳다 그르다 심판하지 않는다. 그 나라의 개성으로 생각하고 흥미로워 할뿐이다. 그 이후로 궁금해하는 미국인들에 자신 있게 "이것 저것은 너희들이 선뜻 납득이 안 가지만 그 배경에는 이러한 cultural difference(문화적 차이)가 있어서이다." 라고 대답했다.

대부분 고개를 끄덕인다. 다양성에 익숙한 그들은 이런 점에 관대하고 포용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따라서 그들이 이해가 안 돼서 궁금해하는 부분은 대충 문화적 차이로 돌리면 OK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들의 상식으로 문화적 차이로 이해하려 해도 납득이 안되는 부분은 난감하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 정치에 관한 부분은 문화적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우리의 후진성을 독특성으로 이해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간 거래가 개입되는 국제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세계인이 공통으로 공감하는 상식이 우선이다. 이런 경험이 있다.

뉴욕 시청에서 근무할 때 일이다. "너희 나라는 왜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느냐. 우리는 너희 나라 차를 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 하는데." 뉴욕 시청의 고위 공무원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던져진 질문이다. 그분은 우리의 문화와 생각을 보다 알고 싶어서 가볍게 던진 질문이다.

사실상 미국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약 12%에 불과하고 그 중에 자동차 시장을 생각하면 우리 나라에서 기대할 수 있는 미제차 수요는 뉴욕 주에서 팔리는 시장의 미미한 부분일 따름이다. 한마디로 우리 시장은 진출해서 돈을 벌만큼 큰 시장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 눈에는 여간 불쾌한 게 아니다. 우리 나라에서 돈을 못 벌게 해서 불쾌하기보다 자기들은 문을 여는 데 우리는 문을 안 여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 불공평한 일이라 불쾌하다.

이러한 점은 북한이 도저히 상식에 안 맞는 짓을 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럴 때 나의 구차한 대답은 "우리는 아직 개발도상국이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는 더욱 더 그렇다. 부족한 면이 점차 고쳐지고 있다." 자신을 깎아 내리는 내 자신이 부끄러울 수밖에.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게 처세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면 몇 푼 더 벌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국제 사회에서의 위신은 그 이상으로 깎인다. 나아가 그 나라의 국민은 세계인이 모인 자리에서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의 의견을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서 후진 구석에서 후진국 취급을 받게 된다.

## 바위일기

화장한 여인숙 주인

모처럼 사무실 동료 넷이서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브라이언 Brian은 어제 다녀 온 근처 뉴 폴츠(New Paltz)에서의 제물낚시가 너무나 감동 깊었는지 시종 그 얘기로 주위의 시선을 끌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Run through the river'에서 평화로운 풍경과 함께 삶의 상징을 담았던 그 고기잡이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자아내었다. 함께 있던 다른 동료들도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그 곳을 찾아보리라 마음먹으면서 자리를 떴다.

나도 이번 여름이 지나면 이곳 생활을 마무리하고 우리 나라로 돌아가야 하니 무얼로 마지막 시기를 알차게 보낼까 생각하던 차에 브라이언이 자극을 주는 것이다. 그가 수선 떨며 말했던 제물낚시 보다 그 고장에서 해 볼 수 있는 바위타기 rock climbing에 더 관심이 끌렸다.

마침 길가의 책방에 들러 뉴욕 매거진을 펴 보니 여름 특집호답게 이번 휴가철에 즐길 수 있는 각종 스포츠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그득했다. 그 동안 해 보지 못한 각종 스포츠를 이 마지막 여름에 맛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해지기 시작했다.

용기를 내어 사무실의 상관에게 이러한 취지를 말해 보았다.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미국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여름에는 여행과 레저로 미국을 마음껏 느껴 보고 싶다." 그는 "여기 뉴욕에서 진정한 미국 문화를 느끼기는 부족하다. 미국의 광활한 대륙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지방 사람들과 접해 보면 미국에 대한 생각이 달라 질 것이다. 우리 미국인도 자기 고장을 떠나 여행을 하면서 미국을 새롭게 느낀다." 라고 관대하게 이해하며 내 생각을 격려해 주었다.

나아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미국에서 남은 넉 달을 잘 활용하라는 말과 함께 업무 부담을 줄여 주는 배려도 뒤따랐다. 그래서 퇴근 길에 책방에 들러 관련 서적을 사 들고 여행 계획과 각종 레저 스포츠를 위한 계획을 짜고 부지런히 예약을 했다.

5일 간의 바위타기 스쿨이 내일 시작한다. 전화로 강사가 일러준 여인숙을 찾아 어두운 시골길의 표지판을 유심히 살폈다. 뉴욕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해 지도를 보며 14시간을 운전한 지금 시간이 11시 15분을 가리키고 있다.

이른 여름인데다 울창한 산 중이라 밤 공기가 제법 서늘하다. 늦은 시간이라 작은 마을의 상점은 불이 꺼지고 간혹 울창한 숲 사이로 새어나오는 어슴푸레 불빛이 아늑하다. 내일을 준비하며 잠자리에 들려는 단란한 가정의 모습이 멀리 유리창 너머로 보인다.

마침내 '크렌모어 산장 Cranmore Mountain Lodge'이라는 표지가 눈에 뜨인다. 객실이 20실이 채 안 돼 보이는 아담한 여인숙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무도 없는 듯이 고요한 적막을 깨고 구렛나루를 기른 건장한 체구의 남자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Mr. Kim? I am expecting you."(미스터 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한다.

가까이 보니 얼굴에 화장을 한 듯 눈썹이 무섭게 그려져 있고 목 부분에 분칠한 흔적이 그림자처럼 보인다. 움찔하면서 손을 내밀다 말았다. 오랜 운전이 피곤해서 내가 잘 못 본 게 아닌가 싶어 눈을 크게 뜨고 다시 쳐다보았다.

그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다 곧 껄껄 웃으며 말한다. "오늘 연극 공연이 있어 조금 전 끝나고 돌아와 아직 화

장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업은 진짜입니다. 당신 수업도 멋있는 걸요" 그리고는 자기 옆에 서는 여인을 가리키며 "여기는 집사람 Judy입니다. 이 사람도 아직 화장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라고 유령을 본 듯 놀란 나를 안심시킨다.

이 고장은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작품과 배역을 바꿔 가며 매주 연극 공연을 한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이 많지 않아 한 가정마다 한 달에 한번 꼴로 배역이 돌아온다. 이 두 부부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벽난로 옆에 앉아 톱툰이 대사를 외우고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떠올리니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의 한 장면이 가슴까지 다가왔다.

그는 좁은 계단을 올라 내가 목을 방을 안내하고 내일 아침 7시 반에 깨워 주겠다고 한다. 긴 자동차 운전대에 골아 떨어질 테니 마음놓고 푹 자고 내일 아침 첫 수업을 맑은 정신으로 시작하라는 따뜻한 충고도 잊지 않는다.

준비됐어요?

주인이 깨우는 소리에 알았다고 대답하면서 딱 5분만 더 잔다는 것이 40분을 더 잤다. 부랴부랴 조반을 먹는 등 마는 등 학교로 향했다. 주인이 뒤따라 나오며 학교까지 가는 자세한 지도를 건네주었다. 부탁도 안했는데 손수 그려 내가 나오기를 기다리다 전해 주는 따뜻한 친절이 고마웠다.

학교에 도착하니 붉은 티셔츠 차림의 한 남자가 다가와 내 이름을 확인한 후 읽고 서명하라며 종이 한 장을 내민다. 그것은 '훈련 중 사고가 날 위험을 감수하겠다. 즉 사고가 나더라도 학교측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였다.

그는 서명한 각서를 건네 받고 나를 위아래로 한 번 힐끗 쳐다보고는 내 사이즈의 장비를 하나씩 골라 나에게 건네준다. 헬멧과 로프 그리고 여러 모양의 링, 신발 등이 한 묶음이다. 하나 하나씩 입혀 보고 긴 로프를 풀어 손으로 찬찬히 만지며 조그만 폴립이나 흠집이 있는지 두 번을 점검한다. 신발이 발에 잘 맞는지 걸어 보라며 뒤를 따라 다니며 내 느낌을 살펴본다. 그리고 간단한 점심을 위해 맞은 편의 가게에 가서 음료와 샌드위치를 준비할 것을 권했다.

나와 같은 순서를 밟은 사람들이 마당에 모여 기다리니 이름을 호명하며 그날의 담당 강사들이 한 동아리, 오륙명 단위로 배치되었다. 바위 타기가 처음인 나 같은 사람들이 모인 반에 여장사가 배치되었다.

여성 3명 남성 3명이 한 조가 된 우리로 하여금 각자를 소개하게 한 다음 오늘 특별히 가고 싶은 산이 있는지 물으며 자신의 봉고차로 안내한다. 아무도 이렇다 할 제안이 없었다. 모두의 눈은 과연 바위타기가 무엇인지 반호기심 반두려움으로 반짝이며 깊은 호흡을 내쉬고 있었다.

작은 오솔길을 따라 깊은 산중으로 들어간 후 차를 내려 숲 속의 암벽까지 걸었다. 차안에서 강사의 간단한 자기소개가 있었다. 그녀는 정치학을 전공하고 워싱턴에서 국회의원 비서로 일하던 중 휴가차 이 학교의 5일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암벽을 타는 즐거움과 자연에 반해 안 그래도 험오가 일기 시작한 정치 수업을 버리고 바위를 택했다. 아예 이 고장으로 거처를 옮겨 주중에는 학생들과 그리고 주말에는 혼자 바위를 타면서 바위와 살고 강사료로 생계를 꾸린다.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두 눈에는 잔잔한 고요함이 고여 있었다.

우리는 바위 앞에 서서 신을 갈아 신은 후 그녀를 주시했다. 떨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스포츠라는 것을 상기했다. 몇 분전에 서명한 각서의 문구 "만일 불의의 사고로 다치거나 죽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가 모두의 가슴속에 남아 있는 터라 그녀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우리는 모두 산들바람이 스치는 숲의 고요한 적막 속으로 빨려들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의 시선에도 아랑곳없이 묵묵히 혼자 바위를 타고 올라가 30m 높이의 바위 꼭대기 나무에 로프

를 동여매어 놓고 내려왔다. 그 여유스러운 모습에 그녀를 믿고 싶은 마음이 사르르 일었다. 과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커질까 두려웠다.

"이 로프가 안전 장치예요. 산을 오르는 사람의 몸에 이 줄이 연결되니까 발을 헛디더도 추락해서 바닥으로 떨어질 염려는 없어요." 그 로프가 꼭대기의 큰 나무에 연결되었음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우리의 눈빛을 한사람씩 점검한다.

다음에는 로프를 자신의 허대에 연결된 링에 연결시키는 매듭법을 설명했다. 그리 어려운 부분이 없어 모두들 쉽게 따라 했다. "바위를 타고 내려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 무릎을 펴고 몸에 탄력을 주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옆구리에 차고 있는 링을 통과한 로프를 적당히 풀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올라갈 순서를 일방적으로 정했다.

무슨 이유인지 나를 첫 순서로 하고 다음에 다른 남자 그리고 여성 세 명 마지막에 남성 순이다. 아무런 불평도 없다. 자기들이 첫 순서가 아님에 일단 만족하는 눈치이다. 길게 자란 구렛나루를 보고 나를 용감한 사람으로 착각한 모양이다. 그러나 수염을 깎지 않은 것을 지금 후회해 봤자다.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생명선을 연결해 주고는 "Ready?(준비되었어요?)" 라며 내 표정을 살핀다. 그 눈빛이 너무 여유 있어 보여 나의 불안을 눌러 주었다. 그런데 웬걸. 옆에서 지켜볼 뿐 아무말도 없었다. 나는 불안이 더 크게 일기 전에 한발씩 디디기 시작했다.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생각 없이 눈에 띄는 곳에 발을 디디고 손에 닿는 데로 바위를 잡고 올라가고 있었다.

어디에 발을 옮겨 디디야 할지, 바위 어디로 손을 뻗어야 할지 생각하면 궁둥이가 튀어나온다. 겁을 먹으면 본능적으로 궁둥이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발끝이 미끄러져 더욱 불안해지고 공포감이 일어 생각이 멈춘다. 바로 눈앞 한 뼘 거리에 있는 바위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한 뼘 거리도 안되는 바위의 돌출 부분이 안 보여 발을 옮길 수 없다.

그러면 그 자리에 정지한 채 아무것도 못하고 서서히 손과 발의 힘이 빠지는 자신을 생각하며 상념에 빠진다. 그럴 때면 아래에서 그녀의 고함소리가 들렸다. "오른쪽 위! 오른쪽 위로 손을 뻗으면 돌출 부분이 있다!" 정신을 가다듬어 시키는 데로 하면서 손을 뻗어 본다. 마찬가지로 발을 옮긴다. 그 순간을 넘기면 다시 공포감이 없어지면서 바위가 보이기 시작한다.

#### 바위읽기,, 마음으로 하는 체스게임

내가 직접 해보기 전에는 TV나 영화에서 바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해 했다. 사람이 바위에 붙어 있는 장면이 마치 배트맨이 거미처럼 벽에 붙어 팔 힘으로 올라가는 듯 하다고 상상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위에 조금 튀어 나온 부분에 신발 앞 끝을 올려놓고 온몸의 하중을 실으면서 무릎을 펴면 마치 바위에 신발이 붙어 있는 듯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원리를 이용한 레포츠이다.

신발의 바닥은 마찰력을 극대화하는 특수 고무로 제작되어 있어 실리는 무게에 비례해 그 마찰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아무리 작더라도 돌출 부위가 있으면 그 곳에 발끝으로 설 수 있다. 이렇게 바위에 붙는 것이 아니라 바위 위에 서는 것이었다.

바위의 돌출 부분에 발을 딛고 무릎을 펴고 몸 위쪽의 돌출 부분을 손으로 잡아 몸을 끌어올리고 이런 동작의 반복으로 조금씩 위로 이동한다. 결국 이 돌출 부분을 찾아 손과 발을 이용해 몸이 이동하는 셈이다.

바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작은 돌출 부분을 찾아 선택을 결정하는 것을 '바위 읽기 reading rocks'라 한다. 그

래서 바위 타기는 '마음으로 하는 체스게임 mental chess'으로 불린다. 어떻게 바위를 잘 읽어 가장 효율적인 길을 택하는가 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체력 못지 않게 머리를 써야 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체력은 뒤지지만 바위 읽기는 낫다고 한다. 그래서 근육보다 머리를 이용하고 손보다 다리를 사용한다. 또 같은 바위를 타더라도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르다. 사람마다 바위읽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한사람이 같은 바위를 타더라도 매번 길이 다르고 어제는 아주 쉬웠지만 오늘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오늘 택한 진로가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운이 좋아 매번 발을 옮길 돌출 부분과 손으로 잡을 돌출 부분이 쉽게 연결되면 바위 읽기가 아주 쉽게 여겨진다. 아무튼 근육과 머리 모두가 중요한데 이 둘을 관통하는 것은 신뢰감이다. 자신의 발끝을 믿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체중을 그 발끝에 실지 못한다. 체중이 충분히 실리지 않으면 신발의 고무가 마찰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미끄러지고 만다.

반대로 아무리 조그만 돌출 부분이라도 체중을 실으면 엄청난 마찰력으로 바위에 붙은 듯이 꿈쩍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체력이 아무리 강해도 소용없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충분하면 마음이 안정되어 몸도 유연해지고 바위 읽기가 쉬어 쉬운 길로 큰 힘을 쓰지 않고 오를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도중에 자신감이 조금이라도 깨어지면 공포감이 일기 시작하면서 몸이 굳기 시작한다. 옮기는 발끝에 충분히 자기 중심을 옮기지 않아 미끄러지고, 그러면서 공포감이 더하고 눈앞이 깜깜해 바위를 읽을 수 없어 절벽에 갇히고 만다. 바로 눈앞에 커다란 돌출부나 바위 구멍이 있어도 눈에 들어오질 않는다.

반대로 너무나 자신을 신뢰하면 안전한 길보다 쉬운 길을 택하는 어리석음으로 위험을 자초한다. 자신감이 오만함으로 발전되면 바위 타기의 위험성을 점점 사소하게 보다가 결국 아주 없어서 생명선 등 안전장치를 소홀히 하는 어리석음으로 이어져 허무한 사고로 끝난다.

몇 걸음을 더 올라가면 정상이 나오는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눈 앞에 보이는 바위를 잡고 올라가니 정상에 다다랐다. 가르쳐 준대로 하니 내려오는 데도 별 어려움이 없었다. 올라가는 길에 막힘이 없어 어느 정도 자신을 얻은 덕택이다. 다음 순서의 남성도 별탈 없이 정상을 올라 다시 내려 왔다.

그 다음에는 같은 일행으로 보이는 여성 셋 중 가장 뚱뚱한 여성이 오르기 시작했다. 20대 초반의 나이로 보이는 이 여성은 너무나 뚱뚱하여 고개가 가우뚱할 정도다. 저런 몸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좀 위험해 보이는데 강사가 다른 묘안을 내겠지. 그러나 강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시종 경쾌한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본다. 그녀도 아무일 없다는 듯 쉽게 해냈다.

바위 타기는 계단을 천천히 오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 아무리 뚱뚱해도 계단을 오를 다리 힘만 있으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발을 옮기면서 자신의 체중도 한번에 망설임이 없이 옮길 수 있는 가이다. 발끝이 미끄러지는 것은 바위가 미끄러워서도 아니고 돌출 부분이 너무 작아서도 아니고 단지 체중이 충분히 실리지 않아서 발끝의 마찰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어찌된 일일까. 다음 순서의 여성은 적당한 체격에 좋은 근육을 가지고 있었지만 힘들고 어렵게 바위를 탔다.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하고 겁을 먹었기 때문이다. 실사 바위에서 손을 놓치거나 발을 헛디뎠어도 몸에 연결된 로프의 덕으로 밑으로 떨어지다 멈춘다.

나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헛디뎠 보았다. 밑으로 미끄러 떨어졌다. 오직 삼 사십 센티 떨어지다 싱겁게 멈추었다. 영화에서 안전장치가 있으면서 몇 미터씩 추락하는 것은 영화를 위한 과장이었다. 한 여름의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 즈음 우리는 학교로 돌아와 장비를 풀고 각자 숙소로 흩어졌다.

일찍 잠자리에 들 생각으로 여인숙으로 오는 길에 저녁 요기를 하고 방에 돌아와 샤워를 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살을 맞으며 눈을 감으니 유리로 둘러싸인 조그만 샤워 공간이 작게 느껴지지 않는다. 긴장으로 몸 안에 굳어 있었던 온갖 느낌이 비누 거품에 녹아 나왔다. 어떻게 큰 공포감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었을까.

처음에 학교로 가던 길에는 '오늘은 첫날이니 강당에서 이론 강의가 있을 것이고 그 강의후 시간이 남으면 오후쯤 간단한 시범을 볼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미리 노트를 준비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TV나 영화에서 본 사고 장면을 연상하면서 실전에 접하기 전에 이론 강의에 충실해야지 마음먹었다.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바로 장비를 받은 후 산 아래 바위 앞에서 몇 가지 요령과 주의 사항을 들은 것이 이론 강의의 전부였다.

미국에서는 이론 강의의 순서가 우리와 다른가보다 생각하며 내심 불안했으나 강사에게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일 텐데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참기로 했다. 더군다나 다른 학생들의 눈은 강사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강사의 실수로 내 생명이 위태롭지 않을까 하는 불안보다 처음 해보는 것에 대한 신기함과 초조함을 보일 뿐이었다.

결국 하루를 마치고 보니 바위 앞에서 십분 가량의 설명이 이론 강의의 전부였다. 강의도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판판이었다. 아주 중요해서 한 귀로 듣고 흘려 버리면 위험을 자초할 수 있는 요령도 평상시의 어조로 끝냈다. 게다가 반복도 없었다.

우리 같으면 중요한 부분에서 주위를 환기시키고 강조해서 반복 설명했을 텐데. 태평스럽기 그지없는 강사가 참으로 무책임하게 느껴지면서 신뢰가 식어 가고 있었다. 다만 그녀의 평안하고 여유로운 눈이 나의 불안감을 겨우 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시간이 가면서 차츰 강사가 자기 역할을 섬세하고 책임감있게 수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일 대 일 한사람씩을 상대로 어려운 것을 물어 보고 필요한 언급을 해 줌으로써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 여섯 명의 일거수 일투족과 눈빛을 살펴 불안해하는 사람 곁에 자연스레 다가와 말을 걸곤 하면서 우리를 보살피고 있었다.

옆에 와서 말을 거는 내용은 일상사의 얘기다. 나에게 다가와 무슨 일을 하는지, 미국에는 왜 왔는지, 지금 바위 타기를 해보니 어떻게 느꼈는지,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고 지나가니 나도 모르게 불안감은 사라지고 경쾌함이 살아났다.

우리들 중 특히 불안해하여 신경을 돋구는 여성에게 다가가 마찬가지로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다. 심각하게 토닥거리며 불안감을 달래려는 노력은 없었다. 그저 옆에서 일상적인 얘기를 하며 너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듯 취급했다. 그 학생의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했지만 창피함을 잠재우기에는 충분했다. 그리고 그녀는 곧 스스로 용기를 가지면서 수업을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니 미국인들은 주의사항을 우리처럼 힘주어 말하거나 여러 번 심각하게 반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피커는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즉 hearing이 아니라 listening을 해야 한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 즉 자기 아내나 자식과 가족에게도 가슴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조용하게 걷네는 말에도 귀를 쫓긋 기울이는 태도는 우리도 하루 속히 익혀야 할 부분이라고 느꼈다.

오후의 해프닝, 시도해!

오전에는 한사람씩 바위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 왔지만 오후에는 일곱 명 모두가 생명선을 매고 줄을 지어 바위를 탔다. 강사인 그녀가 선두에 서서 일정 거리에 먼저 올라가 생명선을 바위나 나무에 고정시키면 학생들이 그 생명선을 이용해 한 사람씩 오르고 그 지점에 다 모이면 다시 강사가 일정 거리를 먼저 올라가 안전 장치를 하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고 하는 식이다.

나는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제일 마지막 순서에 서서 동료들이 다 올라간 후 바위에 강사가 꽂아 놓은 안전 장치를 철거해 모으면서 뒤따르는 작업이다.

그런데 오전에 특히 불안해 하던 여성이 올라가던 도중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바위에 매달려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녀가 전진하지 않는 한 모든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바위에 매달려 있어야 한다. 비상사태였다.

바위에 굴곡이 있어 선두에 있는 강사나 다른 학생들은 그녀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단지 그녀와 일행인 뚱뚱한 여성이 바로 위에서 그녀를 볼 수 있는 것 같았다. 자기 바로 앞에서 어려운 국면을 겨우 지나가는 뚱뚱한 친구를 보고 겁을 먹고 못하겠다고 부들부들 떠는 듯 말소리가 드문 드문 희미하게 들렸다.

뚱뚱한 친구의 목소리가 들린다. “야 이년아! 네가 바위 타기 배우자며 우리를 여기 데려왔잖아. 거기에 눌러서서 어찌자는 거야!” 난리가 났다.

몇 분이 지나자 바위에 매달려 있는 우리들에게도 공포감이 서서히 찾아 왔다. 강사는 무얼 하나. 이런 위기에 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 강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헤이, 안드리안! 너는 할 수 있어. 우리가 기다릴 테니 준비가 되면 시도해.” 그것뿐이었다. 다른 학생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얘기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단지 그녀의 여유롭고 어찌면 태평스럽기까지 한 반응에 나의 불안감이 더 이상 공포감으로 커지지 않았다. 십 분이 지났을까. 안드리안은 그 관문을 통과했다.

지금 생각하니 그 강사는 오랜 경험으로 여기에서 추락해도 사고가 날 확률이 극히 적다는 사실과 그런 여유 있는 반응이 그 상황을 극복하는 최선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 프로는 바로 이런 거야.

수업 첫날부터 바로 실전으로 들어갔어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 강사의 노련한 실전 경험 때문이리라. 아마 우리 나라에서라면 이런 수업 방식은 상상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겠지. 그러나 그녀는 이곳에서 바위 타기를 가르친지 11년이 된 사람이다.

이론 강의가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간단한 이론 강의 후에 바로 실전에 들어가는 미국식 교육법은 바위 타기 학교에서만 경험한 일이 아니다. 그 뒤에 스카이 다이빙 수업에서는 오 분간의 간단한 설명 후 바로 비행기에서 뛰어 내렸다. 산악 자전거 타기 수업에서는 운동장에서의 30분간 이론 강의와 자전거 조작 연습 후 산을 올랐다.

5일 간의 골프 스쿨에서 이론 강의는 첫날 오전의 3시간 수업뿐이었고 나머지는 필드에서 실전을 했다. 스쿠버 다이빙 수업에서는 30분간의 간단한 연습이 풀장에서 있었고 바로 바다로 들어갔다. 뗏목타기 수업에서는 10 분간의 주의 사항을 들은 후 뗏목의 노를 잡고 물결을 헤쳐 나갔다. 비행학교에서는 하루 수업 2시간 동안 강사가 비행 조정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듣고 다음날은 내가 직접 비행기를 조작했다.

이렇게 모든 수업이 실전 위주였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론을 배우고 느낌이 쌓이면서 실전을 배워야 한다는 나의 고정관념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다.

샤워가 끝나면서도 가슴 깊이 쩡한 것은 이 강사의 노련함이 아니었다. 믿음이었다. 강사의 학생에 대한 믿음,

학생의 강사에 대한 믿음, 학생의 바위에 대한 믿음, 자신의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다. 오늘의 수업을 무사히 장식한 것은 이 믿음이었다.

결과만 좋으면 대순가?

창 밖을 내다보니 떨어지는 햇살에 반사된 초저녁 그늘 밑에서 꼬마 아이들이 테니스를 치고 있다. 자기 키보다 큰 테니스 라켓을 휘두르면서 열심히 이리저리 뛰어 다닌다.

휘두르는 라켓의 무게가 버거워 팔려 가는 몸이 비틀거린다. '왜 어린이용 라켓과 작은 코트는 없지. 축구, 야구, 배구는 있는데.' 생각이 들었다. 옆 벤치에 앉아 구경하다 밖으로 나간 공을 주워 주는 나에게 고맙다는 말로 인사하면서도 내가 없는 듯 게임에 빠져 있다.

한 아이는 전형적인 백인이며 한 아이는 전형적인 흑색 피부를 가지고 있다. 인종차별 속에 살면서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미국의 자기 모순을 알게 모르게 피부로 느끼고 있는 터라 이런 다정한 모습은 상상을 못해 보았다. 그래서 그 둘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심판이 되었다. 흑인과 백인의 게임에서 황색인이 심판 노릇을 한다는 생각에 괜한 재미가 일었다.

조그만 폴에서 물장구치는 꼬마들과 장난치다 여인숙 현관문을 들어서는데 피아노 반주와 우렁찬 테너의 노래소리가 들렸다. 소리를 따라가니 열 평 남짓한 응접실에 네 쌍의 부부가 모여 편안히 커피를 들며 노래를 감상하고 있다.

간밤에 진한 화장으로 나를 움찔하게 했던 여인숙 주인의 노래 솜씨는 취미 생활을 넘는 수준이다. 박수와 함께 앵콜 요청이 있자 "이 번에는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내에게 바친 자작곡입니다." 라며 알래스카의 풍경과 태어난 딸을 축복하는 가사를 자신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열정적으로 부른다.

그는 부시 행정부 시절에 대통령 자문위원직을 맡아 알래스카 원주민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생생히 느끼고 주민 의견을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대통령직을 떠나는 부시는 정치 운명을 같이 하는 그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말하면 내가 도와 주겠다."고 했다.

그는 휴가때 아내와 여행을 하다 반한 이 지방 경치에 대해 말했다. 대통령의 금일봉과 자신의 저축금으로 조그만 여인숙을 시작하자는 데 아내와 아이들이 즐거이 동의했다. 그래서 야구의 황제였던 베이브 루스의 개인 별장을 정성스레 개조하고 이 지방을 지나는 사람에게 숙박을 제공한 지 몇 년이 되었다.

나도 숙박객들의 대화마당에 어울렸다. 자신의 소개가 따르고 특히 각자가 여행 중 본 아름다운 풍경과 신기한 것들에 관한 대화가 이어졌다. 차고의 자동 셔터를 설치해 주는 가게를 운영한다는 40대 후반의 부부가 나에게 물었다. "우리 나라에 와서 보니 한국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미국 변호사라니 더욱 궁금하군요." 다른 사람도 내 반응을 기다렸다.

나는 "우리 모두는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다른 과정을 거쳐 결국은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요"(From the same start, through the different process, with the same result.) 라고 대답했다. 출발과 목표는 같지만 과정은 다르다는 말이다.

미국법과 우리 나라 법의 차이를 한마디로 하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미국인은 '과정'을 중시한다. '올바르지 못한 과정에서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없다.' 라는 생각을 상식으로 삼는다. 그래서 같은 결과에 이르더라도

절차가 틀렸으면 틀린 결과로 간주한다. 이른바 '절차법적 사고'이다. 절차를 통제하여 페어 플레이를 유도하겠다는 아이디어이다. 따라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구체적인 논리와 과학적인 인과관계의 분석이 법률적 쟁점으로 부각된다.

반면 우리 나라는 '결과'를 중시한다. '올바른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절차도 올바르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래서 결과가 본래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절차가 조금 틀려도 바로 잘못된 결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른바 '실체법적 사고'이다. 따라서 법이 지향하는 추상적 취지의 연역적 도출에 상대적인 중점이 놓여 있다.

이러한 미국인의 사고는 국제관계에도 반영되어 자기들의 상식과 다른 과정을 보면 의구심을 갖는다. 자기들의 예상과 다른 과정으로 나가는 상대를 보면 '말로는 우리와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지만 내심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품는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상대방의 문화 관점에서는 상식적'이라는 것을 자기네들 상식으로 이해하면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들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섞여 살면서 문화적 차이에 따른 생각의 차이를 포용하는 관대함이 체득된 듯하다. 따라서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한 진지한 의사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나라에서 파견 근무했던 미국 외교관의 말이 생각난다. "한국인과 대화할 때 오해가 없도록 매우 조심해야 했다. 한국인은 스스로 최선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내가 말하는 의견이 자기의 의견과 달라 보이면 비판으로 여긴다. 나는 내가 최선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냥 내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자신이 최선을 말한다고 생각하니 상대방도 상대방의 최선을 주장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단일 민족에 단체주의 문화의 영향인 것 같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이다. 세상에는 받아들여야 할 두가지 비판이 있다. 올바른 비판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비판.

아무튼 여인숙 응접실에서의 대화마당은 흥미로운 얘기를 듣는데 적격이었다. 자신들도 여행을 통해 확인한 미대륙의 광활함에 새삼 놀라는 눈치다. 마침 내가 궁금하게 여겼던 것이 떠올랐다.

잉글랜드 지방을 지난 적이 있는데 그 동네는 관공서가 한 군데 집중적으로 모여 있었다. 곁에 앉은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는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보였죠?" 물었다. "차를 타고 지나면서 보니 집집마다 큰 미국 국기가 걸려 있더라." 이 말에 그는 껄껄 웃는다. "잉글랜드 지방 사람들은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건너 온 조상이 자기네 고향에서부터 미국의 민주주의를 탄생시켰다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일년 내내 자기 집에 국기를 걸고 이를 보살피면서 민주주의를 가꾼다는 기분으로 살지요."

국경일에만 국기를 게양한다는 내 고정관념이 낡은 오해였다. 그 집집마다 게양된 미국 국기의 청결함에 감탄했던 기억이 새롭게 살아났다.

#### 바위타기 중독자

내일은 수업 마지막 날이다. 이 지방의 특산물을 구경할 겸 시내를 걷다 신발 가게의 예쁜 슬리퍼가 눈에 띄었다. 가죽끈의 디자인과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 발에 꼭 맞는 슬리퍼를 고르느라 거의 삼십 분을 소비했다. 미안한 생각에 디자인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중 제일 잘 맞는 슬리퍼를 그냥 사기로 했다.

여주인은 오히려 조언을 한다. "마음에 안 드는 신을 사가지고 집에 가서 후회하는 일만큼 싫은 것도 없어요. 안 사도 좋으니 시간을 가지고 신어 보고 걸어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슬리퍼를 고르세요." 그 말에 용기를 얻

어 이것 저것 다 신어 보고 걸어 보았다. 그러나 근 한시간을 걸어서 도와준 그녀에게 사지 않겠다는 말을 할 용기는 끝내 나지 않았다.

여인숙 방으로 돌아와 신발을 다시 신어 보는데 방문을 노크하는 큰 소리가 났다. 문을 여니 갈색 머리에 큰 키의 30대 초반 백인이 자신을 커어트 Kurt라고 소개한다. 그리고는 말한다. "나는 바위 타기를 하러 왔는데 파트너를 못 구하고 있다. 마침 여인숙 주인으로부터 네가 학교를 다닌다길래 너를 찾아 온 것이다." 예상치 못한 제안에 머뭇거리자 아래층 응접실로 내려 가자며 손에 든 맥주병을 내어 보인다. 그 흑맥주의 맛은 일품이었다.

커어트는 "컨디션은 어떤가. 학교는 재미있느냐. 나는 휴가 때면 각종 스포츠로 한여름을 보낸다. 그 중 바위 타기, 산악 자전거 타기, 크로스 컨트리를 제일 좋아한다. 그래서 모든 장비를 차에 싣고 다닌다." 며 창밖에 보이는 웨곤을 가리켰다.

나는 "지금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해 왔는데 내일이 마지막 날이다. 바위 타기가 이렇게 좋은 스포츠인지 몰랐다." 라고 말하면서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와의 대화에 빠져들고 있었다.

바위 타기는 혼자 하기보다 두 사람이 한 짝이 되어 오르는 것이 덜 힘들고 심심하지 않아 좋다. 한사람씩 교대로 선두에 서면서 안전장치를 이용하면 선두에 설 때만 긴장하고 뒤에 설 때는 느긋할 수 있어 피로감이 훨씬 덜하기 때문이다.

자전거며 각종 등반 도구가 가득 찬 그의 차를 타고 바위에 도달했다. 아직까지 내 마음은 큰 어려움 없이 닷새 동안의 수업을 마치고 수료장을 받아 들던 어제의 흐뭇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비를 챙기고 암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커어트가 선두를 섰다. 나는 뒤따랐다. 그 다음은 내가 선두를 서고 커어트가 뒤따랐다. 아침 햇살에 조금씩 따뜻해지는 바위의 온기가 손끝에 전해 온다.

바위 타기는 매개체 없이 직접 바위와 흠을 가슴으로 겨안을 수 있어 나를 사로잡았다. 자연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스포츠구나 생각하니 돈이 생기면 전국을 돌면서 바위 타기로 세월을 보내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가게 종업원이나 접시 닦기로 취직해서 다음 바위 타기를 준비하는 바위타기광들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었다.

문득 스카이 다이빙 학교에 붙은 주의 문구가 생각난다. "스카이 다이빙은 중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바위 타기도 그 스타일을 맛보기 시작하면 거기를 떠날 수 없는 중독성이 있을 만하다. 물론 건강을 해치는 중독성은 아니지만.

너를 믿지 않았으면...

앞으로 나아갈수록 난코스라 기다리고 있다. 산을 돌아드니 발치 아래 흐르는 강물이 보이는 절경이 나타났다. 삼십 미터 가량을 발 밑의 강물을 보면서 옆으로 가야 한다. 커어트는 앞에서 조심스레 발끝과 발끝을 옆으로 옮기면서 나아간다.

나는 심호흡을 가다듬고 뒤를 따랐다. 나에게도 옆으로 발을 옮기는 동작은 쉽지 않아 학교 수업 중에도 사선으로 올라가는 길을 택하곤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고 바위 옮기를 잘하면 그런 길을 택할 수 있겠지.' 두려움이 일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토닥였다.

돌출 부위가 작지 않으면 옆으로 발끝을 옮기는 것이 쉽게 느껴진다. 실제로는 정확히 체중을 실어 한번에 과감하게 옮기지만 하면 돌출의 크기는 관계 없다. 돌출 부분에 닿는 발끝의 면적에 관계없이 실리는 하중에 비례

해서 마찰력이 발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이 생기면 작은 돌출 부위도 아주 큰 돌출로 보이지만, 두려움이 생기면 큰 돌출이 아주 작은 돌출로 보이다가 공포로 번지면 아예 돌출로도 보이지 않는다.

커어트는 앞서 가면서 말뚝을 박지 않는다. 빨리 그 코스를 통과하려는 생각에서인지 아니면 옆으로 가는 길이라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인지 알 수 없지만 말뚝을 박지 않고 그대로 나아갔다. 말뚝을 박지 않았다는 것은 안전장치를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몇 미터 앞의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몸이 뻑뻑해지는 느낌이 스쳤다. 몇 번 발끝을 옮겨 뒤따르는 순간 갑자기 몸이 흔들렸다. 발 밑의 큰 강이 위로 솟아 올라 올린 바람에 몸이 휘청거리면서 체중을 옮기려던 발끝이 미끄러진 것이다. 반사적으로 옮기려던 발끝을 원래 자리로 되웁혔다. 아차! 큰 일 날 뻔했구나. 아니 죽을 뻔했구나! 안전장치가 소용이 없으니.

생각이 순간 여기에 미치지 허벅지와 장딴지의 근육이 떨리기 시작했다. 점점 후들거린다. 바위를 더 세게 껴안았다. 여태까지 상쾌하게 느껴지던 산들 강바람이 차가운 겨울바람으로 살을 에는 듯 느껴지면서 앞가슴으로 전해 오는 바위의 온기가 갑자기 뜨거워졌다. 후들거리는 다리의 전율이 머리까지 올라와 의식이 몽롱해 진다. 정신을 가다듬으려 눈을 감았다. 그러나 이미 공포감이 머리와 가슴을 점령한 뒤였다.

바위에 붙인 뺨을 떼고 고개를 천천히 돌려 주위의 돌출 부분을 찾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길이 끊긴 것이다. 위 쪽의 길을 찾으려는데 뺨이 바위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고개조차 더 이상 움직여지지 않는다. 내가 지금 추락하면 커어트도 같이 추락한다.

아직 말뚝을 박지 않았을 것이고 두 사람이 로프로 연결되고 있으니...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내 눈을 생각하니 심장이 멈출 것 같다. 다시 눈을 감았다.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거라 생각하는 게 낫다. 여기서 가만히 있는 한 당장 죽지는 않는다.

내 다리의 힘이 빠지지 않는 한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서 두세 시간은 보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마음을 가리얏히고 눈을 뜨면 다시 보일 것이다. 나를 점령한 공포감을 몰아 내야 한다. 분명히 공포감은 머리에서 왔다. 안전장치가 소용없다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 가슴의 용기를 집어 삼킨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 길을 건듯이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 생각을 돌릴 수도 없다.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녀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러나 생생하지 않다. 그 얼굴의 하나 하나를 뜯어보면서 생생한 느낌이 들도록 애썼다. 마음을 탄대로 돌려야지.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구나 생각이 스치면 다시 캄캄해진다. 생각을 서서히 바꾸려 애썼다. 죽는구나에서 살 수 있다로. 아래가 강이니 떨어져도 살 수는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니 그녀의 얼굴이 점점 생생해 진다. 얼굴의 미소까지 떠오르니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더욱 들기 시작한다. 그리고 믿음이 되살아났다. 바위에 대한 믿음, 나에게 대한 믿음, 커어트에 대한 믿음.

멀리서 커어트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왔다. "헤이, 무상! 거기 있니?" "O.K. I am O.K!" 목구멍을 꿀꺽거리며 소리가 새어나왔다. 다리의 후들거림이 덜하다. 눈을 뜨고 바위를 보니 바로 옆에 큰 돌출 부분이 있다. 삼십 센티도 안되는 거리에. 끊긴 길을 다시 연결시켜 주는 바위에 고맙다는 말로 속삭였다. "You are there."(너 거기 있었구나.) 그리고 나아갔다.

산을 내려오는 차안에서 커어트에게 물었다. "아까 얼마나 나를 기다렸니?" "한 십오 분." 그게 십오 분이라

니... 한 시간은 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이 코스는 나에게 무리한 코스였어. 이제 바위 타기를 시작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코스로 데려 올 수 있는 거니?” 그의 무모함과 나의 무모함에 은근히 화가 났다. 그는 가볍게 응답한다. “너를 믿지 않았으면 나도 위험했을 걸..”

## 미국의 Lawyer

미국의 Lawyer 즉 법률가의 성격은 우리 나라에서의 그것과 다르다.

법대에 입학한 첫날 법대 학장의 말이 떠오른다. 우리의 입학을 축하하면서 “여러분은 이제 일반가(generalist)로서의 자질과 지식.기술을 배우기 위해 첫걸음을 시작했다. 이제 법이 우리 인간에게 왜 필요하며 어떻게 인간을 도우는 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주제를 어떻게 다룰 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인상 깊은 축사였다. 인상 깊었던 이유가 이 사회는 법률가를 전문가(specialist)로 규정하지 않고 사회일반사를 두루 다루는 ‘일반가’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의 인식과 판이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법을 전공한 사람 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기타 행정공무원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이런 직업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법대에 입학해서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여 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사회의 가장 성공한 분야의 직업인으로서 한정된 분야에서 일하게 되는 법률 ‘전문가’로 인식된다.

이렇듯 사회 인식이 다르니 법률가를 양성하는 방법도 다르다. 로스쿨 law school로 불리는 법대의 입학 자격은 일반 학부 과정을 이수한 자 즉 학사 자격을 가진 자이다. 따라서 법대를 다니는 학생들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공대, 의대, 미대 등 학부에서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 일반적으로 법대의 학비가 비싸기 때문에 학부를 졸업한 후 일자리를 구해 학비를 저축하여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그러다보니 다른 대학원 보다 평균 연령도 높다.

### 공포의 여교수

내가 졸업한 콜롬비아 대학의 또 다른 특기 사항은 법률가를 지망한 여성이 거의 40%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여성이 거의 반이 되는 수업 분위기가 나에게서 무척 독특하게 느껴졌고 이들과의 상호 접촉은 여성에 대한 나의 인식의 많은 부분이 편견이었음을 일깨우기에 충분했다.

법대의 수업은 교수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소크라테스식 교육법이 통용되고 있다. 미리 예습했음을 전제로 실제 수업에서는 예습한 과정에서 막힌 것을 뚫어 주는 문답식 교육이다. 그래서 예습을 안한 경우 수업에 들어가 봤자 먼 나라 얘기로 들릴 뿐 교수의 질문에 대답도 못하고 망신만 당하게 된다. 내가 아직도 떠올리는 기억은 Contract law(계약법) 수업의 공포감이다.

사법의 근간이 되는 계약법은 법대생의 필수과목이다. 대형 강의실에 120명의 학생들이 자리잡고 열기를 품는데 자리는 강의 첫 시간에 자신이 적어 낸 좌석으로 지정석이다. 교수는 학생 사진과 이름이 붙여진 좌석 배치도를 강단 위에 놓고 수시로 호명하여 질문을 한다. 이 과목은 중요하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점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간 경쟁이 치열하다.

수업 두 시간 동안에 두세 개의 case를 공부하게 되는데 미리 case(사건 개요)를 읽고 숙지하여 법률적 쟁점을 알고 수업에 임해야 한다. 하루의 수업 범위는 십 내지 이십 쪽으로 적지 않은 분량이다. 하루에 서너 과목 강의

가 있으니 학과가 끝난 후 보통 적게는 육십 많게는 백 이십 쪽을 읽어야 하는데 영어가 외국어인 나로서는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시간이 지나 요령을 터득하게 되었는데 그 요령은 별개 아니다. 미련과 두려움 없이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법 시간의 여교수 강의는 날카롭고 지명에 의한 교수의 질문과 학생의 대답이 연이어져 그 시간이 다가오면 전날 악몽을 꿀 정도다. 으레 첫 번째 질문은 그날에 공부할 case의 대강을 지명된 학생이 말하는 것이다. 간단한 교수의 보충이 있고 다음에는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질문이 있게 마련이다. 그 동기는 교과서에 있는 긴 사건 개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다.

계약의 전제가 되는 거래 관계와 연관되는 직종에 있어 본 사람이면 그런 상황의 뒷배경을 잘 알고 계약 내용에 나타나지 않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관계 직종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상상력에 의존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다행히도 법대 강의실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져 본 학생들이 많아서 거래와 관계되는 직종에서 일해 본 학생이 배경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의료 사고의 경우 의사인 학생이 그 직업 분야에서의 관행이나 의사들의 동기와 환자들과의 관계 등을 소개한다던가 컴퓨터 전문가가 소프트웨어의 유통에 관한 설명, 또는 소설가가 출판사와 독자들과의 관계 등을 실감나게 말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 상충과 업계의 관행과 동기들이 학생들에 의해 정확히 포착되기도 한다.

우리 나라 법대 수업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법대가 학부 과정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경험을 가진 학생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case위주의 수업이 아니고 법해석위주의 수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문 직종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법을 공부하다 보니 그 발언 내용과 질문이 예리하고 실감나는 것이 법률가 교육은 어느 정도 사회 경험을 가지면서 자신이 이런 분야에 적성이 맞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어 져야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와 같이 공부만 잘하면 무조건 법대에 간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학부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적성을 알고 자신의 전공을 바탕으로 법률 공부를 하는 것이 전문화된 사회에서 일반가로서 두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가 양성의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개인차이

여러 직업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였다고 하나 다양한 사건과 관련되는 모든 직업군이 모인 것이 아니므로 case에 관계된 직종이 없는 경우 학생들의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교수의 질문에 선뜻 손을 드는 학생이 없기 마련인데 손을 드는 사람이 있다면 여지없이 여학생이었다. 나름대로의 추리에 근거한 자기 생각으로 거래에 관계된 사람들의 동기를 말하는데 여지없이 쪽집게이다. 남자들은 침묵할 뿐 이런 기회는 거의 여자들의 독차지였다.

아무려면 인간사의 욕망과 그 변덕을 여성들이 더 잘 알고 있을까. 그러나 이런 현상은 다른 수업, 다른 주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남성들과 비교해 뒤떨어지는 것이 없지만 이렇게 추리가 동원되는 분야는 오히려 여성들이 돋보였다.

이밖에도 내가 여성들에 가졌던 인식들이 편견이라고 느낀 것이 많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감성적이어서 사물을 볼 때 감정을 앞세운다.' '여성들은 아기자기한 사고에 능숙해서 큰 틀은 남성이, 그것을 채우는 것은 여성이

할 일이다.' '여성은 멀리 내다보는 눈이 남성에 못 미친다.' 등등이다.

반대로 '감성이 보다 요구되는 분야는 남성이 여성보다 못하다.' '남성은 여성보다 섬세할 수 없다.' 등등은 내가 남성들에 가진 편견이다. 한마디로 여성이 감성적이고 남성이 이성적이다 라는 이분법적인 도식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라기보다는 개인 차이에 불과한 것인데 사회의 구조와 인식이 여기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고착화된 것이라고 보고 싶다.

물론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생각보다 심한 것이 아니고 환경에 의하여 과장된 것이라는 것이다. 완전하지 않지만 여성에게 남성 못지 않게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환경에서 키워지고 교육받은 미국의 여성은 남성적이고 이런 환경에서 사는 남성은 여성적이다.

한국인으로서의 내 눈에는 여성의 남성화, 남성의 여성화가 일어난 듯이 보인다. 즉 여성들에게서 남성과 같은 큰 선을 느낄 수 있고 남성에게서는 여성과 같은 감성과 예민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화와 함께 감성과 이성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점은 미국 생활에서 배운 점 중 가장 큰 것 중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도 여성의 지위가 상승해서 남성과 같은 기회가 주어지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남성의 여성화, 여성의 남성화 그리고 이성과 감성이 조화되는 계기가 되어 보다 높은 차원의 남녀 분업이 이루어지고 개인의 창의성이 향상되리라.

졸업식날 '여러분은 이제 일반가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되었다. 콜롬비아 대학의 명예를 빛내기를...' 학장의 축하 메시지가 뿌듯했다.

이렇듯 미국의 법률가는 일반가이다. 사회 각 분야 두루 법적 문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가이다. 이런 배경에는 미국 사회가 법을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필수 도구로 인식하고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대로 하자.' 하면 삭막하게 들리지만 미리 법대로 하면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는 것이니 법은 인간의 삶이 험악해지지 않도록 윤택유 역할을 하는 우리의 생활 필수품인 것이다.

## Manhattan의 등잔불 밑은 어둡다.

멋이 맛에서 나왔다는데...

맨해튼에 사는 즐거움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각종 편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충분히 돈이 있으면' 이 조건이다. 각종 문화 예술과 풍요를 맛볼 수 있다. 그 중에 특히 거의 모든 나라의 음식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이곳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기회이다.

미국 음식과 이태리, 프랑스, 중국, 일본 음식은 물론 그밖에 인도, 베트남, 티벳, 영국, 아일랜드, 모로코, 레바논, 폴란드, 러시아, 멕시코, 주이쉬, 아프리카 등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나도 친구들과 어울려 입맛의 세계화에 관심을 가졌는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나라와 비슷한 음식이 꽤 된다는 것이다. 인상에 남는 것은 더운 지방인 베트남 음식이 우리 음식과 비슷함에 놀란 기억이 난다.

그 밖에 우리 입맛에 비슷한 것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각 나라 레스토랑을 다 가보는 것도 경제적 여건상 쉽지 않지만 그 레스토랑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메뉴에서 놀라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음식에 익숙한 사람과 같이 가지 않으면 순전히 동물적 욕감을 발휘해야 한다. 막상 식탁 위에 올라온 음식을 보고 입도 못 대는 경우에는 음식값을 아까워하며 시행착오의 대가라고 스스로 위로할 수밖에 없다.

입맛처럼 자기 자신에 깊이 박혀 있는 것도 없을 게다. 오래 전부터 익숙해진 음식으로부터 다른 음식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고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러나 다른 나라 음식을 거부감 느끼지 않고 먹어 보는 것은 다양성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원래 우리 나라의 '맛'이라는 단어는 '맛'에서 파생되었음을 배운 기억이 난다. 먹는 '미각'이 먼저고 그 다음이 '시각'임을 우리 선조들은 오래 전부터 알았다. 한자의 아름다움 '美' 자를 자세히 보면 '羊+大'인데 중국 고대에는 양고기를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여겼으니 양고기가 크면 맛있고 결국 그것이 아름다움과 통한다는 얘기가 된다.

음식을 즐기는 것은 풍요의 극치다. 음식 문화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가장 풍요로운 사람들이 발명해 낸다. 그 풍요로움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발명된 음식이 대중화된다. 중국 음식 중 돼지고기 요리의 1500여 가지가 유명한 당나라의 도연명에 의해 발명된 것도 그 일례이다.

아무튼 '혀의 감각의 다름'이 '문화 양식의 다름'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이 틀림없다. 우리 나라의 음식을 개발하여 세계화시키려는 꿈을 가진 자는 필히 다른 나라 음식을 둘러보고 맛보아야 한다고 믿는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다.

### 맨해튼의 준조세

음식점을 오갈 때 느끼는 맨해튼의 어두운 풍경을 빼놓을 수 없다. 고급 음식점의 뒷골목에서 음식 찌꺼기를 찾아 쓰레기통을 뒤지는 배고픈 자들의 모습과 그 앞길에 고급 승용차를 멈추고 내리는 고급 양복의 신사들의 모습이 한 장면으로 스쳐 간다.

심지어는 음식점 창 밖 너머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다 식사하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흑인과 눈이 마주치면 갑자기 음식을 집는 내 어깨가 무거워진다. 유리 창하나 사이가 풍요와 빈곤을 수천 만리로 갈라 놓고 있다.

집 없는 사람(homeless people)이 뉴욕에만 100만 명 가량 추산되는데 일자리를 찾으러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

고 유독 뉴욕을 배회하는 것이 뉴욕의 등잔불 아래를 어둡게 한다. 저녁 무렵 슈퍼마켓 앞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뒤쫓아오며 종이컵을 든 손을 내밀며 잔돈을 구걸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다.

지하전철역에서 흑인과 눈이 마주치면 손에 종이컵을 들었는지를 재빨리 살피고 가던 길을 재촉하는 습관이 들었다. 어물쩍하면 계속 따라 오면서 구걸하기도 하고 이에 당황하면 소매치기로 돌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철을 타고 앉으면 여러 모습의 걸인과 접한다. 한적한 전철 안의 좌석에 누워 움크린 채 잠을 자는 모습들을 대하면서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놀라지 않는 것도 일상사의 일부가 되었다.

번잡한 전철 안을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서너 명이 피리나 하모니카 등의 악기를 연주하며 화음을 섞어 합창하는 걸인 합창단은 인기(?)가 있다. 어떤 때는 멀쩡한 여인이 열변을 토한다. “나는 거지가 아니다. 여러분께 할 말이 있다. 아침에 안경을 놓고 내려 이 안경을 찾으려 전철역 지배인을 만났는데 나를 도와 줄 수 없다고 한다. 그렇다고 뉴욕시가 나를 도와주겠는가. 여러분이 나를 도와주어야 한다. 내 안경은 50불 짜리이다.” 그 당당한 구걸에 어안이 병병하다. 어떤 걸인은 자기 처지를 담은 가사로 노래를 만들어 부른다. 아무튼 전철 안에서는 그냥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 거지는 없다. 무언가 작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역지로 강매하는 케이스도 있다. 차를 몰고 가다 붉은 신호등에 잠시 대기하고 있노라면 어디선가 쏜살같이 나타나 앞창 유리창에 세척제를 뿌리고 스폰지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닦고서는 말한다. 그 동작이 번개같이서 거절할 여유도 없고 입을 열 여유도 없어 듣기만 할 수 있을 따름이다.

“강요는 안한다. 나는 배가 고프다.” 술직 애걸형이다. 또는 “너는 부자고 나는 가난한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위협 공갈형이다. 또는 “잔돈을 바꿔 주겠다. 이 서비스는 무료다.” 애교형이다. 파란불이 켜져도 돈을 줄 때까지 따라 붙어 뒤에 밀린 차들의 크락손 소리에 1불 또는 잔돈이 없으면 10불을 주고 꼼짝없이 당하고 만다.

심지어는 방금 내린 비에 앞창이 깨끗한데도 덤벼들어 닦고는 손을 벌린다. 일 나온지 얼마 안되는지 숨씨가 느껴 운전자에게 욕을 듣는 자도 있다. “앞창이 더 더러워 졌다. 너는 연습이 필요하다.” 며 그냥 가는 운전자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맨해튼에서 만나는 어두운 풍물이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나 미국 친구들에게 물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대답은 “맨해튼에서 사는 세금이다. 나는 신경 안 쓴다.” 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에게는 비싼 세금이다. 내 처지에 맞게 전철 타고 다녀야지.’

겨울 아침 거리를 나서면 이곳 저곳 지하철의 온기가 새어나오는 환기통 근처에 몸을 움크린 채 새우잠을 자는 사람들을 지나야 한다. 담요나 직물이 아닌 비닐이나 두터운 마분지를 덮고 잔다. 도로 구통이에는 그들이 끌고 다니는 유모차가 무질서하게 널려 있다.

그 유모차에는 옷가지와 식기, 종이컵 등 가재도구들이 어지럽게 가득 차 있다. 쓰레기통을 뒤져 주운 것들이다. 추위에 떨며 보도 바닥에서 겨울밤을 지낸 이들은 공원 벤치에서 자기 순서가 돌아오지 않은 이들 일게다.

순경들이 이들을 모아 집 없는 사람들의 임시 거처로 수송하지만 순경의 눈을 피해 밤사이에 쓰레기통을 뒤지느라 새벽에 잠이 들었다. 이런 경험이 있다. 집에 돌아와 정리를 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문 앞에 내다 놓았다. 아침 8시경 청소차가 수거해 가니 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버리려고 방금 밖에 내다 놓은 유리병과 낡은 운동화를 다시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집이 비좁아 처분하려다 좀 더 쓰려고 마음을 바꿔 먹었기 때문이다. 밖으로 나가 물건을 찾았으나 온데 간데 없다. 위 아래를 오르락 내리락한 이 삼분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던 걸인의 수중으로 넘어 간 뒤였다.

이들을 볼 때의 안쓰러운 마음과 동정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발하는 내 자신에 놀라지만 어쩔 수 없음을 체념했다. 공휴일의 교회 앞은 긴 줄로 혼잡하다. 음식을 타기 위해 기다리는 걸인들의 표정이 밝아 보인다. 일자리도 없고 머물 곳도 없지만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려는 모습으로 비쳤다.

#### 마약도 기호품

맨해튼의 마약과 범죄는 오명으로 남아 있다. 돈이 모이는 곳이니 검은 돈을 벌려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밀매의 역사도 길다. 금주령이 지배하던 시대의 술의 밀매, 마약의 밀매. 그 중에서 마약의 밀매는 아직도 번창 사업이다. 마음먹으면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고 술집에서 처음 만난 예술인들 사이에서 마리화나를 권하는 모습은 드문 일이 아니다.

여든 개 가까이되는 맨해튼의 유선 TV 채널 중 화면이 너무 빨리 바뀌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채널이 있다. 그 이유를 "마리화나를 핀 후 다시 보면 알 수 있다." 는 말에 깜짝 놀란 기억이 난다. 뉴욕시의 비공식 통계로는 40%내지 60%의 시민이 마리화나나 그 이상의 마약에 손을 댄 경험이 있다고 추측한다.

더욱 인상깊은 것은 옆에서 마리화나를 피며 술 마시는 사람에게 "마리화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는데 "처음 피는 사람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과용하지 말라. 코케인을 할 때는 반드시 너를 보살피 줄 친구를 옆에 두어라. 등등..." 묻지도 않은 마약 복용에 대한 주의 사항을 친절하게(?) 늘어놓는다.

마약에 대한 죄의식은 없고 술과 같이 주의를 요하는 기호품 정도로 여기는 것이 위험스럽게 여겨졌다. 마약에 빠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약을 시작해서 마약에 빠지지 않으려 스스로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번창 산업으로 돈 벌려는 사람들의 수중에 방입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물건임에 틀림없다.

마약산업에 제동을 건 성공적인 정책이 생각난다. 오륙 년 전인가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은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골자는 마약을 합법화하되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다. 마약이 필요한 자는 국가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 국가는 마약 복용자의 리스트를 가지고 최소 필요량을 적정(?)가격에 판매한다.

만일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을 하다 적발되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팔지 않는다. 따라서 마약을 팔려는 자는 국가의 고객 리스트에서 삭제될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간 큰 마약복용자를 찾아내야 한다. 시정부는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수년간의 거센 반발과 싸워야 했는데 국민들보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반대를 무릎 서느라 애를 먹었다.

이 정책 시행 후로 마약과 관련된 살인 사건이 한 건도 없다 하니 이를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뒤따라 이 정책을 시행하는 시와 나라가 늘고 있다고 한다.

마약은 범죄를 부르기 때문에 더욱 무섭다. 내가 살던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느 봄날 자정이 가까운 11시 반쯤 초인종이 울렸다. 아파트 경비원 셋이 문 앞에서 서 있었다. "잠깐 집안을 돌아 볼 수 없나?" 고 정중히 부탁한다. 무슨 영문이나 물었으나 대답할 수 없다며 몇 초면 된다는 말에 허락을 했다.

집에 다른 사람이 없는가만을 살피고 돌아선다. '나를 의심할 만한 무슨 일이 생겼나.' 라는 걱정을 가시면서 '나를 위협하게 할 무슨 일이 생겼나.' 라는 의구심에 다시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 중 경관 출신이며 우리 나라 진해에서 해군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해 몇 번 말을 붙여 본 적이 있는 경비원이 조심스레 답하기를 "너와 비슷한 일본인을 찾고 있다." 는 것이다.

알 수 없는 말이었다. 며칠 뒤 로비에서 일본인 이웃을 만나 그 날 일을 말해 주었다. 그는 일본 굴지의 히타치 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회사의 재정 지원으로 Columbia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MBA)을 다니고 있는 이십대 후반의 청년이다.

그 친구를 통해 아파트 관리인 측에서 쉬쉬하는 사건의 전모를 들을 수 있었다. 그날의 사건은 이러했다. 뉴욕의 일본 지점인 증권 회사에 다니는 일본인이 금요일 밤 11시경 아파트 입구 20여 미터 지점에서 침대 초반의 흑인 꼬마 둘에 의해 습격 당했다. 두 놈이 느닷없이 나타나 길을 막고 마구 주먹질을 하고 지갑을 빼앗아 달아나다 근무 중인 아파트 경비원들이 달려와 이들을 수백 미터 추적해 마침내 생포했다.

이 꼬마들은 평소에 핸드폰을 소지하고 다니는 이 일본인을 눈여겨보았다가 마약을 복용한 환각 상태에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래서 경비원이 나를 찾아와 집안을 둘러보고 핸드폰을 사용하느냐를 물었던 이유를 알았다. 경비원이 꼬마 둘을 생포하여 경찰서로 인계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습격을 당한 피해자가 아파트 안으로 피해 온 이후 잠적해 버려 한국인이나 일본인 등 동양인들의 집을 수소문하고 다닌 것이다.

피해자를 찾지 못해 꼬마들은 풀려났고 아파트 관리 회사측은 이 사건이 알려져 입주자들이 불안해할까 봐 쉬쉬하며 비밀로 덮어 버린 것이다. 일본인 이웃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기 또래의 직장인으로 뉴욕에 전근 와 이 아파트에 입주한지 일주일도 채 안되어 이런 일을 당하고는 그 다음날 비행기로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자신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만 일본인 체면을 생각해 아파트 관리 회사측에 아무말도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맨해튼의 험악한 치안 상태를 더듬어 본다. 맞은 편 슈퍼마켓은 언제 강도 당했고 그 옆의 약국은 언제 강도 당했고 최근에는 저편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0불을 인출하고 돌아서는 사람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달아나다 생포된 사람이 마약에 취해 있었다는 등.

마약에 취하면 현금을 보고 액수가 얼마든 무조건 쏘고 본다. 정말 살벌하다. 나도 이 사람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것을 알았다. 맨해튼 내에서 그래도 안전한 구역이라고 소문난 지역이 이렇다니. 아예 모르고 지내는 편이 나을 뻔했다.

그런데 이 일본인은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을까. 일본인들은 다른 민족과 눈에 띄게 다른 특성이 있다. 이들의 정보 공유 능력은 참으로 놀랍다. 뉴욕에 도착하기 전 집을 고를 때부터 자기 일본인들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듣는다. 근처 어디에 자기가 다닐 빵집이 있고 약국은 어디 있으며 슈퍼마켓까지는 걸어서 몇 분이고 일본인에 우호적인 이웃이 어디며 피해 다닐 골목은 어디며 등등..

상상 못할 만큼 상세한 정보를 알고 이곳 생활을 시작한다. 그들의 단결력은 가히 본받을 만하다. 반면 그들의 마음에 깔려 있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이 간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지만 일이 닥치면 그때 그때 대처한다는 믿음과 자신감으로 사는 미국인들의 생리와는 정반대로 비춰진다. 현재의 불안에서 그리는 미래 설계와 현재의 믿음에서 그리는 미래 설계는 그 칼라 톤이 다를 게 틀림없다.

그렇게 용감해도...

맨해튼에서 살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있다. 처음에 도착해 시끄러운 소음을 피해 창문을 꼭꼭 잠그어도 어쩔 수 없는 사이렌 소리에 치져 '적막한 공간을 잠시 가져 봤으면' 간절한 생각이 들곤 한다.

시간이 지나면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낮잠을 잘 정도로 친숙해지고 그것이 종류가 다른 세 종류의 사이렌 소리임을 알게 된다. 경찰차, 구급차, 그리고 소방차의 사이렌이다. 그 소리가 무척 큰 것이 모두가 하나같지만 자세히 들어야 그 소리의 구성이 다름을 구별할 수 있다.

어느 파티에서 '누가 맨해튼에 오래 살았는가.' 하는 퀴즈 시합이 있었는데 세 가지 사이렌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판명 났다. 그 중에 경찰차의 사이렌을 제일 먼저 구분할 수 있다. 살벌한 동네에서 살다 보니 당연한 게 아닌가.

맨해튼의 경찰을 자세히 보면 여러 종류가 있다. 보통 눈에 띄는 경찰은 교통경찰이거나 그 보조원들이다. 뉴욕의 강력계 경찰은 캘리포니아의 경찰과 함께 용감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나는 뉴욕 경찰들의 용감함과 민첩성을 보고 감탄한 적이 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이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Barbri'라고 불리는 전문 학원에 등록하고 매일 다녔다. 보통 아침 9시에 시작해 오후 2시쯤 끝나는 수업이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따가운 햇볕과 뜨거운 아스팔트의 열기와 싸우는 길이다.

중심가를 지나다 보면 노란 테이프로 길을 가로질러 행인의 통행을 막는 곳을 종종 만날 수 있다. 노란 테이프 너머 저쪽에 사람들이 길을 걷고 있는데 무슨 영문으로 나는 통행이 안된단 말인가. 알고 보니 영화 촬영 중이란다. 저 너머 많은 사람들이 모두 엑스트라 배우라니 이 더위에 고생한다 싶었다.

그런 촬영 현장을 몇 번 본 뒤로는 맨해튼 거리의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볼 때면 뒷배경의 행인들을 열심히 보게 되었다. 저 많은 사람도 비록 엑스트라이지만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리라 생각하면서. 센트럴 파크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본 적 있는데 커다란 트럭이 5대 와서 각종 복장과 기구를 풀어놓았다.

이른 봄날이라 공원에 사람이 많지 않은 틈을 이용해 여름 장면을 찍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수백 명의 엑스트라가 여름옷으로 갈아입고 공원 여기 저기에 배치되어 자연스런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그 준비만 하는 데 네댓 시간이 걸렸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나는 바바라 스트라젠드와 킴 베신저 그리고 대형세트가 눈에 띄어 호기심에 길을 멈춘 것이다.

두 사람이 호숫가에 서서 10초 남짓의 대사를 몇 번 하는 것이 네댓 시간 지켜본 결과의 전부였다. 그 한 장면을 찍는데 엑스트라도 리허설을 했고 풀밭에 차려 놓은 대형 식탁 위의 음식은 촬영용 소품세트가 아니라 그들의 점심 식사임을 뒤늦게 알고 허탈했다.

오늘도 학원 수업을 끝내고 숨막힌 거리의 행인들 사이를 헉헉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다. 토요일이지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학원 강의를 마지막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휴일의 거리는 평복으로 차려입은 시민과 관광객으로 어슬렁댄다. 길 가던 중 비디오를 든 행인들의 카메라 렌즈가 한결 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향해 있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경관 복장을 한 남자 두 명과 여자 한 명의 배우가 총을 꺼낸 채 행인들 사이를 뚫고 질주하며 한 명의 범인을 뒤쫓고 있다. 한바탕 총격전이 날 판이다.

범인이 백화점 입구에서 머뭇거리는 순간 경찰은 정지 신호를 외치며 주위를 에워싸고 총을 겨눈다. 당황해 계속 머뭇거리는 범인을 한 경관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여자 경관은 범인의 총을 낚아채고는 땅바닥에서 손을 뒤로해 수갑을 채운다. 그 순간 다른 서너 명의 경관이 뛰어 왔고 동시에 응급차가 보도 위까지 올라와 바로 옆에 급정거한다. 경관들은 그 범인에게 다른 범인은 어디로 갔느냐 소리쳐 묻고 급히 백화점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 수많은 엑스트라에 멋진 영화 장면이다.

마침 연극표를 사러 길게 줄을 선 관광객이나 시민들은 15초 남짓의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느라 정신이 없다. 환호와 갈채가 여기저기 터져 나온다. 뒤로 수갑이 채인 범인을 일으켜 순찰차에 태우는 장면을 끝으로 구경꾼들이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 현장 바로 주위의 사람들은 물론 엑스트라 일거라 크게 들떠 있지 않다. 그러는 동안 한 경관이 마이크를 꺼내 들고 구경꾼을 향하고 나머지는 차를 사주 경계한다. 마이크에서 다음과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여러분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상황이 끝이 났습니다. 차가 지날 수 있게 길을 비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경관의 눈에 아직 살벌함이 감돌고 있어 이상하다. 주위의 엑스트라가 황급히 흩어지고 있는 게 이상하다.

그리고 나서 주위를 유심히 둘러보니 영화촬영시에 에워싸는 노란색 테이프가 보이질 않는다.

실제 상황이었다. 이렇게 뉴욕의 경찰은 영화에서처럼 용감하구나 하고 한동안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뉴욕 경찰의 용맹함이 마약 환자의 범죄를 저지할 수는 없다. 이 사회에서는 마약 거래의 차단은 경찰이, 마약 환자의 치료는 의사가, 마약중독의 예방은 자신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약의 시작과 끝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지는 아이디어가 생겨나 암스테르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맨해튼의 거지와 마약과 범죄는 미국의 풍요로움의 뒤에 가려져 있는 어두운 단면에 불과하다. 그밖에 더욱 깊은 어두운 구석에 인종차별이 자리 잡고서 미국인의 양심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 필자는 미국의 밝은 면을 보고 우리의 교훈으로 삼자는 생각에서 어두운 면에 대하여는 이 한장으로 그치려 한다. 맨해튼의 화려한 등잔불 밑은 어둡다는 것으로.



## 제2장 여행과 여행사이

## Hitchhiker와 위기일발

미국여행을 떠나기전 몇가지 주의사항을 미국 운전자협회 AAA(American Association Automobile)의 직원에게서 들었다. 미국의 많은 사람은 AAA 회원이다. AAA는 미국 전체를 커버하는 수천 만 회원을 둔 순수 민간 조직이다. 여기에 연회비 30불을 내고 가입하면 매달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비롯하여 각종 보험, 할인 여행 패키지 프로그램, 무료 정비권, 무료 주차권, 자동차 구매시 할인 특전 등 다양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뿌듯하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것은 비상 견인 서비스와 여행 안내 서비스다. 비상 견인 서비스란 자동차 운행중 갑자기 차가 멈추어 섰을 때, AAA의 비상 전화를 돌리면 그 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AAA지정 정비소를 연결시켜 견인차가 출동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이 곳에는 견인 서비스 요금의 바가지가 심한지라 회원들로 단결된 AAA 조직을 이용하지 않으면 당하기 쉽상이다. 그리고 일정 거리까지의 견인료는 AAA가 부담한다. 뭐니뭐니 해도 AAA에 가입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은 여행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여행을 떠나기 두달 전 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AAA 회원이 되었다. 여행사를 통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으리라는 계산에서다. 여행사는 비행기, 기차, 버스 티켓을 팔거나 고급 호텔에 투숙시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여행자의 호주머니를 호시탐탐한다는 것 외에 유익한 여행 정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일전에 몇군데 여행사를 방문하면서 느낀터이다.

여행을 한달 앞두고 마침 집 근처에 있는 AAA사무실을 찾았다. 30분 가량을 기다려 내가 호명되어 이십대 초반의 젊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그의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경쾌한 몸짓과 부드러운 목소리가 이미 여행 가방을 들고 길을 떠나 싱그런 바람과 초록빛 경치에 휩싸인 내 자신을 떠올리게 했다. 나 바로 앞에 거쳐간 고객을 위해 펼쳐 놓았던 지도와 책자를 정리해 한 구통이로 몰아 놓고는 "언제 출발하나요?" 묻는다. 마치 자기가 여행을 떠나는 기분으로 즐거운 표정이다.

미국은 너무나 큰 나라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사전 준비 없이 단지 '출발 날짜'와 '여행기간' 그리고 '많이 보고 싶은 욕심'만 들고 온 것이다. 한마디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림이 없는 것이다. '너무나 사전 준비 없이 와서 상대가 불쾌하게 대하지 않을까. 혹시 지도나 책자를 주면서 집에 가서 들춰보고 공부해서 다시 찾아오라고 하지는 않을까. 나는 외국인이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처럼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지도나 책자나 얻으면 만족해야지.' 내 차를 기다리면서 꼬리를 물고 일어났던 걱정은 직원과 몇 마디 나누는 동안 녹기 시작했다.

출발 일자를 말하고 40일간의 자동차 여행이라니까 부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는 프로답게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는지 큰 지도를 책상 가득히 펼쳐 놓고 굵은 사인펜으로 주요 지점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가보지 못한 곳을 내게 추천하는 것이 더 즐거운 모양이다.

"어떤 취향이나? 좋은 경치를 원하는가 아니면 역사나 풍물에 관심이 있나? 도중에 스포츠를 즐기겠느냐? 어떤 숙박시설을 원하느냐? 예산은 얼마인가? 하루에 몇 마일을 운전하겠는가?" 많고 많은 질문에 정신없이 대답하고 나니 무슨 질문이 있었고 내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 멍멍하다. 하여튼 될 대로 되라 나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는 낫겠지.

질문과 대답이 끝난 후 고개를 끄덕이고는 관광지점을 도장으로 찍고 사인펜으로 코스를 그리는 등 펼쳐 놓은 대형지도 위를 번개같은 손이 부지런히 움직였다. 그리고 지점간 거리를 뽑아서 자동차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고 하루 하루 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대충 확정시킨 후 그날 그날 들러서 구경할 장소를 구간 지도 위에 표시하기 시작했다.

구간 구간을 나눠 조그만 길까지도 그려져 있는 이 구간 지도는 그 분량이 많아 책처럼 엮여져 있는데 조금 전 컴퓨터실에 가서 뽑아 온 것이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이번 여행에 욕심을 부려서 빠듯한 스케줄이라도 감수하겠다고 몇 번 강조해서인지 가는 길에 불만한 것은 빠짐없이 체크해 주었다. 그리고는 "내가 가보지 못한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 다녀오면 얘기해 달라." 며 부러워하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나중에 여행 도중 깨친 바였지만 무리한 여행이었다. 과한 욕심에 의욕만 앞세워 여유로운 마음을 뒤로하고 짜 준 스케줄대로 이리저리 뛰어 다니기에 정신이 없었다. 숙박 시설은 예약이 필요하고 미리 연락하여 취소하거나 예약일 늦은 밤 도착할 거라고 알려야 종업원이 기다린다. 연락을 앓고 예정보다 늦게 도착한 어느 날 모텔 종업원이 사무실을 닫고 이미 퇴근해 버려 캄캄한 밤에 차 안에서 자야 했던 경험을 치른 후론 어느 한곳에 도취되어서 남은 일과를 연쇄적으로 망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쓰기에 더 바빴다.

나의 여행에 여유로움은 없었다. 휴식이라기보다 내가 못 다한 부분을 채우려 마감 시간에 쫓기는 취재기자와도 같은 일과의 연속이었다.

그는 숙박할 도시나 마을을 정한 후 그곳에 마땅한 모텔이나 여인숙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AAA가 추천하는 숙박소와 우선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해당 일에 빈방이 있는지 가격은 얼마며 AAA회원에 할인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그는 나의 크레딧 카드 번호를 전화로 불러 주고 최종적으로 그 숙박지의 주소, 도착일시, 예약 번호, 담당자 성함, 예약 취소 조건을 받아 미리 인쇄된 양식에 채워 나가는 일을 반복했다.

이런 식으로 스물 두 곳의 예약을 불평이나 피곤한 기색 없이 해치우며 지난 시간이 네 시간이다. 그리고는 여행 중 미리 예약해서 사 뒤야 할 기차표나 콘서트표, 박물관표 등을 부지런히 컴퓨터를 두드리며 체크한다.

미국은 예약의 문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시간표를 찾고 표를 구하려 하면 이미 늦다. 미리 미리 적어도 두 달 전 길게는 일년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어떤 조그만 시골의 운치 있는 조그만 여인숙은 오 년 후 예약까지 찻다고 한다. 그렇다고 숙박료가 터무니없이 비싼 것도 아니다.

예약과 관련해 로 스쿨에 다닐 때 일이 생각난다. 학교 당국의 중요한 공지사항은 학생 개개인에 할당된 전자 사서함으로 보내진다. 매일 매일 학교에 도착하면 로비에 비치된 컴퓨터를 두드리 자기 사서함에 들어온 메시지를 체크하고 다른 사서함에 메시지를 보낸다. 동료 학생들 간의 전달 사항이나 편지, 농담 등 모든 의사 소통이 컴퓨터로 이루어지며 교수께 제출하는 과제물도 컴퓨터를 통해 집에서 바로 교수 컴퓨터로 전송한다.

이러한 컴퓨터 통신은 처음 접하는 것이라 신기하고 편하게 여겨졌는데 보다 인상적인 것은 전자사서함에 들어오는 공지사항이다. 이 공지사항의 사전 통보기간이 길다. 미리 통보하여 준비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다.

놀란 일이 생각난다. 어느 초가를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학교에 도착해 내 사서함을 들여다보았다. 졸업식 행사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 시간표, 그리고 그 날까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공지사항이 전자 사서함에 들어 있지 않은가!

이제 막 가을 학기말 시험 준비 분위기가 무르익고 이 시험이 끝나면 봄학기를 보내고 또 학기말 시험을 치러야 하니 아직 두 번의 학기말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데 7개월 뒤에 있을 졸업식 준비를 하라고 웬 똥판지같은 공지사항인가.

그리고 보니 미국인들은 무슨 일을 충동적으로 하는 일이 드물다. 미리미리 일년 전부터 여유를 두고 계획을 세운다. 따라서 멀리 떨어진 부모, 형제, 친구 등 초대할 사람들의 계획과 맞추어 약속을 하기 위해서 7개월의 기간을 주는 것은 그들의 생활 양식에 맞추어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 점은 후술하겠지만 안정된 사회에서는 얼마큼 철저하게 미리 계획하고 약속해서 각자의 생활을 누리는지 이런 '예약 문화'에 생소한 나로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고 여행 도중에 숙소를 구하느라 겪은 고생도 이 시행착오의 일부이다.

아무튼 아무런 준비 없이 온 나를 잡고 네 시간 이상을 씨름하면서도 즐거워하는 그 친절함과 서비스의 질에 감탄하여 서비스료를 얼마를 요구하든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물어 보았다. "This is my job."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인걸.) 나를 무안하게 만들었다. 공짜였다. 그리고 자리를 일어서면서 여행 중 주의할 사항을 다시 확인하였다.

그 중에서 자동차 여행 중 만나는 히치하이커(길 가는 차에 편승하여 여행하는 사람)를 태워도 되는지 물어 보았다. 대답은 "No way!" (절대로 안된다) 였다. 모르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이 낭만적이지만 위험하다는 것이다. 친절함 미소를 멈추고 나에게 던진 그 말이 건물을 나서면서도 귓가에 메아리치고 있었다. *No way! No way!* 이렇게 나의 여행길은 시작되었다.

40여일 간의 여행 일정을 거의 마치고 90번 국도를 따라 오던 길을 되돌아가는 길이었다. 이제 시카고를 제외하고는 그저 잠을 자기 위해서 머물 뿐 특별히 볼만한 구경거리는 끝났다.

어제는 한번도 말썽을 안 부리던 차에 소음이 생겨 에어컨에 연결되는 벨트를 교환하느라 네 시간을 지체했고 그 바람에 이곳 페어몬트 Fairmont에 밤늦게 도착해 이제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30시간을 운전하고 사흘 후면 집에 도착한다. 웬지 뉴욕의 휘황찬란한 네온사인과 북적북적한 전철이 그리워진다. 그 동안 여행 스케줄에 얽매어 바쁘게 뛰어 다니다 보니 사람과의 대화 시간이 없어서 적적했다. 돌아가면 영국 엑센트의 찰리Charlie가 반갑게 맞아 줄 것이고 여행담을 얘기하며 밤시간 가는 줄 모르겠지.

비가 그친 싱그런 아침에 따사한 햇빛이 열기를 품어 널 호흡을 가다듬으며 고속도로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고속도로를 막 들어서는 순간 누군가가 엄지손가락으로 가는 길을 가리킨다. 열은 갈색 머리 빛깔과 파란 청바지가 눈가를 스쳤다.

속도를 늦춰 백미러로 뒤를 보니 저 멀리서 나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피곤으로 처진 어깨선이 자포자기의 모습이다.

'여태까지 본 3명의 히치하이커는 매우 공격적이어서 눈을 마주치면 차를 따라왔지. 그리고 내가 그랜드 캐년 Grand Canyon의 어두운 밤길에 비를 맞으며 버스 정류장을 찾아 헤맬 때 지나던 승용차가 멈춰서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을 때 얼마나 고마웠던가. 방향이 달라서 그냥 가고 말았지만' 나도 모르게 백기어를 넣었고 이 녹색의 작은 Saab는 그 사람 쪽으로 뒷걸음치고 있었다.

방향을 물으려 창을 열려는 순간 이 자는 이미 문을 열고 자리에 앉았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물었으나 창 앞쪽만 가리키며 무조건 가자는 것이다. 나는 당황했지만 일단 출발했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나는 삼일을 걸었다. 군데 군데서 차를 얻어 타 그러저럭 오다 삼일 전부터는 태워 주는 차가 없어 내내 걸었다." 자기를 버리고 갈까 무서워하는 아이와 같이 조수석의 문 손잡이를 꼭 잡고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그리고 창 앞쪽만 응시하는 그에게도 담배를 권했다. 반갑다는 눈으로 앞에 있는 라이터를 집어들어 나에게 불을 권했다. 차안이 덥게 느껴져 에어컨을 틀었다. 사실은 차안에 가득 찬 악취 때문이다. 썩은 냄새와 독한 비누 냄새로 뒤범벅이 된 악취로 머리가 멍하다.

악취를 전혀 못 느끼는 그 자가 민망해 할까 봐 말은 못하고 에어컨으로 환기를 시킬 참이다. 담배 연기를 깊은 호흡으로 몇 번 내쉬더니 나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느냐?" 아까보다 여유를 찾은 목소리이다. "시카고로 가는 중이다." 고 대답하는 내 자신은 복잡한 상념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자는 어떤 자일까. 영화에서처럼 착한 사람으로 위장하다가 어느 순간 방심한 틈을 타 나를 해칠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닐까. 여행 중 주의 사항 1번, 히치하이커를 절대로 태우지 말라. AAA의 그 친절했던 직원의 말 -No way! Noway!-이 다시 메아리 쳐 왔다. 아니야 이 사람은 곤경에 빠진 사람일 거야. 무슨 쓸 데 없는 생각은!

나의 마음을 감추려 미소 지우며 그에게 시선을 보냈다. 그는 자초지종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얘기는 두 달 전으로 돌아간다.

그는 영국의 조그만 시골 Inverness의 Aviemore 해변에 위치한 Strathspey 호텔의 주방장이다. 60년 5월 알래스카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우연히 요리 기술에 심취하여 이 길로 들어섰다. 영국으로 건너가 지금은 조그만 호텔의 주방장으로 만족하게 산다. 영국에 귀화했으나 미국 국적을 유지하러 가끔 미국을 들릴 뿐 유럽 여행을 좋아한다.

그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르동블러 Cordon Bleu가 인정한 요리사이다. 그 기관에서 인정하는 요리사에는 등급이 있어 동 메달을 가진 요리사가 세계 전체를 통틀어 천명 가량, 그리고 다음이 실버로 백명 가량, 그리고 다음이 골드로 백명 가량, 최고의 수준이? 은 전세계를 통틀어?명밖에 안된다고 한다.

최고 수준의 이? 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자는 열 명도 안되고 유럽의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 활동한다. 미국은 음식을 즐기는 미식이 무언지 모르는 인스턴트 문화라 이들의 활동 무대가 될 수 없다며 미국의 햄버거류 인스턴트 음식을 맹렬히 비난한다. 한국에는 Silver 등급의 요리사가 한 명 있다고 들었다 한다.

이자의 이름은 프랭크 웹 Frank Webb이다. 프랭크는 지금 브론즈 급의 요리사로서 석 달 뒤인 11월에 실버 등급의 승급 시험을 앞두고 있다. 이 승급 시험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실버 등급을 가진 50명의 요리사를 파리에 모아 심사 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들과 이들이 초대할 3명의 손님들 도합 200명 가량에게 이틀간에 걸쳐 저

덕 두끼를 시식 평가토록 한 후 심사위원의 비밀 투표로 승급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여기에 드는 음식 재료비 및 손님들의 이틀간 체재비 등 일체 비용은 회원들이 적립한 기금으로 부담한다.

Bronze 승급 시험이 주로 음식 재료의 선택과 요리 기술을 심사하는 데 반해 Silver 승급 시험은 그 규모가 더 크며 관리자로서의 관리능력 말하자면 웨이터를 어떻게 교육시켰나 음식을 서브하는 중간 중간에 어떤 음악으로 분위기를 조성했는가 등 행사의 모든 것이 심사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행사는 일년에 한두 번이어서 요번에 기필코 Silver로 승급하여 지난번의 실패를 만회해야 한다는 의지가 대단해 보였다.

이렇게 승급 시험을 앞두고 기분 조절을 위하여 석 달간의 미국 동서 횡단 여행을 계획하고 미서부의 항구도시 Seattle에 도착하였다. 5년만의 고국 땅이었다. 공항 셔틀버스를 타고 예약된 호텔로 향했는데 호텔 50m쯤 앞에서 교통이 정체되었다.

버스 기사로부터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호텔이 자신이 목을 호텔임을 확인한 후 버스를 내려 건기로 했다. 20m를 걸었을까 앞에서 불뚱이 번뜩 튀는 것이 사방에서 주먹이 날아오더니 가슴과 등이 따끔하면서 기억이 끊겼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는데 달력의 날짜가 삼일이 지나가 있어 자신이 혼수상태에서 깨어났음을 알았다. 팔과 다리의 기브스를 보고 부러진걸 알았고 가슴과 등이 옥신거려 칼질 당한 걸 알았다. 열 군데의 칼질이 심장과 폐를 건들지 않아 하느님께 감사했다.

미국은 사법 체계상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자는 국가가 치료해 주고 강도 당한 액수를 입증하면 그 액수까지 변상해 준다. 그러나 강도 당한 영국돈 3000파운드를 입증할 때까지 병원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어 플로리다 Florida에 사는 여동생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군인인 여동생의 부군이 전군을 가 보안상 당분간 연락처를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군 당국의 반응에 실망하고 간호원에 간청했다.

동생과 연락이 되면 반드시 갚을 테니 50불이라도 꾸어 달라고 그래서 간호원의 남자 친구도 이 청바지와 손가방, 부츠를 주었다며 제법 깨끗한 청바지와 낡지 않은 긴 부츠를 번갈아 가리켜 보였다.

그는 50불을 손에 쥐고 앞에 펼쳐질 자신의 역경도 모른 채 길을 떠난 것이다. 왜 크레딧 카드가 없나. 그는 대답하기를 '자기가 영국에서 생활할 때나 유럽 여행을 다닐 때는 호텔 직원임을 증명하는 카드로 숙박비와 식사비를 지불하고 호텔에서 정산해 주는 식이어서 일반 크레딧 카드가 필요치 않았다. 그리고 대부분 호텔 시설을 이용하니 더욱 더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현대인이면 누구나 가지는 크레딧 카드를 발급 받지 않았다는 이 대목을 의심하자면 끝이 없으나 그럴듯한 이유처럼 들렸다. 허기야 크레딧 카드를 플라스틱 머니라 하여 중요하는 미국인도 있으니.

이자는 강도 당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동쪽 끝에 있는 플로리다를 향해 길을 떠났다. 미국 대륙은 동서로 뻗은 길이 복잡하지 않으니 이 길만 따라 가면 거기에 도착하리라. 지나는 차가 많으니 그 중에 몇 사람의 호의만 얻어 가고 또 가면 여동생을 만날 수 있으리라. 빨리 동생을 만나 돈을 꾸어 두 달만이라도 여유로운 여행을 즐기고 다가오는 11월의 시험에 임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으면 악몽에서 빨리 깨어날 수 있겠거니 생각했으나 경솔한 결정이었다.

출발한 나흘간은 좋았다. 연이어 운 좋게 편승에 성공하여 하루에 500km씩 동쪽으로 전진하였다. 어떤 날은 동정심 많은 노부부 차에 편승하여 저녁 식사와 하루 밤 잠자리도 제공받았다. 닷새째 되던 날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주머니에 한푼도 남지 않아 길에서 자야 할 판이다. 열 시간만에 겨우 얻어 탄 차의 운전자가 계속 술을 들이키면서 시속 130km를 밟는 통에 그 차에서 내리려 혼이 났다. 밤이면 술 취한 운전자가 지나가면서 술병을 던지거나 심지어는 총질을 하면서 쫓아온다. 두세 번 혼비백산하여 도로 바깥쪽으로 몸을 던지며 날아오는 술병에 맞거나 총알을 피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진 후 도로변을 걸으며 편승을 시도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도로에서 떨어져 지나는 차들의 불빛에 의지해 계속 걸었다.

30도를 넘는 땀을 뺀다. 그들이 없는 도로변을 걷다 보니 발가락의 물집이 터진 것은 오래 전이다. 얼굴이 붉게 익고 물집이 일어 지나는 차가 잠깐 멈출 듯하다가 자기의 차림새와 물골을 보고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길 가다 물이 고인 곳을 발견하면 옷을 빨고 세수를 자주 해서 자신의 물골이 흉측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

밤이면 추위와 싸워야 한다. 아스팔트의 열기가 남아 밤에는 따스한 온도로 변하는데 지나는 차량이 끊기면 사망의 숲과 땅구멍에서 나온 뱀들이 도로 전체를 독차지한다. 근처에 접근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뱀이 이렇게도 많았던가 푸념하면서 근처에 몸을 숨길 만한 곳을 찾아 다시 헤매야 했다.

그 중에 가장 적합한 피난처는 도로 위를 지나는 구름다리다. 구름다리 끝나는 옆구리에는 어김없이 사람 하나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고 주위는 수풀로 조경을 이루기 마련이어서 이런 곳을 발견하면 그 날 밤의 차가운 한기는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잠을 이루지 못한다. 눈을 감고 지도에서 익혀 둔 길을 떠올리며 나의 위치를 어렵짐작해 보고 내일 갈 방향을 잊지 않도록 다시 외운다. 여기에서 잠들면 계속 잠들 것 같다. 그렇지 않더라도 기억하는 갈 길을 다 잊어버릴 것만 같다. 이런 생각에 아침해가 뜨고 요란한 차 소리에 놀라 일어난다.

도로변 멀리 떨어져 자리잡고 누우면 차 소리에 놀리는 일은 없다. 그러나 저 멀리 지나는 차 불빛을 바라보면 무거운 상념이 어깨를 짓누른다. 저기는 인간들이 사는 문명 세계이구나 바로 저기가 내가 살던 인간세계이구나 몇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저곳이 마음으로는 수만 km 떨어진 곳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구름다리 옆구리 구멍에 있으면 이런 상념이 안 들어서 좋다. 어찌다 달리는 차 소음에 깜짝 깜짝 놀라지만 나도 아직은 인간의 문명 세계에 있다고 안심이 되는 것이 그래서 낫다.

간호원 남자 친구가 준 이 조그만 손가방 속에 들어 있는 마지막 남은 깨끗한 속내의 한 벌은 여동생을 만날 때 입으리라. 그리고 남은 하얀 초콜렛 한 조각은 먹지 않고 가끔 꺼내 보고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다. 녹지 않았나 확인하고 나면 이 한 조각의 초콜렛이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면하게 도와줄지 모른다는 위로와 안도가 가슴에 일어서 좋다.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내 발로 여동생 앞에까지 가야지. 어제는 목이 타고 얼굴의 물집이 터질 것 같아 마침 근처의 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하려 주유소에 다가갔는데 종업원이 뛰어나와 동물 취급하며 내몰았다. 내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이제 매달려 사정할 의욕도 힘도 없다.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여행할 때가 생각났다. 관광지의 현지인들이 참 친절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지. 지금 생각하니 그들의 미소와 친절은 나에게 대한 것이 아니었어. 내가 꺼내는 현금 지폐에 대한 것이라는 걸 그 때는 왜 한 번도 생각지 못했지. 세상 인심이란 없다. 인간을 믿지 말자. 하나만 생각하자. 살아야 한다.

그리고 지도를 보고 외어 둔 길과 깨끗한 숙내의, 한 조각의 초코렛만 떠올리자. 숙내의는 동생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다. 머리 속의 지도는 희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이 조그만 초코렛은 위기를 막아 줄 것이다.

그리고는 아침에 해가 뜨면 인가에 몰래 찾아 들어가 마구간에서 도둑 세수를 하고 버려진 쓰레기에서 허기를 채워 줄 만한 것을 뒤지곤 했다.

그는 지금은 내 옆 자리에 앉아 있다. 첫 담배를 피우면서 약간 어지러운 기색을 보인 뒤론 자리에 등을 붙이고 편한 자세로 누웠다. 아직 손을 떨고 목소리의 강약을 조절하지 못하고 내내 뻗뻗한 목소리였다. 아직 쇼크 상태에 있는 듯하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계속 담배를 태웠고 잠잠이 그에게 담배를 권했다. 마음대로 꺼내서 피우라고 했지만 내가 권할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았고 내 담뱃갑에는 손대지 않았다. 그는 내가 자기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자기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교양 있는 사람인 양 보이려고 노력했다.

내가 담배를 연이어 피워 대는 것은 차안에 자욱한 악취를 잊자는 것도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일고 있는 공포감을 잠재우기 위해서이다. 그는 얘기 도중 몇 번인가 긴 부츠 뒤로 손이 가곤 했는데 아마 그곳에 칼을 숨기고 있지 않나 상상했다. 그러나 묻지 않았다. 물어서 대답을 들으면 그 대답을 의심할까 믿을까 또 다른 갈등과 그래서 공포감이 더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신에 "잠을 못 잤을 테니 눈 좀 붙이랴" 는 말로 그 자를 돌보는 순진한 시민으로 행동했다. 그자에게 나는 지금 뉴욕 변호사이고 한국의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를 위해 일한다고 이미 말해 둔 터였다.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다. 어느새 짹짹하던 해가 구름에 가린 채 흐려져 있었다. 에어컨은 악취 제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에어컨을 끄면서 시계를 보니 세시간 반이 흘렀다. 나는 생각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도중에 어떤 구실을 붙여 이 자를 하차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나의 목소리, 호흡만 들어도 나의 의심과 공포를 동물적 육감으로 느낄 것이다. 만일 그가 탄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 때 나를 공격하려 할 것이다. 지나는 차가 별로 없는 도로를 달리고 있다.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나에게 칼을 들이대면 꼼짝없이 당한다. 자기 얼굴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아니 죽일 것이 뻔하다. 정신병자인지도 모른다. 마음을 가라앉히자.

그러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여전하다. 타자마자 그는 자기가 서른 네 살이라고 했다. 그 뒤 얘기를 하던 중 자기 생년 월일이 61년 5월이라고 했다. 내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기 직전 이를 눈치 채고는 "내가 태어난 다음 해 알래스카가 미국의 한 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출생증명서의 기재가 잘못 되었다. 내가 태어난 해는 60년 5월

이어서 진짜 나이는 서른 넷이다. 이런 경우는 나쁜만 아니라 그해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겪은 행정 착오이다."

61년에 알래스카가 미국의 한 주로 편입되었는지 나는 아는 바 없다. 길가에서 봉변을 당하고 보름간을 헤매고 다닌 사람치고는 아직 남아 있는 원기가 괜찮다. 정신적인 의지의 힘이라기보다 육체적으로 원기가 남아 있다. 그자가 쓰는 영어 어휘는 제법 교육받은 사람의 어투이다. 자신의 얘기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만 받은 사람치고는 매우 영리하다.

이자의 눈치가 너무나 빠른 것이 나를 자꾸 불안케 했다. 내 차에 올라타서 얼마 안 지나 이미 내 호흡을 파악하고 내 마음을 읽는 듯하다. 극한 상황에 처해 예민해 저서인지 나를 믿지 못해서인지 또는 나에게서 도움을 받으려는 계산에서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예민함이 보통 사람 이상이다.

일부러 속력을 올렸다. 시속 130km. 그의 반응을 보기 위함이다. 과속은 고속도로 순찰차를 부를 것이고 그런 가능성에 이 자는 불안해할 것이다. 탄마음을 먹고 있다면.

"시카고 Chicago까지 갈 길이 먼데 지체되었다. 나는 레이더 디텍터(순찰차가 과속 차량에 쏘는 스피드 건의 전파를 감지하여 근처에 순찰차가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기계)가 있으니 안전하다." 고 돌려 대고 액셀레이터를 마구 밟았다.

레이더 디텍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자주 체크하는 그 자의 행동으로 경찰을 두려워하는 지 가늠할 수는 없었다. 그런 행동은 동승자로서 한 배를 탄 기분으로 협력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

머리는 복잡하고 가슴이 답답했다. 나와 이 자는 두개의 톱니같이 맞물려 있다. 내가 불안하면 이 자도 긴장한다. 이 자가 긴장하면 내가 불안해 진다. 이 톱니를 잘라야겠다. 그리고 결심했다. 끝까지 가 보자. 완벽하게 이 자를 도와주자. 그리고 마음의 여유로 이 자를 압도하자. 이 길만이 최선이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다. 이제 가끔 긴 부츠의 뒤로 가던 그의 손길도 없어 졌다. 내가 과민한 탓이겠지 의심을 잠재우려 애썼다.

점심 식사를 하기에 좀 늦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차는 도시를 들어서고 있었다. 미네소타 Minnesota 주에서 위스콘신 Wisconsin주 경계선을 넘어 온지 방금이다. 'La Crosse 시' 라는 표지가 보인다. 오전부터 비가 왔었던지 시내는 빗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맥도날드를 발견하고는 이쪽저쪽 가는 길을 열심히 코치했다. 막 차 문을 열고 나서니 상쾌한 공기가 악취로부터 나를 해방시킨다. 줄을 서 우리 차례가 되어 햄버거와 커피를 주문했다. 그는 치즈버거와 차를 주문한다. 지금 창자가 고기를 소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자리에 앉아 먹는데 그가 가없어 보인다. 허기진 얼굴이 덩석 집어먹지 못하니 원시림에서 자란 늑대 소년이 인간 문명을 처음 접하는 듯 어색해 보인다. 그는 고급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지금 치즈버거 한 조각을 들고 서먹서먹해 하고 있다.

내가 먼저 식사를 끝내고 밖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에 담배 연기를 폈다. 다시 돌아와 보니 차 한 잔을 덤으로 얻었는지 조용히 훌쩍거리고 있었다. 아직도 앞날에 대한 불안에 잠겨 있는 듯하다. 나는 말문을 열었다. 네 고생은 끝났다. 동생을 한시라도 빨리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시카고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비행기편이 있을 테니 시카고까지 나와 동행해서 알아 보고 내일 공항으로 가라.

나는 시카고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비행기편이 있기를 마음 속으로 빌었다. 이 자와 함께 뉴욕까지 동행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어떡해서든 떨어져야 한다. 내가 무슨 속으로 차를 세웠다. 생판 모르는 사람을 태우고 별의 별일이 판을 치는 이 험악한 이국 땅에서.

그는 반응이 없었다. 내 말이 믿기지 않나 보다. 차를 타고 주유소를 찾았다. 나는 길눈이 어두운데 그는 언제 눈여겨보았는지 이쪽 저쪽 가는 길을 코치해 준다. 기름이 탱크를 채우는 동안 화장실을 찾았다. 돌아와 보니 그는 차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주인이 없는 차에 앉아 있기가 불편한 모양이다. 차에 귀중품이 있으니 의심 받기 싫은 모양이다.

나는 이런 상상도 했다. 아예 귀중품을 가지고 달아나라. 그러면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할 텐데. 아무튼 그는 차 옆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유소가 아니었다면 담배를 피고 있음직하다. 아니나 다를까. 가격을 치르고 주유소를 떠나려는데 담배 한 가치를 빼 들고는 이번에는 내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 한다.

시속 90km 규정 속도를 내고 있다. 비에 젖은 도로에 빗방울이 한두 방울 차창에 부딪히고 있다. 그는 안정을 찾은 모습이 역력했다. 나는 그로부터 폼이 나오는 악취를 말하고 창을 열었다. 차창을 때리는 바람 소음에 아랑곳없이 눈을 붙인 듯하다. 나도 규칙적인 바람 소음에 취해 졸음이 스르르 왔다.

그가 "저것이 옥수수처럼 보이지?" 라며 불쑥 적막을 깼을 때 앞에는 초록빛 숲과 들이 안개 너머로 펼쳐지고 있었다. 우리는 위스콘신 주를 지나 일리노이 Illinois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보름 동안 헤매면서 많이도 배웠다. "저건 옥수수처럼 보이지만 무엇이다. 저 기계는 무슨 기계인데 이러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다. 허리케인이 지나가면 저기로 피해야 한다." 며 고속도로를 지나는 구름다리 옆구리의 구멍난 곳을 가리킨다. "주와 주 경계선 부근에 순찰차가 있기 마련이니 여기서부터는 속력을 줄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고속도로를 걸으면서 배운 것이란다.

문득 나는 물었다. 그렇게 고속도로를 걸으면서 경찰은 안 만났느냐 그들이 도와줄지한테 어찌되었느냐. 그는 말하기를 "고속 도로변을 걷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순찰차가 나를 발견하면 정지해서 신분을 확인하려 한다. 그러면 나는 시애틀 Seattle 경찰이 발급해 준 증명서 -이 사람은 강도를 당해서 신분증이 없다는 내용이 적힌-를 제시하고 경관은 몸수색을 하고는 그냥 가 버린다. 일주일 동안 두 번의 검문이 있었을 따름이다."

알송달송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의심을 갖지 않기로 했지 않은가.

시카고의 외곽 위성도시를 지나고 있다. 한 삼십 분 후면 도심에 들어설 것이다. 여행을 출발해서 서쪽으로 향할 때 Chicago를 통과했었는데 그 때는 대낮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1박을 할 셈으로 그냥 지나쳐 갔다. 도심의 외곽과 중심을 통과하는 도시 고속도로의 길이 복잡하여 길을 잃었던 곳이다.

그러나 지금은 밤이다. 차들의 물결에 휩쓸리다 보니 서행할 수 없고 그래서 표지를 볼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다. 정신을 바짝 긴장해서 오늘밤 묵을 숙소로 빠지는 길목을 찾아야 한다. 그에게 차에 비치된 지도를 넘겨주었

다. 자기도 초행길이라면서 추측하는 길이 다행히 맞아 떨어져 예약한 모텔을 찾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모텔 직원에게 숙박계를 넘겨주고 차로 되돌아 왔다. 이제 우리 방 핫수를 찾아 가까운 곳에 주차하면 오늘의 운전은 끝이다. 시계를 보니 8시 반을 막 지나고 있다. 주차를 마치고 키를 뽑는 순간 그는 물었다. “또 다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가?” “아니 그렇지 않다. 왜 그러는가.” “두 사람이 묵는 것으로 예약하지 않았는가?”

도심에 들어서기 전 모텔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AAA직원이 적어 준 쪽지를 운전 중에 살짝 본 적이 있었다. 그는 쪽지에 2명이 예약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한다. 보통 빠른 눈매가 아니다. 핸들을 잡고 잠시 보는 순간 훑쳐 본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원래는 친구와 같이 올 예정이었으나 나 혼자 오게 되었다고 안심시켰다. 불안한 내가 그를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자가 무슨 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자는 혹시 호모가 아닌가. 아주 좋은 친구를 알게 되었는데 사권지 1년이 지난 후에야 판 사람으로부터 그가 호모라는 것을 알고 소스라친 적을 떠올렸다.

아무튼 갈 데까지 가 보자. 이미 옆질러 진 물인데. 내가 먼저 샤워를 했다. 장시간 운전 뒤의 샤워는 언제나 감미롭다. 쉼이 하는 물줄기가 쨌 것이 상쾌한 기분을 돋우었다. 몸을 닦고 나와 보니 그는 TV를 보고 있었다.

내 소지품과 가방은 내가 열어 놓은 채 그대로이다. 그는 긴 부츠를 벗지 않은 채 침대 끝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 그에게 비행기편이 있나 알아보았냐고 물었으나 그는 안 알아보았다고 했다.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지금 알아보라고 하니 전화번호책을 뒤적거리려 번호를 찾고는 항공사 여직원과 통화를 했다. 여직원에게 비행기편을 문의하는 도중에 전화기를 나에게 넘겨주려 하길래 거절하고 아예 지금 예약까지 하라고 했다. 450불인데 괜찮으냐는 몸짓에 좋다고 신호했다. 내일 오전 11시 출발 비행기이다. 전화를 끊은 후 너도 샤워를 하고 저녁 식사하러 나가자고 했다. 이제 밝은 표정을 보일 만한테 그런 기색이 질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배가 고프니 저녁을 뭘로 먹을까 생각했다.

십 오 분 가량 지났을까. 목욕 수건으로 하체를 감싼 채 화장실을 나오는 표정이 처음으로 밝았다. 그리고는 거울 앞에 다가가 가슴과 등에 난 상처를 보며 이렇게 칼자국이 많다고 한다. 지난 악몽을 떠올리는 표정이다. 십 센티 이상 되는 칼자국이 이곳 저곳 열 군데 이상 흉측하게 보였다. 그 중에 네 다섯 군데는 막 상처가 아문 것으로 돌아 나는 새 살로 붉은 빛이 선명하다.

그러나 웬 일일까. 나머지 상처는 최근 것이 아니다. 오 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였지만 선명히 구분할 수 있었다. 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하다는 느낌이 왔다. 이걸 영화가 아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려 애썼다. 그리고 내가 놀라는 것이 눈치채지 않도록 열린 고개를 돌려 가방에 있는 소지품을 정리하는 척했다.

모텔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고 떨렸다. 옆에서 나를 따라오는 그의 발걸음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가벼워 보인다. 목소리도 다정하다. 식당을 찾아 이곳 저곳 두리번거리다 방향감각을 잃었다. 나는 그가 가자는 곳으로 따라왔다. 어디서 닭고기를 먹고 맥주를 마시며 오랜 친구가 된 듯 다정한 시간을 보낸 것 외에는 기억이 안난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국에 있을 그 사람을.

돌아오는 길에도 그를 따라 모텔까지 왔다. 나의 여유로운 행동에 그도 어느 정도 일상사의 안정을 찾은 듯했

다. 모텔방으로 돌아와 그는 나에게 전화번호와 주소를 물으며 동생을 만나면 내가 꾸어 준 오 백 불을 보내겠다고 한다. 영국에 돌아가서 자기가 치를 승급 시험에 나와 내가 선정하는 한 명을 게스트로 초대하고 싶으니 11월 20일부터 일주일간 파리에서 보낼 수 있는 지 여부를 미리 알려 달라며 영국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다.

그의 표정은 밝았지만 내 마음은 산란했다. 화장실 변기 뒤에 손수건으로 싼 등산용 칼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부츠 안에 넣고 다니는 내가 상상했던 칼이다.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고 내가 의심 없이 행동하고 있으니 그가 정신병자가 아닌 한 나를 해치지는 않겠지. 설사 처음에 탄 마음을 먹었더라도. 침대에 누워 TV를 보면서 잠을 청했다. 그녀의 얼굴이 가슴에 다가왔다. 수첩을 꺼내 맨 뒷장에 써 놓은 시를 혼자 되뇌어 보았다.

완전한 태만 속에서도 아니고  
완전한 무심 속에서도 아니고

참과 거짓의 경계에서 벗어나  
무질서한 죄의식에 둘러 싸였다.

아무것도 그 시간을 돌려 놓을 수 없지만  
나는 슬퍼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속의 고통에서 배어나오는 위로의 마음으로  
거짓의 쇠사슬에서 구해내지 못했던 나의 소중한 느낌에 사죄한다.

나를 살아 있게 해 주는 심장의 덕으로  
그리고 그 심장의 따뜻함과 기쁨과 두려움의 덕으로

지금 시간은 눈물로 흘러 보내기엔 너무나 깊은 사념을 준다.  
진심에 담은 사랑은 죽어도 지킬 것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1994년 2월 4일

보고 싶은 그녀. 옆 침대에서 새어 나오는 새근새근한 숨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에 빠졌다.

TV소음에 잠을 깼다. 그는 이미 오래 전에 일어났는지 세수를 끝내고 소지품을 정리한 채로 종이 컵의 커피를 짓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놔두었던 동전으로 사 왔다며 나에게 커피를 권한다. 시각을 보니 서로가 헤어질 때까지 삼 사십 분의 여유가 있다. 공항으로 가는 셔틀버스가 마침 모텔 앞을 지나가니 잘되었다.

TV에 나오는 뉴스에 화제가 옮겨갔다. 그는 미국의 복지 정책을 언급하고 마약과 폭력 등 사회의 병리 현상을 비판하면서 유럽의 성공 사례를 들기도 하고 마치 정치가처럼 열변을 토한다. 제법 유식하여 음식 만들기가 전공인 그에게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상세하다.

모텔 종업원에 방 열쇠를 돌려주고 주차된 차로 향하는 마음이 뒤숭숭하고 갈피가 없다. 어제 이 때쯤 시작된 해프닝이 끝나는 순간이다. 서로의 눈빛을 마주치며 그는 나를 꺼 안았다. 어깨 너머로 잔잔한 흐느낌이 전해졌다. 다시 만나자는 말을 뒤로하며 Chicago를 벗어나는 고속도로로 미끄러져 갔다.

구름이 낀 것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비가 올 것 같다. 원래는 시카고에서 오전 동안 시간을 보내고 오후쯤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Hitchhiker의 만남으로 여정이 변경된 것이다. 시카고를 구경 못한 대신 일찍 출발했으니 부지런히 가면 뉴욕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 도중에 목을 예정이었던 지점을 생략하고 그대로 뉴욕까지 강행군할까 생각해 본다. 어차피 중간 지점은 숙박을 위해서 예정된 것이니 그냥 지나쳐도 후회할 일없다. 하루를 단축해서 집에서 쉬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진다. 약간의 허기가 느껴진다.

그러나 시간을 재지 않고 달려온지 꽤 된다. 시계를 보면 피곤함이 느껴지고 다음엔 허기가 찾아와 쉴 곳을 찾기 마련이고 자연히 가는 도중 시간을 빼앗긴다는 것을 여행 중 터득한 바이다. 그리고 웬지 도중에 차를 정지시킨다는 것이 썩 내키지가 않는다. 차를 세우면 오래 전의 일처럼 마음에 가라앉은 프랭크와 보냈던 시간이 다시 일어 날 것 같다. '나는 이제 안전하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왔다.' 라는 안도조차 끼어 드는 것이 편치 않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산과 산을 지나 구불구불한 고속도로를 지나는 것은 기분이 좋다. 산세를 감상할 수 있어서 좋고 앞에 가는 차와 뒤에 따라 오는 차와 보이지 않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다. 앞 차가 속력을 내 시야에서 사라지더라도 조금 가면 다시 시야에 들어온다. 죽히 한 시간은 서로를 보면서 달릴 것이다. 통행량도 많지 않아 지금은 앞에 가는 차와 뒤에 오는 차만 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덴버 Denver에서 며칠을 묵고 서쪽으로 출발한 이른 아침 일이 생각난다. 아침 8시쯤 출발해 삼십 분쯤 달렸을까. 빨간 페라리 Ferrari가 뒤에 보였다. 영화에서 보는 산뜻하고 깨끗한 새차는 아니지만 빨간 색이 오전의 햇살에 예뻐 보인다.

고속 주행을 즐기려니 하고 그 차에 길을 양보하려 서행했다. 연한 갈색 머리에 썬글래스를 끼고 듬성 듬성 잘 다듬지 않은 수염을 훔날리며 추월해 갔다. 어떤 얼굴 표정인가 궁금했다. 그 빨간 페라리는 쏘살같이 내 앞을 지나 시야에서 사라졌다. 아침이라 차가 거의 없고 내가 가는 105km시속도 규정 속도를 넘는 것이다. 앞서 간 빨간 페라리에 용기를 얻은 것이다.

이 삼분 갔을까. 빨간 그 차가 다시 시야에 나타났다. 그리고 점점 다가왔다. 속도를 낮추고 간다. 뭐가 잘못됐다. 이 삼분을 90km속도로 간다. 그리고 나는 그 차를 추월했다. 그 차의 시야에서 멀어지고 싶어 150km를 밟았다. 백미러를 보니 다시 속도를 내며 나를 쫓아오는 것이 보였다. 내가 밟는 속도를 맞춰 일정 거리를 유지한다. 고속 주행의 긴장감으로 잠시 속도를 늦추면 바짝 뒤따라와 길을 양보하라 요구한다. 나는 양보한다.

이렇게 앞서거나 뒤서거나 한시간을 운전하니 꽤 빠른 속도로 먼 길을 왔다. 이 친구와 자동차 경주를 한 것이 아니다. 서로 선도 역할을 바꿔 가며 운전한 것이다. 막막한 고속도로에서 한마디의 말도 필요 없이 친구가 되어 말없는 대화를 나누며 한시간을 금방 보냈다. 그래서 갈라지는 길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 버리는 그 친구를 보고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뉴욕과 시카고의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다. 예정 대로라면 이쯤에서 여정을 풀어야 한다.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할 수 없이 한쪽에 차를 세워 숲 쪽으로 걸어갔다. 바람도 해도 없는 것이 을씨년스런 날씨다. 마침 보이는 공중전화에서 예약된 모텔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취소한다 말했다.

지금 시간 저녁 6시 15분 구름이 없다면 지평선 근처에 지쳐서 마지막 열기를 품는 해를 볼 수 있었을 게다. 점심을 건너뛰고 저녁이 가까워졌지만 허기는 없다. 집에 도착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한번에 들이키고 잠에 빠지면 족할 것 같다.

앞으로 6시간은 더가야 하는데 비가 거세게 몰아친다. 이제 창문을 열고 달릴 수 없으니 즐담배도 끝이다. 라디오에서 8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다. 칠흙같은 어두움에 내리는 비는 헤드라이트 불빛을 완전히 삼켜 버린다. 지나는 차가 많지 않으니 다른 차 빛을 의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히치하이커와 보낸 긴장된 순간이 수년 전의 일같이 여겨지는가 했더니 내가 피우는 담배가 가득 찬 차안이 그를 태우고 달리는 냄새가 배어 나오는 듯 느껴진다.

멀리 맨해튼 밤하늘의 불빛이 구름 속에 반사되어 몽클거린다. 자정을 넘어 한시가 가까워지는데 아직 지나 다니는 차가 꽤 된다. 맨해튼으로 건너는 조지 워싱턴 다리를 들어선다. 어느 때와 다를 바 없다. 내가 여기를 언제 떠났는지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지 이 다리는 무심히 지나는 차들만 응시할 뿐이다.

사십 여일 만에 다시 보는 눈앞의 전경에 벽찬 감흥이 일지 않아 이상하다. 거대한 도시의 골레로 스스로 다시 찾아오는 무력감이 한구석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내 스스로를 다시 둘러보았다.

아빨싸 그 순간 집으로 가는 웨스트 사이드 강변로 길을 놓쳤다. 강변로의 반대 방향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이 길로 가면 맨해튼을 벗어 나는 길이다. 우측 길이 눈에 띈다면 그 길로 빠져 반대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멍청한 놈. 제대로 길을 들었으면 십 오 분 내로 집에 들어설 수 있는데 코앞에서 엉뚱한 실수를 하다니. 점점 맨해튼을 벗어나 멀어지기 전에 우측에 나타나는 아무 길이나 택하기로 했다.

어두운 밤길을 서행하다 조그만 길을 눈앞에서 발견하고 우회전을 했다. 좁은 길이 차들이 빨리 다니는 강변로에서 빠지는 길치고는 너무 좁다는 생각을 했다. 게다가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것이 들어 갈수록 꼬불꼬불해지고 우거진 숲으로 들어가는 듯하다.

맨해튼은 어디로 가도 막히는 길은 없다. 길을 잘 못 들어서더라도 오던 길을 되돌아 갈 필요는 없다. 제 길보다 시간이 지체될 뿐이지. 이것은 여행길에서도 느낀 바이다. 모든 길은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 미국은 도로 문화다. 이 대도시에 이렇게 우거진 숲 속의 찾길이 있다니, 낭만보다 차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다가왔다.

두 갈래 길 중 언덕 내리막길을 택했는데 조금 넓은 평지로 연결될 듯 멀리 헤드라이트 불빛에 금속성 반사가 검은 차가 서 있는 듯하다. 그리고는 그 앞에 두 사나이가 몇 걸음 간격을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것이 보인다. 검은 양복을 입었는지 자기 한 걸음 앞에 내려놓은 검은 가방 두개도 어둠 속에서 그림자처럼 보인다. 싸늘한 한기가 옆구리를 찔렀다. 왓 이상하다. 봐서는 안되는 것을 본 것 같다.

나도 모르게 백기어를 넣고 갈라진 길로 뒷걸음쳐 달렸다. 차를 멈추고 갈라진 다른 쪽 길로 향해 1단 기어를 넣는 순간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차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앞에 대각선으로 멈추더니 길을 막아선다. 아차 지금 나는 범죄 집단의 거래 장면에 끼여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번뜩인다.

차안에서 흑인 서너 명이 번개 같이 내리다가 싶더니 어느새 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내 머리에 총을 들이댄다. "Get out of the car! Hey! What the fuck are you! Get out of the car! Out! Out!" (차에서 내려! 야! 너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내려! 내려!) 귀를 쨍쨍 울리는 소리에 얼굴은 새까만 흑인이구나 라는 것 외에는 생각이 멈췄다. 그리고 총을 들이댄 흑인의 얼굴을 멍청히 응시했다. 순간 그자도 나의 눈길에 당황했는지 '밀짚모자를 쓰고 여유를 부리는 이 황색 놈이 경찰인가 아니면 도대체 누군가.' 하는 생각으로 멈칫한다.

그 일초의 순간이 나의 생각을 굴렸다. 문을 열면 죽는다. 이 차는 꽤 튼튼하다는 Saab다. 아무데나 돌진해 보자. 숲 속이 칠흑같이 어둡기 때문에 막다른 길인지 미리 식별할 수도 없다. 이미 골목길로 들어서고 앞이 막혔음을 오 미터쯤 전방에서 알게 되는 순간이 닥치면 철조망을 뚫고 숲 속으로 돌진하자. 이 차에 운명을 걸어보자. 번개같은 결심과 함께 온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으로 뒤범벅이다.

단 일초만에 온몸을 흠뻑 적시는 땀이 시트에 흘러내리는 듯하다. 엑셀을 밟고 가로 막은 차를 옆으로 비껴 칠흑 같은 어둠을 향해 앞으로 달렸다. 갈래 길이 나타나면 아무 길이나 택했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 생각하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속도가 느려진다. 막다른 길을 만나면 숲 속으로 돌진이다. 이미 결정한 바다. 정신없이 꾸불꾸불한 숲 속 밤길을 밟았다. 차는 울퉁불퉁한 바닥을 몇 번이나 부딪히며 앞으로 나아간다.

뒤에서는 "Stop! Stop!" 고함소리가 차 엔진 소리에 섞여 들려 온다. 바로 뒷좌석에서 총을 머리에 갖다 댄 자가 귀에 대고 소리 지르는 듯하다. 백미러를 볼 여유가 없다. 차에 있는 레이더 디텍터가 울려 주기를 바랐다. 그러면 경찰차가 어디 근처에 있다는 뜻이다. 순찰차를 마주치면 위기를 벗어 날 수 있다.

얼마를 달렸을까. 어두운 큰길로 빠져 나왔다. 뒤를 보니 따라오는 차는 없다. 신호등이다. 그냥 지나칠까 망설였다. 서행하면서 뒤를 밟다가 갑자기 습격할지 모를 일이다. 더군다나 이제는 내가 경찰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테니 어느 순간 느닷없이 내 옆을 질주해 지나면서 총질을 해 울지 못할 일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떤 차인지 아까 백미러로 봐 둘걸 생각했다. 이제 백미러에 다가오는 차가 보이면 혹시 그들 차가 아닐까 땀만 흥건하다. 일부러 길을 뺑뺑 돌아다니는지 삼 십분 가량 흘렀다. 어딘가 잠시 멈춰서 손을 땀을 닦아야 핸들 조작이 나올 것 같다.

생각을 바꿔 손을 조수석 시트에 닦으면서 맨해튼 시내로 향하는 길을 찾으려 길가의 표지를 살핀다. 빗물에 씻긴 표지판이 선명하다. 놀란 가슴으로 입에서 떨어지고 있는 담배에 불을 붙이려 운전석 바로 옆의 담배 라이터를 누르려는데 어깨도 들썩이며 떨고 있다. 차창을 열기가 두려워 차안에 가득 찬 담배 연기를 심호흡으로 되 마시고 있었다.

멀리 눈에 익은 거리가 들어온다. 집에 다 왔다. 짧은 시간의 위기가 견뎠다. 긴 시간의 위기보다는 짧은 수록

났다. 바위 타기를 하다 절벽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구나 생각하면서 보낸 십 오 분도 짧아서 좋았다. 위기의 순간은 두려움이 극에 달한 순간이다. 위기에는 머리를 움직여야 산다. 그런데 언제나 두려움은 머리에서 온다.

여독이 풀리고 다시 일상사로 돌아온 어느 날 허드슨 강가에 위치한 조그만 아파트의 친구 집에서 파티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파티가 거의 끝나 분위기가 파해 가는데 집주인이 느닷없이 나의 여행 얘기를 들어보자고 여러 사람 앞에서 제안했다.

그때 나는 내가 겪은 히치하이커를 화제로 해 들려주었다. 그들도 영화로만 본 그런 상황을 내가 겪었다니 호기심이 가득 찬 눈으로 귀를 기울였다. 얘기가 끝나 자정을 넘겼는데 내 얘기를 흥미진진하게 들은 이들은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입을 모았다. 열두 명의 의견이 셋으로 나뉘었는데 진짜라는 의견, 정신병자나 누군가에 쫓기는 도망자나 기타의 가짜라는 의견,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직업은 가짜이나 어려움에 처한 착한 사람이라는 의견이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중에 세 번째 의견은 여자들의 의견인데 그렇게 처절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라면 자신을 숨기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히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여러 사람들의 말이 오가고 자기 주장을 하다가 지금 당장 적어 준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 확인을 해보자는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마침내 영국으로 전화를 돌리는 집주인 앞에 모여 앉았다. 그 사람이 직접 내 수첩에 적어 준 전화번호를 돌려는데 지역 번호 자체부터 문제가 되었다. 영국의 그 지역은 이 지역 번호가 아니란다. 결국 그가 일하고 기거한다는 호텔 번호를 안내양을 통해 어렵게 찾아 다이얼을 돌렸다. 그 호텔 지배인 왈 그런 이름의 호텔 종업원도 없고 그런 이름의 주방장도 없다는 것이다.

놀라운 탄성과 함께 "You are a brave man."(너 용감한 사람이구나.) 이란 말을 건네면서 내 어깨를 두드린다. 그리고는 벗어 놓은 옷을 챙겨 입고 인사와 함께 하나 둘 사라졌다.

창가 너머로 달빛에 잔잔한 허드슨 강을 보며 반문했다. 이럴 때는 나에게 "Congratulations!"(축하해) 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 제3장

### 한말 떨어져서 보면 '우리'가 보여요

## 성수대교를 공격한 테러리스트

‘남한의 수도 서울 한가운데서 다리가 가라앉았다.’

뉴욕 시청으로 향하는 전철에서 읽은 뉴욕 타임즈지의 1면 톱기사의 헤드라인이다. 그 밑에는 낮익은 한강과 가운데가 깔린 다리의 사진이 실렸다. 영화 촬영을 위한 허리우드의 영화 촬영 세트처럼 보인다. 우리 나라 기사가 톱으로 실리다니 순간 짜릿했지만 다음 순간 가슴이 덜컥했다.

얼마나 다쳤을까.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 번고를 당한 것이 아닌가. 내가 올림픽 조직위에서 일했을 때 하루에 네댓 번씩 오가던 길이며 수많은 통행이 있는 길이 아닌가. 이곳 생활에 젖어 있던 나는 지금 서울의 안방에서 신문을 보고 놀라고 있을 부모 형제 친구들의 생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모르지만 갑자기 무너졌단다. 그날 오전에 만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화제로 삼아 나를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하는 말이 “누군가의 테러다. 누구 짓으로 생각하느냐?” 가 나에게 던지는 공통된 질문이다.

이들이 이렇게 성수대교가 누군가의 테러에 의해 무너졌다고 직감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세계 증권시장의 중추라는 뉴욕의 증권가에 있는 World trade center가 테러리스트에 의해 폭파당한 악몽이 그들에게는 아직 새롭고 북한의 핵문제가 세계인의 근심거리로 보도되면서 남북한의 긴장 상태를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실공사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대하여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

내가 신문 보도로 봐서 테러라기보다는 다른 원인에 의한 사고 같다고 얘길 해도 그들은 오히려 나에게 테러 가능성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마디로 그들이 상식을 따르는 마음에는 부실 공사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의 상식은 이렇다. 다리라는 건축물이 완성되려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설계 단계서부터 시공, 감리 그리고 이러한 모든 단계에서의 정부의 감독 등이 하나의 쇠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으면서 전문가의 팀웍으로 탄생되는 종합작품이다.

여기서 다리가 무너지는 실수가 수많은 전문가의 손을 거쳐 살아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파탄으로 가는 길에 모두가 손잡고 함께 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단순한 상식이 그들의 전제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18년전 성수대교를 세울 때 우리는 상식을 벗어난 국민이었고 지금도 경제 발전의 부산물이라고 위안하는 마음으로 상식 밖에서 산다.

도심 한가운데 대중시설인 백화점이 그자리에 앉아 버렸다. 그 백화점이 있게 하는데 관여한 모든 사람들은 몰상식이었고 무너지 돌더미에서 사람을 구하는 체계, 그 외중에 물건을 훔치는 사람, 보도경쟁하는 사람, 모두가 비상식이다. 북한의 전쟁위협에 사이렌을 울리고 훈련을 쌓았다는 한국인이 재난에 대처하는 모습을 외국인이 보았다면 하늘에서 조그만 폭탄 두개가 떨어져도 나라 전체가 뒤흔들릴 수 있는 국민이라고 단정할 것이다.

미국인들과 일을 해보면 매우 느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 우리 나라 사람만큼 빠릿빠릿하지 못

하고 요령도 없어 보여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 시간이 흐르고 이 나라는 우리보다 발달된 전문가 사회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점을 다시 보게 되었다.

전문가 사회에서는 전문 기술 보유는 물론이거니와 스스로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함께 해야 살아 남는다. 명성은 자존심과 책임을 동반하여 전문가 윤리 의식을 형성하고 이 전문가 윤리의식은 시민 문화의 중요한 바탕을 이루기 마련이다.

현대 사회에서 전문가 한 사람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 전문가와 전문가의 협동으로 하나의 작품이 탄생하는 셈이다. 이런 협동이 물처럼 흘러 한사람 전문가의 명성은 종합작품의 한 조각으로 인식된다.

미국인은 앞사람의 실수가 발견되면 그 실수가 고쳐지기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처럼 사회적 체면이나 문제를 제기했다가 외톨이가 될 두려움을 의식하지 않는다. 각자의 자존심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책임으로 승화되어 있어서 법을 떠나 자신과 가정, 사회를 지키는 모두의 약속으로 새겨져 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법을 위반하는 것은 둘째치고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을 지 모르는데도 그런 염려는 덮어 버린다.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우선 호흡을 맞추고 보자. 내가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나. 내 밥줄만 위태롭지. 사고가 터지면 그때 가서 나 아닌 누군가가 뒤집어쓰겠지.'

이렇게 해서 세계를 놀라게 한 사고로 손을 잡고 행진한 것이다. 이들 중 누구도 프로가 가지는 프라이드와 책임감은 없다. 눈 앞의 작은 자기 이익이 자기 형제, 부모를 죽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눈감고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는 '사고'로 불리기를 원하는 '범죄'집단의 한 부품으로 숨으려 한다.

더더욱 안타까운 일은 외국에 나가 만든 건축물은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의 감리는 엄격하여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들고 다니는 망치로 부수고 '처음부터 다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대충'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외국인 감리의 손에 든 망치를 무서워하면서 내 형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자존심'은 어디로 갔나.

미국인의 직감대로 '대충'이란 이름의 테러리스트가 범한 테러에 의해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그 테러리스트는 '요령'이란 가명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은밀히 숨어 있어 자수 전까지는 체포가 쉽지 않다.

이 시대는 프로만이 살아 남는다. 그리고 프로의 자존심과 책임감이 살아 남는 토양은 법과 상식이 일치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자존심'으로 하여금 테러리스트 '대충'을 자수케 하여 '상식만으로 통하는 사회'의 시민이 되도록 설득하여야 한다. 앞으로는 '대충'에 의한 테러가 제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대충'과 '부정직'이 가한 테러에 의해 무너진 삼풍 백화점의 돌더미 속에 슬픔을 묻기보다 슬퍼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숨어 있는 테러범을 색출하기 위해 정직하고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할 때다.

## X세대가 채워야 할 x

정체불명이라고 X?

미국 체재 중 잠시 우리 나라에 들렀을 때 얘기다. TV에서 "X세대를 파헤친다." 라는 주제의 프로 예보를 보고 X세대라는 새로운 단어에 흥미가 끌려 만사 제치고 예고된 시간에 TV앞에 앉았다.

기성세대, 신세대, 구세대라는 말은 들었는데 X세대는 처음이다. 어떤 세대이길래 의문의 X세대일까. 무슨 음모나 범죄를 꾸미는 젊은이들이 등장했다. 우리가 발전하면서 신중 범죄 집단이 생겨 난게 분명하다. 이 프로는 내가 아는 팬클럽 고발성 프로이다. 반근심 반호기심으로 TV앞에 앉았다.

X세대는 범죄 집단도 아니고 불량배 집단도 아니었다. 그저 요즘 젊은이였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어서 X세대인가. 프로가 진행되면서 X세대를 다양한 각도에서 취재하려는 보도진의 노력이 엿보였다. 엉뚱하게도 그 주제는 이러하였다.

X세대는 감성을 좋아한다, 액션을 좋아한다, 등등...

나를 놀라게 한 것은 X세대의 등장도 아니었고 그들의 행태도 아니었다. X세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취재기자, 취재원, 해설자 등 비X세대였다.

누군가가 거부감과 이질감을 느낀다고 X세대로 명명했고 신세대란 표현은 어딘가 모자라는 것 같아 모두들 X세대로 부르기로 한 게 분명하다. 어느 세대가 X라 붙였는지 모르지만 블랙홀과 같은 정체 불명의 힘을 느끼는 것이 분명하다.

사회자는 그들의 행태를 한숨지으며 걱정한다. 취재기자는 이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심판에 열 올리고 있다. 왜 심판하고 한숨 쉬는 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질감을 주는 건 심판해야 할 범죄가 아니다. 알게 모르게 부정직 속에서 남을 속이고 속는 기성세대들의 행태 중에서 심판 받아야 할 범죄가 있다.

젊은이들의 철없는 행동에 한숨이 절로 난다고, 이질감을 준다고 경원시하고 비판하는 건 기성세대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우선 젊은이들은 인생의 실험장을 거치고 있다. 그들에게는 시행착오를 겪을 기회와 젊음이 있다. 누구에게나 그랬듯이 젊음은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젊음은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다. 질투할 수 없다. 그들의 삶은 언제나 자기 것이다. 행·불행도 그들의 몫이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방관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몫은 아니다.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색안경을 쓰고 틀렸다고 판정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오판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것을 문화라 명명할 수 있는 가이다. 신세대 문화라는 표현으로 모자라는 이유는 왜냐. 문화라고 불릴 자격이 있으려면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 X세대는 홀로 설 수 있을 만큼 기성세대와 다르다. 그리고 사회로 진출해서도 그 독특성을 유지한다.

문화라도 불리려면 다른 문화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X세대는 기성세대의 영향을 받기보다 기성세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과거에 불려졌던 청바지문화, 통기타문화, 명동문화, 신촌 문화 등과는 다르다. 그냥 지나가는 애교스런 이름의 문화가 아니다. 기성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충돌되는 부분은 그냥 삼켜 버리고 있다.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리 나라의 인구 비율을 보면 20년이 지나도 45세 이하가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게 된다. 65세 이상이 25%를 차지하는 일본이 노인 나라가 되는 데 반해 우리는 여전히 젊은 나라로 남는다. 왕성한 젊은 일꾼이 소수의 노인을 먹여 살린다. 일본은 소수의 젊은이가 훨씬 많은 노인을 먹여 살려야 하는 힘겨운 미래가 기다린다. 그 명칭이 어떻든 X세대 문화라도 불리는 바람은 왔다 가는 잔잔한 봄바람은 아니다. 미래호라는 한민족의 배를 가속시킬 너넉한 순풍이다.

X세대와 기성세대간의 간격은 아주 크다. 그러나 이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포용력이 이것을 소화하기에 충분하다는 뜻이다. 빠른 변화와 발전이 이런 소화력을 선물했다. X세대 뒤에 Y세대가 있고 Y세대가 뒤에 Z세대가 있고 그 다음은 X',Y',Z'...

우리의 빠른 발전 단계의 어디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는가에 따라 일년 이년간의 나이 차이에도 이질감을 느낀다. 그러나 적대적인 이질감이 아니다. 나이와 세대와 계층에 관계없이 자신이 존중받고 싶은 만큼 남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녹일 수 있는 다양성의 원료이다.

"X세대를 파헤친다." 는 프로가 취재한 X세대의 특성은 이러하다. 감성을 중요시한다. 느낌이 중요하다. 액션을 중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X세대의 생각과 마음이 경박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X세대를 겨냥한 잡지사의 편집자는 "그들은 긴 글보다 짧은 말을 좋아한다. 말보다는 그림을 좋아한다. 한마디로 메시지보다 느낌을 좋아한다. 그들에게는 느낌이 중요하다." 새로운 유행을 창조하는 패션 디자이너는 "느낌을 유발해 개성을 창조한다. 개성은 느낌이고 느낌은 개성이다." 라며 X세대의 취향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편집자나 디자이너 등 취재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취재원들의 태도와 생각이 놀랍다. X세대의 취향이 가볍고 무게가 없어 진지하지 못하고 인스턴트식으로 경박하지만 그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라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마음에 안 들지만 X세대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정직성에 의심이 간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좋아하는 취향을 발굴하고 창조한다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다. 자신의 진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배신자가 되지 않으려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사회자나 취재기자는 시종 근심스럽다는 표정이다. 다른 사람의 취향을 근심스러워 할 일이 왜 있단. 아무튼 X세대의 특성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미국인에게서 내가 느낀 것과 거의 흡사하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근본적인 무엇이 빠져 있다. 빠진 무엇 때문에 미국인의 태도와 근본적으로 다를지 모른다. 빠진 무엇이 무엇일까.

미국인은 우리 보다 감성적으로 비친다. 그들에게 느낌은 이성만큼 중요하다. 감성과 이성이 균형을 이루어 조화된 듯하다. 그런데 우리와 비교할 때 감성적으로 비치는 건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성 분야에 비해 감성 부분이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전쟁과 가난이 가져다 준 조급함으로 여유로움에서 피어나는 감성이 억눌려 있는 셈이다.

기성세대가 X세대를 볼 때 감성적으로 보이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런 감성이 사춘기 소녀적인 감성, 연약하고 예민한 감성으로 비춰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성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도 보인다.

이성과 어우러진 감성은 무쇠를 녹이는 열이며 감성과 어우러진 이성은 우주를 보는 눈이다. 함께 어우러진

금실 좋은 한 쌍의 부부와 같은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무한의 창조가 태어난다.

어디엔가 의타하는 마음에서는 생동하는 감성, 생활인의 자존심 있는 감성이 살지 못한다. 현란한 오렌지 색깔의 찰나적 감성, 거품과도 같은 허무한 감성이 기생할 뿐이다.

배고픔에서 오는 강인함보다 못한 한 방울 빗물에 녹는 부스러기 센티멘탈이 아니라 험난한 파도와 거친 태풍을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젊은이의 용기와 기상을 잉태하는 감성. 무죄를 녹일 수 있는 뜨거운 감성은 자립심과 책임감이라는 가미술에 저장된다.

### 9살 꼬마의 사생활

미국인과 영국인의 자립심은 가히 배울 만하다.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또 삭막하고 살벌하게 여겨질 정도다. 그래서 철저히 개인주의적이다. 영국의 어느 가정에 묵었을 때 일이 생각난다.

대학원을 마칠 때쯤인 82년 초에 영국 교수의 초청을 받아 영국에 한 달간 머문 적이 있었다. 교수의 추천으로 가정집에 머물러 영국인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런던에서 전철로 한시간 반 거리에 있는 조그만 휴양도시이다. 집주인은 고등학교 교사였고 부인은 몸이 불편해 쉬고 있는 은행원이다. 슬하에 4녀 1남을 두고 있는 중산층 가정이다.

영국에서의 인상은 빈부의 차이가 없어 보여 여기가 정말 자본주의 사회인가 공산주의 사회인가 할 정도다. 민주주의를 이끄는 중산층이 과연 이런 것이구나 느낄 만하다. 내가 묵은 집은 크지 않은 이층집이지만 4녀 1남 각자 방이 있고 내게 할당된 여분의 방 하나가 있는 전형적인 영국집이다. 무릎 높이의 울타리로 싸여진 조그만 뒷뜰과 앞뜰도 있다.

장녀는 경영학과 1학년 대학생이고 막내는 이제 국민학교 1학년인데 국민학교 4학년인 꼬마 여자 애가 돌본다.

저녁때면 이들 식구와 식탁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냈다. 요리와 설거지는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하는데 아버지, 엄마, 큰딸이 요리를 번갈아 하고 막내를 제외한 삼녀가 번갈아 설거지를 한다. 잠깐 놀러 온 할머니까지 나를 포함한 아홉 명이 식당을 가득 채운다.

식사 후 가족들은 응접실로 옮겨가 TV앞에 앉아 차를 마시며 시간을 같이 보낸다. 가족 전체가 모여 대화를 갖는 짧은 시간이다. 그 많은 식구가 부모와 또는 형제간 할 말을 이 시간에 다하는데,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고 학교 준비물 얘기 등등 바쁘다 바빠. 그리곤 방에 돌아가 각자 할 일을 한다. 생활이 아주 짝짜여져 툽니바퀴와 같고 느슨하지가 않다. 내 눈에는 한지붕 밑에 조그만 사회 같이 보였다.

처음에 눈에 거슬리는 장면이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응접실로 옮겨 가 소파와 의자에 앉게 되는데 자리가 모자라 세 명은 바닥에 앉아야 한다. 늦은 사람이 바닥에 앉기 마련인데 위 아래가 없다. 엄마 아빠가 늦으면 바닥에 앉는다. 나는 손님이라서 대학생인 장녀가 항상 내게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는 바닥에 앉곤 했는데 부모가 특히 할머니가 바닥에 앉으면 내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 가정은 어떻게 애들을 교육 시키길래 기본 예절이 없나, 완전히 쿡가루 집안이 아닌가 의심스러웠다.

그러던 어떤 날 국민학교 4학년 꼬마와 엄마가 싸운다. 잡지의 헤어스타일 사진을 오려서 내가 이렇게 머리를 자르겠다고 고집하는 꼬마와 절대로 안된다고 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꽤 높았다. 아버지는 가만있었다. 이럴 때 아버지가 나서 조용히 시켰으면 하는데 모른 채 한다. 갈대 같은 가장이구나 생각했다.

나중에 그 꼬마가 나에게 사진을 보이며 그 헤어스타일이 자기에게 안 어울리냐고 묻는데 나는 입장이 난처해 잘 모르겠다고 했다. 편을 드는 것 같아 내키지가 않았던 것이다. 어떤 때는 아버지가 큰딸에게 급한 약속이 생겨서 요리 담당 순서를 좀 바꾸자고 하는데 자기 스케줄을 보더니 한마디로 거절한다. 이 집에는 어른도 없고 가정도 없었다. 그런 장면을 보면 내가 영 거북하고 마음이 편칠 않아 다른 집으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그러나 열흘쯤 지났을까. 나는 이 가정의 내면에 있는 엄격한 규율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새벽 5시면 아버지는 식당에 앉아 삼녀를 가르친다. 그날의 학교 숙제와 연습, 복습을 정해 준 스케줄대로 했는지 한 명씩 점검을 한 다음 모르는 부분의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한다. 그 분위기는 어찌나 엄격하던지 회초리를 들고 숙제 점검을 하던 어릴 적 나의 어머니는 여기에 비해 관대하다.

아버지의 질문에 답을 못하는 4학년 꼬마는 눈물을 글썽거린다. 아버지를 전혀 어려워하지 않아 버릇없는 아이처럼 보이던 아이들이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진지하고 열심이다. 아버지가 자기 방에서 애들 책을 열심히 읽는 이유를 알았다.

어느 일요일 식당에 모여 가족 회의를 한다. 나는 가족원이 아니라 홀로 응접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간간이 말소리가 들린다.

회의 주제는 집안 대청소에 관한 것이다. 어른들은 가만 있고 장녀가 회의를 이끈다. 각자 자기몫의 역할 분담과 지난 번 대청소 때 부족했던 점을 상기하고 의견을 말한다. 각자의 방을 먼저하고 복도 마루와 응접실, 식당, 정원 순서다. 그리고 빨래는 엄마 아빠가 하고 혼자 청소를 못하는 막내 방은 이번엔 제일 큰 누나가 도와준다.

손님인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는 할머니의 언급도 있다. 진지하면서도 질서 있는 분위기이다. 식사 중에 까불고 언쟁하는 것과는 완전히 판판이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간 그리고 형제간에 엄격한 위계질서가 있으면서도 일상사에서는 친구와 같이 대하는 것임을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꼬마라도 자신의 사생활에 대하여는 철저히 남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 한다. 꼬마가 무슨 사생활이 있겠는가.

자기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사생활이다. 자기 머리를 멋지게 손질하려고 이 4학년 꼬마는 이웃 집에서 베이비 시터(애기 돌보기)를 하면서 번 용돈을 군것질에 쓰지 않고 꼬박 저축했던 것이다.

어리지만 학비 외에는 용돈을 거의 안 준다. 자기 용돈을 마련하려면 스스로 무언가 해야 한다. 그것을 어디에 쓰든 딱 가족이 간섭 않는다. 그래서 머리 손질에 대하여 엄마는 안 된다는 명령을 할 수 없고 단지 자기 의견을 말하던 장면이 나에게서는 어린 딸과 언쟁하는 것으로 비쳤다.

그리고 보니 식구 전부가 저녁 식사 전쯤에야 집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처음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 돌아오는 줄 알았다. 알고 보니 방과 후 각자 일을 하고 있었다. 자기 용돈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애기 돌보기를 하거나 정원에 풀 뽑기 또는 집시 닭기 등 틈틈이 용돈을 번다. 그리고 식사 후에 각자 방에서 열심히 숙제하고 연습을 하니 응접실에 앉아 TV를 보는 한가로운 아이는 없다.

이렇게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의지해 복종하는 부분과 자신이 스스로 마련하여 자신이 결정하는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생활 태도는 나에게서는 생소한 것이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철저한 자립심이 키워진 시민이 얼마나 강한 생활인일까 생각하면서 이 가정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우리와는 문화와 풍습이 다른 이들을 흉내낼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좋은 점을 우리 것으로 소화하면 그 뿐이다. 이들의 자립심은 우리가 배워야 할 미덕이다. 이처럼 자립하려는 마음과 책임 의식을 동반하는 감성이 이성과 교감하는 조화로운 감성이 아닌가 싶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주의의 탈을 쓴 이기적 감정이 아닐까.

'부모가 번 돈으로 자기 개성을 추구한다. 부모와 사회에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간섭받길 싫어하고 비판받기를 거부한다.' 라면서 사춘기 소년, 소녀를 대하는 눈으로 X세대가 일방적으로 매도되어서는 안된다.

말만 앞세우는 것보다 정직한 행동이 낫다. 자기의 위치에서 성숙한 프로다운 행동이 진정 멋있다. 확고한 자기가 있고 그런 주체에서 그윽한 향기와 같이 절로 배어 나오는 개성이 진정 멋있다.

느낌, 액션의 X세대여. 그대가 채워야 할 x를 마음껏 채우시라. 그래서 정체 불명의 "X"가 아니라 한반도의 운명을 이끌어 갈 "주인공" 세대가 되시라. 그리고 뒤에 오는 세대와 앞서가는 세대를 만나게 하는 "교량" 세대가 되시라.

##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1주일간

외국 생활을 끝내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종류의 문화적 쇼크를 겪기 마련이다. 마치 내가 미국에 처음 도착해 그곳의 생소한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은 것을 이번에는 역순으로 겪게 되는 것이다.

외지 생활에 얼마나 적응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 적응의 깊이가 깊을수록 역쇼크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어쨌거나 누구라도 처음 한두 달은 얼떨떨하게 보내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타향에서 돌아와 예전부터 낮익고 익숙했던 것을 다시 접하게 되었을 때 다가오는 생소한 느낌, 편안하지 못한 느낌, 어색한 느낌 등등이 어우러져 나를 형성하게끔 하였던 환경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고 재평가하게 되는 계기를 가지게 된다. 매일 보던 것에서 고개를 돌려 다른 것을 보다가 다시 그것을 보게 되면 '아주 선명한 느낌'으로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내가 김포공항에 도착한 직후 1주일간 느낀 것은 마치 미국인이 이곳에 도착하면 이렇게 느끼겠구나 하는 식으로 모든 구석구석에서 야릇하고 긴장되면서도 내 것으로 다시 담기에는 거부감이 앞서는 것들이 있었다. 이때의 감각이 가장 신선하고 짜릿한 것으로 기억에 강렬하게 담겨 있다.

### 전쟁의 악몽 때문에?

공항에 도착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은 세관을 통과할 때 접하게 되는 세관원들인데 그 몸짓이 사무적인 것은 어느 나라 공항 세관원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특히 눈가에 도는 것이 살기라고 할만큼 차게 느껴졌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거만함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 불만을 언제라도 상대방에게 터뜨릴 것 같다는 불안감도 감돌았다. 그런데 이런 인상은 세관원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세관을 통과한 직후에 만나는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서도 느껴지는 감각이었다.

종종 미국인들도 이런 느낌을 말하곤 하는데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은 한국인이 전쟁을 겪었고 아직도 그러한 기억이 알게 모르게 남아 있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 그렇게 표출된 것이 아니냐 라는 대국적인(?)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과 관련해 생각한다.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을 강의하는 이십대 후반의 중국계 미국 교수를 알게 되었다. 젊은 나이에 여행을 무척이나 좋아해 틈만 나면 배낭을 매고 세계 곳곳을 다닌다. 그렇게 해서 모이는 일자가 일년의 삼분의 일이다. 이제 관광 안내책에 수록되어 있지 않는 구석구석을 다녀보고 조그만 사진첩을 지니고 다니면서 보여주곤 주위 사람들도 그의 여행담에 흠뻑 빠지게 한다. 미국인은 우리와 같이 풍경을 배경으로 하고 자기 사진을 찍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래서 사진첩을 들추면 대부분 풍경과 건축물, 여행지 풍물을 담은 사람들을 찍은 사진뿐 자기 사진은 한 두 장 정도다. 우리와 너무나 대조되는 점이다. 그러나 그 젊은 교수의 사진첩은 여행 기록을 담은 한 편의 기행문이다.

아무튼 그의 놀라운 관찰력과 깊은 식견에는 놀라울 뿐이다. 육십 평생을 산 노인과 같은 지혜는 젊은 나이에 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그를 볼 때마다 든다.

여행 중에서 배우는 것만큼 많은 것도 없을 것이다.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를 배울 뿐만 아니라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생동했던 과거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를 그것이 응고된 유적과 풍습을 통하여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여기서 많은 영감을 얻고 지혜로 승화시키면서 새로운 경제 이론을 준비하는 듯하다.

어느 날 그가 나에게 물었다. “한국 학생들에게서 몇 번인가 독특하게 느낀 점이 있다. 다음 주 수업을 할 수 없는 자기의 피치 못할 사정을 학생들에게 교단에서 말할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한국 학생들이 미소를 띠더라. 이들의 냉소를 보고 나에게 항의하러 오겠거니 단단히 마음먹고 있었는데 찾아와 항의하는 사람 중에는 한국 학생은 하나도 없었다.” 미국 교수들은 수시로 자신의 강의와 열성을 학생들의 설문 조사에 의하여 평가받는데 교수 사정에 의한 결강은 그 평가에 치명적이다. 그런데 한국 학생들의 평가는 의외로 후하더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깜짝 놀랐다. 수업이 없으면 좋은 것 아닌가. 물론 사람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자기 시간을 갖게 되는 학생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것이 인지상정일텐데. 그리곤 떠올렸다. 휴강 소식을 접하고 화를 내는 미국 학생을 보고 저 친구는 공부에 강박관념이 있구나. 법대 공부에 시달리다 보니 그렇겠거니 생각했었다. 이 교수의 말에 의하면 다른 학생들은 휴강 소식에 접할 때 기분 좋은 마음이 그리 일지 않는다는 얘기다. 유독 한국 학생들만 그런 것이고 그것이 미소로 나타났을 때 냉소로 받아 들였다니. 충격적이다.

“나도 휴강 소식을 접하면 일단 마음이 활기분하다. 너의 말을 들으니 나는 충격적이다. 왜 우리 한국인만 이럴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 왈 “아마 전쟁의 기억으로 억눌리는 분위기 속에서 해방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비슷한 대국적인(?) 분석이었다.

“다음 번에는 꼭 한국을 여행해라. 내가 초대할 테니.” 그에게는 우리 나라가 큰 매력으로 안 보이나. 여행광인 그가 아직 한번도 찾아보지 않았다니. 헤어져 돌아오는 길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 잘못된 표현, Visit Korea year

비행기의 출구를 빠져 나와 복도를 걸어가던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구가 있었다. Visit Korea year. 어색한 영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는 의문이 들었다. 올해에 한국을 방문하라는 취지의 문구가 왜 있다.

이런 문구를 써 붙인 이유를 거꾸로 생각하면 올해 전에는 한국 방문을 적극 권장하지 못할 무슨 사정이 있었나. 뭔가 계름직하다. 우리 나라를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이 움직인다. 그리고 한 쪽 구석에 계름직한 마음으로 관광을 시작한다.

‘한국 방문의 해’를 지정한 아이디어는 미국의 어느 도시의 아이디어를 수입한 것이라는 데 그것과는 맥락이 다르다. 미국에서는 그런 도시를 실제로 방문하면 ‘올해를 특별히 축제의 해로 선정해서 외부인들의 눈길을 끌려는 색다른 포장을 하고 있구나’ 를 한눈에 느끼게 한다.

건강부회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관광할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만 있지 그 나라를 잘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그 나라에 대한 느낌을 자기가 가진 순수한 상식에 기초해서 해석한다는 것을 상기하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세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이런 섬세한 감각을 갖추는 일이 아닐까.

택시를 잡고 짐을 실은 후 좌석에 앉으니 기사 아저씨가 어디서 얼마만에 돌아 온 거냐서부터 이야기를 붙여

오는데 상대방이 듣던 말던 대부분 혼자서의 독백이다.

길과 길가의 사람들, 건물들, 오가는 차량들, 건물의 창과 그 색조들,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길을 건너는 사람들,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표정, 그 옆 사람의 표정들.

이제 막 비행기에서 내려 시차 적응이 안 된 상태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잔잔한 과문을 일으키며 맑고 또렷한 음성처럼 들리면서 나도 모르게 새로운 감회에 젖어 들었다.

기사 아저씨의 독백은 거기서 살지 왜 왔나 등 이곳 생활의 불만, 아니 자기 자신의 불만을 늘어놓으며 그칠 줄을 몰랐다. 집에 도착할 때쯤 그 독백의 반이 끝난 것 같은 데 아직도 스트레스가 안 풀리는 모양인지 아쉬워하는 표정으로 웃돈을 요구한다.

‘내가 이만큼 친절(?)하게 얘기해 주었으니 웃돈은 당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가 보다. 가타부타 말없이 요구하는 웃돈을 주고 말았지만 아 한숨이 절로 나왔다. 오늘이 1994년 10월 28일. 이런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좋은 행동이 아니라고 누구나 80년 초부터 떠든 것인데 아직도..

압구정동은 캘빈클라인의 이터너티?

시차 적응을 위해 한숨을 자고 산뜻한 기분으로 거리를 나섰다. 길거리에 젊은 여성들의 스커트가 짧아진 것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는데 과거에 있었던 미니스커트 유행 때보다도 더 짧아서 우리 남성들은 즐겁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는 미끈하게 드러난 허벅지나 종아리에 눈길이 가고 말았는데 왜 이리도 말랐는지. 저건 날씬한 게 아니야 하고는 시골 촌놈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듯이 다른 여성에게 눈길이 갔는데 그녀 역시 말랐다. 웬일일까. 주위에 보이는 여성들은 얼굴 혈색도 그렇고 굵은 사람 같아. 우째 이런 일이.

그 뒤 TV에서 슈퍼 모델이 나왔는데 그녀 역시 내 눈에는 말라 보였다. 원래 마른 체격이 아닌데 마르도록 가꾼 것이 역력했다. 건강하고 싱싱한 매력은 어딜 갔나. 우리의 미의 기준이 바뀌었다. 남성들이 마른 여성을 좋아한다나.

아무래도 뭔가 잘못 되었다. 아름다움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기준은 자신이 만드는 것인데, 아니 만든다기보다 자신의 인격과 개성에 따라 절로 형성되어지는 것인데 남성들이 만든 기준에 따라 자기의 아름다움을 인스턴트 식품처럼 만들어 내다니.

이 유행이 지나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자기 몸을 가꾸고 또 바뀌면 거기에 따라 또 다시 만들어 내고, 이는 개성이 아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개성이 강하고 누가 뭐라 해도 자기 개성에 따라 행동한다고?.

이상하고 새로운 옷차림이나 머리 손질을 한 사람을 보면 개성이 있다는 표현을 쓴다. 남의 눈치나 체면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했다는 점에서는 자신을 표현하려는 의지가 있다고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이 다른 나라의 그림을 보고 최첨단의 수입이라는 생각에서 였다면 그것은 자신에 중심을 둔 개성이 아니라 자신이 증발한 재빠른 모방에 불과한 것이다.

언젠가 뉴욕에 잠깐 들린, 우리 나라에서는 유명하다는 디자이너로부터 오랜지족이란 말을 들었었다.

“지금 서울의 압구정동에 소위 로데오 거리를 가보라. 거리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무슨 애긴고 하니 그 거리를 가득 매운 젊은이들이 하나같이 캐빈 클라인의 이터너티 라는 향수를 뿌리고 다녀 그 향내가 거리를 진동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유행이 거의 일년이 다 되간다. 이들은 나침반이 없는 레이더형 개성을 가진 젊은이들이 틀림없다.

개성은 남의 것이 자기 마음에 들 때 받아들일지언정 맹목적으로 흉내내지는 않는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남들과 같을 수가 없으니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요즘 떴다 하는 연예인의 행동과 차림새가 순식간에 거리에 물결을 이루는 것을 보면 '자신만의 개성'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흉내내는 개성'뿐이다.

유행을 논할 때 뉴욕의 맨해튼이 빠지지 않는다. "뉴욕에서는 이것이 유행한다더라."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오해이다.

뉴욕은 세계의 중심지로 그곳에 많은 패션 쇼가 있고 유명 디자이너가 모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자신의 디자인이 뉴욕 시장에서 반응을 얻으면 전 세계에서 히트할 가능성이 크므로 뉴욕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함이다. 그러나 뉴욕에서 이러한 유행을 의식하고 따르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미국 전체를 놓고 보면 더더욱 그렇다.

어쩌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들리면 '지금 우리 나라에서 이런 옷이나 이런 구두, 이런 디자인의 가죽잠바가 뉴욕에서 대유행이라며 길거리에 물결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면서 한심하다는 표정이다.

뉴욕에는 유행이 없다. New Design이란 말은 있어도 New Fashion이란 말은 없다. 한국식 영어다. 유명 백화점에서 신상품의 디자인이 바뀌었다고 그것이 새로운 유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단지 '어느 백화점에 이리이러한 새로운 디자인의 옷을 보았는데 그 옷의 분위기가 어떻더라.' 정도의 이야기거리일 뿐이다.

신상품이 소개된다 해서 그런 디자인의 옷을 사는 것은 파는 사람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열간이 내지 충동 구매자로 밖에 보지 않는다. 백화점에서 신상품을 기다렸다는 듯이 다발로 사는 한국인들을 복권에 당첨된 벼락 부자로 보는 것이 파는 사람이나 옆에 구경하는 사람의 생각이다. 물론 자기 마음에 들면 사야겠지만 유행이라는 단어를 듣고 사는 바보는 없다.

유행에 민감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이 가득하지 못하여 남의 것에 눈길을 돌리는 사고의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증발한 개성은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이나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에 불과하다.

개성은 흐르지 않는다. 그곳에 잔잔히 있을 뿐이지. 자신이 사랑하는 자기 자신의 부분 부분과 그 전체가 개성이며 누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이끄는 매력이다.

우리는 어린애가 어른스런 행동을 하면 "그 녀석 제법인데" 라며 칭찬한다. 제법이란 자기 법을 가졌다는 의미이다. 어린애도 제법이면 개성을 가진 것이다. 반대로 어른이 제법이 아니면 개성이 없는 사회 기계의 부분품에 불과하다. 우리 모두 제법이어야 한다.

여자가 대우받는 나라는 틀림없이 선진국

돌아 온 직후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또 한가지는 우리 나라 여성들의 눈빛이다. 너무나 놀란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적어도 미국에서 보았던 여성들의 따뜻하고 여유 있는 눈빛이 아니다. 심하게 말하면 누군가 주인이 있

고 거기에 얽매어 있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체념의 눈빛이다. 젊은 여성도 전혀 예외가 아니다. 남성 앞에서 거침없이 당당하게 대응하는 당찬 여성의 눈빛도 예외가 아니다.

내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여성이 있으리라. 전체 여성을 쉽게 매도하지 말아라. 여성들의 파워가 세져서 남성들이 오히려 기가 죽어 있고 남성들이 여성화되고 있는데 웬 말이나. 사실상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어 발언권도 커지고 사회적으로 그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럴까?

미국에서 만난 우리 교포 여성이 생각한다. 그녀는 4살 때 그곳으로 이민 가서 지금은 유명한 의사가 되었다. 유아기를 제외하면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우리 나라 모 대학에서 교환교수로 2년간 있었던 경험이 그녀가 모국에 대해 가진 체험의 전부이다. 어릴 때 한국에 온 적도 없고 미국인과 사니 거의 완전한 미국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말을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고 이해할 뿐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보통의 한국인 이상으로 많이 알고 있어 그 비결이 궁금하여 물어 보았다. 우리 나라는 갈 수 없으니 어릴 때부터 우리의 역사책과 명작소설을 꾸준히 읽고 요즘도 읽고 있다 한다. 한국말을 할 기회가 거의 없지만 이렇게 해서 잊지 않고 있다고 겸손해 하는 것이 영락없이 어제 도착한 한국 사람의 말투다. 그녀가 우리 나라에 교환 교수로 왔을 때 겪은 것을 나에게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상당한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갔는데 적응하기가 너무나 힘들더라. 아직도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다. 그 중에 특히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우리 나라에서 여성들이 취급되는 방식이다. 똑같은 인간인 여성을 격이 하나 낮은 인간으로 취급하는데 그것조차 모른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여성들의 사고 방식이다. 여성들이 모여 있을 때는 이것저것 남성에 의한 부당한 대우를 불평하지만 그때뿐이고 뒤돌아 서면 남성들 앞에서 그런 주장을 당당히 하지 못한다. 한다 해도 투정만 부리고 그걸로 잊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더라. 또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여성들 간의 진지한 토론이 없다.

한마디로 한국 여성들은 단결을 할 줄 모른다. 자기 자신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아 남성에게 당당히 의견을 말하고 정당한 대우를 요구해야 하는 데 막상 힘을 모으려 하면 여성들 간의 질투와 시기가 전면에 나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공통이익이 분명하면 개인 감정을 자제해야 하는 데 이것이 남성들에 비해 기본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나마 여권 신장을 부르짖는 여성을 보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당당한 요구라기보다 사춘기 소녀적인 반항 의식으로 나에게 비취쳐 함께 일하려는 마음이 생기다 말았다. 자신을 찾으려는 노력보다 희생자로 여기는 체념이 스며 있는 듯하다. 한국 여성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답답해서 미련 없이 미국으로 돌아 왔다. 아직 한국 여성은 자신들이 얼마나 남성에게 예속되어 있는 지조차 모른다.”

그녀가 한국에 머문 기간은 1989년부터 90년 말까지이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은 우리 한국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어 가는 과도기이다. 마지막의 시작이 아니라 처음의 끝인 것이다. 목소리는 커지지만 마음은 아직도 남성에 매어 있는 게 한국 여성의 현주소이고 이것이 눈빛에 담겨 있다.

미국에서는 91년부터 새로운 경향이 일고 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운 직업여성들이 점차 직업을 버리고 가정에 파묻히기 시작한다. 남성과 여성이 상호 평등한 위치에서 기능적 분업을 추구해 보니 ‘여성’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남편의 비서 기능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현명하다. 그래서 남성은 밖에서, 그리고 여성은 안에서 일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는 새로운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와 같은 과정을 이미 거쳐 갔다. 마지막의 시작인 셈이다. 우리는 미국이 거쳤던 과정의 부분 부분을 생략하고 뛰어 넘을 수는 없다. 단지 그 과정을 빠르게 지나야 한다.

미국의 여권 신장의 역사는 짧지 않다. 오래 전부터 꿈틀거렸지만 여성의 파위가 사회적으로 뿌리 내리기 시작한 것은 세계대전의 영향이다.

전쟁은 인류에게 많은 것을 앗아가고 원하지 않는 것들을 준다.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고 고통을 안겨 주면서 우리에게 중요성을 가르치고 인간성의 추한 악성을 온세상에 뿌린다. 그러나 전란의 초연 뒤안길에도 뿌려지는 진화의 씨앗이 있다. 전쟁을 수행한 나라가 전쟁 때문에 발전시키는 것이 있는 것이다.

첫째로 그 나라의 재정행정이 발달한다. 한정된 자원을 낭비 없이 총동원하여 최대한 활용해야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자원을 총동원하는 기술과 그것을 최대한 절약해서 쓰는 효율적인 기술과 지식이 개발되고 따라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정부의 재정행정 분야가 발전하게 된다.

둘째로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투자는 국가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지만 평화시에 이를 실행하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에의 투자효과라는 것은 짧은 몇 년안에 가시화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기 중에 자신의 치적으로 국민의 인기와 재선을 노리는 대통령과 예산을 배분하는 국회의원에게는 별로 매력 있는 투자항목이 될 수 없다. 과학기술에 예산을 쓰기보다 금방, 적어도 임기 중에 눈에 띄는 효과를 가져다 줄 부문에 돈을 써야 자신의 인기 유지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쟁 중에는 사정이 다르다. 누가 좀더 첨단 과학 무기를 가졌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전쟁무기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에 국가적 자원이 총동원된다. 그 투자효과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고 그 기술이 우리의 일상용품 제조에 응용되어 편리함을 가져다 준다.

실제로 우리가 쓰는 생활용품의 거의 대부분이 양차 대전과 미소 강대국의 냉전 하에서 무기개발 경쟁의 과정에서 발명된 기술에서 파생된 작품이라는 것을 알면 동감하리라.

셋째로 여성의 지위 향상이다. 현대전은 과거 전통적인 전쟁과 달리 총력전이다.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여자는 집에서 가사를 돌보며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한가로운 전쟁이 아니었다. 남자가 지키던 일자리에 여성이 나가서 생산을 계속해야 국가가 돌아가고 전쟁 수행이 가능하다.

여성은 더 이상 관중이 아니라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후방 군인인 셈이다. 남자들만 잘 할 수 있으리라 타성적으로 생각했던 일들을 전쟁 중에 여성이 잘 해냈던 것이다. 전쟁을 치루는 중 여성에 대한 편견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전쟁 후 여성의 힘이 인정된 것이다. 여성도 힘든 육체 노동이 필요치 않는 분야는 남성 못지 않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이때부터 미국 여성의 평등권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여성의 지위가 남성의 지위에 못지 않은 사회는 어떻게 다른가. 이점은 미국에서 사는 동안 가장 피부에 닿는 부분 중의 하나이다. 한마디로 여성의 남성화, 남성의 여성화가 일어난듯 보인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느껴지는 상대적인 느낌이다.

대화 없는 건물들

서울 시내를 걸으면서 사람 구경 그 다음 건물 구경을 했다. 몇 년만에 많이 변했다. 강남 쪽은 건물이 더 많이 들어 선 것이 확연했다. 새로 생긴 풍경 중의 하나로 자동차들이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아주 어색해 보였다.

어떻게 사람이 다니는 길에 자동차를 주차할 생각을 했을까. 주차난이 심각하다지만 방금 도착한 나로서는 선뜻 이해가 안 간다. 주차 공간이 없으면 차를 집에 두고 다녀야지 하루종일 보도에 주차해서 지나는 행인들의 불편을 주고도 마음이 편안할까. 경찰들이 눈감아 주나. 눈감아 주는 것은 간접적으로 이런 행동을 권유하는 셈이다.

들어선 건물과 건물들이 가지런하지 못해 들쭉날쭉하거나 건물과 건물 사이에 불필요한 공간으로 사이가 띄어져 있다. 소유주가 다르더라도 건물 사이에 보기 흉한 간격을 두지 않는 것이 도시 미관상 절대적인 요소이다. 한번 지은 건물은 오래도록 도시 미관을 좌우하기 때문에 지을 때부터 엄격히 규제되어야 함에도 어떤 영문인지 이런 부분은 규제가 안되는지.

아마 건물간 빈틈없이 잘 정돈된 도시에서 생활해 본 적이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도시 미관을 해치고 그 정돈되지 못한 인상이 얼마나 큰 거부감을 주는 지 알 텐데 안타깝기 짝이 없다. 우리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미적 감각이 고도화되어 도시 미관에 눈똥을 때 이 많은 건물을 어찌할 것인가.

서울을 방문해 본 미국인 도시계획 전문가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는 뉴욕 시의 건축 분야 행정 전문가이다. 마침 일본에 들렀다가 88올림픽의 인상으로 한국의 발전상을 궁금히 여겨 서울에 들러 사흘간 관광을 하고 막 돌아와 나와 마주치게 되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군의관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인연으로 우리 나라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방문할 기회를 가졌는데 서울에서 찍은 사진을 아버지께 보여주니 너무 변한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더라는 것이다. 그도 한국의 발전을 보고 이 벼락같은 변화를 어떤 불가사의한 것으로 여기는 듯했다.

우리의 빠른 발전에 놀라고 있었지만 내가 우리 서울의 모습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어떻게 보는가 라는 질문에는 망설이는 듯 말문을 꺼냈는데 “도시 계획적인 관점에서 보면 계획이 없는 도시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의 질문에 그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하다. “It is too late.”

뭐라고 너무 늦었다고 무슨 남의 일이라고 대답을 쉽게 하네. 유쾌하지 않았다. 허나 지금 다시 서울 거리를 걸으니 정말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답답하다.

1392년이래 600년 동안 오래 전부터 수도로서 이미 터전을 잡은 도시가 팽창하였으므로 완벽하게 미국의 신생 도시와 같은 도시계획이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서울이 정돈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도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교훈을 얻었다. 그 교훈을 우리도 명심하고 앞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 철의 원칙의 첫째는 ‘도시에는 Plan(계획)과 Regulation(규제)이 동시에 들어가야 한다.’ 둘째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고쳐지지 않는다.’ 이다. 우리의 오늘날 서울을 바라볼 때 이 두 가지 원칙이 앞으로는 꼭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을 아무리 굳혀도 모자라지 않다.

우리는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 뒤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규제가 뒤따랐고 그 규제가 소용이 없으면 계획을 바꾸고 또 새로운 규제가 뒤따르고.. 악순환이다. 처음부터 첫 번째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어찌면 당연한 귀결인지 모른다.

도시의 발전을 예측한 큰 청사진이 있고 규제를 통하여 그 청사진대로 도시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 청사진은 오랜 인간의 경험과 첨단 과학이 동원되어 인간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도중에 수정될 일이 없다. 단지 시간의 흐름이 계획과 규제대로 완성된 도시를 채우는 것이다.

일부 지역의 집단 민원으로 계획과 규제가 바뀔 일도 없고 그런 일이 있어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래 계획의 한 곳이 수정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반드시 전체가 무너져 전체 시민의 피해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이 신도시에는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신도시는 정치인의 하룻밤 결정으로 지도 위에 그려져서는 안된다. 긴 시간의 생각이 있고 청사진과 계획과 규제가 개개인의 행동 지표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투기를 무서워해선 안된다.

투기하는 마음은 먼 앞날을 내다보지 못할 때 생긴다. 앞 날이 불투명할 때 장기간의 투자가 가능할 수 없다. 장래의 치밀한 청사진이 있고 이 청사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모두가 믿으면 투기하는 마음은 발붙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람의 언급은 "서울의 큰 건물은 모르겠지만 작은 건물들은 개성이 없이 한가지 기계로 찍어낸 듯하다. 특히 아파트 건물의 색조와 모습이 거의 비슷한 것이 아주 이상하다. 획일적인 것이 개성이 없어 친근감이 들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을 당시는 '그렇지 우리 나라 아파트는 비슷비슷하지!'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다.

이제 와서 보니 길가에 늘어서 있는 건물들은 비슷비슷하고 대신에 사방에 걸쳐 있는 간판이나 네온사인이나 자기 개성을 발휘하듯 눈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뉴욕에서 거리를 걷노라면 건물과 대화를 나눈다. 건물이 말하고 내가 말하고 마치 사람과 대화를 나누듯 걸으면서 건물과 친하게 된다. 같은 거리를 걸으면 친근한 건물과 얘기를 나눠서 좋고 처음 가는 거리에서 새로운 건물과 친구가 되어서 좋고

미국에서도 우리 서울과 비슷한 대도시는 다섯 내외뿐이다. 이러한 대도시를 걸을 때면 거리와 빌딩과 길과 대화를 나누어서 시간가는 줄 모른다. 그런데 왜 우리 나라 아파트는 거의 비슷할까. 그 이유는 모르겠다. 시내의 밤거리를 걸으면서 앞으로 건물도 사람처럼 개성을 추구하여 독특한 서울 거리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해 본다.

들어 갈 때 밀고 나올 때 당긴다.

건물과 관련해 문이 생각난다. 예전에는 우리 나라 건물의 출입문에 대해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돌아 온 후에는 어찌된 게 건물을 들어설 때마다 당황스러운 것이 혼란스러운 정도다. 문을 여는 방향이 어디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밀어야 할지 당겨야 할지 들어 갈 때나 나올 때 유심히 살펴야 한다. 일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왜 일관성 있는 원칙이 진작 없었을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이것도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한마디 하는 부분으로 일본인이 나에게 물어 본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어떤 규칙이 있는 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었다. 그리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막상 일정한 규칙에 버릇을 들였다가 규칙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은 피곤한 일이었다.

미국에서는 정확한 규칙이 있다. '들어 갈 때는 밀고 나올 때는 당긴다.' 가 규칙이다. 어느 문이건 사적 장소

로 들어가는 문은 '밀어야 push' 하고, 공공장소로 나오는 문은 '당겨야 pull' 한다는 규칙이다. 이치가 명료하다. 공공장소는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이니 다수를 우선으로 이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하고 이들은 길가는 행인으로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건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으니 부딪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규칙이 전혀 없는 것이 몇몇 건물은 이 반대로 문을 설치해 길로 나올 때 행인들과 부딪히는 일이 종종 있었다. 더 어색하게 여겨졌던 것은 아파트의 문은 유독 일관성 있게 들어 갈 때 당기고 나올 때 밀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문이 나올 때 밀도록 설계되면 문을 열면서 밖에 사람과 부딪힐 위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이 외부인을 확인하거나 편지를 주고받을 때 문을 살짝 열어야 하는 데 문을 밖으로 밀고 상대방에게 가깝게 줌으로써 방법 차원에서도 주인에게 불리하게 된다. 기본적인 합리성이 결여된 설계이다.

이것을 떠나서도 이치적으로 문여는 방향을 일관성 있게 개선해야 할 일이다. 작은 일이지만 아주 중요한 이것에 아직도 일관된 법칙이 없는 지 의아할 따름이다. 우리 생활 구석 구석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이 아직도 주위에 널려 있지만 고정관념으로 불편함에 잘 적응되어 있다. 다른 나라 문화에 접하면 이러한 고정관념을 깰 수 있어서 좋은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덧붙이자면 우리 나라 화장실의 불을 켜고 끄는 점멸스위치는 화장실 밖에 있다. 미국에는 예외 없이 화장실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나라 가정집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밖에서 스위치를 끄는 바람에 안에서는 정전이 된 줄 알고 깜깜한 상태에서 일을 보고 나오느라 고생했다는 미건축가의 에피소드가 생각난다.

그는 당연히 스위치가 안에 있고 자기가 끄지 않았으니 정전으로 판단했다. 어둠 속에서 일을 끝내고 더듬거리 수도꼭지를 겨우 찾아 손을 씻어야 했는데 나와 보니 환해서 아연실색했다. 동감이 간다. 자기가 사는 곳에서는 화장실에 불 나가면 정전이니까.

화장실 안에 있는 사람이 스위치를 지배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침실이나 서재의 스위치가 방안에 있어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우리는 화장실만 유독 스위치를 밖에 다는 이유는 아마 화장실에 대한 사고가 휴식 공간보다 뒷간 개념이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그는 건축가로서 우리의 아파트 구조를 보고 우리 문화의 이중성을 지적했는데 그의 질문은 이런 것이다.

“화장실에 욕조가 있으면서 욕조에 물을 받아 바가지로 퍼서 몸에 끼었는데 무슨 이유인가. 식당이라고 식탁이 배치되어 있는데 막상 식사가 준비되어 앉은 곳은 거실 바닥의 또 다른 낮은 식탁 앞이었다. 식당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할 때와는 달리 거실 바닥에 앉아 식사할 때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

“특별한 의미는 없고 욕조나 식탁 등의 생활 문화는 서양 것을 들여 온 것인데 우리 전통의 생활 습관과 혼용하고 있다.”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롭다는 표정이지만 ‘전통과 현대의 이중 기준이 개발도상국의 일반적인 특징이고 이것도 그중의 일례’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세계 각국의 생활에 견문이 넓은 그의 눈 빛에서 읽을 수 있었다.

## TV 뉴스

뉴욕의 TV는 세계 각국의 뉴스를 방영한다. 그 중에 우리 나라 뉴스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밤시간에 한시간 정도는 우리 나라 뉴스와 인기 드라마의 요약편을 접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뉴스와 함께 우리 나라 뉴스 화면을 대비해서 보게 되는 데 느끼는 점들이 독특하다.

첫째로 다른 나라 뉴스 앵커보다 우리 나라의 앵커는 표정이 무겁고 엄숙한 편이다. 전하는 내용이 무거울수록 더욱 그렇다. 목소리도 억양이 높고 부드럽지 못하다. 시청자와 사건 내용에 관련된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 하자는 의도인 것 같다. 때로는 가벼운 내용인데도 기자의 몸과 목소리는 경직되어 있고 권위적으로 보인다.

무거운 내용에 시청자를 몰입시켜 시청자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결과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오히려 무거운 것 일수록 하루의 일과를 보내고 느슨한 마음으로 TV앞에 앉은 시청자에게 무겁지 않도록 전달되어야 한다. 내 일로 골치 아프고 피곤한데 남의 일에 동정하고 신경을 쓰도록 유도하는 것은 노동력을 재창조하는 휴식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정치적 사회적 무관심을 조장하는 이기적인 태도로 비춰 질지도 모르지만 내용이 무거우면 전달 형식이라도 객관적이고 부드럽게 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용이 무거우면 전달 형식도 무겁게라는 도식은 현대 뉴스 전달 추세에 뒤떨어진 발상이 아닐까.

기자의 취재에 의해 사건이 발굴되고 전파를 타게 되는데 이 세상의 사람 수만큼 많고 많은 보도 거리 중에서 무거운 내용만 있으랴. 시청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이지 사건 사고 등 충격이 아님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우리 나라 TV 뉴스는 그 취재 내용도 정치, 사회 등 사회의 문제점, 어두운 면에 대한 고발성 내용에 비중이 큰 편이다. 고발성 내용의 취재도 사실과 분석을 다루기보다 시청자의 감정과 울분을 유발하는 드라마틱한 면에 치중해 있다.

이러한 보도성향은 행정이 제대로 못하는 것을 채찍질해서 고치도록 하는 큰 효과가 있다. 사회가 급변하는데 행정은 쫓아오지 못하고 부정이 만연되어 체질화되고 고발할 게 많은 것이 사실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언론의 본래 기능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발은 경찰이나 관계 기관에 해야 할 것이고 기타는 그 나름대로 만들어진 통로를 통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러한 통로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언론이 그 기능을 대신하는 비상적 부수 역할이다. 그러니 고발의 효과만 과대평가 해서 언론이 다른 조직의 역할을 도태시키는 악영향도 고려해 봄직하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풍조가 생겨났고 언론이 가장 목소리가 크니 목소리가 큰 만큼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내용도 의미도 없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취재 보도는 그 취지와 관계없이 악방에 감초처럼 등장하여 지리하게 여겨진다. 어떤 때는 국회의원들의 폭력 장면에 얼굴이 화끈거린다. 이 뉴스는 세계인이 본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는 못하지만 그림은 본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면이 고쳐지고 있지만 세계의 여러 나라 뉴스와 비교하면 아직도 거리가 있다고 느껴진다.

광고, 드라마 그리고 쇼 프로

귀국한 후 저녁 시간이면 TV앞에 앉는 것이 하루의 일과가 되었다. 오랜만의 일이라 일주일의 프로를 한번 훑어보는 것이 고향에 돌아온 걸 실감하는데 그 보다 더 적당한 도구가 따로 없었다. 특히 우리 말의 독특한 어휘, 관용구를 다시 들으니 새삼 실감난다. 재미있다.

TV광고의 기법과 음악이 다양해졌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광고는 대사가 길다. 미국의 광고는 자막에 짤막한 문구만 있거나 대사가 있더라도 아주 짧다. 그림과 음악으로 신나는 느낌만 전달하고 소비자를 유혹하는 언어는 자제한다. 다양한 개성의 시청자 중에서 단 한사람이라도 광고 문구에서 오는 자그만 거부감 때문에 채널을 돌릴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의식하기 때문인 듯하다.

미국의 광고가 나에게서는 무미건조하게 느껴지지만 섬세한 미국소비자의 감성과 느낌을 바늘로 뚫고 향기로 들어 간다는 것을 알았다. 같은 종류의 상품광고가 연속적으로 방영되는 점도 우리와 다르다. 새로운 수요자를 끌기보다 기존의 수요자를 잃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비춰졌다.

우리는 권위주의 문화가 광고에도 반영된 듯 권위 있는 인사의 등장과 대사 등 제품에 권위를 연결시키는 점이 특이하게 보였다.

드라마도 대사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이 변화의 하나였다. 그 내용도 빙빙 돌려 말하기 보다 핵심을 찌르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십대의 시청자를 의식한 듯 프로그램이 그쪽으로만 편중되어 있어 모든 연령층에 고루 어필할 수 있는 드라마가 아쉽다.

굳이 미국 드라마와의 차이점을 꼬집으려면 우리의 드라마는 감정의 흐름을 연결해서 끈으로 삼고 진행을 질질 늘려간다는 점이다. 반면 미국의 드라마는 에피소드 중심으로 복잡한 감정을 간결하게 끊어서 발빠르게 나아간다.

쇼 프로그램은 느낀 점이 많다. 무대와 의상의 화려함이 대단하다. 아니 화려함보다 현란함에 가깝다고 느껴졌다. 사회자나 가수나 거침없이 말하는 것도 큰 변화이다. 다만 세련된 매너나 말솜씨가 아쉽다. 십대나 이십대 초반의 젊음이 취향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어색하다. 우리의 멋-그윽하고 자아 나는 멋-과는 거리가 있고 광란적인 폭발이 젊음의 발산이라는 식으로 일관되어 있는 것이 의아하다.

쇼나 코미디 프로에서 유머는 볼 수 없고 말장난과 거친 동작, 억지로 웃기려는 태도는 나를 찡그리게 만들었다. 거침없고 직선적인 면에서는 살만 하지만 공중 앞에서 하는 대사와 동작에서 '어린이들의 자연스런 에티켓'이 터득된다는 교육적인 영향을 간과한 듯하다.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오락 프로에 전자 오락적 영향을 많이 삽입하는 것이 아마추어의 시험장으로 비춰졌다.

미국에 도착하여 그쪽 프로를 보면 지루하게 느껴지는데 시간이 흐르면 그윽한 재미가 배어 난다. 반대로 우리 나라에 도착해서 우리 프로를 접하면 자극적이고 원색적인 느낌이 앞서고 그윽이 배어 나는 우리의 본래의 된장국 맛은 찾을 수 없는 게 너무나 아쉽다. 깊고 그윽하나 무겁지 않고 잔잔한 그러한 맛. 우리의 고유한 멋이 가물했다.

고민되어도 즐거워!

맨해튼의 채널은 일흔 여섯 개이다. 한 달에 35불 가량이면 이 채널을 다 볼 수 있다. 뉴스 채널, 날씨 채널, 흘러간 명화 채널, SF 영화 채널, 음악 채널, 재판장면 중계 채널, 의회 중계 채널, 스포츠 채널, 만화 채널, 어린이 채널 등 온갖 종류의 채널이 있다. 각 채널에서 지금 무엇을 방영하는지 소개하는 채널까지 있어 정신이 없다.

이 많은 채널을 보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가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닌가라는 회의는 처음 잠시였다. 나중에는 선택의 갈등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요령을 터득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생각으로 보낸다. 이렇게 무수한 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확실히 스트레스가 쌓이는 벅찬 '일거리' 중에 하나이다.

미국인들도 자신들의 사회를 말하면서 '무수한 선택 속에서의 갈등'과 '낭비'를 종종 비판하곤 하는데 이러한 예에 속한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온 학생이 이러한 다양성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안쓰러울 정도이고 이들을 보고 내가 겪는 피곤함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위안했다.

'조금씩 다르면서 거의 같은 것을 생산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가격 하락 등 경쟁의 이익을 주지만 반면 나라 전체로 보면 감수해야 할 낭비적 요소도 그에 못지 않다.' 라는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색깔의 생각으로 바뀌었다. '다양성을 소화하면 기쁨이요 소화하지 못하면 낭비라는 회의에 빠져든다.' 는 생각이 그것이다.

미국의 시장을 크게 하는 것은 그 땅의 광활함도 아니요 인구의 많음도 아니요 바로 다양한 개성을 가진 다양한 수요자였다. 전화기를 파는 상점에 진열된 다이얼 전화기가 제법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의아했다. '저 물건을 왜 그리 많이 내 놓았을까. 기계식 전화기로는 이 사회에 필수불가결한 음성 자동서비스를 받지 못해 엄청 불편할 텐데. 저걸 사는 사람이 많을까.' 의문을 품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어느 친구와 얘기를 하던 중 그 의문이 풀렸다. 자기는 다이얼 전화기가 좋다. 자기 아내도 좋아하고 자기 할머니는 보튼이라면 질색을 한다. 불편해도 좋단다. 이러한 예는 하나에 불과하고 내 입장에서 얼른 보면 팔리지 않으리라 생각되는 상품들이 많다. 그러나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다양한 개성을 가진 개인이 미국의 거대한 시장을 채우고 결국 다양함이 수요 창출에 한몫을 하는 것임을 알았다.

## 부부사이는 누구도 몰라

남편은 의치증환자

앞에서 말했듯이 '인간은 자연의 일부' 라는 미국인들의 사고가 부부관계에까지 철저히 관통하는 점이 미국 생활 동안 나 자신을 여러모로 다시 돌아보게 했다. 우리 나라에 돌아와 이러한 영향이 아직 생생한 가운데 어느 날 아침 TV 프로를 접하게 되었다.

그 프로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오전 프로라서 방청객은 주부들이고 그날의 주제는 '의치증'이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주부가 스크린 뒤에 얼굴을 가린 채 자기 고통과 가정생활에 대해 말한다. 초청 전문가는 얘기를 듣고 가정문제 상담소장으로서 또는 정신과 의사로서의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문제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 주부에게는 명답을 가진 구세주처럼 보일 만하다.

문제의 성격은 '남편은 의치증 환자' 그리고 해결은 '이혼'과 '치료'. 아주 간단하다. 다른 점은 어떤 남편은 중증이고 어떤 남편은 가벼운 증세라는 것이다. 방청객들은 진단 방법에 매우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TV 방영 전에 의치증 환자라는 다른 검증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나에게서는 너무나 쇼킹하여 한참 동안 그 여운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한때 심리학에 심취하여 인간을 동물과 같은 선상에서 다루는 미국식 심리학의 과학성에 깊이 감탄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생활에서 그 학문의 실용성에 다시 감탄하면서 내가 배운 심리학은 미국인에게는 적합한 반면 단체주의 문화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절실히 느낀 바이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현대인의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치료하는가. 콜롬비아 법대를 다니던 어느 날 이 궁금증의 일부에 접근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사법시험을 변호사 시험 Bar Exam이라 부르는데 우리와 다르게 임용 시험이 아니라 자격 시험이다. 법대 졸업생의 평균 70% 이상이 이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따라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어느 법대를 나왔으며 어떤 성적으로 졸업했느냐가 그 변호사의 등급과 평생 소득을 결정한다. 이는 학교 교육이 그 사람의 법률 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법대에 어렵게 진학하여 비싼 학비를 내는 법대생에게는 자신의 학점 관리가 지상의 과제이다. 특이한 점은 한 법률 과목에서 이해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협동을 활용하는 그룹 스터디가 보편적이어서 그룹간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이다.

삼사 명되는 스터디 요원은 한 법과목 전체를 쪼개 각자 할당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 정리한 후 하나로 모아 잘 정리된 전체 강의 노트 분을 만든다. 서로가 과제의 철저한 이해를 돕는 등 정보를 철저히 공유하는 한편 다른 그룹 스터디 학생들과는 철저히 라이벌 관계이다. 개인 플레이를 하는 학생도 있지만 예외적이고 시험 준비때면 그룹 스터디를 활용하느라 분주하다.

특히 답안을 쓸 때 어떤 책을 보든 이를 허용하는 시험(open book test)이나 시험시간에 문제지를 받아 집에 가서 하루나 길게 일주일 동안 답안을 작성하여 정해진 일자에 제출하는 시험(take home test)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누가 잘 정리하는가가 중요하므로 그룹 스터디에서 여러 명의 협동으로 잘 정리된 노트가 승부를 판가름한다.

그래서 시험이 가까워지면 그룹간의 경쟁 나아가 그룹 내의 경쟁 속에서 자신의 체력을 최대한 쏟아 부으며 별건 눈으로 두 달을 보낸다. 이 기간 동안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절정을 치닫는 어느 날 내가 속한 계약법 스터디의 멤버인 중국 학생이 모임에 나타나 자기에게 할당된 과제를 도저히 할 수 없어 계약법 시험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그룹원들의 표정이 난감하다. 그 학생이 해야 할 몫을 다시 분배하여 각자의 몫을 재조정하는 등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나는 그 학생에게 용기를 주려 단둘이 만났다. 같은 동양인이라는 것이 객지에서는 무시 못할 친근감으로 작용한다. 그 친구는 방금 법대 내에서 정신 건강을 돌보는 전문가와 상담하고 오는 길이었다.

그 사람은 정신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어떤 과목은 과감히 포기하라 조언하며 담당 교수와 교무처에 통보하여 포기에 따른 학사 일정의 차질 등을 최소화할 수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며 안심하라고 하더라.

우리 나라 학교에서는 물론 사회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제도다. 일종의 위기관리제도인데 전문가의 판단으로 학생의 스트레스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학생 보호를 위해 예외적 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 때가 가까워지면 법대 내의 상담소와 전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스 센터'가 문전성시를 이루어 상담을 하려면 긴 예약자 명단에 끼어야 한다.

부부사이 는 누구도 모른다

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사회에서 카운슬링의 수요가 만만치 않음을 알았다. 고도화된 거대 사회에서 인간적인 접촉의 기회가 적어지고 개인주의가 더욱 심화되면서 생긴 현상이다.

여기서 카운슬링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을 전공한 자들이 전담하고 있다.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환자를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와는 엄연히 달라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전문가이다.

내가 사는 아파트 같은 층에 핀란드인 부부가 살고 있었다. 아파트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파티 모임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나와 같은 법대의 클래스메이트임을 알고 무척 반가웠다. 학교에서 자주 만나고 같은 아파트에 사니 가끔 차 마시러 오가며 대화할 기회가 많아졌다. 미국에 온지 석 달이 조금 넘었는데 부부 사이가 심각하다.

미국인은 이런 상황을 가족위기(family emergency)라 표현한다. 그는 서른이 채 안된 젊은 스웨덴 변호사로서 유럽공동체법(European Union law)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러 콜롬비아 법대에 입학했다. 부인은 전형적인 북유럽 미인의 굵직한 체구와 흰칠한 키에 화려한 의상으로 부부 동반 모임에서 주위의 관심을 쉽게 끌곤 했다.

알고 보니 스웨덴에서 좀 알려진 패션 디자이너란다. 남편이 공부하는 동안 자기도 이곳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자리를 구할 생각이었으나 여의치 않아 신경이 예민해 있다. 자기 일을 하다가 온 부인은 이곳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무력감에 빠져 있는 상태였다.

유학생 부인의 비자로는 이곳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남편이 학교에 가거나 공부에 바쁘다 보면 아는 사람 없이 완전히 고립된 과부가 된다.

남편을 따라와 이런 상황에 처한 외국인 유학생이 많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는 이런 부인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유학생 부인 모임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적극적 참여를 권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한 때는 재미있어도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참여가 활발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 나라 유학생이나 일본 유학생들은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뚝뚝 뭉쳐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을 잘 극복하는 듯 싶다. 무료함을 달래고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 한국인 교회 모임에 몇 번 얼굴을 내밀었다가 독실한 기독교 교인이 되는 사람도 보았다.

어느 날 이 스웨덴 변호사와 함께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유학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갈까 고민 중이라고 한다. "유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처가 막상 여기 와서 신경이 예민해져 부부 싸움이 잦아지고 이제는 도저히 이 상황을 감당 못하겠다." 며 여성 우위의 사회에 사는 스웨덴 남성은 불쌍하다고까지 푸념한다. 그리고는 "똑같은 상황에 처한 이태리 유학생이 family emergency를 전문으로 하는 심리치료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위기를 잘 넘기고 있다는 말에 희망을 가지고 자기도 처와 이 방도를 의논할 생각이다." 라고 한다.

그 후로 두 달 여 동안 만나지 못해 잊고 지내던 어느 날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 위층의 그들 집에 놀러 갔다. 그들은 안정을 찾은 듯 보였고 미국의 심리 치료법에 대해 자기들이 겪은 과정을 말해 주었다. 외적 자극을 받기 위해 친구들을 초대하라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그 친구의 하나로 나를 초대했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 이 친구와 더욱 가깝게 되어 자기가 겪는 미국식 심리 치료 과정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그 흥미로운 원리와 과정은 이러했다.

'부부사이에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이해할 수도 없다. 그들 두 사람만이 그저 느낄 수 있을 뿐이다.' 가 그 출발점이다. 우리말로 제 눈에 안정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왜 제 3자인 심리 치료자가 개입하는가. 그걸 알기 위해 왜 부부간의 위기가 오는가를 보자.

부부간에 물과 같이 흐르는 감정의 교류가 그 관계를 유지한다. 둘 사이에 감정이 엉겼을 때 그것을 풀지 않고 그대로 마음속에 간직하다가 시간이 흘러 마음속 깊은 곳에 쌓이고 쌓이면 화석화된다.

부부싸움은 감정 소통의 일환으로 평소에 틈틈이 해서 찌꺼기가 남지 않아야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한다. 작은 전투가 큰 전쟁을 방지하는 셈이다. 전쟁의 지경에 이르면 화석화된 묵은 감정이 지금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당사자는 그것을 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해결을 위한 감정의 소통은 끊어지고 더욱 감정이 엉키는 악순환만 계속된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면 마침내 '좋은 감정'의 교류가 단절되고 서로를 밀치는 힘만 작용한다.

부부간의 힘의 균형 Balance of Power 이 깨진 상태가 길면 길어질수록 엉킨 감정이 풀리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가라앉는 경향이 있다. 부부간의 만족스런 성생활이 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부부간에도 힘이 작용하여 어느 때에는 남자 쪽으로 어떤 때는 여자 쪽으로 저울이 기울는데 만족스러운 섹스가 이 불균형을 녹여 저울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한다는 아이디어가 흥미롭다.

아무튼 가슴 깊이 화석화된 감정의 영향으로 부부간에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를 당사자는 집어 내지 못한다. 분노와 공포의 감정이 앞서 이성적인 생각으로 진짜 이슈를 끄집어 내지 못하고 감정만 상하는 무의미한 언쟁만 오갈 뿐이다. 가슴 깊이 묻어 둔 감정을 꺼내는 두려움보다 그냥 묻어 두는 게 낫다는 무의식이 작용한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기회마저 놓치고 만다.

이때 제 3자인 전문가가 등장한다. 그가 하는 일은 이 악순환을 멈추게 하고 두 부부사이의 진정한 이슈가 무

엇인가 꼬집어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 이슈는 부부마다 다르고 그 당사자만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스스로가 그 이슈를 집어내도록 옆에서 도와줄 뿐이다. 그 이슈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도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가 판단할 또 다른 이슈이다.

전문가가 나서서 문제의 성격을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으로 인식된다. 전문가의 판단이 개입해서 둘 중에 누가 문제 있다고 단정하면 힘의 균형이 깨짐은 물론 환자로 낙인찍음으로써 진짜 환자로 만드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의 역할은 부부 각자가 거쳐야 할 과정을 빨리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일 뿐 그 과정의 일부를 생략하여 단축시키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니다.

치료는 당사자의 말을 들어주는 공명관 역할과 새로운 자극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의 제공이다. 한마디로 제 눈의 안경을 전문가의 안경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 눈의 안경으로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문가의 임무인 셈이다. 자신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최고 전문가라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다.

죄없는 사람에 보이지 않는 형벌

우리 나라는 부모 형제 가족이 부부문제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문화이다. 이것이 바람직한다.

제 3자의 객관적인 눈으로 또는 오래 산 지혜의 힘을 빌어 부부간의 이슈를 집어내는 것을 도와주는 한 바람직하다 생각된다. 반면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고 판단하여 힘의 균형을 깨는 것은 부부사이를 더욱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게다가 감정적 판단이 개입되면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단체주의적 문화가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앞서 말한 아침 프로에서 부인의 말을 듣고 그 남편이 의처증이라고 단정하는 정신과 의사의 접근 방법이 미국식과 다른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 법률가가 가슴 깊이 새기는 법언이 있다.

"양자에게서 들으라." 당사자 일방의 말만 듣지 말고 두 사람 모두에게서 듣고 법률 판단을 하라는 뜻이다. 하물며 두 사람 사이에서 생긴 부부간의 미묘한 문제를 부인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남편을 의처증 환자로 낙인찍는 것은 전문가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믿지만 사랑이 아닐 수 있다. 반대로 믿지는 않지만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이 질투로 표현될 수도 있다. 두 사람만의 화학작용 chemistry이다. 그러니 사랑과 믿음과 소망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프로가 많은 시청자의 관심을 끌었는지 모르지만 만일 그 판단이 틀린 것이라면 억울하게 의처증 환자로 몰린 남편에게 이유 없는 무서운 형벌을 준 셈이다.

정상과 이상의 판단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들었다. 그 하나는 객관적 기준으로 '통계적 평균의 이탈'이다. 말하자면 대부분의 동네 사람이 이럴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이 사람만 유독 다른 반응을 보이면 그 사람은 통계적 규준을 이탈했다고 한다.

이 문화적 풍토에서는 이것이 정상이고 저 문화적 풍토에서는 저것이 정상일 수가 있어 완전히 객관적이라 할 수 없다. 이상이 되려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고통'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다시 말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에 고통을 주거나 스스로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혼자 고통을 받으면 이상일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은 아무 고통을 느끼지 않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면 이상일 수 있다. 어느 정도가 고통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일시적일 수도 있다. 또한 문화적 요소가 다분히 작용하여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에서는 고통이 아닌 것이 자기 표

현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고통일 수 있다.

이렇게 정상과 이상의 구분은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그리고 개개인의 개성이 중시될수록 무의미한 것이 된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환자로 명명하기보다 스스로 고통을 참지 못해 찾아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살리고 도와주는 심리 치료 전문가가 미국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간다.

## 담배꽁초와 순경

나쁜 버릇 고쳐야지!

우리 나라에 돌아와 예전처럼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신분증을 찾으니 미국 생활 중 잃어버려 재 발급받기 위해 사진을 찍어야 했다. 근무시간 중 잠시 시간을 내어 사진을 찍고 급히 사무실로 돌아오는 중 건물 목에서 녹색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씨늘한 겨울 바람에 몇 안되는 사람들만이 어깨를 움츠린 채 한산한 오전의 거리를 메우고 있었다. 이곳 종합청사 앞의 대기 신호가 긴 것은 예전과 다름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담배를 꺼내 피웠다. 미국생활 중 잠시 끊었던 것이 도착 후 나도 모르게 예전의 담배 중독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대기 신호가 청색으로 바뀌어 피던 담배를 끄고 보도를 건넜다. 건너는 순간 순경이 뒤쫓아와 담배꽁초를 길가에 버렸으니 딱지를 떼겠다고 한다. 그 순경은 나에게 호통을 치며 “멀쩡한 사람이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나.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이 거리가 청결하지 못하다.” 라는 등 훈계를 했다.

이 순경은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나의 나쁜 버릇을 고치겠다고 대답했다. 빨리 딱지를 떼 후 사무실에 돌아가 하다면 일을 끝내야 하는데 훈계는 계속되고 있었다.

길가에 꽁초를 버리는 나쁜 버릇은 뉴욕에서 생긴 것이다. 그곳에 처음 도착해 길가에서 꽁초를 버릴 쓰레기통을 두리번거리면서 찾았던 기억이 난다. 좀 이상하게 여겼지만 쓰레기통은 어디에도 없다.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봉지를 담은 통들이 간혹 길 구석에 있어도 우리처럼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은 어디에도 없다.

그 뒤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거리낌없이 보도나 차도에 버리고는 훔날리는 빨간 재가 네온사인 불빛과 어우러져 아름답다고까지 생각해 본 적도 있다. 뉴욕에서의 나쁜 버릇으로 여행 중 다른 도시나 시골에서 미국인의 편잔을 받기도 했다.

뉴욕차 넘버를 보고 다가와 “여기는 뉴욕이 아니니 함부로 버리지 말라.” 며 눈살을 찌푸린다. “뉴욕에 사는 사람은 공중도덕이 바닥이고 돈에 걸신이 들린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니 이 마을에서는 조심하라.” 는 충고도 잊지 않는다.

떠올리던 기억을 멈추고 훈계를 그치지 않는 순경에게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정중히 말하고 빨리 딱지를 끊어 달라고 하니 그때서야 불편을 꺼내 들고 신분증을 요구한다. 신분증이 없어 대신 비밀취급 인가증을 제시했다.

순경은 인가증의 사진과 나를 몇 번인가 대조하더니 뭔가 미심쩍은 눈초리로 머뭇거리다 사무실이 어디냐고 묻는다. 바로 앞의 종합청사를 가리키며 저기 12층에 사무실이 있다고 대답했다.

순경은 “미처 몰랐다.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고 머쓱해 한다. “지금 물어 보니 대답하는 것 아니냐 급하니 빨리 처리해 달라.” 고 했다. 이번 기회에 나쁜 버릇을 고쳐야 하니까 봐 달라고 할 필요도 없다. 그는 갑자기 빨리 일 보시라며 경례를 하고는 황급히 뒤돌아 총총 걸음으로 사라졌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은 담배 버리기 단속 날이었다.

독자들은 이 장면에서 몇가지 점을 느낄 것이다. 권위주의 사회의 한 단면이다.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하고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는 위에서 군림하여 착취하려는 아주 나쁜 근성이다. 우리의 권위주의 전통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이 점을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

뿌리깊은 농업사회의 전통이 없는 미국은 어떠한가. 거기도 사람이 사는 사회이고 위계질서가 있으니 권위주

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권위의 원천이 전문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다르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직급이 요구하는 기술과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추면 상위직을 맡아 그 조직을 이끌고 부하를 통솔한다. 연공서열 의식은 없고 나보다 고도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 상관에게 복종하고 따른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강한 자 앞에서 한없이 비굴하고 약한 자를 밟고 누르려는 행태가 우리처럼 심하지 않다. 철저히 '일 중심의 문화'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풍토에서 나에게 벤 권위주의 행태로 미국 생활에서 고초를 겪었던 경험이 있다.

함흥차사가 준 교훈

미국은 토요일도 휴일이라 보통 금요일의 분위기가 우리 나라의 토요일과 비슷하다. 휴일인 토요일을 앞두고 저녁 늦게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시내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새벽 늦게까지 시간을 보낸다. 음식점과 술집은 물론 연극 공연이나 영화 상영 등 행사가 있는 장소는 토요일 새벽까지 사람들로 북적인다.

어느 금요일 퇴근 후 집에 들러 청바지에 셔츠로 갈아입고 약속 장소로 갔다. 오늘은 맨해튼에서 예술의 거리로 통하는 소호(Soho)에서 식사하고 밤구경을 하기로 했던 터이다. 저녁 식사로 두 시간 여를 보내고 장소를 옮겨 다른 친구와 합류하기로 했다. 합류하기로 한 술집을 찾으러 배회하다 운전하던 친구가 차를 한쪽에 멈추고 장소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고 오겠다고 하며 자리를 떴다. 오 분 정도 지났는데 함흥차사이다.

시동을 건 채로 갔으니 금방 오겠거니 생각하며 하품을 했다. 창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뜨니 경관이 차 안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뒤로 젖힌 시트를 바로 잡으며 창을 열고 무슨 일이나 물었다. 경관은 나오라는 손짓으로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서면서 하는 말이 손을 머리에 하고 차에 기대라는 것이다. 시종 내 눈을 열심히 살피고 있었다.

이 경관은 시동이 걸린 차의 조수석에서 시트를 젖히고 자고 있는 나를 보고 마약에 취해 있지 않나 의심을 품고 조사하려는 것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번 이 거리의 벤치에 앉아 있을 때 까만 흑인이 다가와 '원하느냐?' 고 물어 와 당황하는 나에게 옆에 있던 친구가 이 근처는 마약 거래가 성행하는 우범지대라고 귀띔해 준 일을 상기했다.

손을 뒤로하고 차에 기댄 내 몸을 더듬는 경관에게 "나는 전화 걸러 간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을 따름이다. 나는 마약 중독자가 아니다." 급한 마음에 영어가 뒤엉켜 나왔다. 경관은 내 말에 관심이 없다는 듯 흥기가 없음을 확인한 후 느긋한 자세로 순찰차의 컴퓨터로 차량번호를 조회했다. 그리고는 "어디에 사느냐. 운전자는 어디에 있느냐. 언제부터 여기에 서 있었느냐." 등의 질문을 퍼부었다.

여전히 나를 마약중독자로 취급하는 것에 당황하여 "나는 전화 걸러 간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을 따름이다. 나는 마약 중독자가 아니다. 나는 Columbia 법대를 다니는 학생이며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순경은 내 말을 들은 채 만 채 내 자세를 해제시켜 주기는커녕 목석처럼 같은 질문만 다시 반복했다. 그리고 더욱 나를 의심하는 눈치다. 쉽게 상황이 끝날 것 같지 않아 마음은 더욱 초조해졌다. 어떻게 의심을 푸나 생각만 가득하지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편안한 자세로 돌아와 학생증을 제시하고 경관이 요구하는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했는데도 의심하는 태도는 여전하다.

그러던 중 전화 걸러 간 친구가 돌아와 벌어진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으로 경관에 말한다. 그의 첫마디는 "나는 이 차의 운전자이고 이 사람은 내 친구이다." 였다. 그리고는 경관의 질문을 기다렸다. 경관은 "언제 이 장소를 떠났으며 어디 다녀왔다. 그전에는 어디 있었나." 질문을 하고 신분증을 요구했다. 순경의 질문에 꼬박꼬박 순서대로 답하고 난 후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우리는 정직한 시민이라고 한다. 그 중에 나는 마약 중독자가 아니

다 라는 말은 없었다. 경관은 이 친구의 말을 듣고 나서는 의심을 품 듯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었다.

내가 어떤 점에서 잘못 처세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경관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먼저 나를 변호하기 위해 몇 마디 지껄인 것이 경관의 의심을 산 것이다.

미국에서 경관을 만났을 때 또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할 때 등 누군가에 의해 심사 당하는 위치에 있을 때 조심할 일이 있다. 상대방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선 충실히 하고 그 다음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순서를 밟아야 한다. 그래야 빨리 끝나고 의심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정상인과 다른 행태로 비추어져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심사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여 같은 질문만 하루에 수백 건을 하기 때문에 답변의 내용과 억양을 보면 금방 상대를 파악한다. 그런데 여기서 정상인들의 반응과 다른 반응을 보이면 의심이 풀릴 때까지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미국에서 정상인의 반응은 상대의 질문에 답하고 나서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관이 과속하는 시장 차를 정차시키고 질문을 던질 때 그 대답을 충실히 한 후 자신이 시장이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 '지금 시속 몇 마일로 달렸느냐?' 라는 경관의 질문에 '나는 시장이다.' 라고 바로 나오면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문화에서는 상대방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양해가 된다. 심지어는 두 사람이 서로 동시에 말하는 경우도 있다. 뉴욕 시에 출장 오면서 공항의 입국 심사에서 삼십 분을 보낸 기자가 아직도 화가 안 풀린 목소리로 "내가 신문기자라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했는데도 어디서 묵느냐고 묻고 호텔 예약을 조회하는 등 까다롭게 굴어 혼이 났다. 미국의 입국 심사가 왜 이리 까다롭냐. 미국에는 이상한 놈들도 많다."고 계속 투덜댔다.

그는 심사원의 질문에 차례로 답하지 않고 "나는 신문기자이다." 라고 묻지 않은 말을 먼저 해서 의심을 샀던 것이다. 단지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다. 일단 의심받았기 때문에 계속 질문이 이어졌고 그래서 삼십 분을 허비한 경우다. 자신이 기자라고 하면 빨리 통과되리라 오산하고 오히려 흑을 붙인 셈이다.

미국식으로 적응했던 나는 청사 앞에서 경관의 질문에 꼬박꼬박 답하고 나서 나중에 신분을 밝혔더니 오히려 의심을 받게 되었다. 의심을 받지 않는 정상인의 반응 순서가 그 나라의 문화 풍토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 있다. 권위주의 풍토에서는 자신이 권세나 돈이 있다는 것을 일단 내세워야 대접받고 민주적인 풍토에서는 내세워 봤자 그것 자체로서 큰 득이 없는 것이다.

**제4장**  
**가자, Law School로!**

## 국제변호사가 꿈이라는데...

우리 나라에 갓 귀국하여 추운 겨울의 한 때를 보내던 중 TV인터뷰에서 각 대학 수석 합격자의 장래 포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장래 꿈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은 대답은 "국제 변호사가 되어 통상 분야에서 우리 나라 국익에 기여하고 싶다." 이다.

'아하. 최근 우루과이 라운드의 흥역을 치르면서 매스컴의 대대적인 보도로 국제 통상 분야의 전문 법률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알게 되고 이런 분야에 진출할 젊은 일꾼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바람직하고 당연한 현상이다. 내가 미국 유학 길에 오를 이삼년 전만 해도 이런 필요성이 인식되지 않을 때였어. 격세지감이리라.' 혼자 되뇌었다.

공무원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직장에서의 기여도 및 토폴 점수 등을 감안한 경쟁을 거쳐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국비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해외 파견 훈련의 일환으로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시행 초기에 국가 예산의 낭비라는 비난이 일소되고 이제는 공무원 사회에서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열성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내가 국비 유학의 자격을 얻어 떠날 때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법을 전공하였으니 미국에 가서 미국의 법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으나 직장 동료, 선배, 상사 할 것 없이 고개를 젓는다. 전례가 없었을 뿐 아니라 행정공무원이 왜 법을 전공하려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처럼 행정학이나 경제학이 무난하지 않느냐 라는 취지의 충고가 무시 못할 압력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전례를 깨고 나아간다는 것은 경직된 사회일수록 마찰을 겪기 마련이다. 나는 2년 반의 소중한 기회를 가지면서 숲을 헤쳐 나아간다는 기분으로 시작과 끝을 지냈다.

나는 오래 전부터 조그만 꿈을 키워 왔다. 대학원 때 두 달 여 가량 영국과 유럽 일대를 구경할 기회가 있었다. 새로운 것을 접할 때마다 '몇 년 일찍 이런 것을 보았더라면 내 인생의 진로가 바뀌었을 텐데. 이렇게 세상은 넓고 그 넓음 만큼 생각도 많구나.' 라고 좁은 울타리 속에 살았던 내 자신을 절감했다.

우리 나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리운 부모님과 동생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한편으로 '언젠가 기회를 만들어 더 넓은 세상을 느끼고 알아야지.' 하며 내 자신을 타일렀다. 그리고 마음속에 자리잡은 이 꿈은 바쁜 직장 생활에 쫓기면서 나도 모르게 저 아래로 묻혀지고 있었다.

## 유학을 부추킨 공포의 '도로점용료 조정건'

내가 사무실에서 하던 일은 각 부처의 이해관계의 다툼을 조정하는 일이다. 하나의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 각 부처가 서로 다른 여러 방안을 제시하면 국무총리의 중재와 결정으로 조정된 하나의 방안으로 국정의 방향이 잡혀진다.

조정이 필요한 안건이 국무총리실에 상정되면 실무자는 각 부처의 입장과 논리를 충분히 검토한 후 조정안을 만든다. 그 조정안은 중간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정부의 최종안으로 시행하게 된다.

단지 부처간의 시각 차이나 의사 전달 과정의 혼선 때문에 부처간에 협의가 안되는 경우는 조정하기가 간단하다. 그러나 배후에 이익 집단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각 부처가 관련 이익 집단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경우는 간단하지 않다. 팔이 안으로 구부러질 수밖에 없듯이 관련 이익 집단의 입장을 보다 잘 반영시키려는 각 부처의 논리 전개는 상세하고 치밀하여 쉽게 상식에 의한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어려운 조정건을 만나서 전문성이 달리면 부처간 역학 관계에 의해 힘센 부처의 손을 들어 줘야 하는 한계에 부딪히곤 한다. 전문성이 달리는 조정지는 무용지물이 되고 국정은 '지금 당장' 힘센 자들의 논리에 따라 흐르는 방향키 없는 돛단배가 되고 만다.

필자의 꿈을 되살린 것은 이런 와중에 일년 반 이상 끌었던 '도로점용료 조정건'이다. 많은 부처와 공사 그리고 모든 지방자치 단체가 관련되어 있고 30조 이상의 거액이 걸려 있어 누구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일년 반 이상을 치열한 씨름으로 보냈다. 그래서 녹초가 된 수십 명의 관련 실무자들이 최종안이 확정되던 날 승부에 관계 없이 모두 환호성을 지른 공포의 조정건이었다.

이 조정건은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대두되는 문제의 신호탄이었다. 신호탄치고는 그 무게가 가볍지 않아 날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터질 판이었다. 도로점용료란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지불하는 사용료이다. 그리고 그 징수권의 모체가 되는 도로관리권은 중앙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권한을 임시적으로 중앙 정부의 내무부가 행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무부와 체신부, 동력자원부 간에 맺은 협정이 지방자치 단체에 그대로 효력을 발휘했다. 그 협정 내용은 이러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주와 지하 전기선 도관, 철탑 등을, 그리고 한국통신공사는 공중전화 박스, 지하 전화선 도관 등을, 가스공사는 지하가스관 등이 점용하는 도로를 무료 사용한다. 그러나 도로개설시 관련 시설의 이전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해야 할 그 이설공사비는 관련 공사가 대신 부담한다.

이런 상계 방식은 지가가 높지 않아 도로점용료가 이설공사비와 거의 비슷한데다 공공기관간 같은 식구라는 인식에서 별 문제없이 행정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간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면제되던 도로점용료가 이설공사비 부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져 그 불균형이 심해 졌다.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는 원래대로 자기들이 이설공사비를 부담하겠으니 공사들은 도로점용료를 내라며 들고 일어났다.

넬건 내고 받을 건 받겠다는 것이다. 각 공사들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현 기준표대로 도로점용료를 낸다면 그 액수가 어렵잡아 도합 30조 이상이 된다. 이것은 지방자치 단체의 부족한 재정자금을 매꾸기에 군침 도는 막대한 액수인지라 시의회는 지난 협정의 무효를 선언하고 그 돈을 받아 내지 못하는 단체장에게 직무유기라고 호

통 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지방화 시대의 열기를 품고 있었다.

서울시가 선봉이 되어 공사들의 목을 죄기 시작했고 다른 지방자치 단체도 그 뒤를 따라 움직일 태세이다. 그 액수가 엄청 나 이를 부담하면 공사들은 다 쓰러진다는 주장을 펴며 체신부, 동자부는 난색을 표한다. 이러한 싸움을 정리해 줄 모범인 도로관리법을 관장하는 건설부는 마침내 두 손을 들고 국무총리실에 이 건을 상정했다.

이 때부터 내 책상은 '도로점용료 조정건'에 관한 파일로 북새통이 되고 그 지리한 일년 반의 시간을 이 건과 싸워야 했다. 이것은 지방화 시대가 열리면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권한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작의 한 부분으로 관련 법을 전부 개정해야 하는 방대한 작업의 일부이다.

나는 이런 새로운 상황에 접해 던져지는 문제에 관해 답할 만큼의 충분한 전문성이 없음을 아쉬워하며 우리보다 먼저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선진국에서 해답을 모색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각 관련 부처와 서울시, 그리고 공사들의 실무진에게 미국 입법례에 관한 자료 조사를 요청했다.

일본이나 유럽 제국보다 개방적인 미국의 실례가 우리 실정에 보다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요구한 자료 조사 결과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두 달 남짓한 시간이 흐른 뒤였다. 그러나 놀라 왔다. 똑같은 미국의 실례가 조사 내용을 보내 온 기관의 수만큼 종류가 달랐다. 각 기관의 이해가 첨예한 만큼 자기 주장에 가깝도록 조금씩 가공한 것이 그 기관의 수만큼 많은 미국을 탄생시킨 것이다.

나는 미국법, 소위 커먼 로 common law 라 불리는 분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그들이 얼마만큼 가공했으며 그 실체가 무엇인지조차 가려낼 수 없었다. '내가 common law의 기본 골격과 원칙 등을 알고 있으면 직접 미국의 관련법을 조사해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문제에 부딪히면 한숨만 내쉬며 안타까와 하지 않을까.

그리고 먼 나라 얘기로 여겼던 우루과이 라운드가 우리의 목을 죄기 시작하지 않는가. 하지만 이를 소화할 법률 전문가가 우리 행정부내에 없다. 여기에 관심을 두는 누군가가 있어야 할텐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묻혀 있던 옛날의 결심이 다시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넓은 세상을 느끼고 배워야지.' 이래서 마침내 미국의 법을 공부해야겠다는 목표가 굳어지고 유학의 길로 들어서서 길목으로 한 걸음씩 발을 옮기게 되었다.

그런데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니 겨우 이삼년 사이에 세계화의 열기가 온나라를 뒤덮고 있었다. 행정부내에서도 미국 로스쿨의 진학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조언을 구하는 후배 공무원들과의 접촉 기회가 많아졌다.

그들은 국제관계 및 통상협상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공무원으로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중심으로 80년대 말 내지 90년대 초반의 통상현안을 다루면서 영미법 및 국제법에 대한 지식이 절실히 필요함을 몸으로 절감한 젊은 엘리트 공무원들이다.

그들과 만난 자리에서 "TV에서 인터뷰한 수석 합격자들의 장래 포부가 한결같이 국제 변호사가 된다는 것인데 무슨 일이 있었나?" 물었다. "대학생들 사이에 '가자! Law School로!' 라는 붐이 이삼년 전부터 일기 시작하여 지금 로스쿨에 대한 관심의 열기가 화끈합니다." 라고 답한다.

그리고는 조금 근심스런 표정으로 "그런데 형, 국제 변호사라는 게 있는 거유?" 묻는다. "세계의 국경을 넘나들면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의미의 국제 변호사란 없을 걸" "그런데 미래의 젊은 새싹들 사이에 '국제 변호사'란 정체 불명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더구나 '국제 변호사'만 되면 부와 명예와 전문성이 통째로 굴러들어 온다는 막연한 꿈을 키우고 있다. 이것을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않는가?" 라며 자기들 뿐만 아니라 law school 진학의 꿈을 키우는 젊은이들에게도 지침이 되는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그래서 미래의 한국을 책임질 젊은이들에게 조그만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의 한 부분을 law school 진학에 관한 조언으로 할애하기로 마음먹었다.

## 우리 나라 법률시장의 과제, 개방과 전문화

먼저 국제 변호사라는 용어가 어째서 국제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를 총칭하는 일반명사로 굳어졌는지 살펴 보면서 우리 나라 법률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둘러 보자. 현실을 바로 알고 진로를 정하면 백전백승이다.

우리 나라의 변호사 배출 체제는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폐쇄적인 편에 속한다. 80년 대 들어 사법시험 합격자의 증가로 한층 완화되긴 했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가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게다가 한정된 층만이 변호사가 될 수 있어 질적으로는 더욱 그렇다.

우리 나라 변호사의 대다수가 대학 시절에 이른바 문과계 학과를 전공했고 그 중의 절대다수는 아예 법과목만을 중심으로 공부한 분들이다. 점점 그 중요성이 더해 가는 공학분야, 의학분야, 생물·화학 등 이학분야의 전문가가 우리 나라에서 변호사가 되는 길은 현재로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변호사가 되는 문이 좁고 일정한 방향으로만 열려 있는 것이다. 최근 장안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혁의 초점도 바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방과 전문화의 추세를 사법제도에 반영시키지는 것이다.

미국 생활에서 그들 사법제도의 몇가지 좋은 면을 느꼈다.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교교육 제도와 법률전문가 서비스 제도의 '개방성'과 '전문성'이다.

미국의 법대는 Law School로 불리는데 대체로 JD(법학 박사과정; 엄격히 우리나라의 박사과정에 해당되는 과정은 SJD 또는 JSD로 불림) 프로그램과 LLM(법학 석사과정) 프로그램으로 대별된다.

JD 프로그램은 3년 과정으로서 전공 분야에 관계없이 어떤 분야의 학사자격이든 있으면 입학할 수 있고 LLM 프로그램은 1년 과정으로서 법학 학사자격이 있어야 입학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부분의 변호사는 JD 프로그램을 밟아 변호사가 된다. LLM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미국인은 이미 JD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이 자기 전공분야를 보충하기 위해 거치는 경우이다.

그래서 LLM 프로그램은 미국인이 아닌 세계 각 나라에서 온 변호사나 판사, 검사, 행정공무원 등이 주축을 이룬다. 따라서 석사와 박사 명칭의 구별은 다른 학과에 비해 큰 의미가 없다.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유명 대학일수록 두 과정에 난이도의 차이는 없고 다만 JD과정을 입학하기 위해서는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 법대 대학원 입학 시험)의 부담이 있다.

이렇게 전문 대학원으로 법학 교육을 하는 나라는 많지 않은데 미국은 자신들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사 자격이 조건이므로 대학을 졸업하고 한 두 해 직장 생활의 경험을 가지거나 MBA 등 석사과정을 거치고 법대 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경제학, 정치학, 경영학 등 사회 인문과학의 전공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그 밖에 의학, 공학, 이학, 예능계열의 전공자들도 있다.

법대에 입학하여 1년간 헌법, 계약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법 등 기본법을 공부하고 2년째는 자신이 전문으로 다룰 영역의 교과목에 집중한다. 학생들은 대부분 입학하기 전 몇 년간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미 자기가 전문으로 할 영역에 대한 그림을 희미하게나마 그려둔 상태이다.

그래서 법 전반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서 자기가 목표로 하는 전문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공부가 시작되는 셈이다. 방학 동안에는 변호사 사무소(law firm)에서 아르바이트로 실무를 익히면서 자신이 특화하려는 전공법률 영역에 어떤 지식이 추가적으로 필요한가를 탐색한다.

졸업과 함께 자신의 특화 영역을 마무리하면서 변호사 자격시험(Bar Exam)을 통과하고 변호사 사무소(law firm)에 취직한다. 마침내 유명 law firm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의 실무를 닦고 그 분야 전문변호사로 정착한다. 그 이

후로는 그 law firm의 partner가 될 꿈을 불태우며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밤낮없이 온 힘을 다해 일한다.

이것이 미국의 변호사가 가는 길의 일레이다. 대학의 학부과정에서 한 분야의 전공을 하고 다시 법에 관한 일반 반가로서 출발해서 졸업과 함께 법의 일정 분야의 전문가로 입문한다. 전문가에서 일반가 그리고 다시 전문가로, 마치 몇 번의 담금질을 거쳐 단단한 강철이 되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또 한 분야의 전문성이 고도로 축적된 사람은 고위 공무원으로 발탁되어 정부에서 일할 기회를 갖기도 한다. 반대로 고위 공무원은 다시 law firm이나 대학 교수로 돌아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의 깊이를 더한다. 특수 분야의 고급전문가는 경쟁이 보다 치열하고 상하 관계가 덜 엄격한 민간 부문과 학계에서 양성되고 국가는 이런 전문가를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 전문가가 민간부문과 정부 그리고 학계를 넘나들면서 그 전문성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는 것이 '일 중심'의 '개방적'인 사회 시스템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의 하나라고 느꼈다. 숲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아는 나무를 집중적으로 돌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정부와 민간 부문간에 장벽이 있어서 '전문화'에 한계가 있다. 한 조직 내에서도 자신의 전공 분야를 특화하기가 쉽지 않다. 그나마 한 곳에서 쌓은 전문성이 순환보직 인사로 퇴색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문가는 전문성을 축으로 해서 사회 전반을 도는 반면 우리는 전문성이라는 축이 없이 한 조직내를 도는 것이다.

이래서 숲의 일부를 보지만 나무를 알 수 없는 아마추어 상식인을 벗어 날 수 없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아직은 모든 분야에서 프로를 필요로 할 정도로 '일의 전문화'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은 선진 제국의 전문가 사회로 되기까지는 '사람 중심의 문화'인 우리 사회가 '일 중심의 문화'의 장점을 얼마큼 소화해서 접목하는지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아무튼 한계가 있지만 우리 나라의 법률 서비스도 전문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의료계가 이미 전공 분야에 따라 내과, 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등으로 분화 특화 되듯이 법률 전문가도 법과 거래관계의 종류에 따라 그 전공 분야를 특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특화 과정에 절대적으로 공급이 모자라는 분야가 바로 국제 상거래의 분쟁 및 법률관계를 다루는 전문분야이다. 경제 성장의 지속으로 무역 규모가 커지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서 국제 거래관계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요는 우리 나라 합동 법률사무소(law firm의 한국식 명칭)의 주축이 되는 변호사가 담당해 왔다.

그들은 국내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주로 미국의 law school에서 9개월의 LL.M.(Master of Laws; 법학석사)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의 law firm 등에서 1년 내외의 인턴쉽을 마친 분들이다. 이렇게 영어 실력과 국제관계법 지식을 가진 국내의 일류 변호사는 주가를 올리며 전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분들을 모델로 하여 '국제 변호사'란 말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눈을 돌려 밖을 보자. 세계는 놀랍게 변하고 있다.

금년 1월 1일부터는 종래 국가와 국가간, 외국 기업과 우리 기업간의 개별적 법률 분쟁이 세계 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라는 국제 기구를 통해서 해결된다. WTO가 관장하는 영역은 아주 넓어서 제조업 분야는 물론이고 건설, 금융, 유통, 법률 등의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보조금과 반덤핑 조치 등 국제간 거래의 거의 모

든 분야를 포괄한다.

자유무역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환경 규제 조치도 여기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WTO 시대라는 거대한 물결이 기회와 도전의 두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 왔다.

따라서 통상 분야의 파도에 대응하여 통상 업무에 전문화된 인력의 수요가 더욱 늘어 날 것이다. 통상 분야 관여한 공무원들이 이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미국의 유명 로 스쿨에 진학하는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우리의 법률 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변호사와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아직은 법률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은 필연적인 추세이다. 물론 법률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문제는 앞으로 5년 정도 이후에나 최종 결론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더 빨리 결론이 날 가능성도 크다. 외부의 개방 압력이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는 우리 사회가 WTO시대의 파도를 극복하려면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국내 사법 체제를 세계화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미국 law school을 마치고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돌아 온다 해도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는 한 자신의 이름으로 변호사 활동은 할 수 없다. 국내의 유명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법률자문가로서의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국내에서 전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위 현재의 일류 '국제 변호사'와 함께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 대학마다 국제법, 통상법 등과 관련된 학과와 강좌가 늘어 날 것이니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을 위한 교수의 길은 열려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 먼저,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

필자가 92년 7월 유학 길에 오를 때만 해도 미국의 로스쿨이라는 것이 많은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국내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판검사들과 변호사들이 꾸준히 로스쿨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 왔으나 이미 상당 수준의 전문성과 직업이 보장된 분들이 추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태려는 의미였다.

반면 요즈음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로스쿨 진학을 계획하거나, 언론계나 일반 기업체 근무중에 혹은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 준비를 하다가 로스쿨 유학으로 진로를 바꾸는 경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로스쿨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겁다 못해 젊은이들 사이에 '로스쿨 붐'이 일어난 것이다.

기왕에 '로스쿨 붐'이라는 이름의 열차에 탑승할 생각이라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요령을 사전에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뚜렷한 목적 의식과 정확한 정보 없이 장미빛 꿈만 가지고 달려들었다 겪는 무의미한 시행착오와 낭패의 위험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대학지원 단계에서부터 애로를 겪을 수 있다.

로스쿨 유학을 결심하기 전에 자신에게 던져야 할 필수적인 질문이 있다. "나의 인생 설계가 일관되고 구체적인가." 거창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다.

국내 대학에 진학할 때 접하는 학과 결정처럼 '로스쿨이 좋다니까 일단 가 보고 구체적인 계획은 차차 생각해 보겠다.' 는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좋은 법과대학의 입학 허가를 얻어내는 일조차 힘들 뿐만 아니라 힘든 학업과 정과 외국 생활을 견뎌 내고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을 발휘하기 힘들다.

"내가 어떤 영역에서 활동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로스쿨에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어떤 분야의 어떤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겠다는 청사진을 막연하게나마 그릴 수 있고 학교 선택과 입학 허가에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래야 우리 나라에 돌아 와 어려움 없이 활동 영역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을 마치고 오면 성공의 보증수표를 가지는 것이니까." 라는 막연한 답변에 머무는 자는 시간을 두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지식이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익혀야 자기라는 상품이 팔리고 그래야 행복하다. 좋아하지도 않고 사회가 필요로 하지 않는 지식을 익혀 돌아오면 후회할 일만 남는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내에서 조금이라도 법적 문제를 다루는 분야에서 경험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반드시 법조계의 경력뿐만 아니라 공공 행정분야, 사기업, 금융기관 등 적절한 직장에서 법적인 사항이 관련 되는 경험이나 관심을 키울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입학 허가를 얻는데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물론 학부 졸업 후 직장 경험이 없어도 얼마든지 로스쿨 진학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를테면 학점, 교수 추천서, 토플이나 LSAT 점수 등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양호한 조건이 필요하다. 대륙법 국가에서 법을 공부했거나 또는 아예 법을 공부하지도 않은 사람이 느닷없이 미국의 로스쿨에 진학하겠다는 의도를 입학사정자에게 설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 자기소개서에 인상적인 내용을 담으려해도 쓸거리가 마땅치 않아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때 학부 시절의 국제법 또는 비교법 분야에 대한 동아리 활동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든지 학부 졸업 후 직장 경

협에서 미국법의 어떤 부분을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든지 등등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하면 입학사정 담당자를 인상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 이점은 뒤에 다시 설명될 것이다.

## 유학 지망생의 마음과 입학 사정자의 마음 - 숫자는 숫자일 뿐!

### 유학 지망생의 마음가짐

성공적인 유학을 위해 유학 지망생의 마음을 현실에 맞게 갖추는 것과 입학사정 담당자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 전의 일이다. 한 로스쿨 LLM과정을 지원하는 사람이 입학 허가서를 받았다. 버클리대 UC Berkeley, 조지 워싱턴대 Georgetown, 듀크대 Duke, 미시간대 Michigan, 펜실바니아대 University of Pennsylvania 등에서이다.

학교 선택을 위해서 미국 로스쿨 순위표를 열심히 뒤적이면서 최종 결심을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다. 학교의 지명도를 표시한 순위표의 학교 서열이 잡지마다 달라 혼란을 가져 온 것이다.

그 유학 지망생은 국내 명문 법대 학부를 졸업한 후 바로 LLM과정에 진학하는 인재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 - 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과목을 집중 공부할 것이며 그리고 돌아와 어떤 분야에서 활동할 것인가 - 을 해 보지 않았다. 그래서 잡지마다 서로 다른 학교 서열에 얽매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지명도는 주관적이라 조사 대상이 다르면 그 결과도 다르기 마련이어서 똑같은 순위표를 기대할 수 없다. 상위 10위 권 학교, 그 다음 20내지 30위 권 학교를 구분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한 지명도를 조사하는 일이다. 특히 짧은 LLM 과정을 지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집중적으로 공부할 과목을 미리 정하지 않고 그때 가서 정하려 하면 낭패이다.

나의 견해로는 만일 그가 특별히 GATT 및 WTO협정을 중심으로 통상법을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당대 최고의 GATT법 권위자인 존 잭슨(John Jackson)교수가 있는 Michigan대학을 선택했을 것이고, 통상 협상 전반에 대한 현실적 감각까지 폭넓게 경험하고 싶다면 Georgetown대를 선택했을 것이다. 하다못해 굳이 Ivy League 대학을 평소부터 희망해 왔다면 U-Penn을 선택할 일이고, 캘리포니아 법을 깊이 공부해 그 곳의 변호사 자격을 얻어 현지 및 국내 기업의 고문 변호사나 경영자가 되고 싶다면 Berkeley를 선택하는 것이 무난했을 것이다.

자신의 취향과 공부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커리큘럼과 질 좋은 교수를 갖춘 학교를 가면 된다. 유명 대학에서 유명 교수의 강의를 듣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좋다. 전문성을 얻을 수 있어 좋고 그만큼 국내외로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어 좋다. 그러나 그만큼 어려움을 각오해야 한다. 쉬운 대학을 택해서 무난하게 보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만큼 활동 범위가 좁아 돌아와 직장을 구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적성과 취향, 교과과정, 교수진을 검토하고 그 다음 학교 부근의 생활 여건 및 분위기를 고려한다. 이렇듯 순위표의 숫자는 숫자일 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입학 사정자의 마음

우리 나라 유학 지망생들 사이에 잘못된 미신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다. 입학 허가를 받는데 TOEFL점수나 LSAT점수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로스쿨의 석사과정격인 LLM이나 그 비슷한 과정인 MCL, MLI 등은 경영학의 GMAT나 일반 대학원의 GRE와 같은 측정시험인 LSAT점수를 요구하지 않고 TOEFL점수만을 요구한다.

그래서인지 LLM 입학 허가의 핵심은 TOEFL점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팽배해 있다. LAST 점수는 사정 판단에 비교적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TOEFL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TOEFL이란 단지 영어 구사능력

수준에 대한 정보일 뿐이다.

미국의 LLM과정에서 중요한 입학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원자의 TOEFL점수가 아니라 『당 LLM과정이 이 지원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인지 즉, 지원자가 원하는 내용의 공부 기회를 당해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지』 『그 지원자가 LLM과정의 여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독특하고 풍부한 경험이나 개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LLM 지원이 지원자의 일관된 인생 진로의 한 부분으로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지』 『이 과정을 소화할 능력이 있는지』 『지원자를 가르친 교수와 지원자와 함께 일했던 상관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등이다.

갑돌이는 TOEFL점수 620점, 을순이는 597점인데 을순이에게 입학 허가가 났다. 이렇게 TOEFL점수가 20점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점수가 더 나쁜 지원자가 입학 허가를 받는 경우는 허다하다. Harvard대학을 지원하는 경우 600점 이상의 TOEFL점수간에는 TOEFL점수가 입학 사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다. 심지어 Harvard대학은 얼마 전부터 MBA과정 입학 사정에서 GMAT성적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로스쿨의 경우도 LAST점수 대별 지원자 및 합격자 수 등 사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우리는 숫자로 표시된 점수가 law school 재학생으로서의 성공을 확실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따라서 TOEFL성적을 우리 나라 식의 옛 학력고사 점수나 지금의 수학 능력시험 점수로 여기고 여기에만 얽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숫자는 숫자일 뿐. 그러면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른바 에세이이다.

요즘에 입학지원 서류로서 어느 학교나 요구하는 이른바 Essay(학교에 따라 personal statement, purpose of study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림) 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 같다. 이것은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일종의 자기 소개서이며 입학이유서이다.

입학 사정 담당자들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며 그들은 이것을 통해 그 지원자의 전체 모습을 그린다. 그러니 사정자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예쁜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알아보자.

『나의 과거는 이렇고 나의 현재는 이렇다.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것인데 당신 학교에서의 공부가 나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가 입학사정 담당자를 설득하는 중요한 기본 골격이다.

『나의 진로가 인생 전체에 걸쳐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 왔으며 당해 학교에서의 공부가 나에게 필요하다.』 는 점이 논리적인 기본 뼈대이다. 그리고 이 뼈대에 구체적인 생생한 경험과 느낌을 예로 들어 살을 붙이면 전체가 물 흐르듯 전개되어 고개가 절로 끄덕여 지는 것이다.

『이 지원자의 목표가 뚜렷하고 능력이 있어 우리 학교 과정을 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우리 학교를 빛낼 수 있겠군.』 이라는 마음을 이끌어 내면 성공이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거나 무조건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그 자랑거리가 이 학교에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 수 없는 식으로 에세이의 내용을 구성했다가는 고려조차 안된 채 거절 통보를 받기 십상이다.

법과 대학원 지원자의 경우라면 ① 왜 로스쿨에서의 공부를 필요로 하는지, ② 로스쿨에 진학하려는 결심에 영향을 준 개인적 경험과 학부 생활에서의 각종 활동(동아리 활동, 사회봉사 활동 등)은 무엇인지, ③ 학부 졸업 후에는 어떤 일(또는 공부)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로스쿨에서의 공부와 연결될 수 있는지, ④ 로스쿨 졸업 후 어

떤 진로를 택할 것이며, ⑤ 이를 위해 어떤 분야나 과목에 주로 관심을 가질 예정인지 등이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으로 '구체적'으로 '간결하고 조리 있게' 정리되면서 '논리적'으로 흘러야 한다.

여기서 '구체적'이란 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활동을 했다.'에서 그치는 것은 무의미하다.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은 '상세함'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나라 지망생에게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자신은 구체적으로 묘사했다고 생각하지만 지원자의 사회 문화를 전혀 모르는 사정 담당자의 머리에는 생생한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고 '막연하고 장황한 서술'에 그칠 자기소개서를 허다하게 보았다. 인상을 남기기는커녕 골치만 아프게 할뿐이다. 이렇게 담당자는 글을 통해 상대방과 만나는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니만큼 지원자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예쁜 모습을 보여 줘야 하는 것이다.

## 두려움 없는 도전으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진학할 학교가 결정되면서 공항에서 가족들과 작별하는 모습을 떠올렸던 생각이 난다. 다시 고국에 돌아 와 law school에서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접했다.

"졸업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졸업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은 항상 나에게 가장 확실한 위안이었다. 끔찍한 좌절과 감쪽한 성취감을 반복하는 사이 어느덧 졸업식이 다가왔다."고 대답했다.

법대가 미국인에게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인에게도 어렵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의 경쟁자들도 어려워하니 내가 어렵다고 느끼더라도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이국 땅에 도착해서 호기심과 생소함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것은 필연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익숙함이 다가오는 것도 필연이다. 그러니 두려움 없는 도전으로 첫걸음을 시작하시라. 언어장벽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장벽을 넘는 쉬운 길을 찾을 수 있다.

필자가 나름대로 미국이란 방대한 사회의 꼬끼리를 더듬은 것은 미국인 나이가 미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만나고 느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국땅에 정착할 때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의 도움은 받는 것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이국땅에서의 동포의 만남을 계기로 그 만남이 계속되고 자신도 모르게 미국인과 친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실수를 경계했다.

어쩌면 유학생생활에서 새로운 부분은 새로운 사람과의 접촉에서 터득된다. 단지 강의실과 도서관만을 왔다 갔다 한다면 영어로 강의를 듣는다는 것 외에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바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미국인과의 접촉을 통해 그들의 생각과 취향을 이해하고 같이 즐거워하면서 문화장벽을 넘는 가운데 얻은 바가 법률책 속의 내용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선택의 여지가 많은 미국에서 그 선택의 여지를 둘러 보려면 미국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정된 만남 속에서 미국내의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미국을 잠깐 관광하러 온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이상을 얻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시대의 도전이다. 미국의 장점을 배우고 우리의 단점을 버려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 우리를 배우러 오는 미국인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너의 유학도 두려움 없는 도전이 되라고"

## 글을 마치며

미국인은 우리와 피부 색깔 뿐만 아니라 알맹이도 완전히 다르다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미국 사회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지만 우물 안 개구리가 코끼리를 더듬은 것이 개인적인 감동과 느낌에서 출발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곳에서 본 느낌을 그대로 옮기려고 노력했지만 미국인의 정서를 우리말로 옮기기란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문화적 장벽을 뛰어 넘기보다 문화적 장벽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이를 옮기려 노력했다.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더라도 그 외국 국민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주 접촉하지 않는 한 늘 동상이몽으로밖에 만날 수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행과 행 사이에 될 수 있으면 많은 메시지를 압축해 실으려 노력했다. 다시 읽으면 행사이어서 새로운 것을 음미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전하려는 메시지가 글 안에 충분히 녹지 못한 것은 문필력의 한계이지만 함께 느끼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영어 단어가 가지는 정서를 그에 꼭 해당되는 한글 단어를 찾아 옮기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서 감정 소통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다.